
본문 요약

I. 설문개요

서울의 중고등학생 600명(중학생 300명, 고등학생 300명)과 그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유효한 설문지는 학생의 경우 총 572개(회수율 : 95.3%)이며 그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49.5%, 50.5%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은 각각 48.9%, 51.1%였다. 학부모의 경우 534명이 응답(회수율 : 89.0%)하였는데, 그중 남자(아버지)는 28.3%, 여자(어머니)는 71.7%를 차지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이미지(image), 청소년 자원봉사의 개념, 필요성, 참여동기 등의 일반적인 이해와 참여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수요기관과 같은 자원봉사 환경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석상 예상 오차의 허용범위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최대 $\pm 4\%$ 수준이다.

청소년 자원봉사 수요기관을 설정한 후 200기관을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설문을 한 결과 90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 내용은 주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일반에 대한 이해와 기관의 자원봉사활동 실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기대 등이었다.

II. 청소년 자원봉사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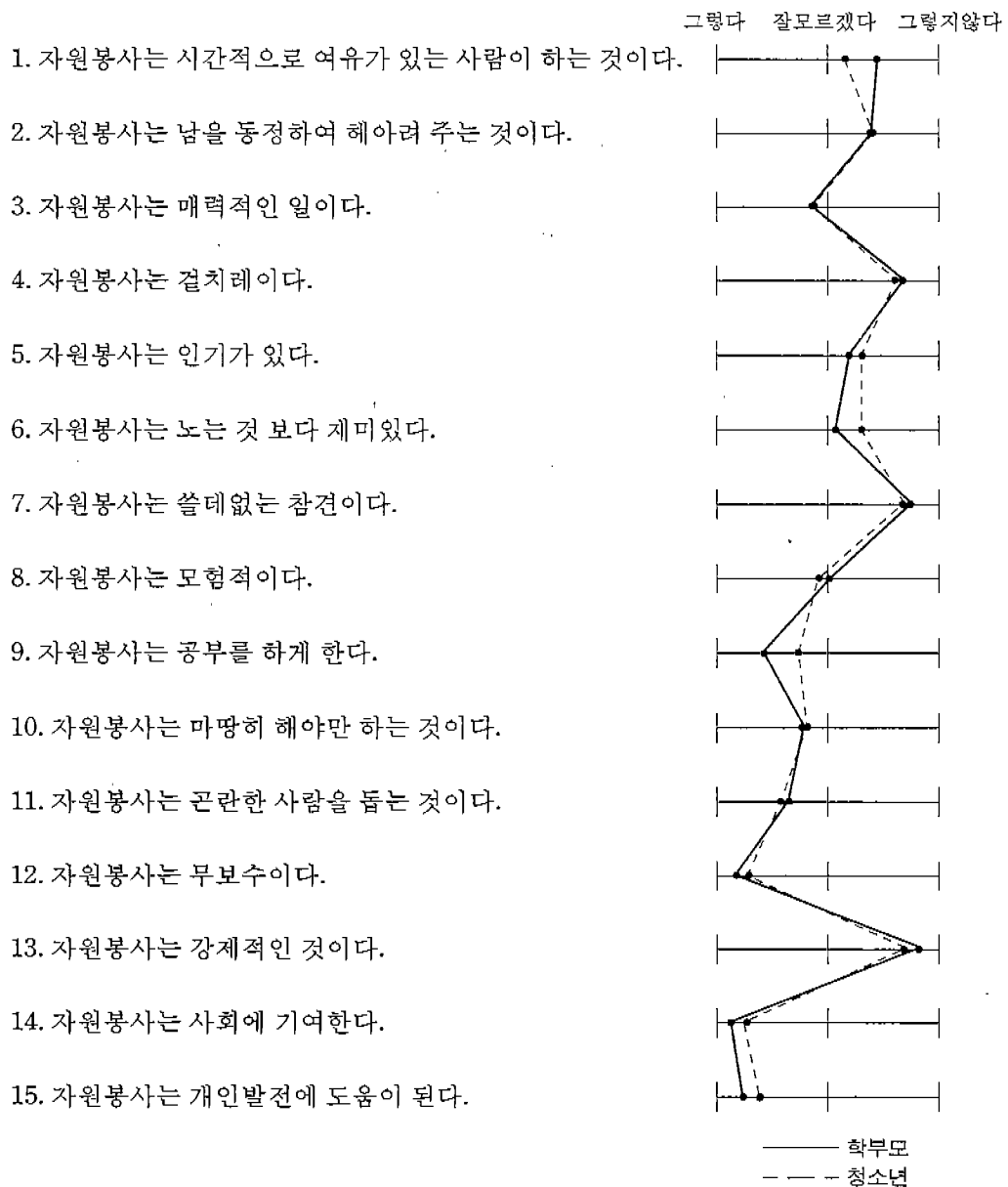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미지

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제시된 이미지 중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하며’(80.5%), ‘무보수이고’(68.5%),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66.5%)는 항목에 긍정적인 지지(그렇다)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원봉사가 ‘쓸데없는 참견이고’(78.8%), ‘강제적이며’(78.2%), ‘겉치레’(68.2%)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그렇지 않다)을 보였다. 자원봉사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54.7%)이거나,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주는 것’(19.8%),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33.5%)이라는 항목에 대해 비교적 낮은 지지도를 보여, 자원봉사활동이 단순한 자선구호 활동 또는 여유시간을 활용하는데 그치는 활동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의 경우에는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하고’(88.5%), ‘개인발전에 도움이 되며’(82.1%), ‘무보수이고’(78.8%), ‘공부를 하게 하는’(66.9%) 활동이라는 항목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자원봉사가 ‘쓸데없는 참견이고’(86.1%), ‘강제적이며’(86.0%), ‘겉치레이고’(78.4%),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주는 것’(62.2%)’이라는데 대

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가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62.2%),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61.9%)’이라는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청소년에 비해 자원봉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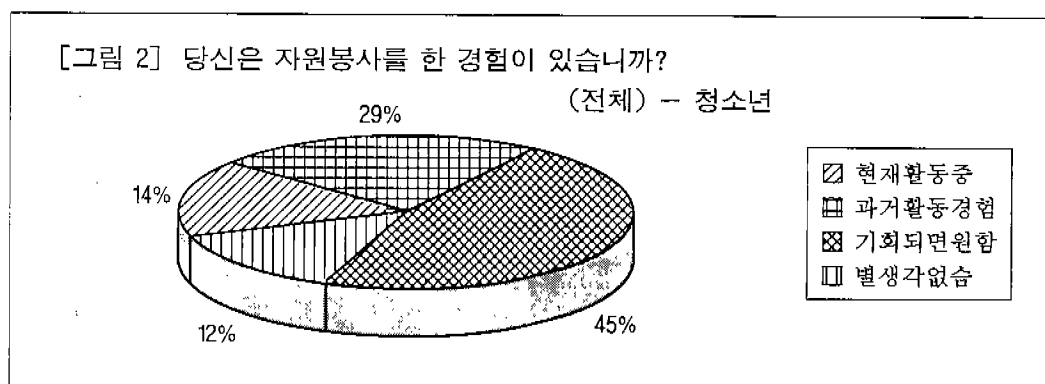
[그림 1] 자원봉사 이미지 파일



1993년 일본에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에 대한 이미지 중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은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98.3%), ‘사회에 기여하는 것’(93.0%), ‘마땅히 해야 하는 것’(88.4%)이며, 그렇지 않다네 더 높은 비율이 나타난 것은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89.9%), ‘강제적인 것이다’(89.1%), ‘인기가 있다’(87.7%), ‘쓸데없는 참견이다’(84.2%), ‘겉치레이다’(83.8%)로서 부정적인 이미지에는 거의 비슷한 인식을 보이거나 긍정적인 인식에 있어 일본의 경우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과 마땅히 해야 하는 것 등의 공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미지에 대한 지지율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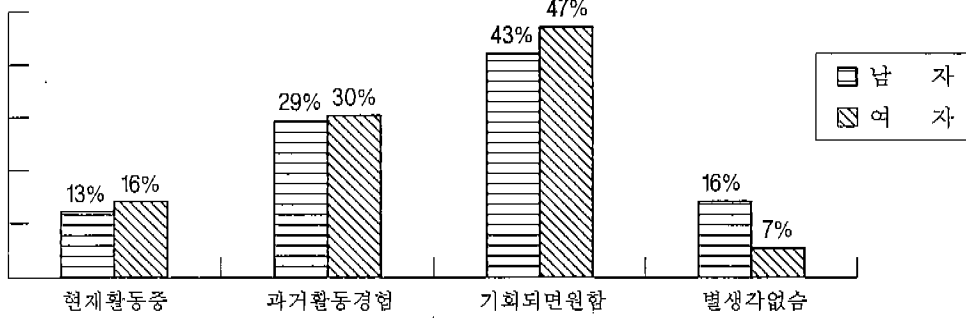
2.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 : 청소년 중 전체의 43.5%는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현재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14.4%,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 사람 29.1%), 44.8%는 현재까지 자원봉사 경험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11.7%만이 전혀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하여 별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비율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많고, 중학생의 경우는 4명 중 1명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반응하여, 고등학생(3.5%)에 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현재 중학생들이 연간 4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38.5%가 ‘앞으로 성적이나 취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4.2%가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라고 응답하여 자신에게 주어질 혜택을 고려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청소년이 3명 중 1명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학생의 평균 2명 중 1명 꼴은 ‘성적이나 취업시 점수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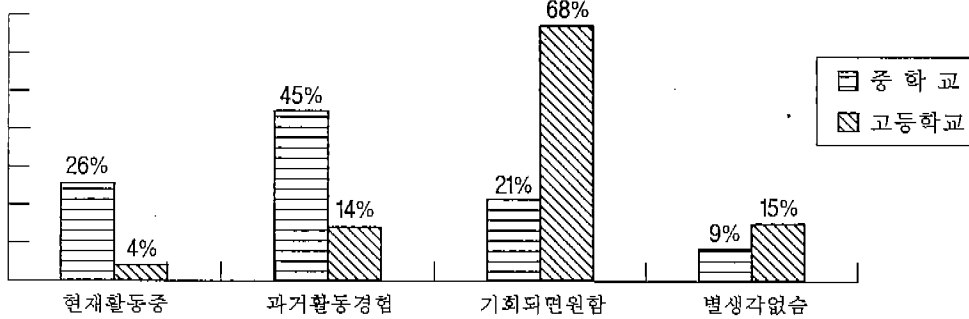
[그림 3] 당신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청소년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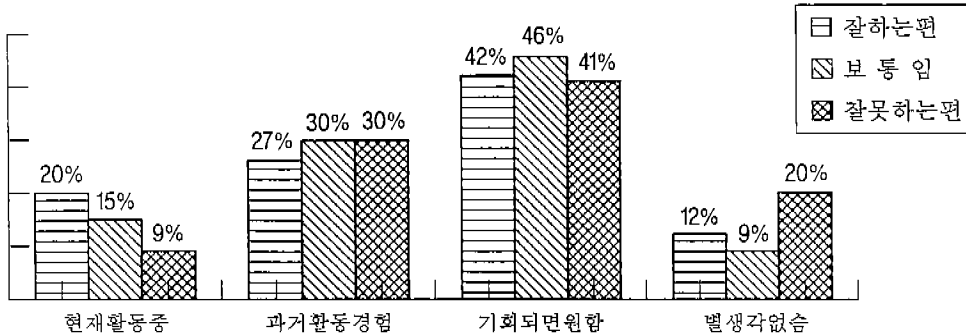
[그림 4] 당신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청소년 - 학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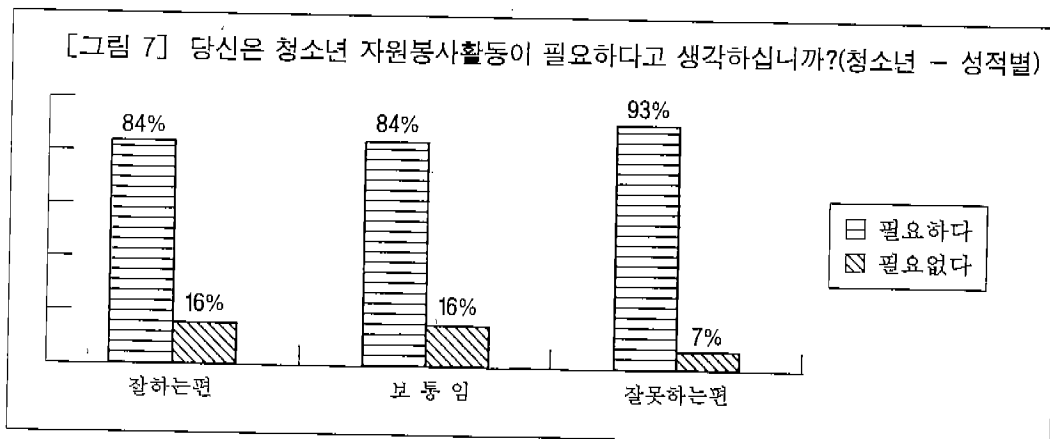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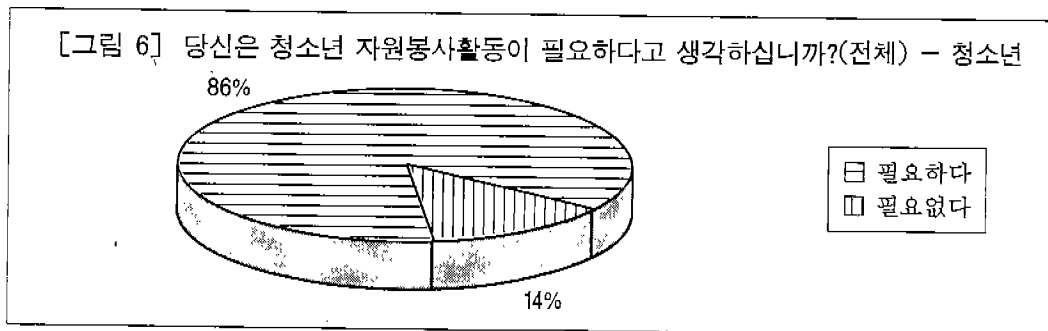
[그림 5] 당신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청소년 - 성적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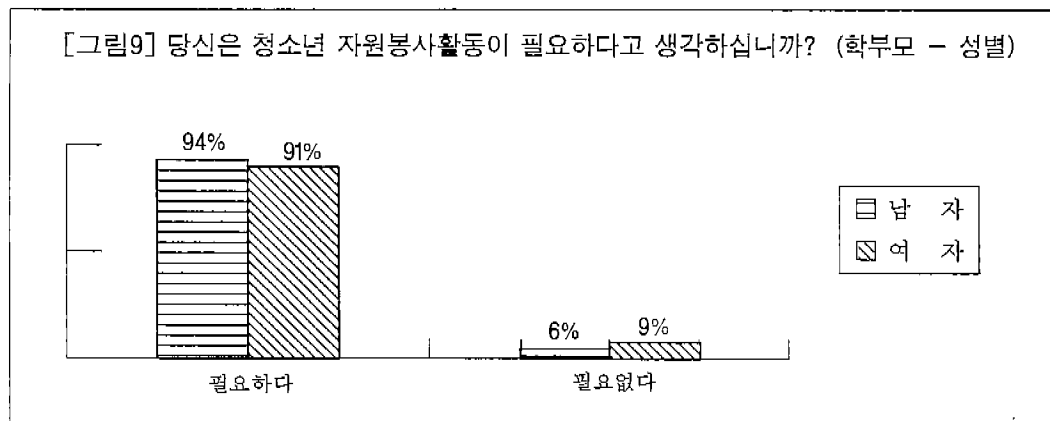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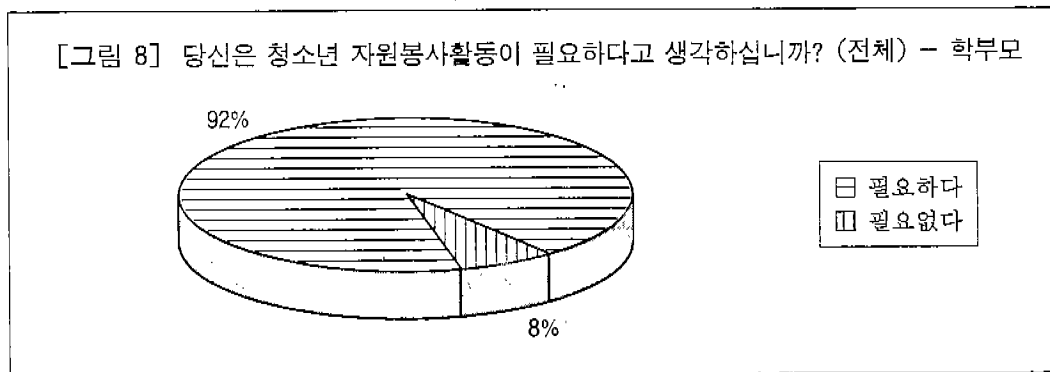


1994년 7월에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5.6%,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7.7%로서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23.3%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62.1%, 전혀 자원봉사에 관심 없는 청소년이 14.1%로서 본 연구 시점에서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일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현재하고 있거나(6.8%) 과거에 한 경험이 있는(35.6%) 중학생은 42.4%이며, 고등학생은 34.0%(6.4%:27.6%)로서 본 연구의 설문 시점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비율에 비해 일본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비율이 훨씬 더 높다.

2) 자원봉사의 필요성 인식 : 청소년의 85.7%는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공부를 잘 하고 집안 형편이 좋을수록 필요성의 인식정도는 낮았다.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36.3%),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20.1%)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은 34.7%가 공부시간 때문에 바빠서 시간여유가 없다고 한 반면, 18.7%는 활동할 장소를 모른다고 하였고, 16.6%는 자원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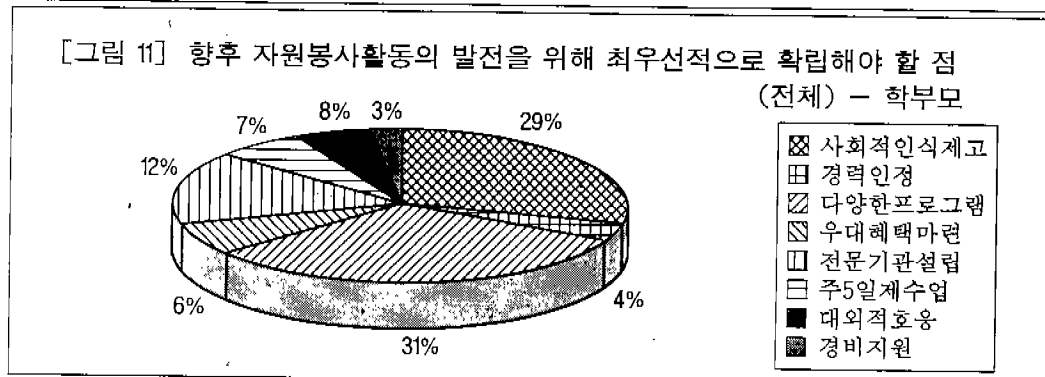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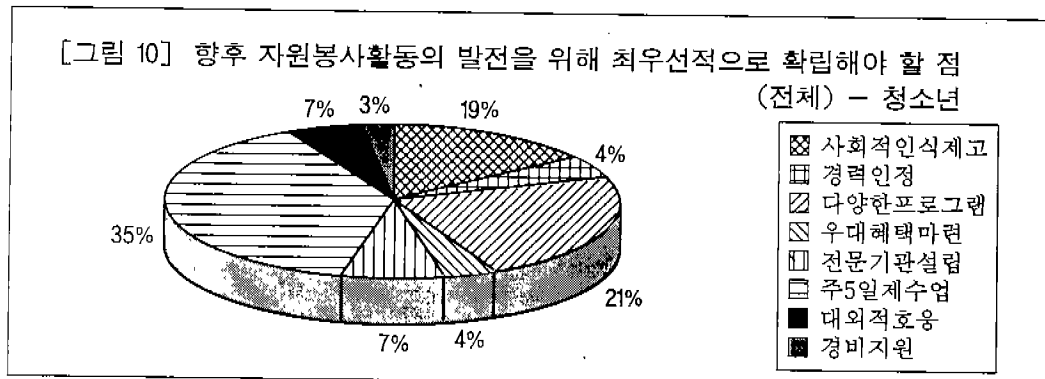


학부모의 경우 91.2%가 청소년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보다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자원봉사가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49.6%), 사회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18.5%)라고 답함으로써,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신의 자녀가 자원봉사를 하기 원하는가에 대해서 84.7%는 원하며, 15.3%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성의 인식정도에 비해 실제 동의하는 비율은 낮았다. 또한 학부모는 공부에 바빠서 시간 여유가 없거나(42.6%)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18.0%)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한다.



1993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중 83.5%가 청소년자원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30.5%), 원만한 대인 관계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25.9%)라고 응답하였고, 학부모도 중 82.4%가 청소년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50.0%),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17.0%)는 점을 들고 있어 본 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

3)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 활동 결과의 반영과 같은 외적 동기보다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더욱 바라고 있다. 청소년의 36.1%가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를 원하며, 21.8%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며, 18.6%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를 지적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31.0%가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 28.8%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 가장 원하고 있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해서는 6.5%의 학부모만이 찬성함으로써 두 집단간에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한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의 설립에는 학부모의 12.4%, 학생의 7.0%가 지지하여 사회적 인식제고와 프로그램의 마련, 시간확보 다음으로 그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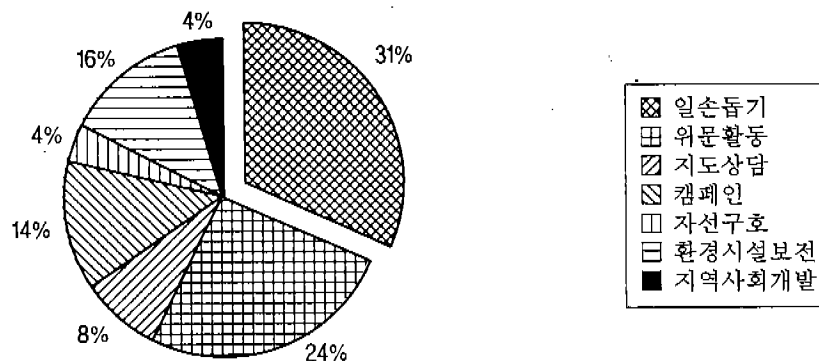


1993년 부산광역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30.5%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24.2%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를, 21.7%가 자원봉사의 시간확보를 위한 주 5일제 수업을 선결요건이라고 생각하며 학부모의 경우는 37.6%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29.3%가 사회의 인식 제고를 요구하고 있어 본 조사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나 준비가 1993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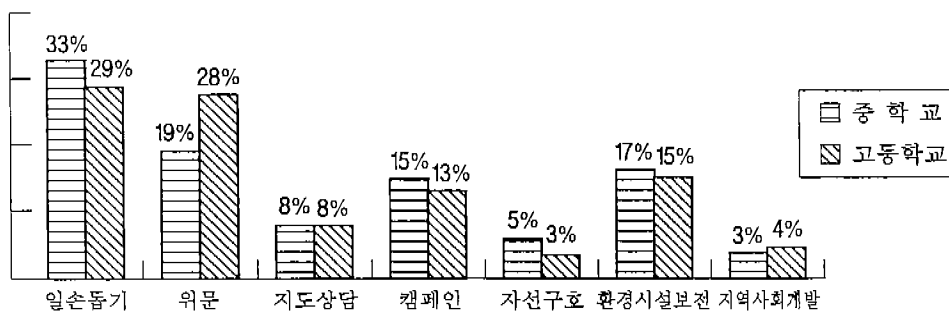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환경

1) 원하는 자원봉사활동 영역 : 청소년들이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 수요기관이나 대상 및 활동내용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자원봉사 활동내용은 각각 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의 '일손돕기활동'(청소년 30.8%, 학부모 24.2%), 고아원 등의 '위문활동'(23.9%, 17.3%), 문화재나 자연보호 등과 같은 '환경·시설보전활동'(16.0%, 16.5%), 각종 '캠페인활동'(13.7%, 15.9%), 교통안전지도 등 '지도·상담활동'(7.9%, 10.7%), 지역사회를 가꾸는 '지역사회 개발활동'(3.9%, 8.8%), 불우 이웃돕기와 같은 '자선·구호활동'(3.7%, 6.6%) 순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다.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복지시설의 방문 등과 같은 자원봉사를 선호하는 데 반해, 지역사회 개발활동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사실로 볼 때 청소년의 자원봉사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활동내용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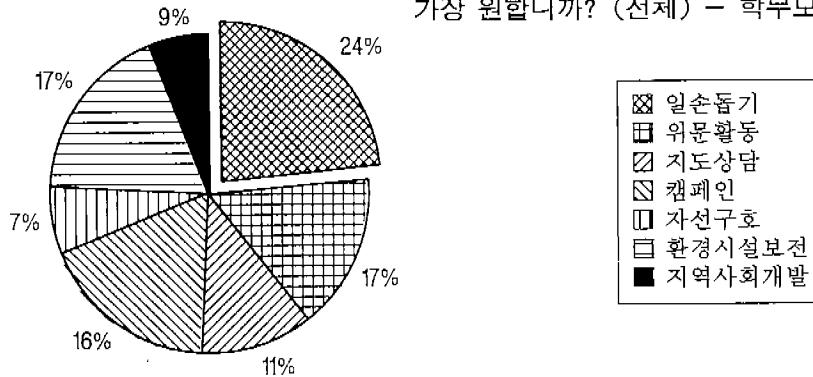
[그림 12] 당신이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전체) -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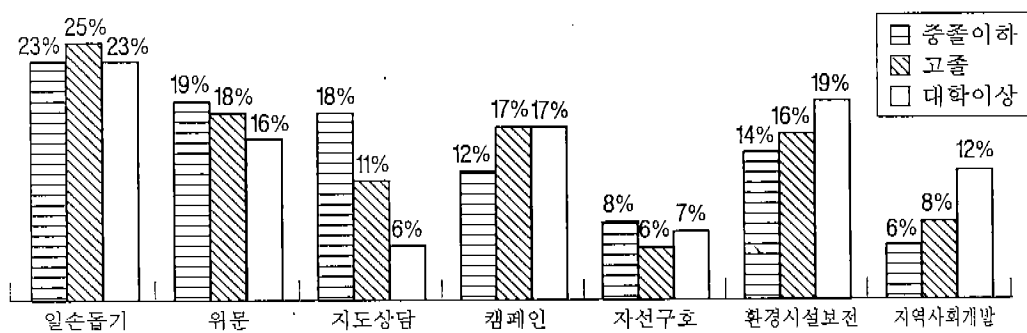
[그림 13] 당신은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청소년 - 학교별)



[그림 14] 당신의 자녀가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기를 가장 원할까? (전체) - 학부모



[그림 15] 당신의 자녀가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기를 가장 원할까? (학부모 -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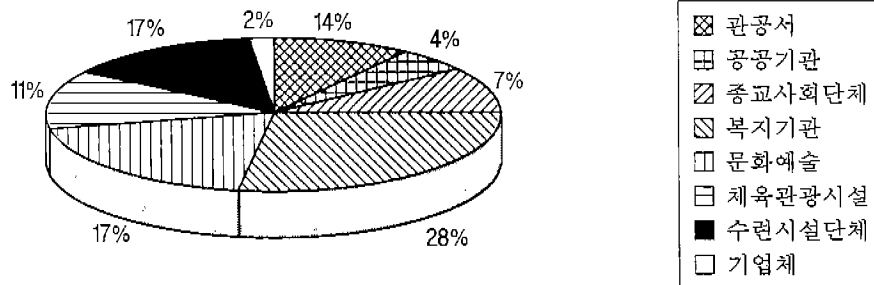


1994년 일본의 조사 결과(본 조사에서 제공한 선택지와 조금 다름)에 따르면 일본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자연환경 보호”, “어린이 지도”, “노인·장애인 돕기”, “지역사회 활동” 순으로 선호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과 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선호하는 활동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요기관이나 시설 중 청소년들은 복지기관이나 시설(28.3%),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단체(17.3%), 문화·예술시설(17.0%), 관공서(14.3%) 및 체육·관광시설(10.6%) 순으로 비교적 선호가 높는데 반해, 기업체(1.8%), 공공기관(4.1%), 종교단체나 사회단체(6.7%)에 대한 선호는 떨어지는 편이다. 자신의 자녀가 자원봉사를 하기를 바라는 수요기관이나 시설에 대하여 학부모는 복지기관이나 시설(33.6%), 관공서(19.1%), 문화·예술시설(17.2%) 및 종교·사회단체(12.3%) 순으로 선호하고 있고, 기업체(3.2%), 체육·관광시설(3.2%), 청소년 수련시설·단체(6.7%)에 대한 선호는 낮아 체육·관광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선호에서 청소년들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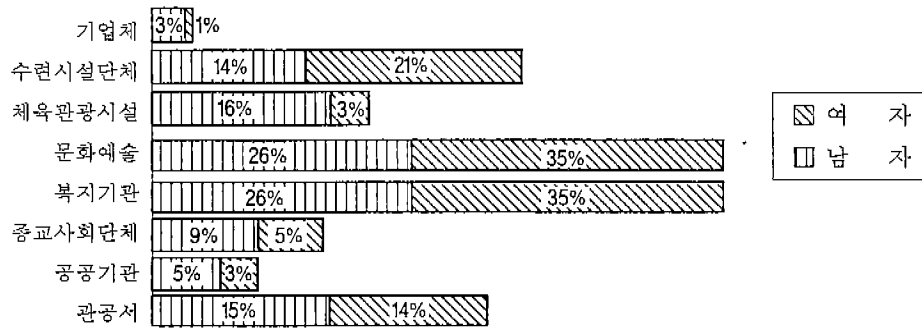
[그림 16] 실제 자원봉사를 할 경우 가장 참가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전체) -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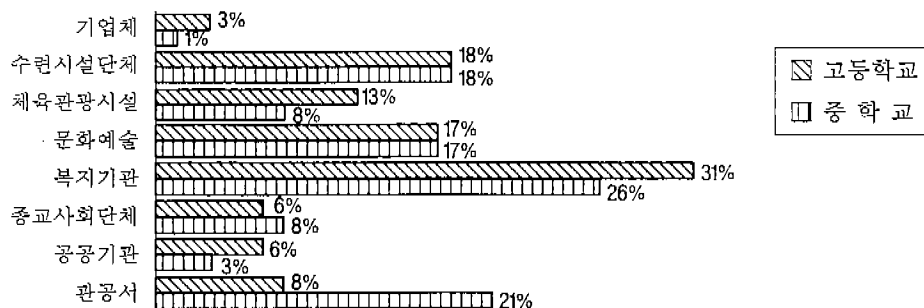
[그림 17] 실제 자원봉사를 할 경우 가장 참가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청소년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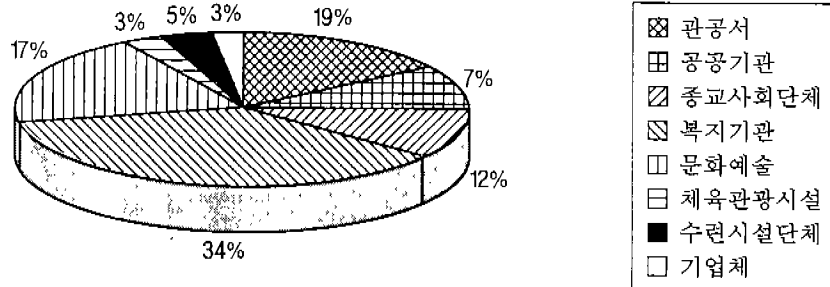
[그림 18] 실제 자원봉사를 할 경우 가장 참가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청소년 - 학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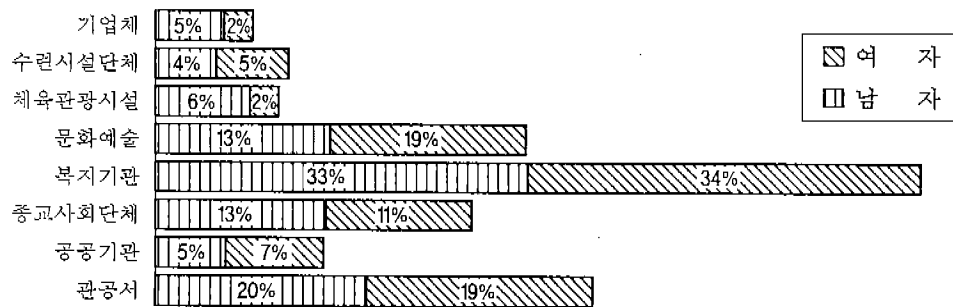
[그림 19] 당신 자녀가 자원봉사를 할 경우 가장 참가시키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전체) -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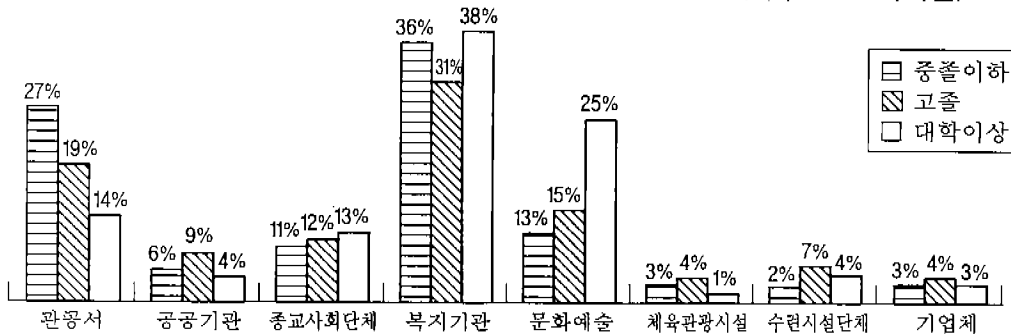
[그림 20] 당신 자녀가 자원봉사를 할 경우 가장 참가시키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학부모 - 성별)



[그림 21] 당신 자녀가 자원봉사를 할 경우 가장 참가시키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학부모 - 학력별)



2)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시간과 참여형태 :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전체의 51.8%가 방학기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기중의 수업시간이 19.5%였고, 12.3%는 학기 중의 토요일을 선호하고 있다. 학기중의 공휴일(6.5%)이나 평일 방과후(3.3%) 시간에는 비교적 선호도가 낮다. 학부모 역시 전체의 63.2%가 자녀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방학 중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기중의 공휴일(13.3%)과 토요일(13.1%) 순으로 바라는 반면, 학기중의 수업시간(4.5%)이나 평일 방과후(3.0%)에는 대체로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업시간을 활용하거나 학기중의 공휴일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간에 의미 있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수업과 연계하기를 꺼리고 있거나, 가능한 자녀의 학교공부에 방해를 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 6.5%, 학부모 3.0%만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1994년 실시한 부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45.3%가 방학 기간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기 중 수업시간에 21.4%, 언제나 가능하다는 게 12.5%였고, 학부모는 52.5%가 방학 기간, 학기 중의 공휴일에 15.5%였고, 14.9%는 학기 중의 수업시간을 선호하여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35.7%와 학부모의 34.6%가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 중심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의 20.8%와 학부모의 19.4%가 청소년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를 바라고 있다. 나머지 선호하는 참여형태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참여(15.2%)하거나, 학교전체 참여(12.4%) 및 자원봉사센터나 관련기관을 통한 참여(11.5%) 순으로 원하고 있는데 반해, 학부모들은 학교전체 참여(22.0%), 자원봉사센터나 관련기관을 통한 참여(18.6%), 개인적 참여(4.1%) 순으로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주로 어떤 형태로든 학교와 연계하여 계획되거나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은 학교전체가 참여하는 형태보다는 동아리나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비교적 선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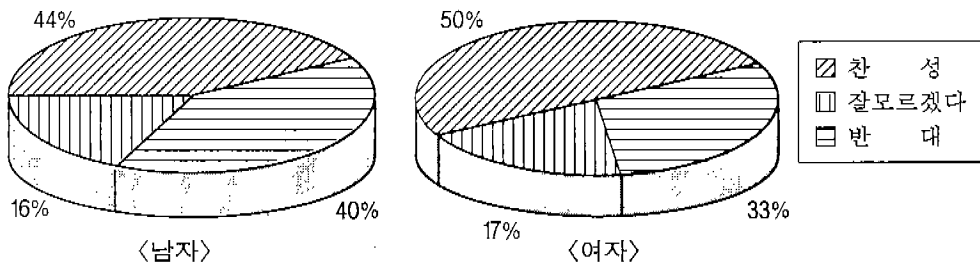
1994년 부산광역시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58.9%가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통해서, 24.0%가 자원봉사센터나 관련기관을 통해서 참여하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9.2%에 그친다. 학부모들은 60.9%가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통해서, 28.4%가 자원봉사센터나 관련기관을 통해서, 7.2%만이 청소년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어 학교 중심의 자원봉사 참여를 지지하여 학부모나 청소년 모두 학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본 조

사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3) 자원봉사활동의 점수 반영과 평가 : 자원봉사의 활동 결과를 상급학교 진학 시에 점수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36.1%, 학부모의 34.7%가 찬성하는데 반해, 청소년의 47.6%와 학부모의 44.5%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학부모 각각 16.3%와 20.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참고로 1994년의 부산시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41.9%, 학부모의 54.9%가 찬성하며, 청소년의 36.0%, 학부모의 23.0%가 반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 청소년의 경우 성적별로 보면 높은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26.4%가 찬성하고 보통인 경우엔 36.2%,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35.3%가 찬성하고 있어 공부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원봉사를 점수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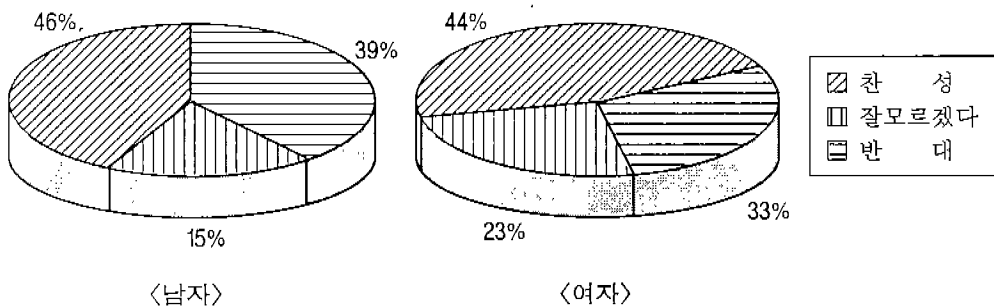
[그림 22]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 성별)



[그림 23]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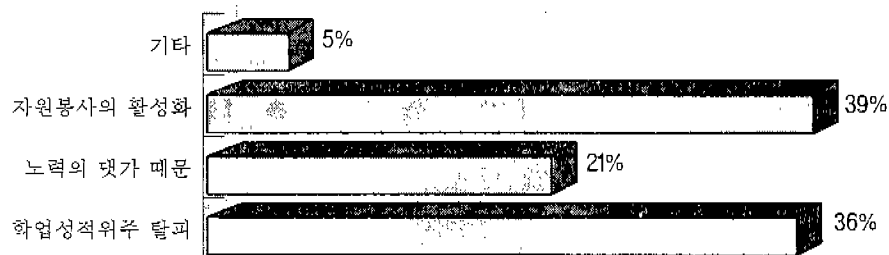
(학부모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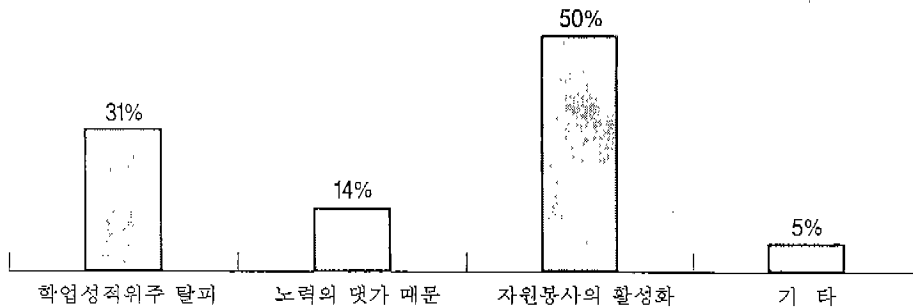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1993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표창(26.4%)', '취직시 채용기준(21.7%)', '입시에 반영(19.5%)', '시간에 따른 수료 증서 수여(19.0%)'등으로 다양하다. 우리도 청소년의 자원봉사에 대하여 점수화하는 것 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점수반영에 찬성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그 이유를 청소년의 자원봉사의 활성화(청소년 38.8%, 학부모 50.4%)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하다는 데에 가장 높은 지지를 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업 성적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고(35.5%, 30.5%),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20.6%, 13.8%)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점수반영은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학업성적 위주의 평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24]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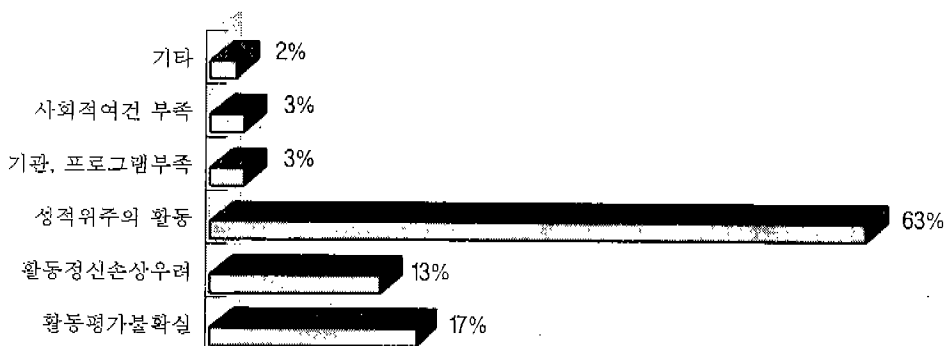
[그림 25]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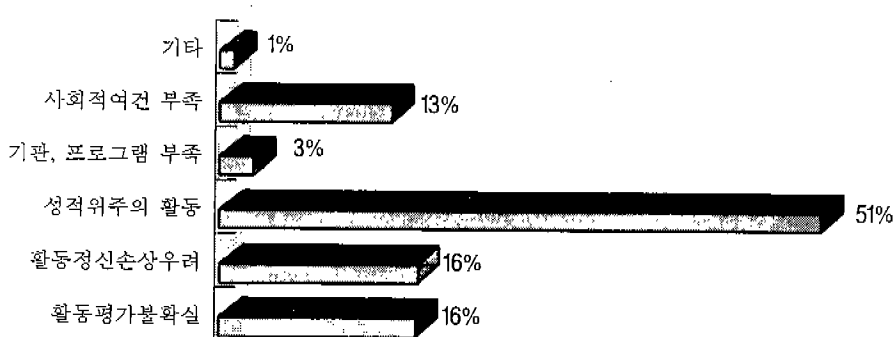
한편 청소년(62.5%)과 학부모(50.8%) 모두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공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16.9%), 자원봉사 본래의 정신을 손상(12.6%)할 수 있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적고(3.0%) 안심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부족(2.7%)하다는 순으로 반대이유를 밝히고 있다. 학부모들은 청소년과 달리 자원봉사의 본래 정신을 손상(16.1%)하거나 공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15.8%)이고,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부족(13.4%)하다는 사실 등을 비교적 높은 반대 이유로 거론하고 있으며, 자

원봉사활동을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3.3%)이라는 이유는 소수의견으로 제기되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이나 학부모나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의 병리를 염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점수화가 형식적 자원봉사를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6]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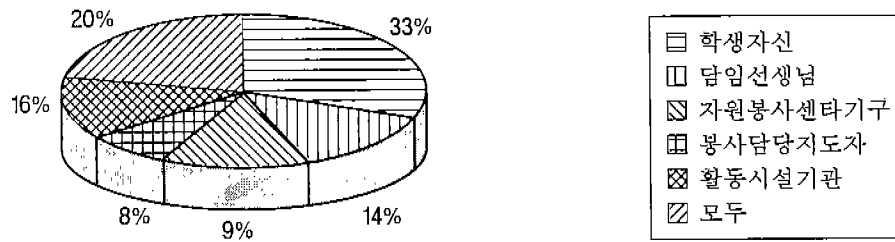
[그림 27]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의 평가를 누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청소년들은 학생자신이 하는 방안(30.5%), 학생과 자원봉사센터, 활동기관 등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27.3%), 활동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하는 방안(16.0%), 자원봉사 지도자가 담당하는 방안(10.6%) 순으로 지지하였으며, 그밖에 자원봉사센터나 관련기구(7.9%)에서나 학교담임 선생님이 평가하는 방안(7.7%)에 대해서는 소수만이 찬성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생과 자원봉사센터 및 활동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35.2%)을 가장 지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학생자신의 평가(18.4%),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평가(18.1%), 자원봉사센터나 기구에서의 평가(11.0%), 담임선생님에 의한 평가(9.9%), 자원봉사 담당지도자에 의한 평가(7.4%) 순으로 지지하고 있어 청소년의 의견과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담임선생님이나 자원봉사 담당지도자 등 특정 개인에 의한 평가를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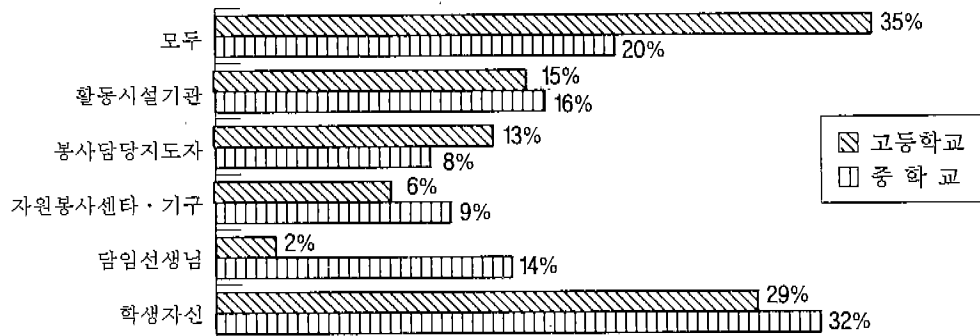
[그림 28]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전 체) -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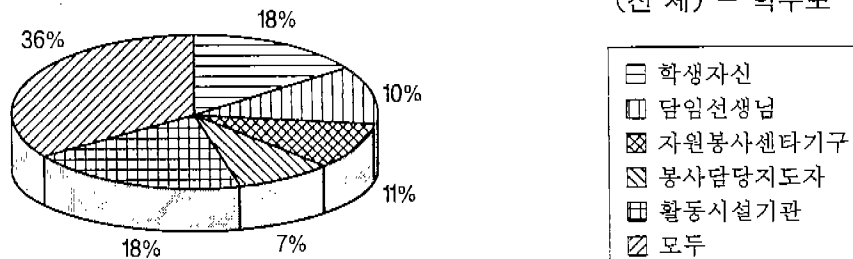
[그림 2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청소년 - 학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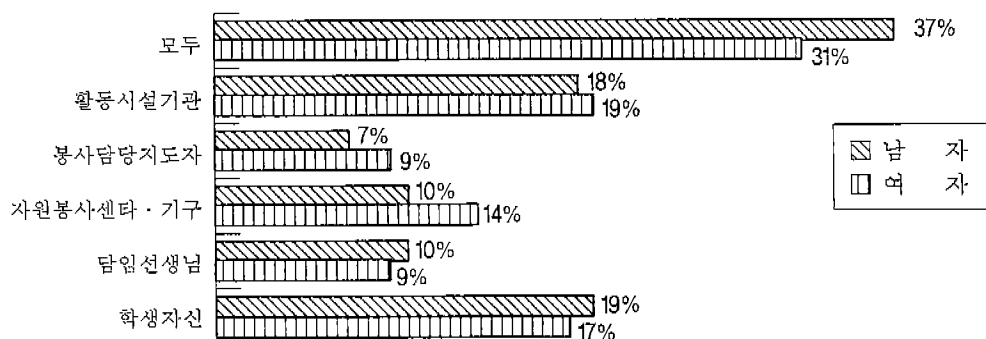
[그림 3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전 체) - 학부모



[그림 3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학부모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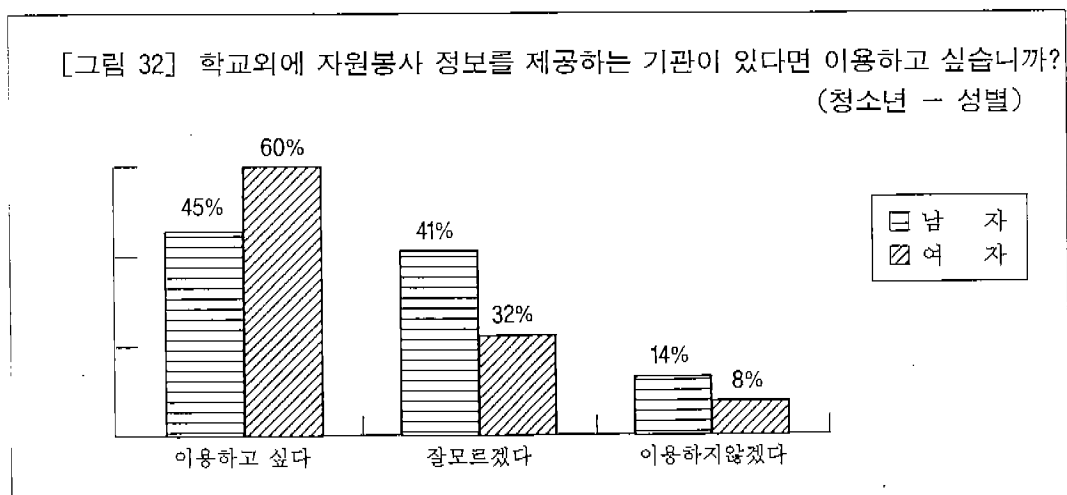


이런 경향은 1994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의 38.3%가 청소년 자신이, 38.0%가 학생과 자원봉사센터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 하며, 학부모의 38.5%가 학생과 자원봉사센터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에서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하며 23.9%는 청소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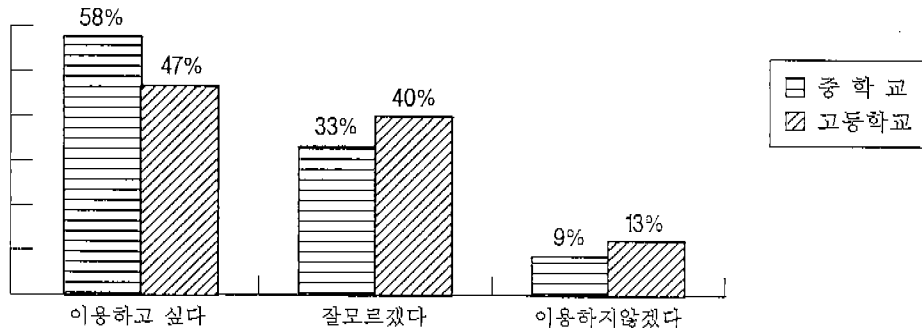
4. 청소년 자원봉사의 지원 및 전문기관의 활용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큰 차이없이 학교나 담임선생님을 통해(청소년 42.2%, 학부모 52.3%),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20.1%, 21.2%),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14.8%, 15.2%), 지역신문이나 알림란을 통해(7.3%, 3.4%), 자원봉사관련 전문 소식지를 통해(6.6%, 3.8%), 컴퓨터통신을 통해(4.4%, 0.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주로 학교나 전문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을 통해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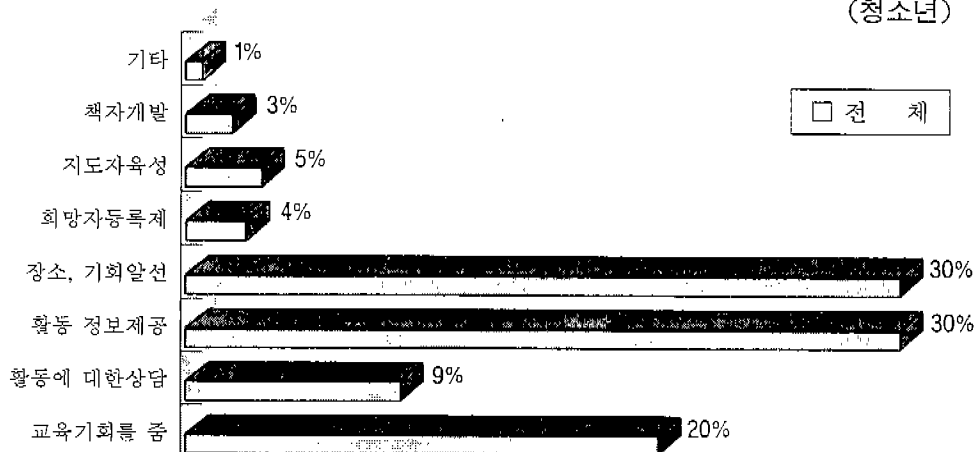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사전에 자원봉사 관련교육을 실시한다면 40.5%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겠다고 밝혔으며, 12.3%만이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52.4%가 이용하고 싶다고 하며, 11.2%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제공(30.3%)과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기회를 개발·알선(29.4%)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3년에 실시한 일본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해 중학생의 41.4%, 고등학생의 38.5%가 이용하고 싶다고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원봉사센터 이용희망도가 더 높다. 또한 자원봉사 센터와 같은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중학생의 경우, 정보 제공(41.2%), 교육기회(33.5%), 경제적 지원(26.3%)과 같은 것이며, 고등학생은 정보제공(40.5%), 경제적 지원(43.3%), 교육기회제공(34.8%)과 같은 것이다.)



[그림 33] 학교외에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습니까?
(청소년 - 학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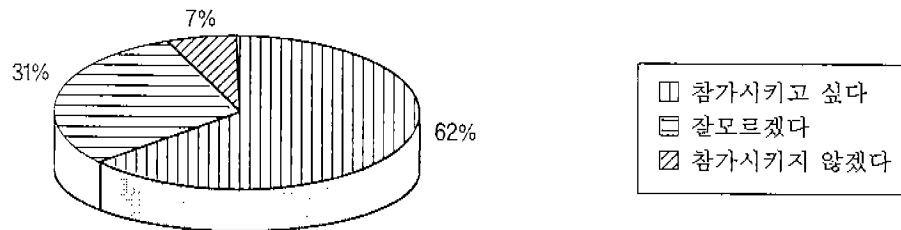


[그림 34] 자원봉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 주길 바랍니까?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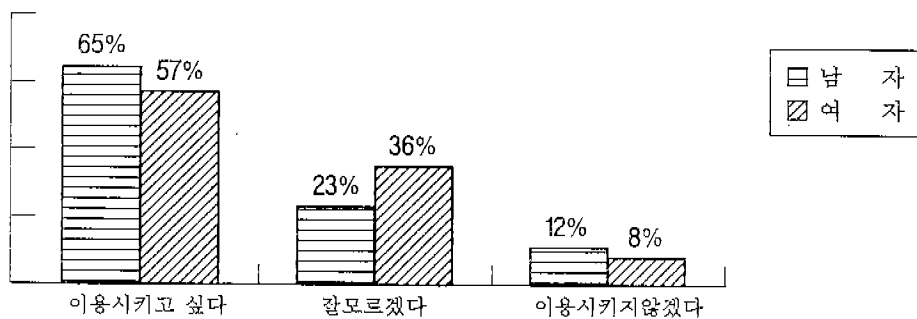


학부모의 경우 62.8%가 자신의 자녀를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시키겠다고 밝혔으며, 58.9%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싶다고 하여 학부모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활용에 청소년보다 더 적극적이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희망자에 대해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를 주는 것(28.7%),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장소나 기회를 개발·알선(22.7%)해 주길 원하여 청소년들보다 학부모들이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에 더 관심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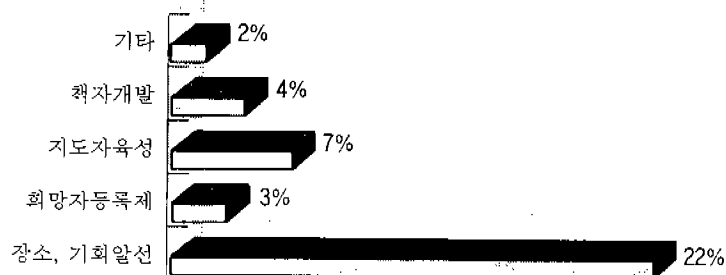
[그림 35] 학교외에 자원봉사 소개기관이 있다면 교육활동에 자녀를 참가시키고
 싶습니까? (학부모)



[그림 36] 학교외에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자녀를
 이용시키고 싶습니까? (학부모 - 성별)



[그림 37] 자원봉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 주길 바랍니다?
 (학부모)



5. 자원봉사 수요기관의 실태

1)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일반적 이해 : 자원봉사 수요기관의 100% 모두 청소년자원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이유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61.1%), 사회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자각하기 위해(13.3%)를 들고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은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53.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33.3%)라고 생각하며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중심으로(36.7%)하거나 자원봉사센터나 기관을 통해(36.7%) 하기를 원하여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바란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점수로 반영되는 것에 57.3%가 찬성하며 7.9%가 반대한다. 자원봉사의 점수화와 관련하여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58.2%가 '학생과 자원봉사센터와 수요기관에서 함께' 하는 것을 지지하며, 19.0%가 '청소년들이 활동한 수요기관'에서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어떤 방법으로도든 수요기관에서 평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2) 수요기관 내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 수요기관 중 67.4%가 청소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32.6%가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수요기관 중 62.5%가 청소년용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32.8%의 수요기관이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담당자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수요기관에서의 어려운 점은 자원봉사를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38.7%), 청소년들이 마땅히 할 활동이 없는 것(29.0%)이라고 응답하여 프로그램 문제를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다.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수요기관의 경우 87.1%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허락하겠다고 하며 그 이유로 청소년 인격교육에 협조하기 위해서(75.4%)라고 한다.

수요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37.3%가 일손돕기 활동, 21.7%가 지역사회개발활동, 15.7%가 환경·시설보전활동, 10.8%가 캠페인활동이 좋다고 한다. 바람직한 활동시간은 방학 기간(25.3%), 학기 중의 평일 방과 후(21.8%), 학기 중의 수업시간(18.4%)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지속되는 기간은 방학중에 집중적으로 하거나(18.2%), 일정 시간 동안 1회에 한하는 것(12.5%) 보다 주 1, 2시간만이라도 1년 내내 지속적으로(55.7%) 활동하기를 원한다.

청소년들이 수요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지도할 담당자가 외부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비율은 64.0%로 높은 편이며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자세'(79.8%)를 사전에 익혀오길 원한다.

3)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는 자원봉사 희망자에게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를 주는 것(26.7%),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26.7%)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장소나 기회를 개발·알선해 주길(22.2%) 바란다.

청소년 자원봉사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51.7%의 기관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며, 47.2%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에 대해 담당자를 교육시키겠다고 한 기관은 64.7%, 그렇지 않겠다고 한 기관이 12.9%로 자원봉사 지도자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종합의견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思考(이미지)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사항 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적극적이며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초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또는 과거에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한 청소년은 45% 정도로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주로 취업이나 진학시 받을 혜택을 지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소년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평가방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봉사활동 실적을 고입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다. 봉사활동 실적을 점수화하여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현재 발표된 고입과 대입에서의 반영방법을 보면 반영비율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점수를 많이 주고 점수차가 크지 않아 수험생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봉사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봉사활동을 미국과 같이 졸업요건화 하지 않고 입시에 반영하는 현행 방법은 자원봉사의 기본원리인 자발성을 저해하기보다는 청소년의 자기선택과 결정 및 학교 개입을 보장하며 활동의 기회보장과 계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차선의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청소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질 때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다. 즉,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에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어떤 봉사활동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봉사활동 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과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가 시민성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여 개인적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며,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적 사항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갖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과제들은 주로 다양한 봉사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활동 수요기관에 대한 정보 확대, 지도자의 양성,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원과 협조 등으로 집약된다. 현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활동할 장소가 많지 않으며, 관련정보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제안들은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제안 이외에 청소년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소년의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자원봉사가 교육적인 체험과정이어야 한다는 취지 하에 미국과 같은 ‘봉사를 통한 수업(Serve America 혹은 Service Learning)’ 프로그램의 도입을 확일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예상되는 교원의 부담, 소요비용, 뿌리깊은 입시위주의 교육관행과 교육만능적 사고의 팽배 등 학교교육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에는 해당교사의 새로운 훈련이 요구되는 등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적지 않은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도 많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시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교 전체나 학년별 집단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교교원의 자질이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특정교과목과 연계하여 시행해 볼 수도 있으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협력교로서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 학교 전체나 학년별 프로그램과 같이 대집단 활동이 아닌 동아리이나 청소년단체 활동이나 개인활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외부지원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의 관계에서 지금보다 더 개방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자원봉사의 기본원리로서 무상성에 지나치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시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질적인 이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이득은 봉사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보상하는 즉시적인 대가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축적된 후에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비의 면제, 장학금 수혜시의 우선권 부여 혹은 장학금 수혜의 기본 자격화, 학자금 융자 혜택의 우선권 부여, 각종 국가고시의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자원봉사 기금(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기금은 각종 안전사고나 위험의 대비에 필요한 보험제도의 도입과 청소년봉사활동에 투입할 각종 내용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자원봉사가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학습과정으로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금 마련은 학교와 관련 행정기관, 청소년육성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육세나 교육관련 재원의 일정 배분도 고려될 수 있다.

넷째,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개념과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폐품·혹은 재활용품수집, 각종 캠페인이나 지역사회 행사참여 등의 활동을 일정 기준에 따라 봉사활동으로 간주하는 등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분류된 활동들은 학교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에 의해 계획되고 시행·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봉사활동은 지금까지 아무리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들로부터 외면 당하기 일쑤이었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교육과 청소년 육성 분야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보다 밀접한 연계를 맺을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만으로서가 아니라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 육성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시험장인 동시에 학교와 육성 분야 개혁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본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길러 가는 방향을 제시한 5. 31 교육개혁이 발표되면서 인성과 적성에 기초한 교육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생 자원봉사활동이 국민의 호응과 기대, 그리고 비판 속에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의 인성개발은 지식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와 체험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접근과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욕구 파악없이 자원봉사활동 결과를 입시에 반영한다는 점수와 방안이 제시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함양 등 인성을 강조하려는 중요한 목적은 외면되고 있다. 여기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청소년 자원봉사가 주는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기 이전에 교과목에서 점수를 더 받는 것과 같은 수단적 목적에서 자원봉사를 생각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1995년 1년간 서울에서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결과를 점수화하여 시범적용한 이후 다양한 부작용이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일부 학부모들이 사회복지 재단 등에 금품을 제공하여 자녀의 봉사확인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중앙일보, 1995, 10. 10)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학생의 자원봉사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조선일보, 1996, 1. 11) 등이 있었고, 청소년들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도 봉사정신을 함양하기보다는 사회의 부조리나 어두운 면, 지역사회 어른들의 무관심 등을 먼저 인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어떤 활동을 지도해야 할 지 모르고 있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기관과의 연계가 약해서 실제로 청소년 봉사활동 수요기관을 제공하기가 어려우며, 봉사활동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원할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조정자 역할이 미흡하며,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실행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부족했고, 아울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

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려는 정책이 미흡했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하여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개론적 논의 위주로 이루어져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충분한 욕구 파악과 이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들의 장단점을 실제 당사자인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중요한 역할자로서의 학부모의 의식을 살펴 본 후 이를 기초로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문 또는 질문들과 관계가 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자원봉사의 개념 정립의 문제로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주체가 행하는 자원봉사의 의미인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청소년 자원봉사는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육성 부문 중 어디서 강조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것과, 청소년 자원봉사의 환경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으로서 “청소년 자원봉사영역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수요기관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방안은 어떤 것이 최선일까?”, “한국이라는 상황에 적합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모형은 무엇일까?”와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질문은 일관된 관점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계열적인 질문이며, 이 질문들의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첫번째 질문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주체가 행하는 자원봉사의 의미인가?”에 대한 정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논의를 시작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환경의 구조화,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의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며, 둘째로 청소년 자원봉사의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갖는 장단점 파악을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이 서울에 사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 걸친 표집이 되지 않았지만, 서울의 중학교 2학년생은 지난 1995년 1년간 실제로 자원봉사를 40시간 실시한 최초의 청소년이며 고등학교 2학년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비교효과가 있다.

둘째, 청소년 수요기관을 설문하는 데 있어 서울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 중 할당표집으로 200기관을 선택하였으나 회수된 비율은 50% 정도이며, 청소년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기관일수록 응답과 회수에도 관심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과다해석의 소지가 높다.

셋째, 청소년 자원봉사의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외국의 다양한 제도를 확인하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미국과 일본 두 개국의 청소년 자원봉사 제도만 살펴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제언에 그친다.

II.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이론적 이해

이 장에서는 청소년과 부모 및 자원봉사활동 수요기관 등 각각의 주체들이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각종 환경 요인은 무엇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아울러 활동동기와 정보획득의 통로 및 원하고 있는 자원봉사 내용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된 의식조사의 연구목적에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적 이해, 활동영역과 수요기관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의 장 및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성격과 과제 등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의미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활동 행위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행위자가 수행하는 자원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그 어원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의지, 자주정신과 같은 ‘자원, 지원, 자청’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맞물려서 민주주의 토양 속에서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확대·발전되어온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서구사회의 경우, 17세기 영국에서 ‘정규군’에 대한 지원병, 의용병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국가적인 영역이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의 민간적인 영역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더욱이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적인 시발점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결정에 도달했을 때이다. 즉, 산업혁명의 와중에 다양한 사회문제 - 공장지대의 주변환경의 불결, 노동자의 빈곤, 여자 및 연소자의 노동문제 - 가 야기되었고, 이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책의 모색이 어려워지자 민간부문의 일부 부유층들에 의한 다양한 자선 및 구제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은 시발점에서부터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성에 의한 복지적 활동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서구사회에서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원봉사의 의미를 가진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참조:중앙일보 편, 1995). 즉, 두레, 향도, 향약 등 다음과 같은 전통사회에서의 민간의 상호부조 활동은 오늘날 자원봉사활동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두레는 촌락단위로 조직된 성인 남자들의 작업공동체로서 협동과 공동오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력 부조 등을 행하는 활동이며 과부, 병약자 등 노동력 결핍자의 농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방에 따라 공꿀, 공굴이, 조리, 동네 논매기, 향두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다. 두레는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각자 점심을 가져오거나 그 마을의 유력자나 부자가 음주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부근은 북부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던 것으로 동네 농사일뿐만 아니라 동네사람이 집을 신축할 때나 10세 이하의 아이가 죽었을 때의 장례, 그 밖에 우두머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하는 노력봉사를 말한다.

셋째, 향도는 상여를 메는 사람을 향도라 한 것과 연판이 있는 데,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만 무보수로 봉사하는 일종의 장의 봉사활동을 일컫는다.

넷째, 부조는 마을에서 누군가가 집을 지을 때 일할 도구와 점심을 들고가서 도와주는 것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과부·홀아비·노인만 사는 집의 지붕을 이을 때 짚단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며, 불난 집의 뛰치닥거리와 재건에 물자와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조선시대의 주요한 상호부조와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주요한 규칙의 성격을 지녔던 향약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 중심의 자발적인 협동 조직으로, 환난상휼 강목에 규정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불우한 이웃이나 재난등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구호하는 일종의 고전적 의미의 복지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사회에서 봉사활동의 형태는 현재의 개념적 형태로 표현하면 주로 주민참여형이나 협동조합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상호부조를 통한 사회유지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자원봉사활동은 20세기말경 세계화, 정보화, 자동화 등으로 대변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접어들어 새롭게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즉, 고용을 비롯한 복지적 측면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참조:리프킨, 1996)은 물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비롯한 각종 역할의 약화와 개인적인 여가시간의 증대 등과 같은 사회생활 환경의 변화는 제 3영역으로서 민간(공민)부문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은 민간영역에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사회봉사와 사회적 자본창출의 주요 통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현재 자원봉사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 원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선 자원봉사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원봉사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원봉사자란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관여하는 사회기관에서 무보수로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Trecker, 장인협 역, 1971)이라고 간주하거나,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나 기관의 책임 일부를 감당하는 자로, 노력의 대가를 지불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77)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와 자발성, 무보수성의 원칙과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문진영(1995)은 “자원봉사란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활용하여 봉사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또 김영호(1991)는 “자원봉사는 인간의 공동복지를 향한 가치이념과 동시에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발적, 자율적, 창조적, 협동적, 사랑의 실천노력이며, 인간의 바람직한 생활 그 자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공동복지의 가치이념으로서 인간생활 자체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최중옥(1995:10)은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능영역이 단순한 노동력 봉사나 부조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 및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한 활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는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자발성),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무보수성),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민주성)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복지성)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공동체성)과 동시에 이타성을 구현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자아실현성) 하는 지속적이고(지속성) 계획적(계획성)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원봉사활동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접적인 자원(정신적, 육체적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중앙일보사 편, 1995 ; 교육부, 1996:2-6 ; 興侶 寬, 1995:3-5).

첫째, 자발성(자유의지, 자주성)으로 무엇보다도 활동하는 개인의 자유의지나 자발적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핵심적 전제라고 한다면, 자원봉사활동은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주의나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되어지는 행위나,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는 활동도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공공성(보편성, 사회성) 이념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은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 특정 사상과 신념·종교·민족·목적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나 사회의 보편적 이익으로 환원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영리적인 목적이나 이기적인 목적 없이 이타적인 정신에 기초한 것이며, 자기 자신이나 친족을 돕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무상성(무급성, 비영리성) 이념으로서 자원봉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보수나 댓가를 기대하지 않는 활동이어야 한다. 남을 도와줌으로써 갖게 되는 정신적인 보람이나 만족 이외의 다른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즉,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지나 제안, 사회적 행동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금전이나 보수에 의해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자원봉사의 무상성 이념은 기본적인 본질로 전제되면서도 다소 완화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활동에 대한 얼마간의 급여적 댓가를 얻게 되더라도 참여동기 자체가 자원봉사라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고, 급여적 댓가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무상성이라는 이념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넷째, 개척성(사회개발성) 이념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우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회적 과제나 정부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보완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는 보완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 해결방안 모색을 제안하는 등의 사회개혁적이고 개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이다.

다섯째, 계속성(지속성)의 이념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선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도적인 계획을 갖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원봉사활동은 봉사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봉사활동의 공공성, 무상성, 개척성, 지속성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와 같은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발성의 이념은 단순히 참여자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석되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 자원봉사활동의 의의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과거의 단순한 노동력 제공 또는 사회적 부적응자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장애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구호적 활동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자원봉사의 영역은 위문이나 방문활동 내지는 간접적 지원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참여와 준전문가형의 역할 수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자원봉사는 “시설보호에서 지역보호로”, “위문형에서 동참형으로”, “간접적인 지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으로”, “준 전문가형의 역할 수행”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인성과 전문영역을 개발하는 등 개인의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확인 and 책임감을 공유하여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사회의 복잡화와 거대화에 따라 개인은 점차 무기력해지고 자아정체감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화는 전통적인 제도교육만으로는 그 사회에서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각종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사회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의 일부를 서비스하는 것인 동시에 그 사회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실을 접하고 다양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며, 자원봉사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함으로써 각 개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지적이며 정의적인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키워주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둘째, 현대사회가 도시화·산업화되면서 각 개인의 원자화와 함께 인간관계가 익명화되며 사회의 정상적인 유지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나 정부의 조직적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공유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 3영역으로서 비정부조직의 활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질과 양이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해결의 잠재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는 단순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다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여유 있는 사람이 단순히 봉사하는 의미를 넘어 국민의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인 것이다. 즉, 사회 각 구성원이 자신의 가진 능력의 최소한의 부분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총체적인 에너지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경제적인 풍요와 노인인구의 증가 및 정년제도 도입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유희인력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살려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사회의 전체적인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응집력이 약화되고 지역공동체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각자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에 지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간소외, 물질중심주의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회 구성원간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립이 계속적으로 생겨나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나타나며, 한 지역사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구성원간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길러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넓게 인간의 특정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청소년들이 행하는 자원봉사라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들의 발달특징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조직된 다양한 자원봉사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일반적인 자원봉사의 기본적 이념이나 원칙 이외에 청소년육성 차원의 이념과 배려 등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인간발달의 측면을 고려하여 그 과정 자체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청소년 자원봉사를 통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참조: Townsend, 1993:10). 자원봉사는 첫째, 다른 사람의 요구나 필요나 초점을 맞추으로써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자기전념을 체험하게 해준다. 둘째, 인간은 상호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책임의식을 개발시켜 준다. 셋째, 자신을 교육의 과정과 통합된 일부분으로서 인식하게 되고, 보다 능동적인 학습자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참여의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 넷째, 장애인이나 노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또는 다른 문화나 계층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올바른 인간관계와 우정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강한 목적의식과 자신이 하는 활동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신념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술연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일곱째,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 집단 내에서의 조화,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키워주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적 과정으로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성인 자원봉사활동의 확산과 더불어,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각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인성개발, 인간관계의 확대를 통한 자아개발과 사회성 함양, 청소년의 일탈예방이나 사회문제의 해결 및 현장학습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증대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참조: 조휘일, 1995 ; 조용하, 1994 ; 부산광역시, 1995:10-13 ; 교육부, 1996:14-21).

이렇게 볼 때 현재 그 목적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강조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청소년 비행 등 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대이다. 전통적인 청소년 비행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폭주족, 중퇴학생의 증가, 학교폭력, 성폭력, 약물오·남용 및 청소년의 정서장애, 등교 거부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자원봉사는 최근 청소년문제 인식과 해결의 주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필요와 기대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둘째, 후기 산업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사회의 해체와 기능상실에 따라 지역사회의 기능회복을 위한 대안 모색으로서 자원봉사 필요성의 대두이다. 특히 교통, 공해문제, 자연환경의 오염 및 지역사회 유해요소의 증대와 아울러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연대감의 결여 등의 사회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통로로서 자원봉사가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주민참여 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기제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문제와 지역사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청소년 자원봉사는 적어도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는 셈이다.

셋째, 교육개혁적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통로로서의 청소년 자원봉사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청소년의 집이나 거리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었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교육은 어른들과 함께 현재의 삶을 누리고 있는 주체로서 보다는 미래의 사회주역으로서 또는 미래의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특정 이념하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라는 틀 속에 짜여져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때로는 지나치게 윤리적이거나 교훈적인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고, 지나치게 보호적인 것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외면 당하기 일쑤이다. 심지어 학교교육의 내용들은 지역사회의 삶의 현장들과 상반되고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 결국 현재 학교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은 공허하고 특이한 것들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을 지역사회의 삶과 연계시키는 한편 지역사회는 교실이 되고, 청소년은 주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된 것이다. 즉, 청소년의 자원봉사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교육개혁의 주요한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학교의 교육과정과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주요한 통로로서 봉사활동학습(service learning)을 제도화하고 있는 사례는 이러한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봉사활동학습은 첫째, 학교에서 교수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봉사학습의 중요성을 진작시키고 둘째, 교사나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능력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셋째, 학교 교육과정과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간의 직접적인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Youth Policy Institute, 1993:30)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 자원봉사는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 노력을 통합하는 기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2.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영역과 수요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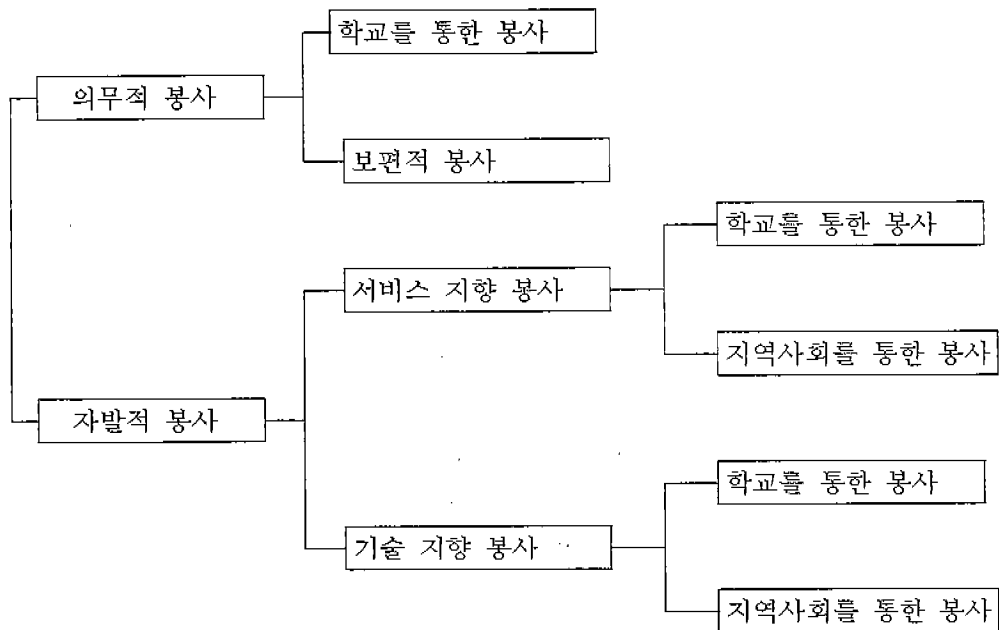
1) 봉사활동의 유형별 분류

청소년이 어떤 봉사활동을 어떤 수요기관이나 장소에서 할 것인가는 청소년 자원봉사에서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특히 성인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 발달과정상의 특성이나 연령 등의 요인을 고려한 활동내용과 활동 수요기관이나 장소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봉사활동이 복지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과 수요기관을 얼마나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냐에 따라 청소년 봉사활동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활동영역은 너무나 다양하고 분류자의 의견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의 대상에 따른 분류(노인, 어린이, 빈민층,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나 활동장소에 따른 분류(복지시설, 공공기관 등)를 주로 사용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활동시간의 지속성 유지에 대한 어려움과 전문적인 기술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활동영역 분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소개할 수 있다.

Kipps(1992)는 자원봉사를 활동내용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리고 정책의 변화를 의도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지원활동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direct service volunteering)인데, 1대1 또는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청소년그룹 리더, 환자방문 등이 있다. 둘째,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indirect service volunteering)으로,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사무보조 등이 있다. 셋째, 사회환경 개선 봉사(direct action or advocacy volunteering)는 서비스나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 등을 뜻하는 것으로 권익옹호사업과 개혁운동 등을 포함한다. 넷째, 행정적인 지원 봉사(administrative volunteering)는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연구, 정책결정예의 자문, 조사, 교육 활동 등을 의미한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봉사활동의 기본원리인 무상성과 자발성의 개념이 확대해석되는 경향에 따라 다소의 의무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자발성을 강조하느냐, 활동이 주로 학교나 지역사회 어느 곳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 <그림 1>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참조: Youth Policy Institute, 1993).



[그림 38] 봉사활동의 유형적 분류

의무적 봉사는 학교나 사회에서 졸업 등 일정한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봉사활동을 말하며, 시민적 책임윤리를 새롭게 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봉사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학교를 통한 의무적 봉사는 초·중·고등교육 기관에서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봉사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무적 봉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강제적인 봉사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가치는 참여유무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 - 봉사를 통해 학습된 관계의식, 통찰력 및 만족감 등 - 그 자체에 있다고 간주하고,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강제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자발성에만 맡겨 놓았을 때 학교가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너무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를 통한 의무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1993년 현재 미국에서 애틀랜트, 디트로이트, 메릴랜드 교육구 등지를 포함하여 200여개의 공립학교 및 11개 단과대학과 11개 법과대학에서 시행중이다.

보편적 의무봉사는 일정 연령의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기간의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집단 지향 봉사와 개인 지향 봉사로 나눌 수 있다. 집단 지향 봉사의 대표적인 경우는 일정 연령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지향 봉사는 청소년에게 지역사회봉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연계시켜주기 위해 고안된 의무적 봉사로서, 예를 들면 미국의 18-25세 연령층의 젊은이들에게 평화유지군(Peace Corp) 혹은 VISTA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유형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문맹자가 증가하며, 청소년 봉사활동이 참여의 부족 등으로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청소년을 내일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나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평화유지군 또는 국가 도시초등학교 문자해독군(National Urban Elementary School

Literacy Corp)군과 같은 의무적 국가봉사(national service)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클린턴 정부에서는 국가봉사가 가지는 지나친 강제성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성 대신에 학자금 면제, 최소 법정 임금의 지불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이득의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발적 봉사는 봉사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활동내용이 서비스를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서비스 지향 봉사와 기술지향 봉사로 나눌 수 있으며, 활동이 주로 학교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학교와는 별개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학교지향 서비스와 지역사회지향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학교지향 서비스는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을 통해 하는 봉사활동으로 미국의 경우 현재 공립학교에서 약 3,00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650여개 이상의 대학이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과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봉사를 통한 수업 프로그램의 경우가 학교지향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청소년 봉사활동도 바로 학교를 통한 서비스지향 봉사활동에 국한되고 있다. 지역사회 봉사는 학교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기술지향 봉사활동은 청소년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일정한 기술습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과정 등의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봉사개념을 개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나 교육,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미국적 상황에 의한 것이어서 우리의 청소년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 봉사활동 영역의 분류를 참조하여 편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갖고서 유형화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서비스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직접적인 봉사'와 '간접적인 봉사'로 구분하고, 둘째는 서비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설이나 기관과의 관계 유무에 따라 '기관내 봉사'와 '기관외 봉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관내의 직접 봉사로, 시설이나 기관에서, 또는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서비스 대상을 갖고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강사활동(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목공예, 그림 그리기 등의 강사활동)
- 해외봉사활동(방학 중 제 3세계에 나가서 봉사)
- 수집활동(옷, 음식, 장난감 등 폐품 수집활동)
- 지도활동(교통·안전지도, 하급생 개별 지도)
- 구호활동(사고시 희생자 구호, 헌혈, 소방활동)
- 선도·교정활동(또래상담, 소년원 방문 등)
- 안내활동(지역 관광지 안내 등)
- 심신단련활동(레크리에이션 지도, 수련활동 보조 등)

둘째, 기관외 직접 봉사로, 시설이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서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서비스 대상을 갖고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배달활동(재가복지대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점심이나 물품배달 및 지원)
- 위문활동(고아원·양로원 위문, 자매부대 위문)

셋째, 기관내 간접 봉사로서, 시설이나 기관에서 또는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서비스 대상을 갖지 않고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일손돕기활동(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의 일손돕기, 농촌 일손돕기)
- 조사활동(단체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적인 조사 참여, 지역사회 역사자료수집, 지역사회 문제조사)
- 모금활동(자선봉사사업을 위한 모금활동)
- 홍보활동(자원봉사, 지역문제관련 홍보물 제작·보급, 지역사회뉴스레터, 신문, 팜플렛 제작 등)
- 캠페인 활동(학교주변 환경정화 캠페인, 공공질서 확립 캠페인)
- 예술행사활동(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음악, 춤 등 행사기획, 지역내 체육대회지원)
- 경제체험활동(기업체 현장 체험, 다양한 직업보조 활동)
- 소비자 보호활동(지역물가 조사활동, 소비자 보호활동)

넷째, 기관외 간접 봉사로서, 시설이나 기관을 통하지 않고서 청소년들 스스로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서비스 대상없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세부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수집활동(옷, 음식, 장난감 등 폐품 수집활동)
- 환경·시설보전활동(문화제보호, 자연보호, 지역사회가꾸기 등)
- 모임활동(지역사회문제 토론 모임 조직, 청소년 모임활동)

2)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영역

청소년 자원봉사에서 또하나 주요한 사항은 어떤 활동영역 즉, 어떤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이다. 성인의 경우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발휘하여 봉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발달단계, 흥미 및 적성, 활동시간에 따른 작업의 구조화 및 활동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활동내용은 그 과정에서 흥미와 교육적 의미를 동시에 갖도록 구조화시켜야 한다.

여기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영역 구분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로 세부화된 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하고, 활동 대상시설을 감안하여 7개 영역 33개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1) 일손돕기 활동

이 활동 영역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작은 손길들을 청소년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기보다는 청소년 스스로도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 영역 분류

자원봉사활동영역	자원봉사활동 세부 항목	자원봉사활동 예시
일손돕기 활동	반공서 일손돕기	안내하기, 우편물 정리, 자료정리, 심부름 하기, 청소, 시설물 관리 등
	공공기관 일손돕기	안내하기, 우편물 정리, 자료정리, 심부름 하기, 청소, 전화받기·걸기 등
	종교·사회단체 일손돕기	안내하기, 청소하기, 간단한 업무돕기, 시설·설비물 수리 등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안내하기, 청소하기, 간병, 이발·미용, 급식 서비스, 시설·설비물 수리, 전화받기 등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안내하기, 자료정리, 시설물 관리 등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운동장 정리, 나무심기, 환경미화 등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시설물 관리, 청소하기, 자료정리, 수련활동 보조 등
위문 활동	기업체 일손돕기	간단한 심부름 하기, 제조과정 체험하기, 시장조사활동, 행사 지원 보조 등
	농어촌 일손돕기	모내기, 벼베기, 타야, 농기구 수리 등
	탁아·교아원 위문	교아원생과 친선게임, 자매결연 및 후원, 위문품 전달
	양로원·노인정 위문	노래, 춤, 연주, 연극을 통한 위로 및 위문품 전달, 말벗, 손자 역할, 신문 읽어주기
	장애인 위문	함께 놀기, 장애인 외출 보조, 목욕시켜주기, 위문품 전달
	병역자 위문	병역이나 보건의료의 환자 위문, 무의탁 노인 위로 등
	자매부대 위문	일일병영생활, 위문편지쓰기, 위문품 전달
지도·상담 활동	동급생 지도 및 상담	포대상담, 교과별 부전학생 지도 및 상담, 운동지도 및 상담, 게임지도, 수련활동 지도 및 상담
	하급생 지도 및 상담	유아원생 돌보기, 유치원생 돌보기, 초등학교 지도 및 상담, 중학생 지도 및 상담
	사회교육 지도	어린이 축구교실, 어린이 농구교실, 어린이 컴퓨터교실, 에이로빅 교실, 각종 문화 및 레크레이션 지도 등
	교통·안전 지도	교통신호지킴이, 전철목 교통 안전 지도, 등·하교길 안전지도
	공공질서 확립 캠페인	차레지킴이 캠페인,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긍정선거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불조심 캠페인
	학교 주변환경 정화활동	유해업소 방문제도, 전단 나누어 주기,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조사 등
자선·구조 활동	환경보전 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 동물보호 캠페인, 수질오염 방지 제도, 자연보호 포스터 붙이기
	재해구조활동	재해구조를 위한 노동봉사(소방, 방범 등), 재해구조 모금활동, 기부금 납부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돕기, 비자회 개최, 어린이 가장 돕기, 말벗 되어드리기 등
	헌혈 및 골수 기증	헌혈, 장기 기증 등
	국제협력과 난민구조	외국인 안내하기, 전쟁고아돕기, 아프리카 난민구조활동, 외국인 노동자 돕기
	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	폐휴지 줍기, 잡초제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연 환경 보호	오염방지활동, 오염물질 수거활동, 환경오염원 신고, 산물 예방활동 등
지역사회개발 활동	문화제·시설 보호	문화유적지 주변 청소하기, 문화시설 보호 등
	지역실내조사활동	지역사회 현황 파악 활동, 지역사회 복지지도 만들기, 지역문화제 지도만들기
	지역사회가꾸기	마을 꽃길 만들기, 놀이터 만들기 및 청소, 마을 대청소, 도로정비
	지역홍보활동	지역신문만들기, 지역안내지 만들기, 지역사회 여행·관광 안내,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행사지원활동	지역문화행사장 청소, 주차장 안내, 질서 및 안전 제도, 공공행사장 안내
	7개 영역	33개 활동

특히 청소년기가 발달과업을 익혀 가는 과정이며,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발견해 가며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접함으로써 자신의 이상적인 직업관을 실제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실제로 발휘해 봄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지도 알아 볼 수 있다. 세부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은 9가지를 들 수 있다.

- 관공서 일손돕기
- 공공기관 일손돕기
- 종교·사회단체 일손돕기
-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 기업체 일손돕기
- 농어촌 일손돕기

(2) 방문·위문활동

이 활동 영역은 불우하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것으로 단순히 불우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 보다는 함께 시간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실제 어려움과 아픔을 체험하는 활동이다. 입시위주의 환경에서 자신의 친구조차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타인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런 체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고려나 이타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여 친사회적 성향을 갖도록 할 수 있다.

- 고아·탁아원 방문·위문
- 양로원·노인정 방문·위문
- 장애인 위문
- 병약자 위문
- 자매부대 방문·위문

(3) 지도·상담 활동

이 활동 영역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 운동, 문화, 레크레이션 등에서의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곳이나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나 대상에게 적합하도록 자신의 능력을 변화시키고, 타인의 필요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힌 경우 또는 자신만의 특별한 관심이나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사회적 헌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 동급생 지도 및 상담
- 하급생 지도 및 상담
- 사회교육 지도
- 교통·안전 지도

(4) 캠페인 활동

이 활동영역은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활동으로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 실행하지 않는 일들을 알려서 계몽코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알리고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 이런 체험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도록 돕는 것이다. 함께 일을 함으로써 협동성을 키우며, 청소년 스스로도 사회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못 알고 있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의 행동이나 신념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게 하고 알게 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

- 공공질서 확립 캠페인
- 교통·안전 캠페인
- 학교 주변환경 정화활동
- 환경보전 캠페인

(5) 자선·구호활동

이 활동 영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기초적이고 순수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정신을 함양하는 활동이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게 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자각을 가지며, 청소년 스스로 어렵고 힘든 처지를 극복하는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판단력과 순수한 이웃사랑의 자세를 키워준다.

- 재해구호활동
- 불우이웃돕기
- 헌혈 및 골수기증
-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6) 환경·시설보전활동

이 활동 영역은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다양한 문화환경을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으로 청소년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기존의 환경과 시설물을 지키고 깨끗이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목과 관점으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재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체육 시설물 등을 재인식하여 보다 잘 보존하고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활동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를 갖게 하고 전통을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 깨끗한 환경 만들기
- 자연환경보호
- 문화재·시설 보호

(7) 지역사회개발활동

이 활동 영역은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여 실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현상과 문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단순히 성인들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주인의식과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실태조사 활동
- 지역사회 가꾸기
- 지역 홍보 활동
- 지역행사 지원 활동

3) 청소년 자원봉사 수요기관

자원봉사 수요기관은 청소년 봉사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일반 성인들의 경우 자신들 스스로 특정한 일의 내용이나 규모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봉사수요기관 없이 자조적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구상할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경우는 특정한 한 상황으로서 봉사활동 수요기관이 주어져야 활동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수요기관은 그 자체 영역 내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수요기관에서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외부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경우 특정한 기술이나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요기관에서 꺼리는 경우가 많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래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방법이며, 기업이나 단체들의 경우는 장래의 주요한 구매자나 회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홍보행위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수요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1) 관공서 : 정부부처, 동사무소, 구청, 구의회, 경찰서, 등기소, 법원 등
- (2) 공공기관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법인체, 언론기관 등
- (3) 종교·사회단체 : 교회, 사찰, 성당,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 (4) 복지기관·시설 : 병원, 장애인시설,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복지관, 선도시설 등
- (5) 문화·예술시설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문화재 시설 등
- (6) 체육·관광시설 : 국·공·도립 관광공원, 실내외 체육시설, 관광안내소 등
- (7) 청소년 수련시설·단체 : 청소년단체, 청소년회관, 자연권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등
- (8) 기업체

3. 한국사회의 청소년 자원봉사의 방향과 과제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 과정과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

아울러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그 본래의 이념과 목적을 최대한 살리면서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데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행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제도화의 성격

최근 한국사회에서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개혁의 논의와 함께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자원봉사의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일부 대학에서는 자원봉사를 교양과목의 일환으로 정식 교육과정에 채택하였고,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도입과 평가에 대한 제도적 방안 등의 논의가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1998년도 고등학교 입시의 선발기준에서부터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원봉사 실적을 일정한 활동시간 기준으로 등급화하고 점수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 실적을 상급학교 진학시에 점수로 반영함에 따라 일종의 강제성을 띠게 되어 자발적 의지라는 자원봉사의 본 뜻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자원봉사 원칙에 대한 논의이다. 즉, 자원봉사의 본래 의미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봉사 참가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실적을 점수화하여 상급학교의 진학에 반영함으로써, 일종의 강제적 의미를 갖게 되고, 아울러 현행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있듯이 자원봉사활동도 시간 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활동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강제되었을 경우 그 순수성이 깨어지고 봉사활동의 질적 수준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염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가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볼 때, 교육적 지도나 과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자원봉사가 봉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나 실적 그 자체보다는 학습 또는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소 강제될 필요가 있으며, 강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참조: 이창호, 1994:46-47 ; 1995 ; 이용교, 1995:28). 특히 이들은 청소년 자원봉사의 교육적 역할에 주목하여 자원봉사를 봉사가 아닌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강제 조치가 결코 부당한 조치는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자원봉사에 청소년의 참여를 유인하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다소의 강제성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청소년 자원봉사의 제도화 일환으로서 학교와의 연계 즉, 미국의 봉사학습의 개념을 원용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교사의 지도 아래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교내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의 경험은 협동심, 정직함, 성실함 등 인성개발은 물론 현장확인을 통한 학습내용의 정확한 이해라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충분히 통합될 수 있다(이창호, 1994:49)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와 제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원봉사는 학생들의 학교 밖 개인의 임의활동이 되고, 따라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기(이창호, 1996:70) 때문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첫째, 수업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별도의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 둘째, 학기중 학생들을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에 보내어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케 하고 그 결과를 종합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방법 셋째, 각 과목 교사가 수업시간에 강의내용과 자원봉사를 연결시키고 학생의 개별적인 자원봉사 결과를 점수로 반영하는 방법(이창호, 1996:71)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자원봉사를 봉사학습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방법으로서의 제도화를 주장하며, 다소의 강제성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청소년 자원봉사의 학습과 교육적 성격만을 강조할 뿐, 교육과정에 통합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결과를 어떻게 누가 평가할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다. 자원봉사 결과의 반영방법은 현재 교육개혁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점수로 반영하는 이상의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교과과정으로서의 통합주장은 현행의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제도화의 틀 안에서 각급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가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적 성과에 의해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교육적 과정이며 학습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곧 자원봉사가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명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영역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원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과 같은 일련의 자원봉사의 체계성에 대한 요구이다. 서울, 부산 등지에서 학생 자원봉사가 점수로 상급학교 진학 시에 반영되는 조치가 발표되면서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갖가지 문제가 파생되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비해 아직 사회적 인식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선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학부모들은 자원봉사와 방법에 대한 사전이해나 정보가 없어 자녀들의 활동 수요기관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사전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채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고아원이나 양로원과 같은 복지기관이나 시설에 집중되고 있으며, 학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참조:이명묵, 1995:37-41 ; 오제원, 1996:37-41 ; 강영옥, 1996:51).

결국 청소년 자원봉사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이해와 장치 등과 같은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급격한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증가는 비조직적이고 무교육적인 봉사활동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논의는 그 활동과정 자체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명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고, 학교개입의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봉사활동 지도자 연수의 필요성 제기 등과 같은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투입에 대한 요구로 귀결되고 있다.

현행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는 상급학교에 진학 시에 반영하는 방안 이외에는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상급학교 진학시 반영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학교 입시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에 따라 과목별 평가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98학년도부터 고교 무시험 전형을 위한 중학

교 성적 산출지침 개정안을 확정(참조:동아일보, 1996.4.27)하면서 총 300점 중 봉사활동 성적이 24점(8%)반점이며 학년마다 8점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점수산출 내용은 학년별로 40시간 이상은 7점, 20-40시간 6점, 20시간 미만은 5점을 주며, 학년별 1점씩의 가산점은 자연보호운동, 거리청소, 고아원과 양로원 봉사 등으로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학입시의 경우 각 대학에서 발표한 '97 전국 145개 대학 입학전형 요강(참조:조선일보, 1996.4.19)과 종합생활기록부 반영방법(참조:조선일보, 1996.6.6)에서 보면, 전형요소(종합생활기록부, 수학능력 시험, 필답고사, 면접, 실기, 적성 등 5개 요소) 중에서 종합생활기록부상의 비교과활동 성적은 출결상황, 특별활동, 봉사활동, 행동발달, 자격증, 수상경력 등으로 산출하여 입학사정에 반영하고 있다. 반영비율은 각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체 종합생활기록부 반영점수 중 비교과활동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대 등 12개 대학이 30%이상, 건국대 등 63개 대학이 20-29%, 전북대 등 44개 대학이 10-19%, 계명대 등 6개 대학이 10%미만이며, 서강대, 포항공대 등 38개 대학은 비교과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서울대의 경우를 보면 전체 종합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 비율은 8.43%이며 출결,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의 반영비율은 각각 실질적으로 전체의 0.5% 정도이며, 연세대 등은 봉사활동을 면접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점수로 반영한다고 대부분의 대학이 기본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험생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고등학교와 대학입시에 자원봉사 실적을 점수로 반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참조:永井順國, 1995:42-43). 점수화하여 반영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은 첫째, 봉사활동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할 때 자원봉사 정신에 주목하는 청소년을 한사람이라든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둘째, 봉사활동을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인지도나 평가를 높이는 의미와 부합되고 셋째, 자원봉사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교과성적 위주의 평가에 벗어나 능력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한편 점수반영을 반대하는 부류에서는 첫째, 봉사활동은 원래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점수로 반영하는 등의 평가 자체가 어려우며 둘째,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자발성이라는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며 셋째, 입시에 반영이라는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은 활동의 동기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고 활동이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많으며, 특히 무상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이유를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졸업시점에 선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시에 일정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에 맞춰, 자원봉사 실적도 상급학교의 진학시에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에 반영하는 방법은 일종의 강제적인 유인책이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본인의 선택에 맡겨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더욱이 자원봉사활동 내용이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하는 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점수를 5점으로 하여 최고 7점(포상성격을 갖는 가산점의 경우 이보다 높음)을 부여하는 등 변별할 수 있는 점수의 폭(2점)을 매우 적게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례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점수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그 자체가 자원봉사의 기본원리인 자발성이나 자원성을 저해하기보다는 청소년 자원봉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본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봉사하고자 하는 주체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최소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대다수의 학생이 반강제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점수화는 그 자체가 평가로서의 의미보다는 학교개입 유도과 아울러 활동의 계속성과 기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최소한의 제도적 유인장치는 청소년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 낼 여지를 주고 있는 셈이며,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하고 그에 따른 각종의 보상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떤 다양한 보상장치를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시에 반영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유인책이 갖고 있는 제도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가의 관건이기도 하다. 단지 대학입시에서는 일반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시처럼 봉사활동의 내용과 구분없이 총 시간량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입시요강 발표 시에 각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어떤 분야의 봉사활동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은 청소년 자원봉사를 다양하게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촉발 요인이 될 것이다.

2)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동시에 학교 개입의 필요성 제기 및 다양한 자원봉사 교재와 프로그램의 확보, 지도자 양성, 지역사회와 정부의 협조 등의 요구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적어도 청소년 자원봉사가 미래의 건강한 시민성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봉사와 개인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며,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인식(참조: '28)을 전제하고 있다. 즉, 청소년 자원봉사가 현재의 지식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과제를 체험적으로 배우는 기회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보다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교육적 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청소년 자원봉사가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 아래 미국식의 '봉사를 통한 수업(Serve America 혹은 Service Learning)'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되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즉, 봉사활동을 교과과목과 연관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수업 뿐 아니라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에서도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신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키우는 인격교육의 산실로 삼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봉사를 통한 수업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참조: 원영준, 1995:121).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의 당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봉사에 대해서 배우고 이 경험을 개발시키도록 한다. 둘째, 이 프로그램을 학생의 학업활동과 연관되게 하거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보고 배운 것을 직

접 생각해 보고 토론해 보며 글로 써볼 수 있는 시간을 체계화시키도록 한다. 셋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새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학습의 기회를 학교 밖으로 연장시키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을 계발시키도록 한다.

또한 미국의 ‘봉사를 통한 수업’은 1993년 제정된 『봉사를 통한 수업 법(Service Learning Act of 1993, S676)』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 법의 근본 취지(Youth Policy Institute, 1993:30)는 첫째, 기존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일종의 ‘교수-학습 방법론’으로서 봉사를 통한 수업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고양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봉사를 통한 수업을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교사나 그 밖의 지도자들의 능력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교육프로그램, 제도와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법』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청소년육성 프로그램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즉, 미국의 봉사를 통한 수업 프로그램은 교육개선을 위한 일종의 교수-학습방법론으로서 봉사활동을 응용한 교육과정의 일종이며,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봉사를 통한 수업 프로그램은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참조:원영준, 1995:122). 첫째, 현재까지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시민정신과 봉사정신을 주축으로 하는 과목과 연계하여 이루어졌지만, 과학 등 다른 교과목들과 어떻게 접목하여 다양하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현재 많은 사립고등학교와 일부 지역의 공립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 참여를 졸업요건으로 규정해놓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이 의무적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하는 강제성 유무의 문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봉사를 통한 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봉사를 통한 수업 프로그램은 일종의 교수학습방법론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교과목과 연계되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교수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수업에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새로운 사전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교사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국의 『봉사를 통한 수업 법(法)』에서는 교사, 학교장 등 학교 인사 및 교사와 함께 봉사수업에 동참하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새로운 교원교육 또는 재교육 과정을 제안(Youth Policy Institute, 1993:30)하고 있다. 둘째, 봉사를 통한 수업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 위원회(Commission on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에서 적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데, 여름방학 기간동안 학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했던 한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1인당 \$550-600이 소요되었다(참조:원영준, 1995:121). 물론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소년 봉사를 통해 얻어지는 수확을 비교하면 투자효율성은 적지 않겠지만, 적어도 봉사를 통한 수업 프로그램의 운용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자체에 의한 비용이 일정 부분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미국사회와 같이 지역사회와 같이 지역사회의 개념과 인식이 정착되어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사회에서의 봉사를 통한 수업 프로그램의 도입에 따

른 학교나 교원의 부담과 한국사회와 같이 지역사회의 인식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교원이나 학교가 안게 되는 부담은 비교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봉사를 통한 수업 프로그램의 도입은 자칫 교사와 학생의 수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의 소요비용 부담에 따른 사교육비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노력이나 제안들은 봉사학습의 도입이나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의 요구에 앞서 지금까지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잘 짜여진 각종 프로그램들이나 활동들이 왜 청소년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학교현장과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봉사활동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 이념의 바탕 위에서 그 기본정신을 살릴 수 있는 각종 자원의 배분구조와 권위 혹은 권력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배려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 같은 봉사활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관계자에게 우선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선택 및 신뢰회복의 바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사회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의한 봉사활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지적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정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걸어 왔으나, 이러한 기대는 너무나 큰 기대였으며, 자원봉사 활동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참조: 원영준, 1995:123-124). 그것은 첫째, 자원봉사의 의도와 계획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기술과 노력을 급료를 받는 활동에 활용하려고 함으로써 봉사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할 여유가 없으며, 위험지역에서의 봉사활동 등으로 참여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봉사활동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득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과제 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되는 자원봉사 활동은 형식적인 활동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또한 사회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봉사자를 투입하고 사전교육과 준비를 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이 필요한 적절한 사회적 우선 과제의 설정과 그에 따른 봉사자의 사전교육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상과 같은 미국사회에서의 청소년 자원봉사의 한계와 그 대안적 방향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사회와 같이 자원봉사 정신이 사회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봉사실적의 입시 반영 등으로 청소년에 의한 ‘벼락치기 봉사활동’이나 ‘저돌적 봉사활동’(참조: , :42)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보다 체계화하고 교육적인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요기관의 확보 및 교재의 개발, 교사나 지도자의 훈련 등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이나 물질적 특권없이 봉사나 체험의 보람에만 의존하여 봉사자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강제하는 틀에서 벗어나 청소년 봉사참가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자원봉사의 기본원리로서 무상성에 지나치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좀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며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실질적인 이득은 봉사활동이 완료되는 시점에 청소년에게 보상을 주는 즉시적인 댓가가 아니라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보상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봉사활동 실적을 가진 청소년이나 양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행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대학학비를 면제하거나 혹은 장학금 수혜시 우선적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봉사실적을 가진 자를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학자금 융자 시에 일정 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시험에서도 일정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제도들이 마련될 때만이 현행 점수에 의한 입시 반영이라는 유인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그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봉사활동이 수업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학습과정으로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봉사기금』과 같은 형태의 기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원봉사보험』과 같은 제도 마련을 위해서도 기금설치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보험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금의 출자자는 청소년 봉사활동이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의 상호보완을 위한 주요한 매개일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학교와 관련 행정기관, 청소년 육성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주축으로 하고, 그 밖에 지역사회의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세나 교육관련 재원의 일부 배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자원봉사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의 성격을 갖는 적지 않은 교내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각종 폐품수집, 캠페인 활동이나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 참가 등이다.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 봉사의 성격이 강한 활동들을 적절히 분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의 정신과 이념을 심어주는 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기도 하다. 편의적으로 동일한 활동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느냐, 교외활동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봉사활동 실적으로 반영된다면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폐품수집 등의 활동은 현행과 같이 학교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학생들 스스로에 의해 계획되고 시행되며 결과평가까지도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미국처럼 봉사를 통한 수업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거나 교외의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선택적 활동으로 실시될지라도,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궁극적으로 해당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시행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결정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나가는 교육개혁의 기본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자원봉사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취지 하에 미국과 같이 특정 수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획일적 방법을 강요하는 것

은 현재 한국사회의 학교 여건과 교원의 부담, 소요비용 및 입시위주의 교육관행과 교육만능적 사고의 팽배 등 제반 문제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시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교 전체나 학년별 집단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교교원의 자질과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특정교과목과 연계하여 수업의 프로그램으로 시행해 볼 수도 있으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특정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협력교로서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학교 전체나 학년별 프로그램과 같이 대집단 활동이 아닌 동아리나 청소년 단체 활동, 또는 개인활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봉사실적이 졸업요건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성적에 반영되고 종합생활기록부에 실적이 기재되는 한국적 현실에서 일정수준 정도의 학교 개입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이 경우 해당 학교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이나 각종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개방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여하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학교만의 울타리 안에서, 수련활동이나 복지차원의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들은 그들 나름의 독자적 논리에 따라 시행되고, 아무리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들로부터 외면 당해 온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교육과 청소년 육성 분야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보다 밀접한 연계를 맺을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만으로서가 아니라 청소년의 인간적 삶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 육성의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시험장인 동시에 학교와 육성분야 개혁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조사 방법 및 절차

1. 조사의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에 있는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식과 욕구 및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과 학부모용 설문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자원봉사에 대한 이미지(15개 항목), 청소년 자원봉사의 필요성 여부, 개념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 청소년자원봉사 수요기관, 시간, 영역 등의 환경영역,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평가 및 평가자,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청소년 자원봉사의 수요기관에 대한 설문은 주로 청소년자원봉사의 실시여부와 관련된 청소년자원봉사의 실태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기대와 연계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사의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수요기관이다. 청소년 및 학부모의 조사대상자 표집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학생은 남녀 150명씩으로 300명, 고등학생 또한 남녀 150명씩으로 300명이며 고등학생은 실업계 100명(남 : 50명, 여 : 50명) 인문계 200명(남 : 100명, 여 : 100명)으로 청소년의 총 표집은 600명이었으며 학부모는 대상 청소년의 학부모를 그대로 표집하였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유효한 설문은 학생의 경우 총 572명으로 남학생의 비율은 49.5%, 여학생의 비율은 50.5%이며, 중학생의 비율은 48.9%, 고등학생의 비율은 51.1%이다(<표 1> 참조).

<표 1> 대상 청소년의 사회인구적 배경

	남자		여자		전체	
학교별						
중학교	144	52.2%	132	47.8%	276	48.8%
고등학교	136	47.2%	152	52.8%	288	50.9%
성적별						
잘하는편	47	50.0%	47	50.0%	94	16.6%
보통임	168	48.3%	180	51.7%	348	61.5%
잘못하는편	64	54.7%	53	45.3%	117	20.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3	67.3%	16	32.7%	49	8.7%
보통임	222	47.6%	244	52.4%	466	82.3%
어려운편	25	52.1%	23	47.9%	48	8.5%

(다음 쪽에 계속)

	남자		여자		전체	
종교별						
기독교	90	44.3%	113	55.7%	203	35.9%
불교	23	38.3%	37	61.7%	60	10.6%
기타	51	60.0%	34	40.0%	85	15.0%
없음	7	50.0%	7	50.0%	14	2.5%
성인	109	54.0%	93	46.0%	202	35.7%
성인						
성인	70	66.7%	35	33.3%	105	18.6%
성인	110	39.1%	171	60.9%	281	49.6%
성인	25	53.2%	22	46.8%	47	8.3%
성인	75	57.7%	55	42.3%	130	23.0%
자원봉사경험						
자원봉사경험	36	44.4%	45	55.6%	81	14.3%
자원봉사경험	80	48.2%	86	51.8%	166	29.3%
자원봉사경험	119	47.0%	134	53.0%	253	44.7%
자원봉사경험	45	68.2%	21	31.8%	66	11.7%
전체	280	49.5%	286	50.5%	566	100.0%

학부모의 경우 회수된 유효한 설문은 총 534명으로 이중 남자(아버지)가 응답한 경우는 28.3%, 여자(어머니)가 응답한 것은 71.7%이다(<표 2> 참조).

<표 2> 대상 학부모의 사회인구적 배경

	남자		여자		전체	
학력별						
중졸 이하	16	14.2%	97	85.8%	113	21.2%
고졸	84	30.4%	192	69.6%	276	51.7%
대학 이상	51	35.4%	93	64.6%	144	27.0%
연령별						
30대	12	8.6%	128	91.4%	140	26.2%
40대	122	34.5%	232	65.5%	354	66.3%
50대 이상	16	45.7%	19	54.3%	35	6.6%
경제수준별						
상위	8	25.0%	24	75.0%	32	6.0%
중위	109	26.3%	305	73.7%	414	73.1%
하위	33	37.9%	54	62.1%	87	16.3%
종교별						
기독교	36	22.5%	124	77.5%	160	30.0%
불교	17	30.4%	39	69.6%	56	10.5%
기타	36	23.5%	117	76.5%	153	28.7%
없음	4	26.7%	11	73.3%	15	2.8%
진보-보수						
진보	58	38.4%	93	61.6%	151	28.3%
보수	75	26.9%	204	73.1%	279	52.2%
진보	63	29.4%	151	70.6%	214	40.1%
보수	10	27.0%	27	73.0%	37	6.9%
자원봉사경험						
자원봉사경험	9	24.3%	28	75.7%	37	6.9%
자원봉사경험	57	39.0%	89	61.0%	146	27.3%
자원봉사경험	75	25.2%	223	74.8%	298	55.8%
자원봉사경험	10	18.9%	43	81.1%	53	9.9%
전체	151	28.3%	383	71.7%	534	100.0%

청소년 자원봉사 수요기관은 우편설문과 직접방문을 통한 조사 설문을 병행하였으며 전체 표집을 200기관으로 하였으나 수거된 유효한 설문은 90부였다.

3. 조사 결과의 분석

설문지 중에서 적합하지 못한 설문을 제외하고 코딩과 편칭을 한 후 SPSS/PC(V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을 하였다.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표 해석상 예상 오차 허용범위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최대 $\pm 4\%$ 수준이다.

IV. 조사 결과 및 해석

1. 자원봉사 이미지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원봉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와 같은 진술식 문장을 15개 제시하고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에 대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먼저 15개 이미지 중 ‘그렇다’에 높은 비율로 응답한 상위 5개 항목(긍정적 인식)과 ‘그렇지 않다’에 높은 비율로 응답한 하위 5개 항목(부정적 인식)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응답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자원봉사의 긍정-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학부모-청소년의 인식

청소년	학부모
긍정적으로 인식한 이미지(그렇다의 응답비율)	
1. 사회에 기여한다(79.8%)	1. 사회에 기여한다(88.3%)
2. 무보수이다(68.7%)	2.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82.1%)
3.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66.5%)	3. 무보수이다(79.6%)
4.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54.7%)	4. 공부를 하게 한다(66.0%)
5. 공부를 하게 한다(44.7%)	5.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57.4%)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미지(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	
1. 쓸데없는 참견이다(78.6%)	1. 쓸데없는 참견이다(85.6%)
2. 강제적인 것이다(78.0%)	2. 강제적인 것이다(85.8%)
3. 겉치레이다(68.1%)	3. 겉치레이다(78.0%)
4.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다(54.6%)	4.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다(62.1%)
5.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52.2%)	5.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61.8%)

청소년의 경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제시된 이미지 중 긍정적으로 지지(그렇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하며(80.5%)’, ‘무보수이고(68.5%)’, ‘개인발전에 도움이 되며(66.5%)’,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54.7%)’. 이에 반해 자원봉사가 ‘쓸데없는 참견이고(78.8%)’, ‘강제적이며(78.2%)’, ‘겉치레이고(68.2%)’,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다(54.9%)’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원봉사의 원칙인 “자발성, 이타성, 무보수성, 지속성”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경우 제시된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을 보면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하고’(88.5%), ‘개인발전에 도움이 되며(82.1%)’, ‘무보수이고’(78.8%), ‘공부를 하게 하며(66.9%)’,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57.6%)’. 그러나 자원봉사가 ‘쓸데없는 참견이고(86.1%)’, ‘강제적이며(86.0%)’, ‘겉치레이고(78.4%)’,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주는 것이며(62.2%)’,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

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61.9%)’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원봉사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 학부모가 청소년보다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시한 15개의 이미지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자원봉사의 이미지를 좀 더 영역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을 위해서는 주성분추출법(PC)을 사용하고 요인의 회전은 VARIMAX로 직교회전하였다. 요인의 결정은 고유치(eigenvalue)가 1.0인 것으로 제한하였는 데, 이에 따라 5개의 요인이 나왔으며 5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은 49.7%로 그리 높지 않다. 각 문항의 요인 소속 및 요인적재량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자원봉사 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Communality
◦ 걸치레이다		.716					.541
◦ 쓸데 없는 참견이다		.699					.526
◦ 강제적인 것이다		.627					.479
◦ 인기가 있다			.738				.559
◦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			.691				.505
◦ 매력적인 일이다			.434				.435
◦ 사회에 기여한다				.600			.443
◦ 무보수이다				.578			.361
◦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				.411			.441
◦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699		.578
◦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682		.566
◦ 공부를 하게 한다				.407**	.421		.488
◦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789	.669
◦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다						.519	.419
◦ 모험적이다				-.405**		.409	.445
고유치 설명 변량		2.65 17.7%	1.52 10.2%	1.21 8.1%	1.06 7.1%	1.01 6.7%	(49.7%)

* 사례수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응답치를 합한 1,093명임

** 요인의 소속 변화를 위해 제시한 것임

위의 표에서 나온 5개의 요인에 대하여 각 각의 세가지 항목이 소속되어 있으나 요인4에서의 “공부를 하게 한다”와 요인5에서의 “모험적이다”는 요인적재량이 요인3에도 높게 나타나 있으며 내용상으로 볼 때도 요인3에 가까와 요인3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각 요인에 포함된 소속 항목이 갖는 이미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요인1(3항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는 괜한 짓인가”, 요인2(3항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는가”, 요인3(5항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는 의미가 있는가”, 요인4(2항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는 누가 하는가”, 그리고 요인5는 “자원봉사는 무엇인가”로 유목화하였다.

1) 자원봉사는 괜한 짓인가 ?

먼저 “자원봉사는 걸치레이다”라는 항목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6.7%가 ‘그렇다’고 하며 25.1%는

‘잘 모르겠다’, 68.1%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자원봉사가 걸치레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아주 낮다. 학부모의 경우는 5.3%만이 자원봉사가 걸치레라고 보며 78.0%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학부모가 청소년에 비해서 자원봉사가 걸치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자원봉사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표 5> 자원봉사는 걸치레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38	6.7%	142	25.1%	385	68.1%	565	100.0%	$\chi^2 = 13.87$ p = .001
청소년-학부모	28	5.3%	88	16.7%	412	78.0%	528	100.0%	
전체	66	6.0%	230	21.0%	797	72.9%	1093	100.0%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17	6.2%	88	32.1%	169	61.7%	274	100.0%	$\chi^2 = 13.57$ p = .001
여자	20	7.0%	53	18.6%	212	74.4%	285	100.0%	
학교별									
중학교	18	6.7%	85	31.5%	167	61.9%	270	100.0%	$\chi^2 = 10.83$ p = .004
고등학교	19	6.6%	56	19.5%	212	73.9%	287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8	9.6%	25	30.1%	50	60.2%	83	100.0%	$\chi^2 = 14.04$ p = .029
과거활동중	10	6.1%	43	26.4%	110	67.5%	163	100.0%	
희망하고있음	12	4.7%	53	20.9%	189	74.4%	254	100.0%	
생각없음	8	12.1%	22	33.3%	36	54.5%	66	100.0%	
학부모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7	4.7%	20	13.5%	121	81.8%	148	100.0%	$\chi^2 = 1.61$ p = .445
여자	20	5.3%	67	17.9%	288	76.8%	375	100.0%	
학력별									
초등학교이하	11	10.5%	25	23.8%	69	65.7%	105	100.0%	$\chi^2 = 15.30$ p = .004
중학교	11	4.1%	45	16.6%	215	79.3%	271	100.0%	
고등학교이상	5	3.5%	17	11.8%	122	84.7%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0	0%	6	16.7%	30	83.3%	36	100.0%	$\chi^2 = 16.87$ p = .009
과거활동중	7	4.9%	16	11.2%	120	83.9%	143	100.0%	
희망하고있음	17	5.8%	49	16.6%	229	77.6%	295	100.0%	
생각없음	4	7.8%	17	33.3%	30	58.8%	51	100.0%	

청소년만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61.7%가 자원봉사는 걸치레가 아니라고 하며 6.2%만이 걸치레라고 한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74.4%가 자원봉사가 걸치레라는 것에 반대하며 7.0%는 걸치레라고 생각한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자원봉사가 걸치레라는 것에 대해 61.9%가 반대하며 고등학생은 73.9%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걸치레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보면 ‘자원봉사가 걸치레’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60.2%가 아니라고 하며, 과거에 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은 67.5%,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희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74.4%,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은 54.5%가 자원봉사는 걸치레라는 것에 반대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자원봉사를 본다.

학부모들의 경우는 성별로 볼 때 남자(아버지)의 81.8%가, 여자(어머니)의 76.8%가 자원봉사는 걸치레가 아니라고 하여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원봉사를 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학부모의 경우는 65.7%가 자원봉사는 걸치레가 아니라고 하며 ‘고졸’인 경우는 79.3%, ‘대학 이상’인 경우는 84.7%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학력이 높을 수록 자원봉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원봉사 경험유무에 따른 결과를 보면 현재나 과거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이 그렇지 않는 학부모에 비해 자원봉사가 걸치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 걸치레가 아니라고 인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자원봉사는 쓸데없는 참견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청소년의 78.6%가 자원봉사가 쓸데없는 참견이라는 것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4.0%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85.6%는 자원봉사가 쓸데없는 참견이라는 것에 반대하며 단지 3.0%만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표 6> 자원봉사는 쓸데없는 참견이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23	4.0%	99	17.3%	449	78.6%	571	100.0%	$\chi^2 = 9.16$
청소년	16	3.0%	60	11.4%	452	85.6%	528	100.0%	$p = .010$
학부모	39	3.5%	159	14.5%	901	82.0%	1099	100.0%	
전체	39	3.5%	159	14.5%	901	82.0%	1099	100.0%	
청소년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자	12	4.3%	54	19.4%	213	76.3%	279	100.0%	$\chi^2 = 1.92$
여자	10	3.5%	44	15.4%	232	81.1%	286	100.0%	$p = .381$
학력별									
중학교	12	4.4%	57	20.7%	206	74.9%	275	100.0%	$\chi^2 = 5.17$
고등학교	10	3.5%	40	13.9%	238	82.6%	288	100.0%	$p = .075$
자원봉사 경험									
현재 활동 중	3	3.6%	16	19.0%	65	77.4%	84	100.0%	$\chi^2 = 9.21$
과거 활동 중	5	3.0%	35	21.1%	126	75.9%	166	100.0%	$p = .162$
생각 없음	10	3.9%	33	12.9%	212	83.1%	255	100.0%	
생각 없음	5	7.5%	15	22.4%	47	70.1%	67	100.0%	
학부모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성별									
남자	7	4.7%	11	7.4%	130	87.8%	148	100.0%	$\chi^2 = 4.46$
여자	9	2.4%	47	12.5%	319	85.1%	375	100.0%	$p = .107$
학력별									
중졸 이하	3	2.8%	18	16.8%	86	80.4%	107	100.0%	$\chi^2 = 4.98$
고졸	8	3.0%	24	8.9%	238	88.1%	270	100.0%	$p = .288$
대학 이상	5	3.5%	16	11.2%	122	85.3%	143	100.0%	
자원봉사 경험									
현재 활동 중	1	2.8%	3	8.3%	32	88.9%	36	100.0%	$\chi^2 = 19.22$
과거 활동 중	8	5.5%	12	8.3%	125	86.2%	145	100.0%	$p = .003$
생각 없음	7	2.4%	31	10.6%	255	87.0%	293	100.0%	
생각 없음	0	.0%	14	27.5%	37	72.5%	51	100.0%	

청소년만 보면 청소년 중 남학생의 76.3%가, 여학생의 81.1%가 “자원봉사는 쓸데없는 참견이다”에 반대하며 남학생의 4.3%와 여학생의 3.5%가 그렇다고 생각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74.9%가, 고등학생의 82.6%가 “자원봉사는 쓸데없는 참견이다”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중학생의 4.4%, 고등학생의 3.5%만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른 인식을 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77.4%,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청소년의 75.9%,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83.1%, 전혀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청소년의 70.1%가 “자원봉사는 쓸데없는 참견이다”라는 것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원봉사를 전혀 원치 않는 청소년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해 본 경험이 있을 경우, 그리고 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경우 아버지(남자)의 87.8%와 어머니(여자)의 85.1%가 “자원봉사는 쓸데없는 참견이다”는 것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남자의 4.7%와 여자의 2.4%만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학부모의 80.4%, ‘고졸’인 학부모의 88.1%, ‘대학 이상’인 학부모의 85.3%가 자원봉사가 쓸데없는 참견이라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학부모들 중 자원봉사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희망하는 경우에 전혀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 없는 학부모에 비해 “자원봉사는 쓸데없는 참견이다”라는 것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러면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어떤 것인가? 지금 현재 중학생들의 경우 1년간 40시간 정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어느 정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청소년의 78.0%가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것이다”에 반대하며, 8.3%만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85.8%는 자원봉사의 강제성에 반대하며 5.8%만이 그렇다고 생각하여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의 강제적 이미지에 대한 반대비율이 더 높다.

청소년 중 남학생의 77.8%, 여학생의 78.6%가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것이다”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며 남학생의 7.9%, 여학생의 8.4%가 ‘그렇다’고 하여 자원봉사의 강제성과 관련된 인식에는 양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70.4%가, 고등학생의 85.7%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학생의 11.3%, 고등학생의 5.2%는 강제적인 것에 ‘그렇다’고 생각하여,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것”에 대하여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더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를 보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70.2%,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74.5%,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85.0%, 전혀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의 68.7%가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차이를 보인다.

학부모의 경우 아버지(남자)의 87.2%, 어머니(여자)의 85.6%가 자원봉사의 강제성에 반대하여 청소년과 그 경향이 비슷하다. 학력별로 볼 때, ‘중졸 이하’인 학부모의 79.6%, ‘고졸’인 학부모의 87.0%, ‘대학 이상’인 학부모의 88.9%가 자원봉사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가 강제적인 것”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학부모의 자원봉사경험에 따른 반응을 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86.1%,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84.1%, 현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희망하는 학부모의 89.2%, 앞으로 할 생각이 없는 학부모의 72.5%가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것”이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원봉사는 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청소년이나 학부모 모두 높은 비율

로 자원봉사가 걸치레가 아니며, 쓸데없는 참견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제적인 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원봉사는 괜히 하는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47	8.3%	78	13.7%	444	78.0%	569	100.0%	$\chi^2 = 11.52$ p = .003
학부모	31	5.8%	44	8.3%	455	85.8%	530	100.0%	
전체	78	7.1%	122	11.1%	899	81.8%	1099	100.0%	
청소년									
성별									
여자	22	7.9%	40	14.4%	216	77.7%	278	100.0%	$\chi^2 = 262$ p = .877
남자	24	8.4%	37	13.0%	224	78.6%	285	100.0%	
학교별									
중학교	31	11.3%	50	18.2%	193	70.4%	274	100.0%	$\chi^2 = 19.25$ p = .000
고등학교	15	5.2%	26	9.1%	246	85.7%	287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9	10.7%	16	19.0%	59	70.2%	84	100.0%	$\chi^2 = 15.73$ p = .015
과거활동중	15	9.1%	27	16.4%	123	74.5%	165	100.0%	
희망함	17	6.7%	21	8.3%	216	85.0%	254	100.0%	
없음	7	10.4%	14	20.9%	46	68.7%	67	100.0%	
학부모									
성별									
여자	10	6.7%	9	6.0%	130	87.2%	149	100.0%	$\chi^2 = 1.26$ p = .532
남자	21	5.6%	33	8.8%	322	85.6%	376	100.0%	
학교별									
초등학교 이하	8	7.4%	14	13.0%	86	79.6%	108	100.0%	$\chi^2 = 5.66$ p = .225
중학교	15	5.6%	20	7.4%	235	87.0%	270	100.0%	
고등학교 이상	8	5.6%	8	5.6%	128	88.9%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1	2.8%	4	11.1%	31	86.1%	36	100.0%	$\chi^2 = 12.77$ p = .046
과거활동중	11	7.6%	12	8.3%	122	84.1%	145	100.0%	
희망함	12	4.1%	20	6.8%	263	89.2%	295	100.0%	
없음	7	13.7%	7	13.7%	37	72.5%	51	100.0%	

2)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는가 ?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는 활동인가? 먼저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라는 문장에 대하여 그렇다고 한 비율은 청소년의 경우 5.7%, 학부모의 경우 15.2%이며, 그렇지 않다고 한 비율은 청소년의 경우 48.1%, 학부모의 경우는 43.9%로서 자원봉사의 인기를 높게 평가하는 쪽은 학부모 쪽이다.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의 5.0%, 여학생의 8.4%가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며, 남학생의 52.7%, 여학생의 42.8%가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는 것에 반대한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8.7%, 고등학생의 4.9%가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며, 중학생의 42.9%, 고등학생의 52.6%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더 인기가 높다.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반응을 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9.5%,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9.6%,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4.3%,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의 4.5%만이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고 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해봤거나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인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표 8>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학부모	38	6.7%	258	45.3%	274	48.1%	570	100.0%	$\chi^2 = 20.78$
청소년	80	15.2%	215	40.9%	231	43.9%	526	100.0%	$p = .000$
전체	118	10.8%	473	43.2%	505	46.1%	1096	100.0%	
청소년									
성별									
여자	14	5.0%	118	42.3%	147	52.7%	279	100.0%	$\chi^2 = 6.61$
남자	24	8.4%	139	48.8%	122	42.8%	285	100.0%	$p = .036$
학교별									
초등학교	24	8.7%	133	48.4%	118	42.9%	275	100.0%	$\chi^2 = 6.90$
중학교	14	4.9%	122	42.5%	151	52.6%	287	100.0%	$p = .031$
고등학교									
자원봉사 경험									
있음	8	9.5%	37	44.0%	39	46.4%	84	100.0%	$\chi^2 = 16.22$
없음	16	9.6%	71	42.8%	79	47.6%	166	100.0%	$p = .012$
학부모									
성별									
여자	21	14.2%	50	33.8%	77	52.0%	148	100.0%	$\chi^2 = 5.95$
남자	59	15.8%	163	43.7%	151	40.5%	373	100.0%	$p = .051$
학력									
중졸 이하	27	25.2%	39	36.4%	41	38.3%	107	100.0%	$\chi^2 = 14.62$
고졸	42	15.7%	107	40.1%	118	44.2%	267	100.0%	$p = .005$
대학 이상	11	7.6%	64	44.4%	69	47.9%	144	100.0%	
자원봉사 경험									
있음	5	13.9%	15	41.7%	16	44.4%	36	100.0%	$\chi^2 = 4.81$
없음	17	12.0%	54	38.0%	71	50.0%	142	100.0%	$p = .567$
학부모									
성별									
여자	52	17.7%	122	41.5%	120	40.8%	294	100.0%	
남자	6	11.8%	22	43.1%	23	45.1%	51	100.0%	

학부모의 경우 아버지(남자)의 14.2%와 어머니(여자)의 15.8%가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52.0%, 어머니의 40.5%는 자원봉사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의 25.2%, ‘고졸’인 경우는 15.7%, ‘대학 이상’인 경우는 7.6%가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여 학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원봉사가 인기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학부모의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응답 비율을 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13.9%.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학부모의 12.0%, 자원봉사활동 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17.7%.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학부모의 11.8%가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청소년의 12.8%만이, 그리고 학부모의 34.3%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청소년의 52.2%, 학부모의 41.6%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학부모보다 더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만 보면 남학생의 11.9%, 여학생의 13.3%가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남학생의 54.0%, 여학생의 50.9%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성별 차이는 없다. 중학생의 16.5%, 고등학생의 9.0%가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중학생의 52.0%, 고등학생의

53.1%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청소년의 반 이상이 자원봉사는 노는 것에 비해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9>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73	12.8%	199	35.0%	297	52.2%	569	100.0%	$\chi^2=72.11$
학부모	181	34.3%	127	24.1%	219	41.6%	527	100.0%	p=.000
전체	254	23.2%	326	29.7%	516	47.1%	1096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33	11.9%	95	34.2%	150	54.0%	278	100.0%	$\chi^2=598$
여자	38	13.3%	102	35.8%	145	50.9%	285	100.0%	p=.74
학력별									
중학교	45	16.5%	86	31.5%	142	52.0%	273	100.0%	$\chi^2=7.81$
고등학교	26	9.0%	109	37.8%	153	53.1%	288	100.0%	p=.020
자원봉사 경험									
현재 활동 중	17	20.5%	23	27.7%	43	51.8%	83	100.0%	$\chi^2=21.04$
과거에 활동한 적이 있음	21	12.7%	61	36.7%	84	50.6%	166	100.0%	p=.001
희망하는 생 각	32	12.5%	101	39.6%	122	47.8%	255	100.0%	
없음	3	4.5%	14	21.2%	49	74.2%	66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55	37.4%	27	18.4%	65	44.2%	147	100.0%	$\chi^2=3.51$
여자	125	33.3%	98	26.1%	152	40.5%	375	100.0%	p=.172
학력별									
중졸 이하	38	35.2%	34	31.5%	36	33.3%	108	100.0%	$\chi^2=6.82$
고졸	97	36.1%	56	20.8%	116	43.1%	269	100.0%	p=.145
대학 이상	45	31.7%	32	22.5%	65	45.8%	142	100.0%	
자원봉사 경험									
현재 활동 중	15	42.9%	4	11.4%	16	45.7%	35	100.0%	$\chi^2=10.06$
과거에 활동한 적이 있음	47	32.6%	32	22.2%	65	45.1%	144	100.0%	p=.122
희망하는 생 각	108	36.6%	72	24.4%	115	39.0%	295	100.0%	
없음	11	22.0%	18	36.0%	21	42.0%	50	100.0%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응답을 보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20.5%,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12.7%,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12.5%가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자원봉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청소년은 4.5%만이 자원봉사가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고 하며 74.2%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자원봉사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 자원봉사가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는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

학부모의 경우 아버지(남자)의 37.3%, 어머니의 33.3%가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고 하며, 아버지의 44.2%, 어머니의 40.5%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학부모의 경우 35.2%, ‘고졸’인 학부모의 36.1%, ‘대학 이상’인 학부모의 31.7%가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고 생각하여 학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42.9%,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32.6%,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36.6%,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학부모의 22.0%가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고 하여 자원

봉사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일인가? 청소년의 32.6%가 그렇다고 하며 44.7%는 잘모르겠다고 하고 22.8%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학부모의 41.2%가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28.2%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30.6%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청소년이나 학부모 모두 자원봉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보다 더 높으며 청소년에 비해서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표 10>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일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86	32.6%	255	44.7%	130	22.8%	571	100.0%	$\chi^2 = 32.29$ p = .000
학부모	218	41.2%	149	28.2%	162	30.6%	529	100.0%	
전체	404	36.7%	404	36.7%	292	26.5%	1100	100.0%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66	23.7%	141	50.5%	72	25.8%	279	100.0%	$\chi^2 = 18.51$ p = .000
여자	116	40.6%	114	39.9%	56	19.6%	286	100.0%	
학교별									
중학교	71	25.8%	128	46.5%	76	27.6%	275	100.0%	$\chi^2 = 12.23$ p = .002
고등학교	109	37.8%	127	44.1%	52	18.1%	288	100.0%	
자원봉사 경험									
현재 활동 중	30	35.7%	32	38.1%	22	26.2%	84	100.0%	$\chi^2 = 34.81$ p = .000
과거 활동 중	48	28.9%	80	48.2%	38	22.9%	166	100.0%	
한번도 안함	100	39.2%	115	45.1%	40	15.7%	255	100.0%	
생각없음	8	11.9%	29	43.3%	30	44.8%	67	100.0%	
학부모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61	41.2%	34	23.0%	53	35.8%	148	100.0%	$\chi^2 = 3.78$ p = .151
여자	156	41.5%	113	30.1%	107	28.5%	376	100.0%	
학력별									
초·중 이하	33	30.6%	35	32.4%	40	37.0%	108	100.0%	$\chi^2 = 12.25$ p = .015
고·중	107	39.8%	75	27.9%	87	32.3%	269	100.0%	
대학 이상	74	51.4%	37	25.7%	33	22.9%	144	100.0%	
자원봉사 경험									
현재 활동 중	23	63.9%	7	19.4%	6	16.7%	36	100.0%	$\chi^2 = 30.95$ p = .000
과거 활동 중	57	39.6%	41	28.5%	46	31.9%	144	100.0%	
한번도 안함	130	44.1%	86	29.2%	79	26.8%	295	100.0%	
생각없음	7	13.7%	15	29.4%	29	56.9%	51	100.0%	

청소년들만 보면 남자의 23.7%, 여자의 40.6%가 자원봉사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남자의 25.8% 여자의 19.6%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자원봉사를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본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25.8%, 고등학생의 37.8%가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중학생의 27.6%, 고등학생의 18.1%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자원봉사를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35.7%가 자원봉사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28.9%가 자원

봉사를 매력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39.2%가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자원봉사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청소년은 11.9%만이 자원봉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여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원봉사가 매력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남자)의 41.2%, 어머니(여자)의 41.5%가 ‘그렇다’고 하여 자원봉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며 아버지의 35.8%, 어머니의 28.5%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자원봉사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비율이 더 높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인 학부모의 경우 30.6%, ‘고졸’인 학부모의 39.8%, ‘대학이상’인 경우 51.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자원봉사 경험유무에 따라서 보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63.9%,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39.6%,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44.1%, 자원봉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부모의 13.7%가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일이라고 하여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그렇지 않는 학부모에 비해서 자원봉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

3) 자원봉사는 혜택을 주는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는 ‘무상성, 무보수성’ 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음을 표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굳이 자원봉사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자 자신만의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도 있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 급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원봉사의 개인적, 사회적 혜택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몇 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하는가?”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79.8%, 학부모의 88.3%가 그렇다고 하며 청소년의 3.2%, 학부모의 3.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학부모가 청소년에 비해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고 밝힌 비율이 더 높다.

청소년만 보면 남학생의 78.6%, 여학생의 81.1%가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남학생의 3.3%, 여학생의 3.1%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72.2%, 고등학생의 87.5%가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고 하며 중학생의 5.1%, 고등학생의 1.4%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자원봉사가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70.2%,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76.4%,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85.8%,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의 77.6%가 그렇다고 하여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

학부모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남자)의 91.9%, 어머니(여자)의 86.9%가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

한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4.1%, 어머니의 3.5%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응답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엔 81.0%, ‘고졸’인 경우엔 88.6%, ‘대학 이상’인 경우엔 93.8%가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고 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가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표 11>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453	79.8%	97	17.1%	18	3.2%	568	100.0%	$\chi^2=19.60$
학부모	466	88.3%	43	8.1%	19	3.6%	528	100.0%	p=.000
전체	919	83.9%	140	12.8%	37	3.4%	1096	100.0%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남자	217	78.6%	50	18.1%	9	3.3%	276	100.0%	$\chi^2=58.745$
여자	232	81.1%	45	15.7%	9	3.1%	286	100.0%	p=.745
학교별									
중학교	197	72.2%	62	22.7%	14	5.1%	273	100.0%	$\chi^2=21.30$
고등학교	251	87.5%	32	11.1%	4	1.4%	287	100.0%	p=.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59	70.2%	20	23.8%	5	6.0%	84	100.0%	$\chi^2=15.95$
과거활동중	126	76.4%	32	19.4%	7	4.2%	165	100.0%	p=.014
희망함	217	85.8%	34	13.4%	2	.8%	253	100.0%	
생각없음	52	77.6%	11	16.4%	4	6.0%	67	100.0%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									
성별									
남자	136	91.9%	6	4.1%	6	4.1%	148	100.0%	$\chi^2=4.46$
여자	326	86.9%	36	9.6%	13	3.5%	375	100.0%	p=.107
학력별									
중졸이하	85	81.0%	19	18.1%	1	1.0%	105	100.0%	$\chi^2=24.58$
고졸	240	88.6%	16	5.9%	15	5.5%	271	100.0%	p=.000
대학이상	135	93.8%	6	4.2%	3	2.1%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32	88.9%	2	5.6%	2	5.6%	36	100.0%	$\chi^2=29.89$
과거활동중	131	90.3%	5	3.4%	9	6.2%	145	100.0%	p=.000
희망함	264	90.1%	22	7.5%	7	2.4%	293	100.0%	
생각없음	37	72.5%	13	25.5%	1	2.0%	51	100.0%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보던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88.9%,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90.3%,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90.1%, 자원봉사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부모의 72.5%가 그렇다고 하여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는 학부모가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에 관한 의식을 보면, 응답 청소년의 68.7%, 학부모의 79.6%가 그렇다고 하여 응답자의 2/3 이상이 자원봉사는 무보수라고 생각하여 자원봉사는 무보수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지지해 준다. 특히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의 비율이 더 높다.

청소년 중 남학생의 65.6%, 여학생의 71.4%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남학생의 7.9%, 여학생의 6.0%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에 대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찬성 비율이 더 높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60.3%, 고등학생의 76.4%가 자원봉사는 무보수라는 것에 그렇다고 하

여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8.3%,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7.9%, 자원봉사활동 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71.4%, 자원봉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청소년의 61.2%가 자원봉사는 무보수라고 하여 응답비율에 큰 차이는 없다.

<표 12> 자원봉사는 무보수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390	68.7%	139	24.5%	39	6.9%	568	100.0%	$\chi^2 = 11.52$ p = .003
학부모	421	79.6%	60	11.3%	48	9.1%	529	100.0%	
전체	811	73.9%	199	18.1%	87	7.9%	1097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183	65.6%	74	26.5%	22	7.9%	279	100.0%	$\chi^2 = 2.27$ p = .320
여자	202	71.4%	64	22.6%	17	6.0%	283	100.0%	
학교별									
중학교	164	60.3%	83	30.5%	25	9.2%	272	100.0%	$\chi^2 = 16.96$ p = .000
고등학교	220	76.4%	54	18.8%	14	4.9%	288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56	68.3%	19	23.2%	7	8.5%	82	100.0%	$\chi^2 = 3.96$ p = .681
과거활동	112	67.9%	42	25.5%	11	6.7%	165	100.0%	
희망함	182	71.4%	56	22.0%	17	6.7%	255	100.0%	
관심없음	41	61.2%	22	32.8%	4	6.0%	67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127	85.2%	13	8.7%	9	6.0%	149	100.0%	$\chi^2 = 3.95$ p = .138
여자	291	77.6%	46	12.3%	38	10.1%	375	100.0%	
학력별									
중졸이하	78	72.2%	19	17.6%	11	10.2%	108	100.0%	$\chi^2 = 8.61$ p = .071
고졸	216	80.3%	31	11.5%	22	8.2%	269	100.0%	
대학 이상	122	84.7%	9	6.3%	13	9.0%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9	78.4%	2	5.4%	6	16.2%	37	100.0%	$\chi^2 = 5.07$ p = .534
과거활동	118	81.9%	15	10.4%	11	7.6%	144	100.0%	
희망함	235	79.7%	35	11.9%	25	8.5%	295	100.0%	
관심없음	38	76.0%	8	16.0%	4	8.0%	50	100.0%	

학부모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의 경우 85.2%, 어머니의 77.6%가 자원봉사가 무보수라는 것에 찬성하여 아버지의 찬성비율이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인 경우 72.2%, ‘고졸’인 경우 80.3%, ‘대학 이상’인 경우 84.7%가 자원봉사는 무보수라고 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는 무보수라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

학부모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78.4%,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81.9%,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희망하는 학부모의 79.7%, 자원봉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부모의 76.0%가 자원봉사는 무보수라는 것에 찬성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자원봉사는 개인발전에 도움을 주는가? 청소년의 66.5%가 그렇다고 하며 학부모의 82.1%가 그렇다고 하여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가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발전에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 비율

이 더 높다. 청소년 중 남학생의 63.8%, 여학생의 69.2%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남학생의 10.0%, 여학생의 5.9%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원봉사가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60.4%, 고등학생의 72.2%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자원봉사가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표 13> 자원봉사는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380	66.5%	145	25.4%	46	8.1%	571	100.0%	$\chi^2 = 37.02$ p = .000
학부모	439	82.1%	64	12.0%	32	6.0%	535	100.0%	
전체	819	74.1%	209	18.9%	78	7.1%	1106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178	63.8%	73	26.2%	28	10.0%	279	100.0%	$\chi^2 = 3.69$ p = .157
여자	198	69.2%	71	24.8%	17	5.9%	286	100.0%	
학교별									
중학교	166	60.4%	80	29.1%	29	10.5%	275	100.0%	$\chi^2 = 9.96$ p = .006
고등학교	208	72.2%	64	22.2%	16	5.6%	288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46	54.8%	28	33.3%	10	11.9%	84	100.0%	$\chi^2 = 48.20$ p = .000
과거활동	107	64.5%	43	25.9%	16	9.6%	166	100.0%	
희망함	200	78.4%	48	18.8%	7	2.7%	255	100.0%	
관심없음	27	40.3%	27	40.3%	13	19.4%	67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129	86.6%	14	9.4%	6	4.0%	149	100.0%	$\chi^2 = 2.98$ p = .225
여자	306	80.3%	49	12.9%	26	6.8%	381	100.0%	
학력별									
중졸이하	89	80.2%	14	12.6%	8	7.2%	111	100.0%	$\chi^2 = 4.93$ p = .294
고졸	218	80.1%	34	12.5%	20	7.4%	272	100.0%	
대학 이상	126	87.5%	14	9.7%	4	2.8%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35	92.1%	1	2.6%	2	5.3%	38	100.0%	$\chi^2 = 17.95$ p = .006
과거활동	121	82.9%	16	11.0%	9	6.2%	146	100.0%	
희망함	249	83.8%	32	10.8%	16	5.4%	297	100.0%	
관심없음	32	62.7%	14	27.5%	5	9.8%	51	100.0%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반응을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54.8%,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4.5%,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78.4%,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청소년의 40.4%가 그렇다고 하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의 11.9%,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9.6%,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2.7%, 자원봉사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청소년의 19.4%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학부모의 경우는 아버지의 86.6%, 어머니의 80.3%가 자원봉사는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4.0%, 어머니의 6.8%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자원봉사가 개인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인 경우는 80.2%, ‘고졸’인 경우는 80.1%, ‘대학 이상’ 87.5%가 자원봉사는 개인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92.1%,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82.9%,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83.8%, 전혀 자원봉사에 생각이 없는 학부모의 62.7%가 그렇다고 하여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에 비해 자원봉사가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자원봉사를 통해 배우는 게 있을까? “자원봉사는 공부를 하게 한다”라는 물음에 대해 청소년의 44.7%, 학부모의 66.0%가 그렇다고 하여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가 자원봉사를 통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표 14> 자원봉사는 공부를 하게 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55	44.7%	205	36.0%	110	19.3%	570	100.0%	$\chi^2 = 53.17$ p = .000
학부모	349	66.0%	102	19.3%	78	14.7%	529	100.0%	
전체	604	55.0%	307	27.9%	188	17.1%	1099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115	41.2%	106	38.0%	58	20.8%	279	100.0%	$\chi^2 = 2.45$ p = .29
여자	136	47.7%	98	34.4%	51	17.9%	285	100.0%	
학교별									
중학교	110	40.0%	100	36.4%	65	23.6%	275	100.0%	$\chi^2 = 7.44$ p = .024
고등학교	140	48.8%	103	35.9%	44	15.3%	287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34	40.5%	27	32.1%	23	27.4%	84	100.0%	$\chi^2 = 12.79$ p = .046
과거활동	70	42.2%	62	37.3%	34	20.5%	166	100.0%	
희망함	127	50.0%	92	36.2%	35	13.8%	254	100.0%	
생각없음	24	35.8%	25	37.3%	18	26.9%	67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104	69.8%	27	18.1%	18	12.1%	149	100.0%	$\chi^2 = 1.38$ p = .499
여자	243	64.8%	74	19.7%	58	15.5%	375	100.0%	
학력별									
중이하	70	64.2%	21	19.3%	18	16.5%	109	100.0%	$\chi^2 = 2.01$ p = .733
고졸	176	65.7%	50	18.7%	42	15.7%	268	100.0%	
대학 이상	99	68.8%	29	20.1%	16	11.1%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6	70.3%	7	18.9%	4	10.8%	37	100.0%	$\chi^2 = 13.68$ p = .033
과거활동	96	66.7%	20	13.9%	28	19.4%	144	100.0%	
희망함	201	68.4%	58	19.7%	35	11.9%	294	100.0%	
생각없음	25	49.0%	16	31.4%	10	19.6%	51	100.0%	

청소년의 경우만 보면 남학생의 41.2%, 여학생의 47.7%가 그렇다고 하며 남학생의 20.8%, 여학생의 17.9%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자원봉사가 공부를 하게 한다는 비율이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40.0%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23.6%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고등학생의 48.8%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15.3%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자원봉사가 공부를 하게 한다는 비율이 더 높다.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40.5%,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2.2%,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50.0%, 자원봉사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청소년의 35.8%가 자원봉사는 공부를 하게 한다고 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학부모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의 69.8%, 어머니의 64.8%가 자원봉사는 공부를 하게 한다고 하여 아버지의 반응이 더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학부모의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는 64.2%, ‘고졸’인 경우는 65.7%, ‘대학 이상’인 경우는 68.8%가 그렇다고 하여 학력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의 70.3%,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66.7%,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68.4%, 자원봉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부모의 49.0%가 자원봉사는 공부를 하게 한다고 하여 자원봉사 경험이 있거나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에 비해 그렇지 않는 학부모가 자원봉사가 공부를 하게 한다는 데 대해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자원봉사 그 자체는 모험적인가? 여기에 대하여 청소년의 35.2%, 학부모의 32.8%가 그렇다고 하며, 청소년의 28.5%, 학부모의 39.2%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학부모에 비하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가 모험적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더 많다.

<표 15>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01	35.2%	207	36.3%	163	28.5%	571	100.0%	$\chi^2=15.47$
학부모	173	32.8%	148	28.0%	207	39.2%	528	100.0%	$p=.000$
전체	374	34.0%	355	32.3%	370	33.7%	1099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82	29.4%	107	38.4%	90	32.3%	279	100.0%	$\chi^2=8.71$
여자	117	40.9%	98	34.3%	71	24.8%	286	100.0%	$p=.012$
학력별									
중졸 이하	104	37.8%	100	36.4%	71	25.8%	275	100.0%	$\chi^2=2.52$
고졸	94	32.6%	104	36.1%	90	31.3%	288	100.0%	$p=.282$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31	36.9%	35	41.7%	18	21.4%	84	100.0%	$\chi^2=10.10$
과거활동중	67	40.4%	50	30.1%	49	29.5%	166	100.0%	$p=.120$
희망함	87	34.1%	98	38.4%	70	27.5%	255	100.0%	
생각없음	17	25.4%	24	35.8%	26	38.8%	67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44	29.7%	33	22.3%	71	48.0%	148	100.0%	$\chi^2=7.63$
여자	129	34.4%	114	30.4%	132	35.2%	375	100.0%	$p=.021$
학력별									
중졸 이하	43	39.8%	35	32.4%	30	27.8%	108	100.0%	$\chi^2=8.44$
고졸	79	29.5%	76	28.4%	113	42.2%	268	100.0%	$p=.076$
대학 이상	50	34.7%	35	24.3%	59	41.0%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13	36.1%	5	13.9%	18	50.0%	36	100.0%	$\chi^2=11.40$
과거활동중	45	30.8%	35	24.0%	66	45.2%	146	100.0%	$p=.076$
희망함	101	34.4%	87	29.6%	106	36.1%	294	100.0%	
생각없음	14	28.6%	20	40.8%	15	30.6%	49	100.0%	

청소년들 중 남학생의 29.4%, 여학생의 40.9%가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라고 느끼며, 남학생의 32.3%, 여학생의 24.8%는 그렇지 않다고 느껴서 자원봉사가 모험적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남학생

에 비해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37.8%, 고등학생의 32.6%가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라고 생각하며 중학생의 25.8%, 고등학생의 31.3%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자원봉사가 모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36.9%,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0.4%,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34.1%, 자원봉사 관해 전혀 생각이 없는 청소년의 25.4%가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라고 생각하여 자원봉사 경험이 있거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원봉사가 모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학부모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의 29.7%, 어머니의 34.4%가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라고 생각하여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 학부모의 학력에 따르면 '중졸 이하'인 경우는 39.8%, '고졸'인 경우는 29.5%, '대학 이상'인 경우는 34.7%가 자원봉사가 모험적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학부모의 36.1%,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30.8%,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34.4%,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없는 학부모의 28.6%가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라고 하여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4) 자원봉사는 누가 하는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한정하는가?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가?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에 대해 청소년의 35.7%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학부모의 43.0%가 그렇다고 하여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가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

청소년 중에서 여학생은 36.1%, 남학생은 35.4%가 그렇다고 하며 남학생의 23.9%, 여학생의 27.0%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남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39.9%, 고등학생의 31.7%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중학생의 22.1%, 고등학생의 28.9%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33.3%,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1.3%,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36.6%가 그렇다고 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청소년의 경우엔 20.9%만이 그렇다고 하여 자원봉사 경험이 있거나 희망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

학부모 중에서는 아버지의 40.9%, 어머니의 43.3%가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별로는 큰 의견의 차이가 없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의 37.7%, '고졸'인 경우

의 39.8%, ‘대학 이상’인 경우의 51.7%가 그렇다고 생각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

<표 16>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만 한다 .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04	35.7%	222	38.9%	145	25.4%	571	100.0%	$\chi^2 = 26.10$
학부모	226	43.0%	129	24.5%	171	32.5%	526	100.0%	$p = .000$
전체	430	39.2%	351	32.0%	316	28.8%	1097	100.0%	
청소년									
성별									
여자	101	36.1%	112	40.0%	67	23.9%	280	100.0%	$\chi^2 = 7.64$
남자	101	35.4%	107	37.5%	77	27.0%	285	100.0%	$p = .682$
학교별									
중학교	110	39.9%	105	38.0%	61	22.1%	276	100.0%	$\chi^2 = 5.23$
고등학교	91	31.7%	113	39.4%	83	28.9%	287	100.0%	$p = .072$
자원봉사 경험									
현재 자원봉사 활동 중	28	33.3%	35	41.7%	21	25.0%	84	100.0%	$\chi^2 = 11.50$
과거 자원봉사 활동 했음	69	41.3%	65	38.9%	33	19.8%	167	100.0%	$p = .07$
희망함	93	36.6%	92	36.2%	69	27.2%	254	100.0%	
생각하지 않음	14	20.9%	30	44.8%	23	34.3%	67	100.0%	
학부모									
성별									
여자	61	40.9%	29	19.5%	59	39.6%	149	100.0%	$\chi^2 = 5.29$
남자	161	43.3%	99	26.6%	112	30.1%	372	100.0%	$p = .071$
학력별									
중학교 이하	40	37.7%	34	32.1%	32	30.2%	106	100.0%	$\chi^2 = 13.39$
고등학교	107	39.8%	58	21.6%	104	38.7%	269	100.0%	$p = .009$
대학 이상	74	51.7%	34	23.8%	35	24.5%	143	100.0%	
자원봉사 경험									
현재 자원봉사 활동 중	26	72.2%	2	5.6%	8	22.2%	36	100.0%	$\chi^2 = 23.91$
과거 자원봉사 활동 했음	61	42.4%	29	20.1%	54	37.5%	144	100.0%	$p = .000$
희망함	125	42.8%	80	27.4%	87	29.8%	292	100.0%	
생각하지 않음	13	25.5%	16	31.4%	22	43.1%	51	100.0%	

학부모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학부모의 72.7%,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42.4%,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42.8%, 자원봉사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부모의 25.5%가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학부모의 응답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에 반해 자원봉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청소년의 33.5%, 학부모의 30.1%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청소년의 48.5%, 학부모의 61.8%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학부모와 청소년간에 의견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 중에서는 남학생의 37.6%, 여학생의 29.0%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남학생의 43.7%, 여학생의 55.5%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자원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남학생의 지지율이 더 높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31.6%, 고등학생의 34.7%가 자원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여 학교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청소년의 자원봉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39.3%,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9.4%,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56.9%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원봉사를 고려하지 않는 청소년의 26.9%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청소년의 자원봉사 여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표 17> 자원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청소년	191	33.5%	103	18.0%	277	48.5%	571	100.0%	$\chi^2 = 30.51$ p = .000
학부모	160	30.1%	43	8.1%	329	61.8%	532	100.0%	
전체	351	31.8%	146	13.2%	606	54.9%	1103	100.0%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105	37.6%	52	18.6%	122	43.7%	279	100.0%	$\chi^2 = 6.02$ p = .042
여자	83	29.0%	50	17.5%	153	53.5%	286	100.0%	
학력별	87	31.6%	55	20.0%	133	48.4%	275	100.0%	$\chi^2 = 1.46$ p = .48
중고등학교	100	34.7%	47	16.3%	141	49.0%	288	100.0%	
자원봉사경험	32	38.1%	19	22.6%	33	39.3%	84	100.0%	$\chi^2 = 22.92$ p = .00
현재활동중	54	32.5%	30	18.1%	82	49.4%	166	100.0%	
과거활동	72	28.2%	38	14.9%	145	56.9%	255	100.0%	
생각없음	33	49.3%	16	23.9%	18	26.9%	67	100.0%	
학부모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성별	39	26.2%	6	4.0%	104	69.8%	149	100.0%	$\chi^2 = 6.77$ p = .033
여자	119	31.6%	35	9.3%	223	59.2%	377	100.0%	
학력별	35	31.8%	15	13.6%	60	54.5%	110	100.0%	$\chi^2 = 11.18$ p = .024
중고등학교 이하	89	32.8%	17	6.3%	165	60.9%	271	100.0%	
대학 이상	34	23.8%	9	6.3%	100	69.9%	143	100.0%	
자원봉사경험	10	27.0%	2	5.4%	25	67.6%	37	100.0%	$\chi^2 = 14.831$ p = .021
현재활동중	42	28.8%	6	4.1%	98	67.1%	146	100.0%	
과거활동	85	28.8%	27	9.2%	183	62.0%	295	100.0%	
생각없음	22	43.1%	8	15.7%	21	41.2%	51	100.0%	

학부모의 경우 아버지의 26.2%가, 어머니의 31.6%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69.8%, 어머니의 59.2%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원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데에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 31.8%, ‘고졸’인 경우엔 32.8%, ‘대학 이상’은 23.8%가 자원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데에 대해 그렇다고 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낮다.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27.0%,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학부모의 28.8%,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43.1%가 그렇다고 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5) 자원봉사는 무엇인가 ?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해아려 주는 것이다”에 대하여 청소년의 19.8%, 학부모의 25.1%가 그렇다고 하며 청소년의 54.6%, 학부모의 62.1%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의견차이를 보인다.

청소년 중 남학생의 23.3%, 여학생의 16.5%가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남학생의 51.3%, 여학생의 57.9%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자원봉사가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에 더 많이 지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의 20.7%, 고등학생의 18.8%가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중학생의 54.5%, 고등학생의 54.7%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학교별로는 의미 있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8>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13	19.8%	146	25.6%	311	54.6%	570	100.0%	$\chi^2 = 29.146$
학부모	133	25.1%	68	12.8%	329	62.1%	530	100.0%	$p = .000$
전체	246	22.4%	214	19.5%	640	58.2%	1100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65	23.3%	71	25.4%	143	51.3%	279	100.0%	$\chi^2 = 4.42$
여자	47	16.5%	73	25.6%	165	57.9%	285	100.0%	$p = .10$
학교별									
중학교	57	20.7%	68	24.7%	150	54.5%	275	100.0%	$\chi^2 = .42$
고등학교	54	18.8%	76	26.5%	157	54.7%	287	100.0%	$p = .80$
자원봉사 경험									
현재 활동 중	16	19.0%	23	27.4%	45	53.6%	84	100.0%	$\chi^2 = .86$
과거에 활동 한 적이 있음	31	18.7%	40	24.1%	95	57.2%	166	100.0%	$p = .99$
희망하고 있음	53	20.9%	65	25.6%	136	53.5%	254	100.0%	
생각없음	13	19.4%	18	26.9%	36	53.7%	67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41	27.5%	13	8.7%	95	63.8%	149	100.0%	$\chi^2 = 2.98$
여자	91	24.2%	53	14.1%	232	61.7%	376	100.0%	$p = .224$
학력별									
중졸 이하	33	30.6%	23	21.3%	52	48.1%	108	100.0%	$\chi^2 = 17.54$
고졸	64	23.7%	33	12.2%	173	64.1%	270	100.0%	$p = .001$
대학 이상	35	24.3%	9	6.3%	100	69.4%	144	100.0%	
자원봉사 경험									
현재 활동 중	10	27.8%	4	11.1%	22	61.1%	36	100.0%	$\chi^2 = 7.21$
과거에 활동 한 적이 있음	34	23.4%	17	11.7%	94	64.8%	145	100.0%	$p = .301$
희망하고 있음	75	25.4%	34	11.5%	186	63.1%	295	100.0%	
생각없음	14	27.5%	12	23.5%	25	49.0%	51	100.0%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19.0%,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18.7%,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청소년의 20.9%, 자원봉사 활동에 별 관심이 없는 청소년의 19.4%가 그렇다고 하여 자원봉사가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라는 데에 지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학부모 중에서 아버지의 27.5%, 어머니의 24.2%가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에 30.6%, ‘고졸’인 경우에 23.7%, ‘대학 이상’인 경우에 24.3%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중졸 이하’인 경우엔 48.1%, ‘고졸’인 경우엔 64.1%, ‘대학 이상’인 경우엔 69.4%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다.

학부모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비율을 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27.8%,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23.4%,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25.4%,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학부모의 27.5%가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해아려 주는 것이다에 대하여 그렇다고 생각하며 의견의 큰 차이가 없다.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에 대하여 청소년의 54.7%, 학부모의 57.4%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청소년의 21.8%, 학부모의 31.3%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표 19>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312	54.7%	134	23.5%	124	21.8%	570	100.0%	$\chi^2 = 33.43$ p = .000
학부모	306	57.4%	60	11.3%	167	31.3%	533	100.0%	
전체	618	56.0%	194	17.6%	291	26.4%	1103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144	51.6%	65	23.3%	70	25.1%	279	100.0%	$\chi^2 = 3.33$ p = .189
여자	164	57.5%	67	23.5%	54	18.9%	285	100.0%	
학교별									
중학교	145	52.7%	72	26.2%	58	21.1%	275	100.0%	$\chi^2 = 2.18$ p = .334
고등학교	161	56.1%	60	20.9%	66	23.0%	287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49	58.3%	17	20.2%	18	21.4%	84	100.0%	$\chi^2 = 3.00$ p = .808
과거활동	83	50.0%	44	26.5%	39	23.5%	166	100.0%	
희망함	141	55.5%	61	24.0%	52	20.5%	254	100.0%	
생각없음	39	58.2%	13	19.4%	15	22.4%	67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83	55.7%	9	6.0%	57	38.3%	149	100.0%	$\chi^2 = 7.81$ p = .021
여자	221	58.3%	49	12.9%	109	28.8%	379	100.0%	
학력별									
이하	62	56.9%	14	12.8%	33	30.3%	109	100.0%	$\chi^2 = 1.52$ p = .822
고졸 이상	152	55.9%	30	11.0%	90	33.1%	272	100.0%	
	88	61.1%	14	9.7%	42	29.2%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7	73.0%	1	2.7%	9	24.3%	37	100.0%	$\chi^2 = 7.86$ p = .248
과거활동	83	57.2%	12	8.3%	50	34.5%	145	100.0%	
희망함	166	56.1%	38	12.8%	92	31.1%	296	100.0%	
생각없음	29	55.8%	8	15.4%	15	28.8%	52	100.0%	

청소년 중 남학생의 51.6%, 여학생의 57.5%가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남학생의 25.1%, 여학생의 18.9%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52.7%, 고등학생의 56.1%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중학생의 21.1%, 고등학생의 23.0%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여 학교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의 58.3%,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50.0%, 자원봉사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55.5%,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의 58.2%가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의 경우 아버지의 55.7%, 어머니의 58.3%가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지하는 비율은 비슷하나, 아버지의 38.3%, 어머니의 28.8%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의 56.9%, ‘고졸’인 경우의 55.9%, ‘대졸 이상’인 경우의 61.1%가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원봉사 이미지에 대해 학력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학부모의 73.0%,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학부모의 57.2%,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57.2%, 자원봉사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부모의 55.8%가 자원봉사가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학부모가 그렇다고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2. 자원봉사 일반에 관한 이해

1) 자원봉사 경험

자원봉사를 한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은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현재 활동 중(11.0%)이거나 과거에 활동을 한 경우(28.2%) 보다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다고 과반수(50.0%)가 응답해 자원봉사활동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보다는 참여희망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당신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활동중		과거활동		희망함		생각없음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84	147%	167	29.2%	254	44.4%	67	11.7%	572	100.0%
학부모	38	7.0%	147	27.2%	302	55.9%	53	9.8%	540	100.0%
전체	122	11.0%	314	28.2%	556	50.0%	120	10.8%	1112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36	12.9%	80	28.6%	119	42.5%	45	16.1%	280	100.0%
여자	45	15.7%	86	30.1%	134	46.9%	21	7.3%	286	100.0%
학교별										
중학교	71	25.7%	124	44.9%	57	20.7%	24	8.7%	276	100.0%
고등학교	10	3.5%	41	14.2%	195	67.7%	42	14.6%	288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9	6.0%	57	37.7%	75	49.7%	10	6.6%	151	100.0%
여자	28	7.3%	89	23.2%	223	58.2%	43	11.2%	383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7	6.1%	26	22.8%	62	54.4%	19	16.7%	114	100.0%
고졸	18	6.5%	73	26.4%	157	56.9%	28	10.1%	276	100.0%
대학 이상	12	8.4%	46	32.2%	79	55.2%	6	4.2%	143	100.0%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활동중인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12.9%) 보다는 여학생(15.7%)이 고등학생(3.5%)보다는 중학생(25.7%)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자원봉사 동기 요인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과 학부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은 3분의 1정도(38.4%)가 성적이나 취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24.2%), ‘지역사회를 위해’(11.3%), ‘자아실현을 위해’(10.4%) 순으로 자원봉사 동기 요인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학부모는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이 하고 싶어서’가 38.2%로 가장 높고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24.5%),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13.0%), ‘자아실현을 위해’(11.1%)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들이 입시체도의 굴레 속에서 수동적이고 도구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1> 당신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알고도와 전문을 높이기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성적취급반영 을 위해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전체	
학부모										
청소년	32 57%	68 113%	58 104%	16 29%	20 36%	20 36%	24 34%	15 24%	58 100%	$\chi^2=25.43$
학부모	29 53%	28 382%	59 111%	6 11%	19 36%	69 130%	16 30%	10 24%	51 100%	p=.00
전체	61 54%	26 244%	117 107%	22 20%	39 36%	89 82%	20 21%	25 24%	109 100%	
청소년										
성별										
남자	18 66%	25 95%	27 99%	8 29%	13 47%	8 29%	108 34%	6 21%	24 100%	$\chi^2=4.92$
여자	14 50%	35 129%	30 108%	8 29%	7 25%	12 43%	104 374%	67 241%	28 100%	p=.69
학력별										
중학교	8 30%	17 63%	19 70%	4 15%	12 44%	4 15%	149 552%	57 211%	20 100%	$\chi^2=7.66$
고등학교	24 86%	45 161%	37 132%	12 43%	8 29%	16 57%	62 221%	76 271%	20 100%	p=.00
자원봉사경험										
한번이상	4 48%	5 60%	5 60%	1 12%	3 39%	2 24%	47 56%	16 193%	8 100%	$\chi^2=72.31$
과거활동	7 43%	11 68%	12 74%	4 25%	8 49%	11 68%	35 25%	24 148%	16 100%	p=.00
학원생	19 77%	39 57%	35 141%	9 36%	6 24%	7 28%	57 230%	76 304%	28 100%	
생애초	2 30%	8 121%	6 91%	2 30%	3 43%	0 .0%	26 344%	19 283%	6 100%	
학부모										
성별										
남자	16 109%	60 408%	16 109%	1 7%	5 34%	12 82%	3 20%	34 231%	147 100%	$\chi^2=15.55$
여자	13 34%	140 359%	48 113%	4 11%	14 37%	57 150%	13 34%	35 251%	39 100%	p=.05
학력별										
중학교이하	5 44%	32 283%	4 35%	3 27%	8 71%	16 142%	6 53%	39 345%	113 100%	$\chi^2=9.17$
고졸	17 63%	116 460%	30 111%	1 .4%	7 26%	28 104%	8 30%	68 233%	20 100%	p=.00
대학이상	7 49%	51 359%	25 176%	1 .7%	4 28%	25 174%	2 14%	27 190%	142 100%	
자원봉사경험										
한번이상	1 26%	16 421%	2 53%	0 .0%	0 .0%	12 314%	1 26%	6 153%	38 100%	$\chi^2=8.73$
과거활동	8 55%	56 384%	13 89%	2 14%	7 48%	30 203%	2 14%	28 192%	16 100%	p=.00
학원생	19 63%	113 384%	38 130%	3 10%	7 24%	23 78%	9 31%	81 273%	28 100%	
생애초	1 19%	18 340%	6 113%	1 19%	5 94%	3 57%	4 73%	15 283%	5 100%	

그리고 청소년은 학교 급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학생의 과반수 이상(55.2%)이 성적에의 반영을 의식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고등학생은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자원봉사를 한다고 응답(27.1%)하고 있어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성적이나 취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22.1%), ‘지역사회를 위해’(16.1%), ‘자아실현을 위해’(13.2%) 등의 이유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실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의 과반수(56.6%)가 성적에의 반영 가능성 때문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자원봉사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은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30.6%)가 가장 많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 학부모는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고(40.8%)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23.1%) 자원봉사를 하는 한편 견문을 넓히고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발휘를 하기 위해서도 참여하고 있는 반면, 여자 학부모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고(36.9%)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25.1%)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종교적 가르침에 따르기 위해(15.0%) 참여하는 비율이 남자의 경우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참여하는 비율보다 자아실현을 위해, 즉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발휘를 하기 위해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자원봉사 경험이 있거나 희망할수록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활동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고 경험이 없을수록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자원봉사 개념에 대한 인지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대해 청소년은 과반수 정도(42.2%)가 ‘자기희생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 것’ 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이외에도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33.2%)’, ‘사회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19.3%)’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48.4%)’, ‘자기희생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 것(36.5%)’, ‘사회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11.0%)’ 등으로 생각한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의 두 배 정도 높은 비율로 자원봉사활동이란 여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라서도 경험이 없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이란 여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도 자원봉사에 관한 인지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학생의 과반수정도(48.2%)가 자원봉사는 자기희생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자기희생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 것(35.7%)’,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35.3%)’, ‘경험축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25.2%)’으로 생각하고 있어 고등학생은 자원봉사를 정의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22> 당신은 자원봉사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희생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 것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		경제/시간 여유가 있어 여가를 활용하는 것		경험적으로 자신의 성장 도모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40	42.3%	189	33.3%	30	5.3%	109	19.2%	568	100.0%	$\chi^2=30.77$ p = .000
학부모	197	36.6%	260	48.3%	22	4.1%	59	11.0%	538	100.0%	
전체	437	39.5%	449	40.6%	52	4.7%	168	15.2%	1106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116	41.7%	84	30.2%	22	7.9%	56	20.1%	278	100.0%	$\chi^2= 8.72$ p = .033
여자	119	41.9%	104	36.6%	8	2.8%	53	18.7%	284	100.0%	
학교별											
중학교	132	48.2%	87	31.8%	19	6.9%	36	13.1%	274	100.0%	$\chi^2= 18.77$ p = .000
고등학교	102	35.7%	101	35.3%	11	3.8%	72	25.2%	286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39	46.4%	25	29.8%	4	4.8%	16	19.0%	84	100.0%	$\chi^2=29.03$ p = .000
과거활동	80	48.8%	53	32.3%	8	4.9%	23	14.0%	164	100.0%	
희망함	95	37.4%	93	36.6%	7	2.8%	59	23.2%	254	100.0%	
생각없음	26	38.8%	18	26.9%	11	16.4%	12	17.9%	67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49	32.7%	79	52.7%	5	3.3%	17	11.3%	150	100.0%	$\chi^2= 1.87$ p = .598
여자	147	38.5%	179	46.9%	15	3.9%	41	10.7%	382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42	37.8%	43	38.7%	9	8.1%	17	15.3%	111	100.0%	$\chi^2=13.50$ p = .035
고졸	106	38.4%	134	48.6%	9	3.3%	27	9.8%	276	100.0%	
대학 이상	47	32.6%	80	55.6%	3	2.1%	14	9.7%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5	39.5%	16	42.1%	2	5.3%	5	13.2%	38	100.0%	$\chi^2= 7.14$ p = .622
과거활동	55	37.7%	72	49.3%	3	2.1%	16	11.0%	146	100.0%	
희망함	103	34.2%	153	50.8%	13	4.3%	32	10.6%	301	100.0%	
생각없음	23	44.2%	19	36.5%	4	7.7%	6	11.5%	52	100.0%	

학부모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이 여가시간 활용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일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삶의 한 단면임을 보여준다.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및 이유

(1)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대다수(88.7%)의 학부모(92.2%)와 청소년(85.6%)은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 경험이 있을수록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

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84.7%)를 희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

<표 23> 당신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483	85.6%	81	14.4%	564	100.0%	$\chi^2=10.83$ p = .001
학부모	462	92.2%	39	7.8%	501	100.0%	
전체	945	88.7%	120	11.3%	1065	100.0%	
청소년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성별							
남자	233	84.7%	42	15.3%	275	100.0%	$\chi^2= .144$ p = .704
여자	244	86.2%	39	13.8%	283	100.0%	
학교별							
중학교	224	82.7%	47	17.3%	271	100.0%	$\chi^2=2.85$ p = .091
고등학교	251	88.1%	34	11.9%	285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69	82.1%	15	17.9%	84	100.0%	$\chi^2=48.66$ p = .000
과거활동	141	85.5%	24	14.5%	165	100.0%	
희망함	235	93.6%	16	6.4%	251	100.0%	
생각없음	39	60.0%	26	40.0%	65	100.0%	
학부모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성별							
남자	132	94.3%	8	5.7%	140	100.0%	$\chi^2= .849$ p = .356
여자	326	91.3%	31	8.7%	357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82	86.3%	13	13.7%	95	100.0%	$\chi^2=5.548$ p = .062
고졸	242	93.8%	16	6.2%	258	100.0%	
대학 이상	132	93.0%	10	7.0%	142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32	91.4%	3	8.6%	35	100.0%	$\chi^2=2.70$ p = .440
과거활동	126	91.3%	12	8.7%	138	100.0%	
희망함	263	93.6%	18	6.4%	281	100.0%	
생각없음	40	87.0%	6	13.0%	46	100.0%	

<표 24> 당신의 자녀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원합니까?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전체		
성별							
남자	113	89.0%	14	11.0%	127	100.0%	$\chi^2= 1.57$ p = .208
여자	268	83.8%	52	16.3%	320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82	82.8%	17	17.2%	99	100.0%	$\chi^2= 5.92$ p = .743
고졸	198	86.1%	32	13.9%	230	100.0%	
대학 이상	99	84.6%	18	15.4%	117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6	86.7%	4	13.3%	30	100.0%	$\chi^2= 2.26$ p = .518
과거활동	110	86.6%	17	13.4%	127	100.0%	
희망함	216	84.7%	39	15.3%	255	100.0%	
생각없음	30	76.9%	9	23.1%	39	100.0%	
전체	382	84.7%	69	15.3%	451	100.0%	

(2) 자원봉사가 필요한 이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청소년은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36.4%)’, ‘원만한 대인관계 개선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20.2%)’, ‘사회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지각하게 되므로(17.7%)’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는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49.5%)’, ‘사회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지각하게 되므로(18.4%)’, ‘원만한 대인관계 개선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16.4%)’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사회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표 2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새로운 경험과 기술습득을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		사회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지각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6	33%	177	36.4%	71	14.6%	38	7.8%	98	20.2%	86	17.7%	486	100.0%
학부모	26	51%	20	4.0%	22	4.4%	31	6.1%	83	16.4%	98	18.4%	505	100.0%
전체	42	4.2%	427	41.1%	93	9.4%	69	7.0%	181	18.3%	179	18.1%	991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13	5.5%	73	30.9%	32	13.6%	25	10.6%	53	22.5%	40	16.9%	236	100.0%
여자	3	1.2%	100	41.0%	38	15.6%	13	5.3%	45	18.4%	45	18.4%	244	100.0%
학교별														
중학교	6	2.7%	72	32.0%	47	20.9%	23	10.2%	41	18.2%	36	16.0%	225	100.0%
고등학교	10	4.0%	100	39.5%	23	9.1%	15	5.9%	56	22.1%	49	19.4%	253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	1.4%	25	35.7%	19	27.1%	5	7.1%	12	17.1%	8	11.4%	70	100.0%
과거활동	5	3.5%	44	31.0%	23	16.2%	16	11.3%	19	13.4%	35	24.6%	142	100.0%
희망함	8	3.4%	94	40.2%	27	11.5%	12	5.1%	57	24.4%	36	15.4%	234	100.0%
생각없음	2	4.9%	14	34.1%	3	7.3%	5	12.2%	10	24.4%	7	17.1%	41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3	2.1%	72	50.7%	7	4.9%	9	6.3%	17	12.0%	34	23.9%	142	100.0%
여자	21	5.9%	176	49.3%	14	3.9%	21	5.9%	66	18.5%	59	16.3%	357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8	7.5%	40	37.7%	6	5.7%	10	9.4%	21	19.8%	21	19.8%	106	100.0%
고졸	13	5.1%	126	49.0%	15	5.8%	18	7.0%	43	16.7%	42	16.3%	257	100.0%
대학 이상	3	2.2%	80	59.3%	1	.7%	2	1.3%	19	14.1%	30	22.2%	135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	5.6%	18	50.0%	0	.0%	1	2.8%	9	25.0%	6	16.7%	36	100.0%
과거활동	4	3.0%	68	50.7%	10	7.5%	7	5.2%	15	11.2%	30	22.4%	134	100.0%
희망함	14	4.9%	148	51.4%	11	3.8%	20	6.9%	48	16.7%	47	16.3%	288	100.0%
생각없음	6	13.0%	16	34.8%	1	2.2%	3	6.3%	11	23.9%	9	19.6%	46	100.0%

청소년의 경우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30.9%),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 함양(22.5%), 사회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지각(16.9%)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로 보는 데 반해 여학생은 과반수 정도(41.0%)가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다. 그리고 중학생은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32.0%)’, ‘새로운 경험과 기술습득을 위해(20.9%)’, ‘원만한 대인관계 개선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18.2%)’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은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39.5%)’, ‘원만한 대인관계 개선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22.1%)’, ‘사회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지각하게 되므로(19.4%)’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을수록 새로운 경험과 기술습득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자원봉사 경험이 없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 개선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가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5)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습득 방법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는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대중매체보다는 청소년관련기관(‘학교나 담임선생님’ 47.8%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기관’ 20.7%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단체’ 15.0%)을 통해 얻기를 바라고 있다.

<표 26>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싶습니까?

	학교나 담임선생님	청소년자원봉사 전문기관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	청소년관련 전문조직	지역신문이나 일일판	컴퓨터 통신	기타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80	42%	85	20%	63	14%	28	6%	31	7%	19	4%	20	4%	47	100%	$\chi^2=32.0$
학부모	279	52%	113	21%	81	15%	20	3%	18	3%	3	1%	19	3%	53	100%	p=.000
전체	459	47%	199	20%	144	15%	48	5%	49	5%	22	2%	39	4%	99	100%	
청소년																	
성별																	
남자	79	40%	34	17%	31	15%	12	6%	18	9%	13	6%	10	5%	19	100%	$\chi^2=7.81$
여자	100	44%	50	22%	52	14%	15	6%	12	5%	6	2%	10	4%	25	100%	p=.251
학력별																	
중학교	94	46%	42	20%	28	13%	10	4%	15	7%	9	4%	8	3%	26	100%	$\chi^2=3.56$
고등학교	55	37%	41	19%	34	15%	17	7%	15	7%	10	4%	12	5%	24	100%	p=.735
자원봉사경험																	
경험 있음	25	44%	9	15%	13	22%	2	3%	2	3%	5	8%	3	5%	9	100%	$\chi^2=25.49$
경험 없음	61	48%	22	17%	17	13%	10	8%	7	5%	3	2%	5	4%	15	100%	p=.09
학력별																	
중학교	75	33%	50	26%	24	12%	11	5%	15	7%	6	3%	10	5%	19	100%	
고등학교	20	37%	5	9%	9	17%	5	9%	7	13%	5	9%	2	3%	5	100%	
학부모																	
성별																	
남자	55	56%	29	19%	20	13%	6	4%	4	2%	0	0%	6	4%	13	100%	$\chi^2=2.83$
여자	192	50%	84	22%	60	15%	14	3%	14	3%	2	5%	13	3%	39	100%	p=.899
학력별																	
중학교 이하	59	53%	16	14%	18	15%	4	3%	4	3%	3	2%	10	8%	114	100%	$\chi^2=33.49$
고등학교 이상	147	54%	55	20%	39	14%	14	5%	11	4%	0	0%	6	2%	22	100%	p=.000
자원봉사경험																	
경험 있음	13	36%	14	38%	4	11%	0	0%	0	0%	0	0%	5	13%	36	100%	$\chi^2=32.75$
경험 없음	77	51%	28	19%	21	14%	7	4%	8	5%	1	7%	3	2%	146	100%	p=.007
학력별																	
중학교	162	54%	61	20%	47	15%	10	3%	6	2%	2	7%	11	3%	29	100%	
고등학교	26	50%	10	19%	9	17%	3	5%	4	7%	0	0%	0	0%	52	100%	

특히 과반수 정도가 학교에서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종합생활기록부에 자원봉사활동이 평가되고 있는 데서도 기인하지만 자원봉사전문기관의 부족과 자원봉사활동 대상기관이나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 등의 자원봉사에 관한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경우 자원봉사 경험이 없을수록 지역신문이나 알림란을 통해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학교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비율은 낮다. 그리고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경험이 있을수록 자녀가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6) 자원봉사활동의 어려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청소년(34.7%)과 학부모(42.9%) 모두 ‘학교 공부시간이 바빠다’고 응답하고 있다. 청소년은 이외에도 ‘활동할 장소를 잘 모른다(18.6%)’, ‘정보가 부족하다(16.7%)’,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15.1%)’는 점을 들고 있고 학부모도 자녀가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점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27>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공부시간이 바빠다	정보 부족	기술이나 지식 부족	활동장소를 모름	매력적인 활동이 없음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어려움	전체	
학부모	198	95	86	106	40	45	50	$\chi^2=20.97$ p=.000
청소년	229	84	96	79	14	32	54	
전체	427	179	182	185	54	77	1104	1000%
성별								
남자	94	41	48	44	27	26	280	$\chi^2=13.27$ p=.001
여자	103	54	37	60	12	18	284	
학교별								
초등학교	96	37	37	60	18	17	274	$\chi^2=19.12$ p=.001
중학교	101	53	47	55	20	27	288	
지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4	14	9	30	4	2	83	$\chi^2=60.60$ p=.000
과거활동	58	24	22	34	14	15	167	
한번만	88	50	37	59	11	23	244	
생각없음	28	1	18	4	11	5	67	
학부모								
성별								
남자	68	26	34	15	5	7	150	$\chi^2=7.44$ p=.189
여자	164	57	61	64	9	25	330	
학력별								
중이하	52	11	19	16	1	13	112	$\chi^2=16.97$ p=.074
고졸	109	46	52	42	10	16	274	
대학 이상	66	27	24	21	3	3	148	
지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7	5	7	4	2	2	37	$\chi^2=10.73$ p=.770
과거활동	65	25	26	20	3	5	146	
한번만	128	48	52	42	7	20	297	
생각없음	19	6	11	12	0	5	53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희망하는 청소년은 활동장소를 잘 모르거나 정보가 부족한 것을 어려운 점으로 여기는 반면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은 자원봉사활동상의 어려움을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26.9%), ‘매력적인 활동이 없음’(16.4%)으로 응답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의의·방법 등에 관한 사전 교육 및 안내가 미흡하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7)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청소년과 학부모의 시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주 5일제 수업 실시(35.7%)’,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22.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18.6%)’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31.3%)’,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28.6%)’,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 설립(12.4%)’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의 개선보다는 자원봉사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28> 향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 확립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성격 인정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인지 확대를 위한 노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기구 설립	주 5일제 수업 실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성격 인정	전체										
학부모	105	18.6%	21	3.7%	15	2.1%	21	3.7%	39	6.9%	27	5.7%	37	6.7%	16	2.8%	566	100.0%	$\chi^2=10.17$
청소년	152	28.6%	21	4.0%	16	3.1%	30	5.6%	66	12.4%	35	6.6%	43	8.1%	18	3.4%	531	100.0%	$p=0.00$
전체	257	23.4%	42	3.8%	29	2.6%	51	4.6%	105	9.6%	62	5.7%	80	7.3%	34	3.1%	1097	100.0%	
성별																			
남자	54	19.4%	13	4.7%	7	2.5%	13	4.7%	18	6.3%	112	40.3%	10	3.6%	11	4.0%	278	100.0%	$\chi^2=21.84$
여자	51	18.0%	7	2.5%	7	2.5%	8	2.8%	21	7.4%	90	31.7%	25	8.2%	5	1.8%	284	100.0%	$p=0.02$
학업별																			
중학교	38	13.8%	9	3.3%	6	2.2%	14	5.1%	11	4.0%	114	41.3%	19	6.9%	6	2.2%	276	100.0%	$\chi^2=23.27$
고등학교	67	25.0%	11	3.9%	8	3.0%	7	2.5%	28	9.9%	86	30.3%	17	6.0%	10	3.5%	284	100.0%	$p=0.01$
자원봉사 경험																			
경험 없음	12	14.3%	4	4.8%	22	26.2%	1	1.2%	4	4.8%	32	38.1%	7	8.3%	2	2.4%	84	100.0%	$\chi^2=27.09$
경험 있음	29	17.3%	6	3.6%	30	18.1%	3	1.8%	11	6.6%	72	42.4%	11	6.9%	4	2.4%	166	100.0%	$p=0.16$
전체	54	21.3%	10	4.0%	61	24.3%	4	1.4%	22	8.8%	71	28.3%	18	7.1%	6	2.4%	250	100.0%	
생년월일																			
1990년	10	15.2%	1	1.5%	12	18.2%	6	9.1%	2	3.0%	28	42.4%	5	7.5%	2	3.0%	66	100.0%	
학부모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성격 인정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인지 확대를 위한 노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기구 설립	주 5일제 수업 실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성격 인정	전체										
성별																			
남자	44	23.3%	4	2.7%	33	22.0%	14	9.3%	24	16.0%	12	8.0%	13	8.7%	6	4.0%	150	100.0%	$\chi^2=14.33$
여자	107	28.3%	17	4.5%	131	34.7%	16	4.2%	42	11.1%	23	6.1%	30	7.9%	12	3.2%	378	100.0%	$p=0.06$
학업별																			
중학교	25	22.3%	8	7.1%	32	28.6%	9	8.0%	15	13.4%	8	7.1%	5	4.5%	10	8.9%	112	100.0%	$\chi^2=23.61$
고등학교	36	31.5%	9	7.8%	50	43.3%	18	15.8%	33	28.7%	20	17.3%	22	19.1%	4	3.5%	273	100.0%	$p=0.08$
대학 이상	39	27.5%	4	2.8%	52	36.6%	3	2.1%	18	12.7%	7	4.9%	15	10.4%	4	2.8%	142	100.0%	
자원봉사 경험																			
경험 없음	10	26.3%	1	2.6%	12	31.6%	1	2.6%	2	5.3%	6	15.8%	4	10.5%	2	5.3%	38	100.0%	$\chi^2=33.47$
경험 있음	22	22.2%	5	5.0%	51	51.4%	12	12.0%	19	19.2%	12	12.0%	12	12.0%	3	3.0%	144	100.0%	$p=0.01$
전체	32	31.1%	6	5.8%	63	61.4%	13	12.6%	21	20.4%	18	17.3%	16	15.5%	5	4.8%	182	100.0%	
생년월일																			
1990년	12	23.1%	0	0.0%	12	23.1%	4	7.7%	10	19.2%	7	13.5%	3	5.8%	4	7.7%	52	100.0%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점으로 ‘주 5일제 수업 실시(40.3%)’,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19.4%)’,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16.9%)’ 순으로 시급하다고 보는 반면 여학생은 ‘주 5일제 수업 실시(31.7%)’,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26.8%)’,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18.0%)’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학생은 ‘주 5일제 수업 실시(41.3%)’,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23.6%)’,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13.8%)’ 순으로 고등학생은 ‘주 5일제 수업 실시(30.3%)’,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23.6%)’,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20.4%)’ 순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학부모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29.3%)’,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22.0%)’,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 설립(16.0%)’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여자 학부모는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34.7%)’,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28.3%)’,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 설립(11.1%)’ 순으로 응답하여 자원봉사 환경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과 자원봉사활동 대상기관의 개방 및 적극적인 요청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자원봉사경력 인정과 입시 및 취직시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우대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자원봉사활동 대상기관의 개방 및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3. 자원봉사 환경 영역

1) 자원봉사 활동영역

(1) 자원봉사활동 희망영역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희망하는 활동영역은 청소년 학부모 모두 복지시설 병원 등의 일손돕기 활동(청소년 30.8%; 학부모 24.2%), 고아원이나 자매부대 등을 방문하는 위문 활동(청소년 23.9%; 학부모 17.3%), 문화재 보호나 자연보호 등과 같은 환경·시설 보존활동(청소년 16.0%; 학부모 16.5%)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집단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은 복지시설 병원 등의 일손돕기 활동(28.8%), 문화재 보호나 자연보호 등과 같은 환경·시설 보존활동(22.7%), 캠페인활동(19.4%)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고아원이나 자매부대 등을 방문하는 위문 활동(35.7%)과 복지시설 병원 등의 일손돕기 활동(33.2%)에 치우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학부모들의 성별 선호도에서도 비슷하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과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현재 활동중인 청소년은 일손돕기 활동(31.3%), 위문활동

(25.3%), 환경·시설 보존활동(19.3%)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반면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은 환경·시설 보존활동(31.8%), 지도·상담활동(24.2%), 일손돕기 활동(18.2%) 순으로 선호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9> 당신이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일손돕기 활동		위문활동		지도·상담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 활동		지역사회개발 활동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5	30.8%	16	23.9%	4	7.9%	7	13.7%	2	3.7%	9	16.0%	2	3.9%	58	100%	$\chi^2 = 28.68$ p = .000
학부모	129	24.2%	92	17.3%	57	10.7%	85	15.9%	35	6.6%	88	16.5%	47	8.8%	533	100%	
전체	304	27.6%	228	20.7%	102	9.3%	163	14.8%	56	5.1%	179	16.3%	69	6.3%	1101	100%	
청소년																	
성별																	
남자	80	28.8%	33	11.9%	20	7.2%	51	19.4%	14	5.0%	63	22.7%	14	5.0%	278	100%	$\chi^2 = 68.84$ p = .000
여자	95	33.2%	102	35.7%	25	8.7%	23	8.0%	7	2.4%	26	9.1%	8	2.8%	26	100%	
학급별																	
중학교	91	33.2%	53	19.3%	2	7.7%	40	14.6%	13	4.7%	47	17.2%	9	3.3%	274	100%	$\chi^2 = 8.00$ p = .237
고등학교	84	29.2%	81	28.1%	24	8.3%	37	12.8%	8	2.8%	42	14.6%	12	4.2%	288	1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6	31.3%	21	25.3%	4	4.8%	10	12.0%	4	4.8%	16	19.3%	2	2.4%	83	100%	$\chi^2 = 58.99$ p = .000
과거활동	50	30.1%	39	23.5%	13	7.8%	29	17.5%	9	5.4%	21	12.7%	5	3.0%	166	100%	
희망활동	88	34.6%	67	26.4%	12	4.7%	55	13.8%	8	3.1%	33	13.0%	11	4.3%	254	100%	
생각없음	12	18.2%	9	13.6%	16	24.2%	4	6.1%	0	0%	21	31.8%	4	6.1%	66	100%	
학부모																	
성별																	
남자	34	22.8%	19	12.8%	15	10.1%	25	16.8%	4	2.7%	33	22.1%	19	12.8%	149	100%	$\chi^2 = 14.66$ p = .023
여자	94	24.7%	73	19.2%	41	10.8%	60	15.7%	30	7.9%	55	14.4%	28	7.3%	381	100%	
학급별																	
중·고	26	22.8%	22	19.3%	20	17.5%	14	12.3%	9	7.9%	16	14.0%	7	6.1%	114	100%	$\chi^2 = 14.83$ p = .250
고·대	68	24.7%	48	17.5%	29	10.5%	47	17.1%	15	5.5%	45	16.4%	23	8.4%	25	100%	
대학 이상	32	22.9%	22	15.7%	8	5.7%	24	17.1%	10	7.1%	27	19.3%	17	12.1%	140	1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0	27.0%	8	21.6%	3	8.1%	4	10.8%	5	13.3%	6	16.2%	1	2.7%	37	100%	$\chi^2 = 15.27$ p = .648
과거활동	32	22.2%	25	17.4%	17	11.8%	22	15.3%	8	5.6%	26	18.1%	14	9.7%	144	100%	
희망활동	70	23.3%	53	17.8%	34	11.4%	46	15.4%	20	6.7%	49	16.4%	26	8.7%	285	100%	
생각없음	17	32.1%	5	9.4%	3	5.7%	13	24.5%	2	3.8%	7	13.2%	6	11.3%	53	100%	

(2) 자원봉사활동 선호도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을 다섯 가지 선택하게 하고 사례수의 500%를 전체로 하여 빈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삼분의 일 정도(38.2%)가 유아원·유치원생 돌보기 등의 ‘하급생지도’를 선호하고 있고 우편물 정리 안내하기 등의 ‘관공서 일손돕기’도 32.0%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체 일손돕기(23.0%)’ ‘공공기관 일손돕기(22.3%)’ ‘사회교육지도(22.3%)’ ‘고아원 위문(22.1%)’ ‘농어촌 일손돕기(21.2%)’ ‘장애인 위문(19.1%)’ 등 주로 일손돕기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자선·구호활동이나 지역사회개발활동 영역(지역실태조사활동 : 3.9% 재해구호활동 : 4.1% 지역행사지원활동 : 5.5%)은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 희망영역 선호도와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학부모들은 과반수 이상이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활동으로 ‘관공서 일손돕

기'(37.7%)와 '자연보호'(33.8%) 활동을 들고 있다. 이 밖에도 '불우이웃 돕기'(28.0%), '장애인 위문'(27.3%), '깨끗한 환경 만들기'(26.1%), '공공기관 일손돕기'(20.9%), '고아원 위문'(20.9%), '공공질서 확립 캠페인'(19.5%) 활동도 권장하고 싶은 활동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권장하기를 주저하는 활동은 '동급생지도'(4.1%)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기피하는 활동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0>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학부모-청소년				전체	
	청소년		학부모			
관공서 일손돕기	181	32.0%	195	37.7%	376	34.8%
공공질서 확립 캠페인	49	8.7%	101	19.5%	150	13.9%
교통안전캠페인	65	11.5%	87	16.8%	152	14.0%
현혈 및 골수 기증	96	17.0%	36	7.0%	132	12.2%
자연보호	106	18.8%	175	33.8%	281	26.0%
문화재보호	89	15.8%	92	17.8%	181	16.7%
청소년수련시설 /단체 일손돕기	90	15.9%	67	13.0%	157	14.5%
기업체 일손돕기	130	23.0%	79	15.3%	209	19.3%
장애인위문	108	19.1%	141	27.3%	249	23.0%
병약자 위문	65	11.5%	56	10.8%	121	11.2%
재해구호활동	23	4.1%	19	3.7%	42	3.9%
불우이웃돕기	93	16.5%	145	28.0%	238	22.0%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89	15.8%	51	9.9%	140	12.9%
공공기관 일손돕기	126	22.3%	108	20.9%	234	21.6%
하급생 지도	216	38.2%	86	16.6%	302	27.9%
사회교육지도	126	22.3%	65	12.6%	191	17.7%
교통 안전지도	46	8.1%	78	15.1%	124	11.5%
고아원 위문	125	22.1%	108	20.9%	233	21.5%
양로원 위문	52	9.2%	84	16.2%	136	12.6%
학교주변 정화활동	46	8.1%	52	10.1%	98	9.1%
환경보전 캠페인	95	16.8%	94	18.2%	189	17.5%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66	11.7%	42	8.1%	108	10.0%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76	13.5%	61	11.8%	137	12.7%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101	17.9%	60	11.6%	161	14.9%
깨끗한 환경 만들기	87	15.4%	135	26.1%	222	20.5%
지역실태조사활동	22	3.9%	22	4.3%	44	4.1%
종교사회단체일 손돕기	59	10.4%	73	14.1%	132	12.2%
자매부대 위문	69	12.2%	33	6.4%	102	9.4%
동급생 지도	70	12.4%	21	4.1%	91	8.4%
지역사회 가꾸기	39	6.9%	45	8.7%	84	7.8%
지역홍보활동	58	10.3%	61	11.8%	119	11.0%
지역행사지원활동	31	5.5%	18	3.5%	49	4.5%
농어촌 일손돕기	120	21.2%	86	16.6%	206	19.0%
전체	565	100.0%	517	100.0%	1082	100.0%

청소년집단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은 ‘관공서 일손돕기’(32.3%), ‘사회교육지도’(28.7%), ‘자연보호’(26.2%), ‘하급생지도’(25.4%), ‘환경보호캠페인’(22.2%) 등의 활동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지역실태조사활동’(3.6%), ‘재해구조활동’(6.8%), ‘양로원 위문’(7.2%) 등의 활동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은 과반수(51.4%)가 ‘하급생지도’활동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외에 ‘관공서 일손돕기’(31.7%) ‘고아원 위문’(28.2%) ‘공공기관 일손돕기’(25.4%), ‘장애인 위문’(23.2%) 등의 활동을 선호하고 있고 ‘재해구조활동’(1.4%), ‘지역행사지원활동’(2.8%), ‘교통안전지도’(3.9%) 활동 등은 선호가 낮다.

<표 31>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 청소년 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관공서 일손돕기	90	32.3%	90	31.7%	180	32.0%
공공질서 확립캠페인	28	10.0%	19	6.7%	47	8.3%
교통안전캠페인	50	17.9%	15	5.3%	65	11.5%
현형 및 골수 기증	50	17.9%	46	16.2%	96	17.1%
자연보호	73	26.2%	32	11.3%	105	18.7%
문화재보호	56	20.1%	33	11.6%	89	15.8%
청소년수련시설 /단체일손돕기	44	15.8%	47	16.5%	91	16.2%
기업체일손돕기	62	22.2%	68	23.9%	130	23.1%
장애인위문	41	14.7%	66	23.2%	107	19.0%
병약자 위문	23	8.2%	42	14.8%	65	11.5%
재해구조활동	19	6.8%	4	1.4%	23	4.1%
불우이웃돕기	32	11.5%	61	21.5%	93	16.5%
국제협력과 난민구조	29	10.4%	60	21.1%	89	15.8%
공공기관 일손돕기	54	19.4%	72	25.4%	126	22.4%
하급생 지도	71	25.4%	146	51.4%	217	38.5%
사회교육지도	80	28.7%	45	15.8%	125	22.2%
교통 안전지도	34	12.2%	11	3.9%	45	8.0%
고아원 위문	44	15.8%	80	28.2%	124	22.0%
양로원 위문	20	7.2%	31	10.9%	51	9.1%
학교주변 정화활동	29	10.4%	17	6.0%	46	8.2%
환경보전 캠페인	62	22.2%	32	11.3%	94	16.7%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46	16.5%	19	6.7%	65	11.5%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37	13.3%	39	13.7%	76	13.5%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37	13.3%	64	22.5%	101	17.9%
깨끗한 환경 만들기	45	16.1%	41	14.4%	86	15.3%
지역실태조사활동	10	3.6%	12	4.2%	22	3.9%
종교사회단체일 손돕기	32	11.5%	28	9.9%	60	10.7%
자매부대 위문	21	7.5%	48	16.9%	69	12.3%
동급생 지도	35	12.5%	35	12.3%	70	12.4%
지역사회 가꾸기	18	6.5%	21	7.4%	39	6.9%
지역홍보활동	21	7.5%	37	13.0%	58	10.3%
지역행사지원활동	23	8.2%	8	2.8%	31	5.5%
농어촌 일손돕기	72	25.8%	47	16.5%	119	21.1%
전체	279	100.0%	284	100.0%	563	100.0%

학교급별로도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학생은 ‘관공서 일손돕기’(38.7%), ‘하급생지도’(35.8%), ‘공공기관 일손돕기’(25.9%), ‘기업체 일손돕기’(23.4%), ‘농어촌 일손돕기’(22.3%) 등 주로 일손돕기활동을 선호하고 ‘재해구호활동’(2.6%), ‘지역실태조사활동’(2.6%), ‘지역행사지원활동’(4.7%), ‘양로원 위문’(6.2%) 등 자선·구호활동이나 지역사회개발활동 영역은 싫어한다. 고등학생은 과반수정도(41.1%)가 ‘하급생지도’활동을 가장 하고 싶어하고 ‘고아원 위문’(28.2%), ‘관공서 일손돕기’(25.4%), ‘사회교육지도’(25.1%), ‘장애인 위문’(23.7%), ‘기업체 일손돕기’(23.0%) 등 지도·상담활동이나 위문활동을 선호하고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지역실태조사활동’(5.2%), ‘재해구호활동’(5.6%), ‘지역행사지원활동’(6.3%) 등은 응답비율이 낮다.

<표 32>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 청소년 학교별

	학교별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관공서 일손돕기	106	38.7%	73	25.4%	179	31.9%
공공질서 확립캠페인	19	6.9%	28	9.8%	47	8.4%
교통안전캠페인	35	12.8%	30	10.5%	65	11.6%
헌혈 및 골수 기증	31	11.3%	65	22.6%	96	17.1%
자연보호	55	20.1%	50	17.4%	105	18.7%
문화재보호	51	18.6%	37	12.9%	88	15.7%
청소년수련시설 /단체 일손돕기	54	19.7%	37	12.9%	91	16.2%
기업체 일손돕기	64	23.4%	66	23.0%	130	23.2%
장애인 위문	38	13.9%	68	23.7%	106	18.9%
병약자 위문	31	11.3%	33	11.5%	64	11.4%
재해구호활동	7	2.6%	16	5.6%	23	4.1%
불우이웃돕기	44	16.1%	49	17.1%	93	16.6%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34	12.4%	55	19.2%	89	15.9%
공공기관 일손돕기	71	25.9%	55	19.2%	126	22.5%
하급생 지도	98	35.8%	118	41.1%	216	38.5%
사회교육지도	53	19.3%	72	25.1%	125	22.3%
교통 안전지도	25	9.1%	20	7.0%	45	8.0%
고아원 위문	42	15.3%	81	28.2%	123	21.9%
양로원 위문	17	6.2%	34	11.8%	51	9.1%
학교주변 정화활동	25	9.1%	20	7.0%	45	8.0%
환경보전 캠페인	50	18.2%	44	15.3%	94	16.8%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35	12.8%	30	10.5%	65	11.6%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42	15.3%	33	11.5%	75	13.4%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45	16.4%	55	19.2%	100	17.8%
깨끗한 환경 만들기	56	20.4%	30	10.5%	86	15.3%
지역실태조사활동	7	2.6%	15	5.2%	22	3.9%
종교사회단체일 손돕기	32	11.7%	28	9.8%	60	10.7%
자매부대 위문	32	11.7%	37	12.9%	69	12.3%
동급생 지도	38	13.9%	32	11.1%	70	12.5%
지역사회 가꾸기	31	11.3%	8	2.8%	39	7.0%
지역홍보활동	22	8.0%	36	12.5%	58	10.3%
지역행사지원활동	13	4.7%	18	6.3%	31	5.5%
농어촌 일손돕기	61	22.3%	57	19.9%	118	21.0%
전체	274	100.0%	287	100.0%	561	100.0%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관공서 일손돕기’(47.0%), ‘하급생지도’(44.6%), ‘깨끗한 환경 만들기’(27.7%), ‘기업체 일손돕기’(24.1%), ‘공공기관 일손돕기’(22.9%) 순으로, 과거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하급생지도’(38.8%), ‘관공서 일손돕기’(29.1%), ‘공공기관 일손돕기’(25.5%), ‘사회교육지도’(23.0%), ‘자연보호’(21.8%) ‘고아원 위문’(21.2%) 활동 순으로 선호한다.

<표 33>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경험

	자원봉사경험								전체	
	현재활동		과거활동		희망함		생각없음			
관공서 일손돕기	39	47.0%	48	29.1%	78	30.7%	17	26.6%	182	32.2%
공공질서 확립캠페인	5	6.0%	11	6.7%	27	10.6%	6	9.4%	49	8.7%
교통안전캠페인	14	16.9%	19	11.5%	20	7.9%	12	18.8%	65	11.5%
헌혈 및 필수 기증	10	12.0%	27	16.4%	51	20.1%	8	12.5%	96	17.0%
자연보호	16	19.3%	36	21.8%	45	17.7%	9	14.1%	106	18.7%
문화재보호	17	20.5%	21	12.7%	40	15.7%	11	17.2%	89	15.7%
청소년수련시설 /단체 일손돕기	17	20.5%	24	14.5%	38	15.0%	12	18.8%	91	16.1%
기업체 일손돕기	20	24.1%	37	22.4%	58	22.8%	16	25.0%	131	23.1%
장애인위문	14	16.9%	23	13.9%	67	26.4%	4	6.3%	108	19.1%
병약자 위문	4	4.8%	25	15.2%	31	12.2%	5	7.8%	65	11.5%
재해구호활동	1	1.2%	7	4.2%	12	4.7%	3	4.7%	23	4.1%
불우이웃돕기	15	18.1%	23	13.9%	52	20.5%	3	4.7%	93	16.4%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6	7.2%	27	16.4%	48	18.9%	8	12.5%	89	15.7%
공공기관 일손돕기	19	22.9%	42	25.5%	45	17.7%	20	31.3%	126	22.3%
하급생 지도	37	44.6%	64	38.8%	96	37.8%	20	31.3%	217	38.3%
사회교육지도	14	16.9%	38	23.0%	62	24.4%	12	18.8%	126	22.3%
교통 안전지도	8	9.6%	18	10.9%	11	4.3%	9	14.1%	46	8.1%
고아원 위문	11	13.3%	35	21.2%	73	28.7%	6	9.4%	125	22.1%
양로원 위문	8	9.6%	10	6.1%	30	11.8%	4	6.3%	52	9.2%
학교주변 정화활동	12	14.5%	12	7.3%	14	5.5%	8	12.5%	46	8.1%
환경보전 캠페인	16	19.3%	25	15.2%	39	15.4%	15	23.4%	95	16.8%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7	8.4%	18	10.9%	29	11.4%	12	18.8%	66	11.7%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9	10.8%	27	16.4%	30	11.8%	10	15.6%	76	13.4%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10	12.0%	26	15.8%	48	18.9%	17	26.6%	101	17.8%
깨끗한 환경 만들기	23	27.7%	27	16.4%	26	10.2%	11	17.2%	87	15.4%
지역실태조사활동	0	.0%	9	5.5%	11	4.3%	2	3.1%	22	3.9%
종교사회단체일 손돕기	8	9.6%	20	12.1%	22	8.7%	10	15.6%	60	10.6%
자매부대 위문	10	12.0%	26	15.8%	27	10.6%	6	9.4%	69	12.2%
동급생 지도	7	8.4%	32	19.4%	26	10.2%	5	7.8%	70	12.4%
지역사회 가꾸기	10	12.0%	14	8.5%	11	4.3%	4	6.3%	39	6.9%
지역홍보활동	7	8.4%	13	7.9%	29	11.4%	9	14.1%	58	10.2%
지역행사지원활동	2	2.4%	7	4.2%	16	6.3%	6	9.4%	31	5.5%
농어촌 일손돕기	18	21.7%	34	20.6%	54	21.3%	14	21.9%	120	21.2%
전체	83	100.0%	165	100.0%	254	100.0%	64	100.0%	566	100.0%

학부모 집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학부모는 과반수정도(47.3%)가 ‘자연보호’ 활동을 가장 권장하고 싶어하고 이밖에 ‘관공서 일손돕기’(29.5%), ‘문화재 보호’(25.3%), ‘장애인 위문’(24.7%), ‘환경보호캠페인’(24.0%) 등을 하길 바라고 있는 반면 여자 학부모는 41.3%가 ‘관공서 일손돕기’ 활동을 권장하고 있고 ‘장애인 위문’(28.5%), ‘자연보호’(28.3%), ‘불우 이웃 돕기’(27.4%), ‘깨끗한 환경 만들기’(26.6%) 등의 활동도 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인 위문’과 ‘불우 이웃 돕기’ 활동을 권장한다.

<표 34> 자녀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 학부모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관공서 일손돕기	43	29.5%	152	41.3%	195	37.9%
공공시설 확립캠페인	32	21.9%	69	18.8%	101	19.6%
교통안전캠페인	30	20.5%	56	15.2%	86	16.7%
현형 및 골수 기증	11	7.5%	25	6.8%	36	7.0%
자연보호	69	47.3%	104	28.3%	173	33.7%
문화재보호	37	25.3%	55	14.9%	92	17.9%
청소/단체 일손돕기	10	6.8%	57	15.5%	67	13.0%
기업체 일손돕기	27	18.5%	52	14.1%	79	15.4%
장애인 위문	36	24.7%	105	28.5%	141	27.4%
병약자 위문	11	7.5%	45	12.2%	56	10.9%
재해구호활동	8	5.5%	11	3.0%	19	3.7%
불우이웃돕기	43	29.5%	101	27.4%	144	28.0%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14	9.6%	37	10.1%	51	9.9%
공공기관 일손돕기	29	19.9%	78	21.2%	107	20.8%
하급생 지도	16	11.0%	70	19.0%	86	16.7%
사회교육지도	14	9.6%	51	13.9%	65	12.6%
교통안전지도	26	17.8%	50	13.6%	76	14.8%
고아원 위문	26	17.8%	81	22.0%	107	20.8%
양로원 위문	18	12.3%	66	17.9%	84	16.3%
학교주변 정화활동	15	10.3%	37	10.1%	52	10.1%
환경보전 캠페인	35	24.0%	57	15.5%	92	17.9%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10	6.8%	32	8.7%	42	8.2%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18	12.3%	42	11.4%	60	11.7%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16	11.0%	44	12.0%	60	11.7%
깨끗한 환경 만들기	35	24.0%	98	26.6%	133	25.9%
지역실태조사활동	5	3.4%	17	4.6%	22	4.3%
종교사회단체일 손돕기	15	10.3%	58	15.8%	73	14.2%
자매부대 위문	9	6.2%	23	6.3%	32	6.2%
동급생 지도	5	3.4%	16	4.3%	21	4.1%
지역사회 가꾸기	17	11.6%	28	7.6%	45	8.8%
지역홍보활동	11	7.5%	50	13.6%	61	11.9%
지역행사지원활동	8	5.5%	10	2.7%	18	3.5%
농어촌 일손돕기	30	20.5%	55	14.9%	85	16.5%
전체	146	100.0%	368	100.0%	514	100.0%

<표 35> 자녀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 학부모 학력별

	학력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관공서 일손돕기	47	44.8%	100	37.5%	48	33.8%	195	37.9%
공공질서 확립캠페인	19	18.1%	58	21.7%	24	16.9%	101	19.6%
교통안전캠페인	17	16.2%	49	18.4%	20	14.1%	86	16.7%
현기종	7	6.7%	20	7.5%	9	6.3%	36	7.0%
자연보호	31	29.5%	94	35.2%	48	33.8%	173	33.7%
문화재보호	16	15.2%	44	16.5%	32	22.5%	92	17.9%
청소/단체 일손돕기	15	14.3%	37	13.9%	15	10.6%	67	13.0%
기업체 일손돕기	16	15.2%	45	16.9%	17	12.0%	78	15.2%
장애인 위문	28	26.7%	62	23.2%	51	35.9%	141	27.4%
병약자 위문	11	10.5%	26	9.7%	19	13.4%	56	10.9%
재해구호활동	6	5.7%	7	2.6%	6	4.2%	19	3.7%
불우이웃돕기	22	21.0%	74	27.7%	48	33.8%	144	28.0%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11	10.5%	24	9.0%	15	10.6%	50	9.7%
공공기관 일손돕기	25	23.8%	54	20.2%	29	20.4%	108	21.0%
하급생 지도	16	15.2%	48	18.0%	22	15.5%	86	16.7%
사회교육지도	15	14.3%	33	12.4%	16	11.3%	64	12.5%
교통 안전지도	18	17.1%	36	13.5%	22	15.5%	76	14.8%
교직원 위문	22	21.0%	55	20.6%	30	21.1%	107	20.8%
교양원 위문	18	17.1%	44	16.5%	22	15.5%	84	16.3%
학교 주변 정화활동	8	7.6%	30	11.2%	14	9.9%	52	10.1%
환경보전 캠페인	25	23.8%	43	16.1%	25	17.6%	93	18.1%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9	8.6%	26	9.7%	7	4.9%	42	8.2%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9	8.6%	32	12.0%	20	14.1%	61	11.9%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10	9.5%	28	10.5%	22	15.5%	60	11.7%
깨끗한 환경 만들기	28	26.7%	64	24.0%	42	29.6%	134	26.1%
지역실태조사활동	4	3.8%	11	4.1%	7	4.9%	22	4.3%
종교사회단체일 손돕기	12	11.4%	43	16.1%	18	12.7%	73	14.2%
자매부대 위문	8	7.6%	18	6.7%	5	3.5%	31	6.0%
동급생 지도	4	3.8%	12	4.5%	5	3.5%	21	4.1%
지역사회 가꾸기	6	5.7%	26	9.7%	13	9.2%	45	8.8%
지역홍보활동	13	12.4%	30	11.2%	18	12.7%	61	11.9%
지역행사지원활동	5	4.8%	10	3.7%	3	2.1%	18	3.5%
농어촌 일손돕기	17	16.2%	51	19.1%	17	12.0%	85	16.5%
전체	105	100.0%	267	100.0%	142	100.0%	514	100.0%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 활동중인 학부모는 ‘장애인 위문’(37.8%), ‘자연보호’(37.8%), ‘불우 이웃 돕기’(35.1%), ‘종교·사회단체 일손돕기’(27.0%), ‘관공서 일손돕기’(27.0%) 등을 권장하고 있는데 반해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없는 학부모는 ‘관공서 일손돕기’(46.9%), ‘깨끗한 환경 만들기’(30.6%), ‘하급생지도’(26.5%), ‘기업체 일손돕기’(24.5%) 등을 들고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36> 자녀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 학부모자원봉사경험

	자원봉사경험								전체	
	현재활동		과거활동		희망함		생각없음			
관공서										
일손돕기	10	27.0%	55	37.9%	107	37.5%	23	46.9%	195	37.8%
공공질서										
화합캠페인	5	13.5%	25	17.2%	58	20.4%	12	24.5%	100	19.4%
교통안전캠페인	4	10.8%	25	17.2%	49	17.2%	8	16.3%	86	16.7%
현행기종										
자연보호	5	13.5%	13	9.0%	15	5.3%	3	6.1%	36	7.0%
문화재보호	14	37.8%	61	42.1%	91	31.9%	8	16.3%	174	33.7%
청소년수련시설	7	18.9%	30	20.7%	44	15.4%	11	22.4%	92	17.8%
/단체										
일손돕기	6	16.2%	17	11.7%	39	13.7%	5	10.2%	67	13.0%
기업체										
일손돕기	1	2.7%	22	15.2%	44	15.4%	12	24.5%	79	15.3%
장애인 위문	14	37.8%	41	28.3%	78	27.4%	8	16.3%	141	27.3%
병약자 위문	4	10.8%	15	10.3%	32	11.2%	5	10.2%	56	10.9%
재해구호활동	1	2.7%	8	5.5%	8	2.8%	2	4.1%	19	3.7%
불우이웃돕기	13	35.1%	44	30.3%	81	28.4%	6	12.2%	144	27.9%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5	13.5%	9	6.2%	31	10.9%	6	12.2%	51	9.9%
공공기관										
일손돕기	6	16.2%	30	20.7%	61	21.4%	11	22.4%	108	20.9%
하급생 지도	4	10.8%	19	13.1%	50	17.5%	13	26.5%	86	16.7%
사회교육지도	8	21.6%	14	9.7%	36	12.6%	7	14.3%	65	12.6%
교통 안전지도	4	10.8%	21	14.5%	45	15.8%	8	16.3%	78	15.1%
고아원 위문	9	24.3%	32	22.1%	61	21.4%	6	12.2%	108	20.9%
양로원 위문	7	18.9%	24	16.6%	46	16.1%	7	14.3%	84	16.3%
학교주변										
정화활동	6	16.2%	20	13.8%	18	6.3%	7	14.3%	51	9.9%
환경보전										
캠페인	6	16.2%	26	17.9%	50	17.5%	12	24.5%	94	18.2%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1	2.7%	10	6.9%	26	9.1%	5	10.2%	42	8.1%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2	5.4%	14	9.7%	39	13.7%	6	12.2%	61	11.8%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3	8.1%	11	7.6%	37	13.0%	9	18.4%	60	11.6%
깨끗한 환경										
만들기	9	24.3%	33	22.8%	78	27.4%	15	30.6%	135	26.2%
지역실태조사활동										
농	3	8.1%	5	3.4%	14	4.9%	0	.0%	22	4.3%
종교사회단체일										
손돕기	10	27.0%	21	14.5%	33	11.6%	9	18.4%	73	14.1%
자매부대 위문	3	8.1%	8	5.5%	20	7.0%	2	4.1%	33	6.4%
동급생 지도	1	2.7%	7	4.8%	12	4.2%	1	2.0%	21	4.1%
지역사회										
가꾸기	2	5.4%	15	10.3%	26	9.1%	2	4.1%	45	8.7%
지역홍보활동	5	13.5%	15	10.3%	38	13.3%	3	6.1%	61	11.8%
지역행사지원활동										
농	1	2.7%	6	4.1%	10	3.5%	1	2.0%	18	3.5%
농어촌										
일손돕기	6	16.2%	28	19.3%	42	14.7%	10	20.4%	86	16.7%
전체	37	100.0%	145	100.0%	285	100.0%	49	100.0%	516	100.0%

2) 자원봉사활동 참여 장소

자원봉사활동을 실제로 하게 될 경우 활동하고 싶은 장소로 청소년은 복지기관·시설(28.3%)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단체(17.3%), 문화·예술시설(17.0%), 관공서(14.3%)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1.8%)나 공공기관(4.1%)은 선호율이 낮다. 이에 비

해 학부모는 자녀들이 복지기관·시설(33.6%), 관공서(18.9%), 문화·예술시설(17.0%), 종교·사회단체(12.3%) 등에서 활동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기업체(3.2%)나 체육·관광시설(3.2%), 청소년수련시설·단체(4.9%) 등에서는 낮은 비율을 보여 활동장소 선호도에서 청소년과 차이가 있다.

<표 37> 실제 자원봉사를 할 경우 아래 중 가장 참가하고 싶은 곳은 어디니까?

	관공서	공공기관	종교·사회단체	복지기관·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관광시설	청소년수련시설·단체	기업체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81 14.3%	23 41%	37 63%	160 28.3%	95 17.0%	60 10.6%	98 17.3%	10 1.8%	555 100.0%	$\chi^2 = 80.23$
학부모	100 18.9%	35 6.8%	65 12.3%	178 33.6%	90 17.0%	17 3.2%	26 4.9%	17 3.2%	539 100.0%	$p = .000$
전체	181 16.5%	58 5.4%	102 9.3%	338 30.9%	185 17.0%	77 7.0%	124 11.3%	27 2.5%	1094 100.0%	
청소년	관공서	공공기관	종교·사회단체	복지기관·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관광시설	청소년수련시설·단체	기업체	전체	
성별										
남자	43 15.4%	14 5.0%	24 8.6%	60 21.5%	45 16.1%	48 17.2%	38 13.6%	7 2.5%	279 100.0%	$\chi^2 = 47.05$
여자	38 13.5%	9 3.2%	14 5.0%	59 21.5%	50 17.7%	9 3.2%	60 21.3%	3 1.1%	282 100.0%	$p = .000$
학력별										
중학교	58 21.2%	7 2.6%	21 7.7%	70 25.5%	46 16.8%	21 7.7%	48 17.5%	3 1.1%	274 100.0%	$\chi^2 = 27.67$
고등학교	22 7.7%	16 5.6%	17 6.0%	88 30.9%	49 17.2%	36 12.6%	50 17.5%	7 2.5%	285 100.0%	$p = .000$
자원봉사형태										
현재활동	21 25.0%	1 1.2%	5 6.0%	24 28.6%	16 19.0%	7 8.3%	10 11.9%	0 .0%	84 100.0%	$\chi^2 = 46.76$
과거활동	22 13.3%	4 2.4%	16 9.7%	47 28.5%	23 13.9%	13 7.9%	35 21.3%	4 2.4%	165 100.0%	$p = .001$
희망함	30 11.9%	12 4.8%	13 5.2%	82 32.5%	43 17.1%	25 9.9%	43 17.1%	4 1.6%	252 100.0%	
생각없음	8 12.3%	6 9.2%	4 6.2%	7 10.8%	14 21.5%	15 23.1%	9 13.8%	2 3.1%	65 100.0%	
학부모	관공서	공공기관	종교·사회단체	복지기관·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관광시설	청소년수련시설·단체	기업체	전체	
성별										
남자	29 19.5%	8 5.4%	20 13.4%	49 32.9%	20 13.4%	9 6.0%	6 4.0%	8 5.4%	149 100.0%	$\chi^2 = 11.09$
여자	71 18.3%	28 7.4%	43 11.4%	128 34.0%	70 18.6%	8 2.1%	20 5.3%	9 2.4%	377 100.0%	$p = .134$
학력별										
중·초·이하	30 27.3%	7 6.4%	12 10.9%	39 35.5%	14 12.7%	3 2.7%	2 1.8%	3 2.7%	110 100.0%	$\chi^2 = 26.35$
고·중	51 18.6%	21 8.8%	33 12.0%	84 30.7%	41 15.0%	12 4.4%	19 6.9%	10 3.6%	274 100.0%	$p = .023$
대학 이상	19 13.5%	5 3.5%	18 12.8%	53 37.6%	35 24.8%	2 1.4%	5 3.5%	4 2.8%	141 100.0%	
자원봉사형태										
현재활동	6 16.2%	2 5.4%	9 24.3%	9 24.3%	5 13.5%	1 2.7%	5 13.5%	0 .0%	37 100.0%	$\chi^2 = 40.29$
과거활동	26 18.1%	7 4.9%	21 14.6%	51 35.4%	28 19.4%	4 2.8%	2 1.4%	5 3.5%	144 100.0%	$p = .005$
희망함	54 18.2%	27 9.1%	32 10.8%	105 35.5%	46 15.5%	7 2.4%	16 5.4%	9 3.0%	296 100.0%	
생각없음	14 27.5%	0 .0%	3 5.9%	12 23.5%	11 21.6%	5 9.8%	3 5.9%	3 5.9%	51 100.0%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선호장소가 다를 수 있는데 남학생은 복지기관·시설(21.5%), 체육·관광시설(17.2%), 문화·예술시설(16.1%) 순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여학생은 3분의 1정도가 복지기관·시설을 선호하고 이어 청소년수련시설·단체(21.3%), 문화·예술시설(17.7%) 등을 선호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복지기관·시설(25.5%), 관공서(21.2%), 청소년수련시설·단체(17.5%) 순으로 고등학생은 복지기관·시설(30.9%), 청소년수련시설·단체(17.5%), 문화·예술시설(17.2%)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복지기관·시설을 제외하고는 참여 희망장소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거나 희망하는 청소년은 복지기관·시설을 선호하는 반면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체육·관광시설(23.1%), 문화·예술시설(21.5%), 청소년수련시설·단체(13.8%) 순으로 선호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예술시설에서 활동하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는 복지기관·시설(24.3%)이나 종교·사회 단체(24.3%)에서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길 희망하고 있는 반면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학부모는 관공서(27.5%)를 자녀가 봉사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3)자원봉사활동 참여 시간

청소년은 바람직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과반수 이상(51.7%)이 ‘방학중’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학기중 수업시간(19.6%)’이나 ‘학기중의 적당한 토요일(12.3%)’도 괜찮다고 여기지만 ‘평일 방과후 시간(3.4%)’은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도 대다수(63.2%)가 ‘방학중’을 가장 바람직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학기중의 공휴일(13.3%)’도 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청소년과 차이를 보인다.

<표 38> 청소년이 자원봉사를 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학기중의 수업시간		평일 방과후		학기중의 공휴일		방학중		학기중의 토요일		언제든지가능		전체	
학부모	111	19.6%	19	3.4%	37	6.5%	238	51.7%	70	12.3%	37	6.5%	557	100.0%
청소년	24	4.5%	16	3.0%	71	13.3%	338	63.2%	70	13.1%	16	3.0%	555	100.0%
전체	135	12.3%	35	3.2%	108	9.8%	631	57.3%	140	12.7%	53	4.8%	1102	100.0%
성별														
남자	52	18.6%	11	3.9%	19	6.8%	144	51.6%	32	11.5%	21	7.5%	279	100.0%
여자	59	20.8%	8	2.8%	18	6.3%	145	51.1%	38	13.4%	16	5.6%	284	100.0%
학력별														
중학교	38	13.8%	14	5.1%	17	6.2%	160	58.0%	26	9.4%	21	7.6%	266	100.0%
고등학교	73	25.6%	5	1.8%	20	7.0%	127	44.6%	44	15.4%	16	5.6%	285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0	11.9%	4	4.8%	3	3.6%	48	57.1%	8	9.5%	11	13.1%	84	100.0%
과거활동	30	18.1%	9	5.4%	12	7.2%	98	59.0%	12	7.2%	5	3.0%	165	100.0%
희망함	53	20.9%	4	1.6%	17	6.7%	119	47.0%	43	17.0%	17	6.7%	253	100.0%
생각없음	18	27.7%	2	3.1%	5	7.7%	29	44.6%	7	10.8%	4	6.2%	65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6	4.0%	5	3.4%	21	14.1%	96	64.4%	17	11.4%	4	2.7%	149	100.0%
여자	17	4.4%	11	2.9%	50	13.1%	240	62.7%	53	13.8%	12	3.1%	383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2	1.8%	2	1.8%	16	14.3%	73	65.2%	14	12.5%	5	4.5%	112	100.0%
고졸	12	4.3%	12	4.3%	39	14.1%	166	60.1%	41	14.9%	6	2.2%	276	100.0%
대학 이상	8	5.6%	2	1.4%	16	11.2%	97	67.8%	15	10.5%	5	3.5%	146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	5.4%	2	5.4%	8	21.6%	17	45.9%	6	16.2%	2	5.4%	37	100.0%
과거활동	7	4.8%	5	3.4%	20	13.8%	87	60.0%	21	14.5%	5	3.4%	145	100.0%
희망함	11	3.7%	8	2.7%	37	12.4%	200	66.9%	36	12.0%	7	2.3%	299	100.0%
생각없음	4	7.5%	1	1.9%	6	11.3%	33	62.3%	7	13.2%	2	3.8%	53	100.0%

청소년의 경우 성별로는 별 차이가 없으나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학기중 수업시간’ (중학생: 13.8% 고등학생: 25.6%)이나 ‘학기중의 적당한 토요일’ (중학생: 9.4%

고등학생: 15.4%)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 살펴 보면 경험이 없을수록 ‘학기중 수업시간’을 선호하고(현재활동 중: 11.9% 생각없음: 27.7%) 있고 현재활동중인 청소년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보다 ‘언제든지 가능’(현재활동 중: 13.1% 생각없음: 6.2%) 하다는 문항에 거의 두배가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다

4) 자원봉사활동 참여 형태

자원봉사활동시 청소년은 3분의 1 정도가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청소년 단체와 함께(20.8%)’나 ‘개인적으로(15.2%)’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부모는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중심으로(34.6%)’, ‘학교 전체(22.0%)’, ‘청소년 단체와 함께(20.8%)’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청소년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학부모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4.1%만 응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형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개인적으로	교내특별행사나 동아리 중심	청소년단체와 함께	자원봉사센터 기관을 통해	학교 전체	기타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86 15.2%	202 35.7%	118 20.8%	65 11.5%	70 12.4%	25 4.4%	566 100.0%	$\chi^2=68.55$ p=.000
학부모	22 4.1%	186 34.6%	104 19.4%	100 18.6%	118 22.0%	7 1.3%	537 100.0%	
전체	108 9.8%	388 35.2%	222 20.1%	165 15.0%	188 17.0%	32 2.9%	1103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38 13.7%	102 36.7%	60 21.6%	30 10.8%	37 13.3%	11 4.0%	278 100.0%	$\chi^2=1.48$ p=.915
여자	46 16.2%	100 35.2%	58 20.4%	33 11.6%	33 11.6%	14 4.9%	284 100.0%	
학교별								
중학교	46 16.7%	90 32.7%	59 21.5%	35 12.7%	24 8.7%	21 7.6%	275 100.0%	$\chi^2=21.98$ p=.000
고등학교	37 13.0%	112 39.3%	59 20.7%	28 9.8%	45 15.8%	4 1.4%	285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0 23.8%	23 27.4%	22 26.2%	10 11.9%	7 8.3%	2 2.4%	84 100.0%	$\chi^2=26.99$ p=.028
과거활동	25 15.1%	56 33.7%	35 21.1%	17 10.2%	20 12.0%	13 7.8%	166 100.0%	
희망함	30 12.0%	107 42.6%	46 18.3%	31 12.4%	30 12.0%	7 2.8%	251 100.0%	
생각없음	11 16.7%	16 24.2%	16 24.2%	7 10.6%	13 19.7%	3 4.5%	66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9 6.0%	56 37.1%	20 13.2%	34 22.3%	28 18.3%	4 2.6%	152 100.0%	$\chi^2=11.88$ p=.087
여자	13 3.4%	128 33.4%	83 21.7%	66 17.2%	90 23.3%	3 8%	383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6 5.3%	29 25.7%	29 25.7%	19 16.8%	28 24.8%	2 1.8%	113 100.0%	$\chi^2=25.35$ p=.004
고졸	12 4.3%	98 33.7%	55 19.9%	44 15.9%	70 25.4%	2 7%	276 100.0%	
대졸 이상	4 2.8%	62 41.1%	18 12.3%	37 25.7%	20 13.9%	3 2.1%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0 0%	10 27.0%	10 27.0%	9 24.3%	7 18.9%	1 2.7%	37 100.0%	$\chi^2=13.98$ p=.530
과거활동	4 2.7%	55 37.4%	25 17.0%	34 23.1%	26 17.7%	3 2.0%	147 100.0%	
희망함	14 4.7%	108 34.4%	59 19.7%	40 16.4%	71 23.7%	3 1.0%	299 100.0%	
생각없음	4 7.5%	18 34.0%	10 18.9%	8 15.1%	13 24.5%	0 0%	53 100.0%	

청소년은 성별간에는 차이가 별로 없으나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 전체(8.7%)’가 참여하는 형태보다 ‘개인적으로(16.7%)’ 참여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학부모는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남자 학부모는 ‘자원봉사센터나 기관을 통해(22.5%)’ 혹은 ‘학교 전체(18.5%)’가 참여하는 형태를, 여자 학부모는 ‘학교전체(23.5%)’나 ‘청소년 단체와 함께(21.7%)’ 참여하길 바라고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있고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낮은 응답율을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거나 희망하고 있을수록 ‘자원봉사센터나 기관을 통해’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4. 자원봉사 결과 평가

1) 점수화에 대한 의견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현재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반대 46.1%, 찬성 35.4%, 잘모르겠다 18.4%로 응답해 대체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		잘모르겠다		반대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03	36.1%	92	16.3%	268	47.6%	563	100.0%	$\chi^2 = 3.48$ p = .174
학부모	174	34.7%	104	20.8%	223	44.5%	501	100.0%	
전체	377	35.4%	196	18.4%	491	46.1%	1064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109	39.6%	44	16.0%	122	44.4%	275	100.0%	$\chi^2 = 2.98$ p = .227
여자	93	32.7%	48	16.9%	143	50.4%	284	100.0%	
학교별									
중학교	120	43.6%	41	14.9%	114	41.5%	275	100.0%	$\chi^2 = 12.80$ p = .001
고등학교	82	29.1%	51	18.1%	149	52.8%	282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38	45.2%	12	14.3%	34	40.5%	84	100.0%	$\chi^2 = 14.42$ p = .025
과거활동	68	41.2%	26	15.8%	71	43.0%	165	100.0%	
희망함	84	33.6%	44	17.6%	122	48.8%	250	100.0%	
생각없음	13	20.0%	10	15.4%	42	64.6%	65	100.0%	
학부모									
성별									
남자	56	39.2%	22	15.4%	65	45.5%	143	100.0%	$\chi^2 = 3.79$ p = .149
여자	118	33.2%	81	22.8%	156	43.9%	355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27	29.7%	28	30.8%	36	39.6%	91	100.0%	$\chi^2 = 11.78$ p = .019
고졸	104	39.7%	49	18.7%	109	41.6%	262	100.0%	
대학 이상	43	29.9%	26	18.1%	75	52.1%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9	27.3%	4	12.1%	20	60.6%	33	100.0%	$\chi^2 = 7.21$ p = .301
과거활동	51	36.7%	24	17.3%	64	46.0%	139	100.0%	
희망함	94	33.6%	66	23.6%	120	42.9%	280	100.0%	
생각없음	20	41.7%	10	20.8%	18	37.5%	48	100.0%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청소년의 47.6%, 학부모 44.5%가 반대해 청소년이 학부모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점수화에 반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율도 3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느정도 외적 강제도 필요하다는 의식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경우만을 살펴 보면 중학생은 41.5%가 자원봉사활동의 점수화를 반대하는데 비해 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높은 52.8%가 반대하여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 점수가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될 경우에 가중될 입시부담에 대해 고등학생이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희망하거나, 과거 또는 현재에 자원봉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자원봉사에 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이 점수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64.6%), 현재 활동중인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활동의 점수화에 반대하는 비율은 40.5%이며, 45.2%가 찬성한다. 한편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반대비율이 52.1%로 중졸 39.6%나 고졸 4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을 반대한다.

<표 4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업성적위주 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함		청소년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기타		전체		
학부모-청소년	76	35.5%	44	20.6%	83	38.8%	11	5.1%	214	100.0%	$\chi^2 = 7.38$ p = .060
학부모	75	30.5%	34	13.8%	124	50.4%	13	5.3%	246	100.0%	
전체	151	32.8%	78	17.0%	207	45.0%	24	5.2%	460	100.0%	
청소년	학업성적위주 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함		청소년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기타		전체		
성별	39	33.1%	26	22.0%	47	39.8%	6	5.1%	118	100.0%	$\chi^2 = .880$ p = .830
남자	37	38.9%	18	18.9%	35	36.8%	5	5.3%	95	100.0%	
학교별	45	36.3%	28	22.6%	45	36.3%	6	4.8%	124	100.0%	$\chi^2 = .998$ p = .801
중학교	31	34.8%	16	18.0%	37	41.6%	5	5.6%	89	100.0%	
고등학교	14	35.0%	9	22.5%	14	35.0%	3	7.5%	40	100.0%	$\chi^2 = 4.58$ p = .868
자원봉사경험	27	37.5%	11	15.3%	29	40.3%	5	6.9%	72	100.0%	
현재활동	30	34.9%	19	22.1%	34	39.5%	3	3.5%	86	100.0%	
과거활동	5	31.3%	5	31.3%	6	37.5%	0	.0%	16	100.0%	
희망없음											
학부모	학업성적위주 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함		청소년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기타		전체		
성별	27	36.5%	9	12.2%	33	44.6%	5	6.8%	74	100.0%	$\chi^2 = 3.10$ p = .375
남자	47	27.6%	25	14.7%	91	53.5%	7	4.1%	170	100.0%	
학력별	13	22.4%	12	20.7%	29	50.0%	4	6.9%	58	100.0%	$\chi^2 = 7.92$ p = .243
중졸 이하	42	31.3%	15	11.2%	73	54.5%	4	3.0%	134	100.0%	
고졸	19	36.5%	7	13.5%	22	42.3%	4	7.7%	52	100.0%	
대학 이상	4	30.8%	1	7.7%	8	61.5%	0	.0%	13	100.0%	$\chi^2 = 13.13$ p = .156
자원봉사경험	19	28.8%	5	7.6%	34	51.5%	8	12.1%	66	100.0%	
현재활동	44	31.2%	22	15.6%	71	50.4%	4	2.8%	141	100.0%	
과거활동	8	30.8%	6	23.1%	11	42.3%	1	3.8%	26	100.0%	
희망없음											

청소년들과 학부모는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해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45.0%),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32.8%),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17.0%)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38.8%)와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35.5%)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 집단은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점수화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50.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청소년과 학부모는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56.3%), 공정한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16.3%),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14.4%),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8.3%), 자원봉사를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3.2%)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자원봉사 점수화가 자원봉사활동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않게 영향을 미칠까 염려한다.

<표 4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정한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안심하고 활동을 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학부모-청소년	51	16.9%	38	12.6%	188	62.5%	9	3.0%	8	2.7%	7	2.3%	301	100.0%	$\chi^2= 30.44$ p = .000
학부모	52	15.8%	53	16.1%	167	50.8%	11	3.3%	44	13.4%	2	.6%	329	100.0%	
전체	103	16.3%	91	14.4%	355	56.3%	20	3.2%	52	8.3%	9	1.4%	630	100.0%	
	공정한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안심하고 활동을 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성별	33	23.2%	19	13.4%	80	56.3%	3	21%	4	28%	3	21%	142	100.0%	$\chi^2= 8.29$ p = .140
여자	18	11.5%	19	12.2%	105	67.3%	6	3.8%	4	2.6%	4	2.6%	156	100.0%	
학교별	27	20.6%	6	4.6%	82	62.6%	6	4.6%	4	3.1%	6	4.6%	131	100.0%	$\chi^2= 20.53$ p = .001
중학교	23	13.9%	31	18.8%	103	62.4%	3	1.8%	4	2.4%	1	.6%	165	100.0%	
고등학교															
자원봉사경험	6	16.2%	0	.0%	23	62.2%	5	13.5%	1	2.7%	2	5.4%	37	100.0%	$\chi^2= 37.70$ p = .001
현재활동	14	17.1%	8	9.8%	54	65.9%	1	1.2%	2	2.4%	3	3.7%	82	100.0%	
과거활동	19	14.2%	27	20.1%	83	61.9%	2	1.5%	2	1.5%	1	.7%	134	100.0%	
희망활동	12	24.5%	3	6.1%	29	58.2%	1	2.0%	3	6.1%	1	2.0%	49	100.0%	
생각없음															
	공정한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안심하고 활동을 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학부모	12	12.6%	25	26.3%	46	48.4%	1	1.1%	10	10.5%	1	1.1%	95	100.0%	$\chi^2= 12.59$ p = .027
학부모	38	16.5%	28	12.1%	120	51.9%	10	4.3%	34	14.7%	1	.4%	231	100.0%	
성별	9	12.9%	9	12.9%	34	48.6%	3	4.3%	14	20.0%	1	1.4%	70	100.0%	$\chi^2= 17.26$ p = .068
중졸 이하	21	13.0%	22	13.7%	88	54.7%	4	2.5%	25	15.5%	1	.6%	161	100.0%	
고졸 이상	20	21.1%	22	23.2%	44	46.3%	4	4.2%	5	5.3%	0	.0%	95	100.0%	
자원봉사경험	5	20.0%	4	16.0%	13	52.0%	0	.0%	3	12.0%	0	.0%	25	100.0%	$\chi^2= 15.25$ p = .433
현재활동	12	13.6%	20	22.7%	45	48.9%	3	3.4%	9	10.2%	1	1.1%	88	100.0%	
과거활동	28	15.2%	28	15.2%	94	51.1%	6	3.3%	28	15.2%	0	.0%	184	100.0%	
희망활동	7	22.6%	1	3.2%	16	51.6%	2	6.5%	4	12.9%	1	3.2%	31	100.0%	
생각없음															

청소년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비중이 학부모보다 높은 반면(학생 62.5%, 학부모 50.8%), 학부모는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활동을 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비중이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학생 2.7%, 학부모 13.4%) 청소년과 학부모 집단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중학생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자원봉사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반대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안심하고 활동을 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은 13.5%나 자원봉사를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의 점수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과거에 활동했거나(1.2%),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거나(1.5%), 과거에도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 청소년(2.0%)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차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수화에 반대한다’는 비율(20.1%)이 ‘현재활동중(0%)’, ‘과거에 활동함(9.8%)’, ‘할 생각이 없음(6.1%)’에 응답한 청소년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경험의 유무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누가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학부모와 청소년 집단 간에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학생자신(30.5%)이 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비율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센터/활동처 모두에 27.3%,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에 16.0%, 자원봉사 담당지도자에 10.6%, 자원봉사 센터나 기구에 7.9%, 담임선생님에 7.7%가 응답한 반면, 학부모 집단은 ‘학생/센터/활동처 모두가 평가해야 한다’가 35.2%로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고, 학생자신과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이 각각 18.4%, 18.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센터나 기구가 11.0%, 담임선생님이 9.9%, 자원봉사 담당지도자가 7.4%의 순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중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31.9%가 학생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고등학생은 34.6%가 학생/센터/활동처 모두가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하였다. 또한 성별로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은 ‘담임선생님’에 각각 11.8%와 3.9%가,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에’ 각각 11.1%와 20.4%가 응답하여 성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평가자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학생 자신이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센터/활동처 모두가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학부모의 학력에 따라 집단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자신	담당선생님	자원봉사센터 나 기관	자원봉사담당 지도자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	학생/센터/활동 처 모두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73	30.5%	44	7.7%	45	7.9%	60	10.6%
학부모	99	18.4%	53	9.9%	59	11.0%	40	7.4%
전체	272	24.6%	97	8.8%	104	9.4%	100	9.0%
							188	17.0%
							344	31.1%
							1105	100.0%
청소년								
성별								
남자	85	30.4%	33	11.8%	27	9.6%	31	11.1%
여자	87	30.6%	11	3.9%	18	6.3%	29	10.2%
학교별								
중학교	88	31.9%	39	14.1%	26	9.4%	23	8.3%
고등학교	83	29.0%	5	1.7%	18	6.3%	37	12.9%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2	26.2%	14	16.7%	6	7.1%	8	9.5%
과거활동	57	34.3%	17	10.2%	11	6.6%	17	10.2%
희망함	71	28.1%	11	4.3%	19	7.5%	28	11.1%
생각없음	23	34.8%	3	4.5%	9	13.6%	7	10.6%
학부모								
성별								
남자	26	17.3%	14	9.3%	21	14.0%	13	8.7%
여자	72	18.8%	38	9.9%	37	9.6%	27	7.0%
학력별								
중졸 이하	31	27.2%	19	16.7%	6	5.3%	12	10.5%
고졸	44	15.9%	25	9.1%	34	12.3%	17	6.2%
대학 이상	23	16.1%	8	5.6%	18	12.6%	11	7.7%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9	24.3%	3	8.1%	2	5.4%	0	.0%
과거활동	25	17.0%	13	8.8%	15	10.2%	12	8.2%
희망함	59	19.7%	26	8.7%	33	11.0%	23	7.7%
생각없음	6	11.3%	11	20.8%	9	17.0%	5	9.4%

5. 자원봉사센터 활용

1) 사전교육 참여

전체 설문대상 학부모와 청소년들 중 과반수 이상인 51.2%가 ‘학교 이외에 사전에 자원봉사에
고 관해 소개하고 교육하며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여 자원봉사에 필
요한 사전교육에 대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학부모 집단은 자신의 자녀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를 매우 희망하는 반면(62.3%),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희망도가 낮아(40.6%) 집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 이외의 청소년 자원봉사 소개기관이 있더라
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12.3%)’거나 ‘잘 모르겠다(47.1%)’는 부정적 또는 유보적 반응
도 59.4%에 달해 학부모 집단의 37.7%(참여하지 않겠다 6.7%, 잘모르겠다 31.0%)에 비해 매우 높
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30.7%가 ‘참여하고 싶다’, 16.1%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비해, 여학생의 49.7%가 ‘참여하고 싶다’고 하고 8.7%만이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여 남자와 여자 청소년 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일수록 학교 이외의 자원봉사 소개기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4> 학교외에 자원봉사 소개기관이 있다면 다음 활동에 참가하고 싶습니까?

	참가하고 싶다		잘모르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32	40.6%	269	47.1%	70	12.3%	571	100.0%	$\chi^2 = 52.93$
학부모	336	62.3%	167	31.0%	36	6.7%	539	100.0%	p = .000
전체	568	51.2%	436	39.3%	106	9.5%	1110	100.0%	
청소년	참가하고 싶다		잘모르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전체		
성별									
남자	86	30.7%	149	53.2%	45	16.1%	280	100.0%	$\chi^2 = 22.77$
여자	142	49.7%	119	41.6%	25	8.7%	286	100.0%	p = .000
학교별									
중학교	108	39.1%	135	48.9%	33	12.0%	276	100.0%	$\chi^2 = .540$
고등학교	120	41.7%	132	45.8%	36	12.5%	288	100.0%	p = .763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43	51.2%	31	36.9%	10	11.9%	84	100.0%	$\chi^2 = 59.12$
과거활동	65	38.9%	85	50.9%	17	10.2%	167	100.0%	p = .000
희망함	116	45.7%	120	47.2%	18	7.1%	254	100.0%	
생각없음	9	13.4%	33	49.3%	25	37.3%	67	100.0%	
학부모	참가하고 싶다		잘모르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전체		
성별									
남자	109	72.2%	30	19.9%	12	7.9%	151	100.0%	$\chi^2 = 11.53$
여자	226	58.9%	134	34.9%	24	6.3%	384	100.0%	p = .003
학력별									
중졸 이하	56	49.1%	47	41.2%	11	9.6%	114	100.0%	$\chi^2 = 11.56$
고졸	184	66.7%	77	27.9%	15	5.4%	276	100.0%	p = .021
대학 이상	94	65.3%	40	27.8%	10	6.9%	144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31	81.6%	5	13.2%	2	5.3%	38	100.0%	$\chi^2 = 35.64$
과거활동	104	70.7%	28	19.0%	15	10.2%	147	100.0%	p = .000
희망함	181	60.3%	106	35.3%	13	4.3%	300	100.0%	
생각없음	20	37.7%	27	50.9%	6	11.3%	53	100.0%	

자원봉사활동 경험별로 보면, ‘참여하고 싶다’는 반응은 현재 활동 중이거나(51.2%), 앞으로 희망하거나(45.7%), 과거에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38.9%)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 학생일수록 자원봉사 소개기관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응답(37.3%)이 높게 나타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참가하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이 (현재활동중 11.9%, 과거활동 10.2%) 전체 설문응답자의 10%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봉사 소개기관의 역할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부모의 반응결과를 보면, 어머니(58.9%)보다 아버지(72.2%)가 학교 이외의 자원봉사 소

개기관에 자녀들을 참가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고, 고졸학력의 부모일수록 참가시키고자 하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가 자원봉사 경험이 있거나(현재활동 81.6%) 앞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집단(60.3%)이 자원봉사활동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부모 집단보다 참가하고 싶다는 반응이 적게 나타나(37.7%) 집단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학부모의 10.2%가 자녀를 자원봉사 소개기관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다소 의외의 반응도 보이고 있다.

2) 정보제공시 이용여부

‘학교 이외에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느냐’는 물음에 대해 학부모 59.6%, 학생 52.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앞으로 자원봉사 정보 안내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학교외에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습니까?

	이용하고 싶다		잘 모르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전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99	52.5%	207	36.3%	64	11.2%	570	100.0%	$\chi^2=5.08$ p = .078
학부모	315	59.0%	172	32.2%	47	8.8%	534	100.0%	
전체	614	55.6%	379	34.3%	111	10.1%	1104	100.0%	
청소년	이용하고 싶다		잘 모르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전체		
성별									
남자	125	44.6%	115	41.1%	40	14.3%	280	100.0%	$\chi^2= 14.23$ p = .000
여자	171	59.8%	92	32.2%	23	8.0%	286	100.0%	
학교별									
중학교	160	58.0%	90	32.6%	26	9.4%	276	100.0%	$\chi^2= 7.07$ p = .029
고등학교	135	46.9%	116	40.3%	37	12.8%	288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56	66.7%	21	25.0%	7	8.3%	84	100.0%	$\chi^2= 89.66$ p = .00
과거활동	95	57.2%	56	33.7%	15	9.0%	166	100.0%	
희망함	141	55.5%	98	38.6%	15	5.9%	254	100.0%	
생각없음	8	11.9%	32	47.8%	27	40.3%	67	100.0%	
학부모	이용하고 싶다		잘 모르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전체		
성별									
남자	98	65.3%	34	22.7%	18	12.0%	150	100.0%	$\chi^2= 9.48$ p = .008
여자	215	56.6%	136	35.8%	29	7.6%	380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49	43.4%	53	46.9%	11	9.7%	113	100.0%	$\chi^2= 16.10$ p = .003
고졸	168	61.5%	81	29.7%	24	8.8%	273	100.0%	
대학 이상	94	65.7%	37	25.9%	12	8.4%	143	100.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9	76.3%	7	18.4%	2	5.3%	38	100.0%	$\chi^2= 25.83$ p = .000
과거활동	94	64.4%	38	26.0%	14	9.6%	146	100.0%	
희망함	175	58.9%	102	34.3%	20	6.7%	297	100.0%	
생각없음	17	32.7%	25	48.1%	10	19.2%	52	100.0%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학교 이외의 자원봉사 정보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반응은 59.8%, 이용하지 않겠다는 8.0%로 남자 청소년의 44.6%, 14.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로 집단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는 자녀를 이용시키겠다는 아버지는 65.3%, 어머니는 56.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아버지일수록 자원봉사 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자녀를 이용시키겠다는 응답에서 어머니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이용시키지 않겠다는 반응도 높게 나타나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 수록 학교 이외의 자원봉사 정보제공 기관에 자녀를 이용시키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으며(중졸이하 43.4%, 고졸 61.5%, 대학이상 25.9%), 학력이 낮을수록 잘모르겠다(중졸이하 46.9%, 고졸 29.7%, 대학이상 25.9%), 이용시키지 않겠다(중졸이하 9.7%, 고졸 8.8%, 대학이상 8.4%)는 수동적,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면 자원봉사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부모일수록 자원봉사 기관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고,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낮은 반면, 그렇지 않은 부모일수록 이용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3)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할 일

전체 설문 응답자들은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해야 할 일로 자원봉사 활동 장소나 기회의 알선을 우선 순위로 꼽고 있고(26.0%),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제공(25.2%), 자원봉사 희망자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 부여(24.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담(10.5%) 등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만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제공(30.1%), 자원봉사활동 장소와 기회의 제공(29.5%), 자원봉사 희망자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 부여(19.6%) 등의 순으로 꼽고 있고, 학부모는 자원봉사 희망자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 부여(28.8%),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제공(20.4%), 자원봉사활동 장소나 기회 알선(22.5%), 자원봉사에 대한 상담(12.4%)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꼽고 있어 자원봉사 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두 집단 간에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청소년의 경우에 다수의 여학생은 자원봉사 장소나 기회의 알선(36.5%)과 정보제공(32.0%)을 센터의 중심역할로 인식하는데 반해 남학생은 장소나 기회의 알선보다 정보제공(28.5%)과 기술과 지식 등의 교육기회 부여(22.2%)를 우선순위로 꼽아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의 학력별로 보면 센터가 할 일 중 ‘지식이나 기술 등의 교육기회 부여’에 중졸 이하인 학부모의 경우는 27.7%, 고졸은 32.4%, 대학이상은 23.1%로 고졸학력의 부모가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자원봉사활동 장소나 기회의 알선’에 중졸 이하는 17.0%, 고졸은 22.3%, 대학은 27.7%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부모가 가장 높게 반응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원봉사 정보제공 기관의 역할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7	7.8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55	61.1
새로운 경험과 기술 습득을 위해	3	3.3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1	1.1
원만한 대인관계 개선/사회성 함양	7	7.8
사회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자각하기 위해	12	13.3
살아있는 교육을 경험하기 위해	3	3.3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1	1.1
기타	1	1.1
전체	90	100.0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는 데 있어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중심으로(36.7%)나 자원봉사센터나 기관을 통해(36.7%)하기를 원하며, 11.1%는 청소년단체와 함께 청소년이 자원봉사를하기를 원하고 있어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바란다.

<표 4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형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빈도	%
개인적으로	3	3.3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33	36.7
청소년단체와 함께	10	11.1
자원봉사 센터나 기관을 통해	33	36.7
학교 전체	8	8.9
기타	3	3.3
전체	90	100.0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점수로 반영되는 것에 57.3%가 찬성하며 34.8%가 반대하며 7.9%가 잘모르겠다며 유보하는 입장을 보여 많은 기관에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점수화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에 긍정적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표 50>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빈도	%
찬성	51	57.3
반대	31	34.8
잘 모르겠다	7	7.9
전체	89	100.0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점수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로 50.0%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28.8%가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11.5%가 청소년의 노력에 당연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점수화가 청소년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42.4%가 자원봉사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42.4%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청소년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며, 9.1%는 공정한 자원봉사의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점수화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순수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빈도	%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	15	28.8
청소년의 노력에 당연한 보상이 주어져야	6	11.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성화를 위해	26	50.0
기타	5	9.6
전체	52	100.0

<표 5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빈도	%
공정한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가 어려워	3	9.1
자원봉사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14	42.4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	14	42.4
자원봉사를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 적음	2	6.1
전체	33	100.0

자원봉사의 점수화와 관련하여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58.2%가 ‘학생과 자원봉사센터와 수요기관에서 함께’ 하도록 하는 것에 지지하며, 19.0%가 ‘청소년들이 활동한 수요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수요기간에서 평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학생 자신(5.1%)이나 담임선생님(5.1%), 담당지도자(6.3%), 자원봉사센터(6.3)와 같이 수요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수만이 찬성하고 있다.

<표 53>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학생 자신	4	5.1
담임선생님	4	5.1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하는 자원봉사센터	5	6.3
별도의 자원봉사 담당 지도자	5	6.3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	15	19.0
학생+자원봉사센터+시설/기관	46	58.2
전체	90	100.0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은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53.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33.3%)라고 생각하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사회적 조건이 선결되길 원한다.

<표 54>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빈도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 인식제고	30	33.3
청소년봉사활동의 경력 인정	3	3.3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48	53.3
청소년자원봉사의 입시 및 취직시 우대혜택	2	2.2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설립	3	3.3
주 5일제 수업실시	0	0.0
대상기관의 개방 및 적극적인 요청	3	3.3
활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1	1.1
전체	90	100.0

그러나 청소년 봉사활동의 경력 인정(3.3%), 청소년의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의 설립(3.3%), 청소년 자원봉사의 입시 및 취직시 우대혜택 마련(2.2%), 활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1.1%)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지지가 약하다. 또한 대상기관과 실제적으로 관련있는 부분인 대상기관의 개방 및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는 단지 3.3%만이 응답하였다.

2) 수요기관 내의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수요기관 중 67.4%가 청소년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32.6%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수요기관 중 62.5%가 청소년용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32.8%의 수요기관이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담당자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 55>당신이 있는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빈도	%
하고 있다	60	67.4
하고 있지 않다	29	32.6
전체	89	100.0

<표 56> 귀 기관에서는 청소년용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빈도	%
있다	40	62.5
없다	24	37.5
전체	64	100.0

<표 57> 당신의 기관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담당자가 있습니까?

	빈도	%
전문담당자가 있음	21	32.8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조정하는 분이 담당	24	37.5
특별한 담당자 없음	19	29.7
전체	64	100.0

현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수요기관에서의 어려운 점은 자원봉사를 위한 사전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것(38.7%), 청소년들이 마땅히 할 활동이 없는 것(29.0%)이라고 하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도할 담당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9.7%의 기관만이 응답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영역의 개발과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8>당신의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빈도	%
자원봉사를 위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이 없다	24	38.7
자원봉사를 지도할 담당자가 없다	6	9.7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귀찮아 한다	0	0.0
청소년들이 할 마땅한 활동이 없다	18	29.0
기타	14	22.6
전체	62	100.0

현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수요기관의 경우 87.1%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청

소년자원봉사활동을 허락하겠다고 하며 그 이유로 청소년 인격교육에 협조하기 위해서(75.4%)라고 한다.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곳의 이유는 청소년에게 적당히 맡길 일이 없다고 한 비율이 7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담당할 지도자가 없다(20.0%)고 한다.

<표 59>당신이 있는 기관에서 앞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빈도	%
기회가 되면 하겠다	54	87.1
할 생각이 별로 없다	8	12.9
전체	62	100.0

<표 60> 허락하겠다고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
일손을 덜 수 있기 때문에	2	4.0
청소년인격교육에 협조하기 위해서	43	86.0
청소년진로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5	10.0
전체	50	100.0

<표 61> 허락하지 않겠다고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
청소년에게 맡길 적당한 일이 없다	7	70.0
업무가 바빠 청소년이 성가시다	0	0.0
청소년에게 책임을 맡길 수 없다	1	10.0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도할 담당자가 없다	2	20.0
전체	10	100.0

수요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37.3%가 일손돕기 활동, 21.7%가 지역사회 개발활동, 15.7%가 환경·시설보전활동, 10.8%가 캠페인활동이 좋다고 한다. 지도·상담활동(7.2%), 자선·구호활동(6.0%), 위문활동(1.2%) 등은 상대적으로 선호가 떨어진다.

<표 62>당신의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다음 중 어떤 일을 하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빈도	%
일손돕기 활동	31	37.3
위문활동	1	1.2
지도·상담활동	6	7.2
캠페인 활동	9	10.8
자선·구호활동	5	6.0
환경·시설보전 활동	13	15.7
지역사회개발활동	18	21.7
전체	83	100.0

구체적으로 수요기관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33가지 활동을 제시하고 세 가지씩 선택하게 한 결과, 관공서 일손돕기(29.1%),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29.1%), 깨끗한 환경만들기(24.4%), 공공기관 일손돕기(17.4%), 지역홍보활동(17.4%), 문화예술 시설 일손돕기(15.1%), 자연보호(14.0%), 종교·사회단체 일손돕기(12.8%), 장애인 위문(10.5%), 교통·안전 지도(10.5%)순이며, 헌혈 및 줄수 기증(0.0%), 자매부대 위문(0.0%) 등에는 전혀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 고아원 위문(1.2%), 국제협력과 난민돕기(1.2%), 농어촌 일손돕기(2.3%), 기

업체 일손돕기(2.3%), , 재해구호활동(2.3%), 양로원 위문(3.5%), 지역사회 가꾸기(3.5%) 등도 아주 낮은 비율로 나타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다각화하는 데 있어 청소년 자원봉사를 위한 수요기관
의 다각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63>당신의 기관에서 가장 잘 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세가지(전체 300%)

	빈도	백분율
관공서 일손돕기	25	29.1%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5	5.8%
공공기관 일손돕기	15	17.4%
기업체 일손돕기	2	2.3%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6	7.0%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25	29.1%
문화예술회·시설 일손돕기	13	15.1%
종교사회·단체 일손돕기	11	12.8%
농어촌 일손돕기	2	2.3%
장애인 위문	9	10.5%
병약자 위문	6	7.0%
고아원 위문	1	1.2%
양로원 위문	3	3.5%
하급생 지도	7	8.1%
사회교육지도	8	9.3%
교통 안전지도	9	10.5%
동급생 지도	4	4.7%
공공질서 확립 캠페인	8	9.3%
교통안전 캠페인	4	4.7%
환경보전 캠페인	8	9.3%
재해구호 활동	2	2.3%
불우이웃돕기	6	7.0%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1	1.2%
자연보호	12	14.0%
문화재보호	4	4.7%
학교주변 정화활동	6	7.0%
깨끗한 환경만들기	21	24.4%
지역실태조사활동	7	8.1%
지역사회 가꾸기	3	3.5%
지역홍보활동	15	17.4%
전체	86	100.0%

바람직한 활동시간은 방학 기간(25.3%), 학기 중의 평일 방과 후(21.8%), 학기 중의 수업시간(18.4%)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요기관은 13.8%에 그친다.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낼 수 있는 학기 중의 공휴일(5.7%)이나 학기
중의 적당한 토요일(14.9%)은 상대적으로 선호가 떨어진다.

<표 64>당신의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빈도	%
학기 중의 수업 시간	16	18.4
학기 중의 평일 방과 후 시간	19	21.8
학기 중의 공휴일	5	5.7
방학 중	22	25.3
학기 중의 적당한 토요일	13	14.9
언제든지 가능	12	13.8
전체	87	100.0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되는 기간은 방학중에 집중적으로 하거나(18.2%), 일정 기간, 일정 시간 동안 1회에 한하는 것(12.5%) 보다 주 1, 2 시간 만이라도 1년내내 지속적으로 (55.7%) 활동하기를 원한다.

<표 65>당신의 기관에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빈도	%
일정기간, 일정시간 동안 1회	11	12.5
주1,2시간만이라도 1년내 지속적으로	49	55.7
방학 중 집중적으로	16	18.2
기타	12	13.6
전체	88	100.0

청소년들이 수요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지도할 담당자를 외부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비율은 64.0%로 높은 편이며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자세”(79.8%)를 사전에 익혀오길 원한다.

<표 66> 당신의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청소년자원봉사를 지도할 외부의 담당자를 동반하기 원하십니까?

	빈도	%
꼭 동반하는 것이 좋다	19	21.3
동반할 필요가 없다	32	36.0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동반하는 것이 좋다	38	42.7
전체	89	100.0

<표 67>당신의 기관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익혀야 할 사전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활동에 필요한 기술	0	0.0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자세	71	79.8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주의사항	18	20.2
전체	89	100.0

3)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는 자원봉사희망자에게 기술이나 지식 등이 교육기회를 주는 것(26.7%),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26.7%)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장소나 기회를 개발 알선해주길(22.2%) 바란다.

<표 68>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빈도	%
희망자에게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	24	26.7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담을 함	8	8.9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4	26.7
장소나 기회를 개발 알선함	20	22.2
자원봉사 희망자 등록제도 실시	1	1.1
자원봉사를 도와줄 지도자 육성	4	4.4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책자 개발	8	8.9
기타	1	1.1
전체	90	100.0

청소년 자원봉사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51.7%의 기관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며, 47.2%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도자 교육에 대해 담당자를 교육시키겠다고 한 기관은 64.7%, 그렇지 않겠다고 한 기관이 12.9%로 청소년자원봉사 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 호감을 보인다.

<표 69> 청소년 자원봉사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당신이 있는 기관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빈도	%
이용하겠다	46	51.7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겠다	42	47.2
이용하지 않겠다	1	1.1
전체	89	100.0

<표 70> 청소년 자원봉사를 위한 전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담당자를 양성한다면 당신이 있는 기관에서는 담당직원을 교육시키겠습니까?

	빈도	%
그렇다	55	64.7
잘 모르겠다	19	22.4
그렇지 않다	11	12.9
전체	85	100.0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제적인 주체인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이미지(image), 청소년 자원봉사의 개념, 필요성, 참여동기 등의 일반적인 이해와 참여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수요기관 등의 자원봉사 환경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등을 조사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청소년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시작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청소년 자원봉사 제도화 방안과 지원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제도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와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청소년 및 학부모, 청소년자원봉사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미지 : 청소년이나 학부모 대부분이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하며’ ‘무보수이고’ ‘개인발전에 도움이 되며’, ‘공부를 하게 하는 활동이다’에 찬성하며, ‘쓸데없는 참견이고’ ‘강제적이며’ ‘겉치레이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 자원봉사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2)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 : 청소년 중 전체의 43.5%는 자원봉사한 적이 있거나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44.8%는 자원봉사 경험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하고 싶어한다. 다만 11.7%만이 전혀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하여 별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성적이나 취업에 반영될 가능성(38.5%)을 고려하거나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24.2%)라고 응답하였다.

3) 자원봉사의 필요성 인식 : 청소년의 85.7%는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는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36.3%),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20.1%) 등을 지적하였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은 공부시간 때문에 바빠서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것과 활동을 할 장소를 모르거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많아서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부모의 경우 청소년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91.2%가 응답하여 청소년에 비해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며, 자신의 자녀가 자원봉사를 하기 원하는가에 대해서 84.7%는 원하며, 15.3%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성의 인식정도에 비해 실제 동의하는 비율은 낮다. 또한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 활동실적의 반영과 같은 외적 동기보다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더욱 바라고 있다.

4) 원하는 자원봉사활동 영역 : 청소년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자원봉사 활동내용은 ‘일손돕기

활동', '위문활동', '환경·시설보전활동'과 같은 단순한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지역사회 개발활동', '자선·구호활동' 등은 선호가 떨어진다.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요기관이나 시설 중 청소년들은 '복지기관이나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단체', '문화·예술시설', '관공서' 및 '체육·관광시설' 순으로 선호하며 '기업체', '공공기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선호는 떨어진다. 학부모는 '복지기관이나 시설', '관공서', '문화·예술시설' 및 '종교·사회단체' 순으로 선호하고 있고, '기업체', '체육·관광시설', '청소년 수련시설·단체'에 대한 선호는 낮다.

5)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시간과 참여형태 :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청소년이나 학부모 대부분이 방학기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 6.5%, 학부모 3.0%만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참여할 때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 중심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청소년이나 학부모 모두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청소년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를 바라고 있다.

6) 자원봉사활동의 점수 반영과 평가 : 자원봉사의 활동 결과를 상급학교 진학 시에 점수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1/3 정도가 찬성하며, 1/2정도는 반대한다. 점수반영에 찬성하는 이유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하다는 데에 가장 높은 지지를 하였으며,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 청소년들은 학생자신이 하는 방안을 가장 지지하며, 그 다음으로 학생과 자원봉사센터, 활동기관 등 모두가 참여는 방안을 선호하나, 학부모들은 학생과 자원봉사센터 및 활동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을 가장 지지하고 그 다음으로 학생자신의 평가를 선호하여 담임선생님이나 자원봉사 담당지도자 등 특정 개인에 의한 평가를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있다.

7) 청소년 자원봉사의 지원 및 전문기관의 활용 : 청소년과 학부모 대부분은 학교나 담임선생님이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원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전에 자원봉사 관련교육을 실시할 경우 40%정도의 청소년이 참가하겠다고 밝혔으며, 그곳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50% 정도가 이용하고 싶다고 한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희망자에 대해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를 주는 것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장소나 기회를 개발·알선해주길 원하고 있다.

8) 수요기관의 청소년 자원봉사 실태 : 수요기관의 대부분이 청소년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참가 방법은 학교 내 특별행사나 동아리, 또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참가하기를 원한다. 수요기관 중 2/3정도가 청소년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60%정도가 청소년용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30% 가량이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 담당자가 있다고 한다. 수요기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사전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85%이상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청소년 자원봉사를 허락하겠다고 하여 수요기관의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호의는 아주 높은 편이다. 수요기관에서 청소년들이 해 주길 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일손돕기 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이며, 활동하기 적합한 시간은 방학이나 학기 중의 평일 방과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이나 기능엔 호감을 갖고 있으며 센터가 청소년에게 교육기회와 다양한 교재를 개발해 주길 원한다.

2. 제언

이러한 조사 결과와 청소년 자원봉사의 제도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원봉사의 방향 및 이론적 논의 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철학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청소년들이 하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청소년과 자원봉사를 혼합하여 설명하려는 것이 많았다. 이러한 논의의 한계는 단순히 주체를 청소년으로 고정시킬 뿐 기존의 성인 중심의 자원봉사와 크게 차별화시키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논의에서는 미국의 봉사학습 개념이나 일본의 자원봉사 협력교에 대한 내용을 도입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의 의미를 정리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나라의 청소년 여건이나 문화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논의들은 청소년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정신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원봉사가 왜 청소년, 특히 학생에게 필요한지 - 단순히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논의가 아니라 이것을 함양하기 위해 왜 자원봉사 활동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 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 가고, 자원봉사 활동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을 제시할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구나 기관의 역할이 정립되고 이를 시급히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원봉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마땅히 할 영역이 없거나 활동할 장소를 잘 모르겠다고 한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들은 주로 다양한 봉사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활동 수요기관에 대한 정보 확대, 지도자의 양성,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원과 협조 등과 같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활동할 장소가 많지 않으며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 및 연수 기능을 시행할 종합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일을 수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각 도에도 이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직·간접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자원봉사의 주체가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영역의 체계적인 재분류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7개 영역의 33개 세부 항목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영역은 일손돕기활동과 환경시설보전활동에 제한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수요기관에서는 일손돕기활동과 지역사회개발활동을 선호하고 있어 이들 영역에서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새롭게 개발하고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개념과 이념을 확산하기 위해, 지금까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폐품 혹은 재활용품수집, 각종 캠페인이나 지역사회 행사참여 등의 활동을 일정 기준에 따라 봉사활동으로 간주하는 등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나 개발이 단순히 활동영역을 개척하고 활동 장소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련프로그램으로서 새롭게 포장되고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자원봉사를 실제적으로 이끌고 지도할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자질을 구비한 지도자의 양성과 배치가 필수적이다. 이들 지도자는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사전교육, 활동내용 및 수요기관의 연계, 봉사현장에서의 청소년 안내 및 지도,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지도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교육하고 배치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도자 양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청소년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 학부모,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단기 교육을 실시하여 배치하고 활용하는 과도기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직 교사 대상의 단기 연수를 통해 전문적인 자원봉사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경우 교사의 고과나 실적에 반영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 봉사활동의 방법은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학교 전체나 학년별 집단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교교원의 자질이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특정교과목과 연계하여 시행해 볼 수도 있으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협력교로서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 학교 전체나

학년별 프로그램과 같이 대집단 활동이 아닌 동아리이나 청소년단체 활동이나 개인활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외부 지원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지금보다 더 개방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여섯째,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서 지역사회는 학교와 더불어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 계몽 등의 진흥책을 펼 수 있으며, 지역사회내의 수요시설이나 기관을 봉사활동의 장으로 개방하는 적극적인 주체인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성인들은 중요한 조연자이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참여자가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기업은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후원역할을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조정하고 각 집단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은 바로 그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평가방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한 청소년은 45%정도로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 주로 취업이나 진학 시 받을 혜택을 지적하고 있어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방법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는 봉사활동 실적을 고입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이 현재로는 유일한 것이다. 봉사활동을 졸업요건화 하지 않고 입시에 반영하는 현행 방법은 자원봉사의 기본원리인 자발성을 저해하기보다는 청소년의 자기선택과 결정 및 학교 개입을 보장하며, 활동의 기회보장과 지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차선의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좀더 나은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지 각 대학에서 매년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에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별로 어떤 봉사활동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봉사활동 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과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에게 적합한 실질적 이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원봉사의 기본원리로서 무상성에 지나치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시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질적인 이득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이득은 봉사활동

동이 완료된 시점에 보상하는 즉시적인 대가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축적된 후에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비의 면제, 장학금 수혜 시의 우선권 부여 혹은 장학금 수혜의 기본 자격화, 학자금 융자 혜택의 우선권 부여, 각종 국가고시에서의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홉째,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기금』(가칭)과 같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봉사활동이 수업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학습과정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사고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원봉사보험』과 같은 제도 마련을 위해서도 기금설치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보험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금의 출자자는 청소년 봉사활동이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의 상호보완을 위한 주요한 매개일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학교와 관련 행정기관, 청소년 육성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주축으로 하고, 그 밖에 지역사회의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세나 교육관련 재원의 일부 배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열째, 청소년 봉사활동은 교육과 육성이 상호보완되어 밀접한 연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교육과 청소년 육성 분야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보다 밀접한 연계를 맺을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원봉사는 일종의 수련활동으로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교육과 육성의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시험장인 동시에 개혁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옥(199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도사례”, 삼성복지재단 청소년자원봉사단 푸른나눔, 지도자 연수교재, 1996.1.
- 교육부(1996),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부.
- 김영호(1991), 자원봉사 이론과 실제, 서울:홍익재.
- 리프킨 제레미(1996), “정보화시대의 공민사회”, 서울신문사 발행, 서울신문명칼럼, 1996.2.25.
- 오재원(1996),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사례”, 삼성복지재단 청소년자원봉사단 푸른나눔, 지도자연수교재, 1996.1.
- 원영준(1995), “미국의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제6권, 제4호.
- 이명득(1995), “청소년단체 및 사회봉사기관의 봉사활동 지도사례”, 한국청소년학회·중앙일보사, 교육개혁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1995.7.19.
- 중앙일보사편(1995), 시민사회 자원 봉사의 길: 개념편, 서울:중앙일보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77), 사회복지총람, 서울:한국사회복지협의회.
- 永井順國(1995), “教育とボランティアの接點-ボランティアと入試の評価をめぐって”, ボランティア白書 編輯委員會, ボランティア白書-新時代, 東京:社團法人日本青年奉仕協會.
- Kipps H. C.(1992), *Volunteering : The Directory of Organization, Training, Programs, and Publications*, NewYork : Bowker.
- Townsend, K. K.(1993), "Maryland's Requirement : Better Students, Better Citizens", *Youth Policy*, Vol.15, No.2&3.
- Trecker, H. B.(1971), *Social Work Administration*, Association Press, 장인협 (역), 사회복지행정, 서울:수문사.
- Youth Policy Institute(1993), "S. 676 : The Service Learning Act of 1993:A Summary of the Bill", *Youth Policy*, Vol.15, No. 2 & 3.

부록 1. 설문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기술 및 활동 장소(기관)를 제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가 청소년을 교육하며 지도자를 연수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의식 및 행동양식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 3.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137-130)

수련활동실 수련부(☎ 576-2893)

* 다음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당신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표 해주십시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 | | | | |
|-----------------------------------|---|--|--|
| 1. 자원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2.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3.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일이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4. 자원봉사는 겉치레이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5.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6. 자원봉사는 노는 것 보다 재미있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7. 자원봉사는 쓸데 없는 참견이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8.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9. 자원봉사는 공부를 하게 한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10.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11.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12. 자원봉사는 무보수이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13.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것이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14.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15. 자원봉사는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 | <table border="1"><tr><td> </td><td> </td></tr></table> | | |
| | | | |

* 아래의 질문을 잘 읽고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표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에 ✓표 한 후 _____에 직접 적어 주십시오.

1. 당신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___① 현재 활동 중이다.
- ___② 과거에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중단하고 있다.
- ___③ 현재까지 경험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 ___④ 전혀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별 생각이 없다.

2. 당신이(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 ___① 일반교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 ___②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
- ___③ 자아실현을 위해(자신의 기술이나 능력 발휘)
- ___④ 새로운 사람을 만나 친구를 사귀기 위해
- ___⑤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 ___⑥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 ___⑦ 앞으로 성적이나 취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___⑧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3. 당신은 자원봉사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자기 회생을 통해 불우 이웃을 도와주는 것
- ___②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
- ___③ 경제적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가를 활용하는 것
- ___④ 사회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4. 당신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필요하다 (5번 문제로 가세요)
- ___② 필요없다 (6번 문제로 가세요)

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 ___②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 ___③ 새로운 경험과 기술 습득을 위해
- ___④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 ___⑤ 원만한 대인관계 개선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 ___⑥ 사회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자각하게 되므로

6.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싶습니까?

- ☐ ① 학교나 담임선생님을 통해
- ☐ ②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기관을 통해
- ☐ ③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 ☐ ④ 자원봉사 관련 전문소식지를 통해
- ☐ ⑤ 지역신문이나 알림란을 통해
- ☐ ⑥ 컴퓨터 통신을 통해
- ☐ ⑦ 기타 : _____

7.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만약 자원봉사 경험이 없다면 무엇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렵겠습니까)?

- ☐ ① 학교 공부 시간이 바쁘다
- ☐ ② 정보가 부족하다
- ☐ ③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 ☐ ④ 활동할 장소를 잘 모른다
- ☐ ⑤ 하고 싶은 매력적인 활동이 없다
- ☐ ⑥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두렵다

8. 당신은 학교 이외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자원봉사에 관해 소개하고 교육하며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습니까?

- ☐ ① 참가하고 싶다
- ☐ ② 잘 모르겠다
- ☐ ③ 참가하지 않겠다

9. 당신은 학교 이외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습니까?

- ☐ ① 이용하고 싶다
- ☐ ② 잘 모르겠다
- ☐ ③ 이용하지 않겠다

10. 당신이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다음 중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 ☐ ① 일손돕기 활동(복지시설, 병원 등의 일손돕기)
- ☐ ② 위문 활동(고아원 위문, 자매부대 위문 등)
- ☐ ③ 지도·상담 활동(사회교육지도, 교통 안전 지도)
- ☐ ④ 캠페인 활동(환경보전 캠페인 등)
- ☐ ⑤ 자선·구호 활동(재해구조, 불우이웃돕기 등)
- ☐ ⑥ 환경·시설보전 활동(문화재 보호, 자연보호)
- ☐ ⑦ 지역사회개발 활동(지역홍보활동, 지역사회 가꾸기)

11.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찬성(11-1번 문제로 가세요.)
- ___ ② 잘 모르겠다(12번 문제로 가세요.)
- ___ ③ 반대(11-2번 문제로 가세요.)

11-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 ___ ② 청소년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 ___ ③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위해
- ___ ④ 기타 : _____

11-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공정한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 ___ ②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___ ③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___ ④ 자원봉사활동을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 ___ ⑤ 청소년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___ ⑥ 기타 : _____

12. 자원봉사활동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 주길 바랍니다?

- ___ ① 자원봉사희망자에 대해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를 줌
- ___ ②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담을 함
- ___ ③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___ ④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장소나 기회를 개발 알선함
- ___ ⑤ 자원봉사 희망자 등록제도 실시
- ___ ⑥ 자원봉사를 도와 줄 지도자 육성
- ___ ⑦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책자 개발
- ___ ⑧ 기타 : _____

13. 당신이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아래 장소 중 가장 참가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 ___ ① 관공서(동사무소, 구청, 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법원 등)
- ___ ②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법인체, 언론기관 등)
- ___ ③ 종교·사회단체(교회, 사찰, 성당,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 ___ ④ 복지기관·시설(병원, 장애인시설,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복지관, 선도시설 등)
- ___ ⑤ 문화·예술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전시실, 문화원,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등)
- ___ ⑥ 체육·관광시설(국·공·도립 관광 공원, 실내외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관광안내소 등)
- ___ ⑦ 청소년수련시설·단체(청소년단체, 청소년회관, 수련원, 수련관, 수련마을, 야영장 등)
- ___ ⑧ 기업체(50인 이상 기업체- 은행, 제조업체 등)

14.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 ___ ① 학기 중의 수업시간을 선택함
- ___ ② 학기 중의 평일 방과 후 시간
- ___ ③ 학기 중의 공휴일
- ___ ④ 방학 중
- ___ ⑤ 학기중의 적당한 토요일
- ___ ⑥ 언제든지 가능

1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형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 ___ ① 개인적으로
- ___ ②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 ___ ③ 청소년 단체와 함께
- ___ ④ 자원봉사센터나 기관을 통해
- ___ ⑤ 학교 전체
- ___ ⑥ 기타 : _____

16.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평가는 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생 자신
- ___ ② 담임선생님
- ___ ③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는 자원봉사센터나 기구
- ___ ④ 별도의 자원봉사 담당 지도자
- ___ ⑤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
- ___ ⑥ 학생+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

17. 향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 ___ ②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경력 인정
- ___ ③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
- ___ ④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임시 및 취직시 우대혜택 마련
- ___ ⑤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 설립
- ___ ⑥ 주 5일제 수업 실시
- ___ ⑦ 자원봉사활동 대상 기관의 개방 및 적극적인 요청
- ___ ⑧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18. 당신은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 ___① 매우 불만이다
___② 대체로 불만이다
___③ 그저그렇다
___④ 대체로 만족한다
___⑤ 매우 만족한다

19.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돈을 벌기 위해
___②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___③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___④ 일정한 지위를 갖기 위해
___⑤ 자신의 명예를 위해
___⑥ 인생을 즐기기 위해

20.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혼자 참고 인내한다
___② 친구, 동료 등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공감을 얻는다
___③ 진정, 시위, 서명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___④ 정당하다고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폭력 등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21. 우리사회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에 √표를 해주십시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1)우리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 () ()

2)우리사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 () ()

3)우리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 () ()

4)우리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 ()

22. 아래의 항목은 실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자세히 분류한 것입니다. 각 항목들을 잘 읽고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순서대로 5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 관공서 일손돕기(시설물관리, 청소, 안내하기, 우편물 정리, 자료 정리, 심부름하기 등)
- 2) 공공질서 확립캠페인(차레지키기 캠페인,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공정선거 캠페인)
- 3) 교통·안전 캠페인(교통안전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불조심 캠페인)
- 4) 헌혈 및 골수 기증(헌혈, 장기 기증 등)
- 5) 자연보호(오염방지활동, 오염물질 수거활동, 환경오염원 신고 등)
- 6) 문화재 보호(문화유적지 주변 청소하기)
- 7)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시설물 관리, 청소하기, 자료정리 등)
- 8) 기업체 일손돕기(간단한 심부름하기, 제조과정 체험하기 등)
- 9) 장애인 위문(함께 놀기, 장애인돕기, 위문품 전달)
- 10) 병약자 위문(병원이나 보건소의 환자 위문, 무의탁 노인 위로)
- 11) 재해구호활동(재해구호를 위한 노동봉사, 재해구호 모금활동, 기부금 납부)
- 12) 불우이웃돕기(독거노인돕기, 바자회 개최, 어린이 가장 돕기, 말벗 되어드리기 등)
- 13) 국제협력과 난민구호(외국인 안내하기, 전쟁고아돕기, 아프리카 난민구호활동)
- 14) 공공기관 일손돕기(안내하기, 우편물 분류, 자료정리, 심부름하기, 청소 등)
- 15) 하급생 지도(유아원생 돌보기, 유치원생 돌보기, 초등학교 지도, 중학생 지도)
- 16) 사회교육 지도(어린이 축구교실, 어린이 농구교실, 어린이 컴퓨터교실, 에어로빅 교실, 각종 문화 및 레크레이션 지도 등)
- 17) 교통·안전 지도(교통신호지키기, 건널목 교통안전지도, 등·하교길 안전지도)
- 18) 고아원 위문(고아원생과 친선게임, 자매결연, 위문품 전달)
- 19) 양로원 위문(노래, 춤, 연주, 연극을 통한 위로 및 위문품 전달)
- 20) 학교주변 정화활동(유해업소 방문계도, 전단 나누어 주기,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조사 등)
- 21) 환경보전 캠페인(자연보호 캠페인, 동물보호 캠페인, 수질오염 방지 계도, 자연보호 포스터 붙이기)
- 22)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운동장 정리, 나무심기, 환경미화 등)
- 23)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안내하기, 청소하기, 간단한 업무돕기 등)
- 24)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안내하기, 자료정리, 시설물 관리 등)
- 25) 깨끗한 환경만들기(폐휴지 줍기, 잡초제거, 쓰레기 분리수거 등)
- 26) 지역실태조사활동(지역사회 현황파악 활동, 지역사회 복지지도 만들기, 지역문화재 지도만들기)
- 27) 종교·사회단체 일손돕기(안내하기, 청소하기, 간단한 업무돕기 등)
- 28) 자매부대위문(일일병영생활, 위문편지쓰기, 위문품 전달)
- 29) 동급생 지도(교과별 부진학생 지도, 운동지도, 게임지도, 수련활동 지도)
- 30) 지역사회가꾸기(마을 꽃길 만들기, 놀이터 만들기 및 청소, 마을 대청소, 도로정비)
- 31) 지역홍보활동(지역신문만들기, 지역안내지 만들기, 지역사회 여행·관광 안내,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 32) 지역행사지원활동(지역문화행사장 청소, 주차장 안내, 질서 및 안전 계도, 공공행사장 안내)
- 33) 농어촌일손돕기(모내기, 벼베기, 탁아, 농기구 수리 등)

* 다음은 당신의 개인적인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해당되는 것에 √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___1) 남 ___2) 여

2. 당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___1) 중학교 ___2) 인문계 고등학교 ___3) 실업계 고등학교

3. 당신의 학교에서의 성적은?

___1) 잘하는 편이다 ___2) 보통이다 ___3) 잘못하는 편이다

4. 당신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잘사는 편이다 ___2) 보통이다 ___3) 어려운 편이다

5. 당신의 종교는 ?

___1) 기독교(교회) ___2) 카톨릭(성당) ___3) 불교(절) ___4) 기타 ___5) 없음

6. 당신의 성격은 ?

___1) 온순한 편 ___2) 활발한 편 ___3) 모험적인 편 ___4) 내성적인 편

7. 당신은 장애인나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것은 ? ___1) 운명적인 것임 ___2) 누구나 될 수 있는 것 ___3) 잘 모르겠다

◦ 그 책임은 ? ___1) 개인 ___2) 사회 ___3) 잘 모르겠다

8. 당신의 부모님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습니까 ?

◦ 아버지 ___1) 과거에 하신 적이 있다 ___2) 현재 하고 있다 ___3) 하신 적이 없다

◦ 어머니 ___1) 과거에 하신 적이 있다 ___2) 현재 하고 있다 ___3) 하신 적이 없다

9. 당신의 부모님은 세상이야기를 하실 때 다음 중 주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 하십니까?

___1) 현재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심

___2)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심

___3) 별 관심이 없으심

** 감사합니다 **

혹시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학부모용>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기술 및 활동 장소(기관)를 제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가 청소년을 교육하며 지도자를 연수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학부모님의 의향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 3.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137-130)

수련활동실 수련부(☎ 576-2893)

* 다음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당신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표 해주십시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 | | | | |
|-----------------------------------|---|--|--|
| 1. 자원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2.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헤아려 주는 것이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3.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일이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4. 자원봉사는 겉치레이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5.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6. 자원봉사는 노는 것 보다 재미있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7. 자원봉사는 쓸데 없는 참견이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8.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9. 자원봉사는 공부를 하게 한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10.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11.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12. 자원봉사는 무보수이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13.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것이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14.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15. 자원봉사는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 | <table border="1"><tr><td></td><td></td></tr></table> | | |
| | | | |

* 아래의 질문을 잘 읽고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표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에 √표 한 후 _____에 직접 적어 주십시오.

1. 당신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___① 현재 활동 중이다.
- ___② 과거에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중단하고 있다.
- ___③ 현재까지 경험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 ___④ 전혀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별 생각이 없다.

2. 당신이(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 ___① 일반교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 ___②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
- ___③ 자아실현을 위해(자신의 기술이나 능력 발휘)
- ___④ 새로운 사람을 만나 친구를 사귀기 위해
- ___⑤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 ___⑥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 ___⑦ 앞으로 성적이나 취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___⑧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3. 당신은 자원봉사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자기 희생을 통해 불우 이웃을 도와주는 것
- ___②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
- ___③ 경제적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가를 활용하는 것
- ___④ 사회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4. 당신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필요하다 (5번 문제로 가세요)
- ___② 필요없다 (6번 문제로 가세요)

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 ___②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 ___③ 새로운 경험과 기술 습득을 위해
- ___④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 ___⑤ 원만한 대인관계 개선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 ___⑥ 사회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자각하게 되므로

6. 당신의 자녀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원합니까?

___① 원한다 ___② 원하지 않는다

7. 당신의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까?

___① 학교나 담임선생님을 통해
___②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기관을 통해
___③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___④ 자원봉사 관련 전문소식지를 통해
___⑤ 지역신문이나 알람판을 통해
___⑥ 컴퓨터 통신을 통해
___⑦ 기타 : _____

8. 당신의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___① 학교 공부 시간이 바쁘다
___② 정보가 부족하다
___③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___④ 활동할 장소를 잘 모른다
___⑤ 하고 싶은 매력적인 활동이 없다
___⑥ 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두려울 것이다

9. 당신은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자원봉사에 관해 소개하고 교육하며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당신의 자녀를 참가시키길 원합니까?

___① 참가시킨다 ___② 잘 모르겠다 ___③ 참가시키지 않겠다

10. 학교 이외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당신의 자녀가 그곳을 이용할 것 원하십니까?

___① 이용하기를 원한다 ___② 잘 모르겠다 ___③ 이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11. 당신의 자녀가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다음 중 어떤 일을 가장 하기를 원하십니까?

___① 일손돕기 활동(복지시설, 병원 등의 일손돕기)
___② 위문 활동(고아원 위문, 자매부대 위문 등)
___③ 지도·상담 활동(사회교육지도, 교통 안전 지도)
___④ 캠페인 활동(환경보전 캠페인 등)
___⑤ 자선·구호 활동(재해구조, 불우이웃돕기 등)
___⑥ 환경·시설보전 활동(문화재 보호, 자연보호)
___⑦ 지역사회개발 활동(지역홍보활동, 지역사회 가꾸기)

1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① 찬성(12-1번 문제로 가세요.)
- ___② 잘 모르겠다(13번 문제로 가세요.)
- ___③ 반대(12-2번 문제로 가세요.)

12-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 ___② 청소년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 ___③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 ___④ 기타 : _____

12-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공정한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 ___②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___③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___④ 자원봉사활동을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 ___⑤ 청소년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___⑥ 기타 : _____

1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 주길 바랍니다?

- ___① 자원봉사희망자에 대해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를 줌
- ___②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담을 함
- ___③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___④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장소나 기회를 개발 알선함
- ___⑤ 자원봉사 희망자 등록제도 실시
- ___⑥ 자원봉사를 도와 줄 지도자 육성
- ___⑦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책자 개발
- ___⑧ 기타 : _____

14. 당신의 자녀가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아래 장소 중 가장 참가하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___① 관공서(동사무소, 구청, 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법원 등)
- ___②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법인체, 언론기관 등)
- ___③ 종교·사회단체(교회, 사찰, 성당,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 ___④ 복지기관·시설(병원, 장애인시설,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복지관, 선도시설 등)
- ___⑤ 문화·예술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전시실, 문화원,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등)
- ___⑥ 체육·관광시설(국·공·도립 관광 공원, 실내외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관광안내소 등)
- ___⑦ 청소년수련시설·단체(청소년단체, 청소년회관, 수련원, 수련관, 수련마을, 야영장 등)
- ___⑧ 기업체(50인 이상 기업체- 은행, 제조업체 등)

15. 당신의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 ___ ① 학기 중의 수업시간을 선택함
- ___ ② 학기 중의 평일 방과 후 시간
- ___ ③ 학기 중의 공휴일
- ___ ④ 방학 중
- ___ ⑤ 학기중의 적당한 토요일
- ___ ⑥ 언제든지 가능

16. 당신의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 ___ ① 개인적으로
- ___ ②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 ___ ③ 청소년 단체와 함께
- ___ ④ 자원봉사센터나 기관을 통해
- ___ ⑤ 학교 전체
- ___ ⑥ 기타 : _____

1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평가는 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생 자신
- ___ ② 담임선생님
- ___ ③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는 자원봉사센터나 기구
- ___ ④ 별도의 자원봉사 담당 지도자
- ___ ⑤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
- ___ ⑥ 학생+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

18. 향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 ___ ②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경력 인정
- ___ ③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
- ___ ④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입시 및 취직시 우대혜택 마련
- ___ ⑤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 설립
- ___ ⑥ 주 5일제 수업 실시
- ___ ⑦ 자원봉사활동 대상 기관의 개방 및 적극적인 요청
- ___ ⑧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19. 당신은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 ___① 매우 불만이다
- ___② 대체로 불만이다
- ___③ 그저그렇다
- ___④ 대체로 만족한다
- ___⑤ 매우 만족한다

20.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돈을 벌기 위해
- ___②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 ___③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 ___④ 일정한 지위를 갖기 위해
- ___⑤ 자신의 명예를 위해
- ___⑥ 인생을 즐기기 위해

21.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혼자 참고 인내한다
- ___② 친구, 동료 등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공감을 얻는다
- ___③ 진정, 시위, 서명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 ___④ 정당하다고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폭력 등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22. 우리사회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에 √표를 해주십시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1)우리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 () ()

2)우리사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 () ()

3)우리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 () ()

4)우리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 ()

23. 아래의 항목은 실제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자세히 분류한 것입니다. 각 항목들을 잘 읽고서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활동을 순서대로 5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 관공서 일손돕기(시설물관리, 청소, 안내하기, 우편물 정리, 자료 정리, 심부름하기 등)
- 2) 공공질서 확립캠페인(차폐지키기 캠페인,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공정선거 캠페인)
- 3) 교통·안전 캠페인(교통안전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불조심 캠페인)
- 4) 헌혈 및 골수 기증(헌혈, 장기 기증 등)
- 5) 자연보호(오염방지활동, 오염물질 수거활동, 환경오염원 신고 등)
- 6) 문화재 보호(문화유적지 주변 청소하기)
- 7)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시설물 관리, 청소하기, 자료정리 등)
- 8) 기업체 일손돕기(간단한 심부름하기, 제조과정 체험하기 등)
- 9) 장애인 위문(함께 놀기, 장애인돕기, 위문품 전달)
- 10) 병약자 위문(병원이나 보건소의 환자 위문, 무의탁 노인 위로)
- 11) 재해구호활동(재해구호를 위한 노동봉사, 재해구호 모금활동, 기부금 납부)
- 12) 불우이웃돕기(독거노인돕기, 바자회 개최, 어린이 가장 돕기, 말벗 되어드리기 등)
- 13) 국제협력과 난민구호(외국인 안내하기, 전쟁고아돕기, 아프리카 난민구호활동)
- 14) 공공기관 일손돕기(안내하기, 우편물 분류, 자료정리, 심부름하기, 청소 등)
- 15) 하급생 지도(유아원생 돌보기, 유치원생 돌보기, 초등학생 지도, 중학생 지도)
- 16) 사회교육 지도(어린이 축구교실, 어린이 농구교실, 어린이 컴퓨터교실, 에어로빅 교실, 각종 문화 및 레크레이션 지도 등)
- 17) 교통·안전 지도(교통신호치키기, 건널목 교통안전지도, 등·하교길 안전지도)
- 18) 고아원 위문(고아원생과 친선게임, 자매결연, 위문품 전달)
- 19) 양로원 위문(노래, 춤, 연주, 연극을 통한 위로 및 위문품 전달)
- 20) 학교주변 정화활동(유해업소 방문계도, 전단 나누어 주기,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조사 등)
- 21) 환경보전 캠페인(자연보호 캠페인, 동물보호 캠페인, 수질오염 방지 계도, 자연보호 포스터 붙이기)
- 22)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운동장 정리, 나무심기, 환경미화 등)
- 23)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안내하기, 청소하기, 간단한 업무돕기 등)
- 24)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안내하기, 자료정리, 시설물 관리 등)
- 25) 깨끗한 환경만들기(폐휴지 줍기, 잡초제거, 쓰레기 분리수거 등)
- 26) 지역실태조사활동(지역사회 현황파악 활동, 지역사회 복지지도 만들기, 지역문화재 지도만들기)
- 27) 종교·사회단체 일손돕기(안내하기, 청소하기, 간단한 업무돕기 등)
- 28) 자매부대위문(일일병영생활, 위문편지쓰기, 위문품 전달)
- 29) 동급생 지도(교과별 부진학생 지도, 운동지도, 게임지도, 수련활동 지도)
- 30) 지역사회가꾸기(마을 꽃길 만들기, 놀이터 만들기 및 청소, 마을 대청소, 도로정비)
- 31) 지역홍보활동(지역신문만들기, 지역안내지 만들기, 지역사회 여행·관광 안내,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 32) 지역행사지원활동(지역문화행사장 청소, 주차장 안내, 질서 및 안전 계도, 공공행사장 안내)
- 33) 농어촌일손돕기(모내기, 벼베기, 탁아, 농기구 수리 등)

Copyright (C) 2002 Nuri MediaCo., Ltd.

<수요기관용>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기술 및 활동 장소(기관)를 제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가 청소년을 교육하며 지도자를 연수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실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할 현장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지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 3.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137-130)

수련활동실 수련부(☎ 576-2893)

* 아래의 질문을 잘 읽고 당신이 있는 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표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에 √표 한 후 _____에 직접 적어 주십시오.

1. 당신이 있는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___① 현재 활동 중이다.
 ___② 과거에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중단하고 있다.
 ___③ 현재까지 경험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___④ 전혀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별 생각이 없다.

2. 당신의 기관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필요하다 (3번 문제로 가세요)
 ___② 필요없다 (4번 문제로 가세요)

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①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___②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___③ 새로운 경험과 기술 습득을 위해
 ___④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___⑤ 원만한 대인관계 개선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___⑥ 사회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자각하게 되므로

4. 당신의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___① 학교 공부 시간이 바쁘다
 ___② 정보가 부족하다
 ___③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___④ 활동할 장소를 잘 모른다
 ___⑤ 하고 싶은 매력적인 활동이 없다
 ___⑥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두렵다

5. 당신의 기관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고유의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___① 청소년용 프로그램이 있다
 ___② 일반 성인용을 그대로 사용한다
 ___③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6. 청소년 자원봉사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당신이 있는 기관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시겠습니까?

- ___① 이용하겠다
- ___②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겠다.
- ___③ 이용하지 않겠다

7. 청소년 자원봉사를 위한 전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담당자를 양성한다면 당신이 있는 기관에서는 담당직원을 교육시키겠습니까?

- ___① 그렇다
- ___② 잘 모르겠다
- ___③ 그렇지 않다

8. 당신의 기관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담당자가 있습니까?

- ___① 청소년 자원봉사를 위한 담당자가 있다
- ___②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조정하는 분이 청소년도 담당한다
- ___③ 특별한 담당자가 없다

9. 당신의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다음 중 어떤 일을 하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 ___① 일손돕기 활동(복지시설, 병원 등의 일손돕기)
- ___② 위문 활동(고아원 위문, 자매부대 위문 등)
- ___③ 지도·상담 활동(사회교육지도, 교통 안전 지도)
- ___④ 캠페인 활동(환경보전 캠페인 등)
- ___⑤ 자선·구호 활동(재해구조, 불우이웃돕기 등)
- ___⑥ 환경·시설보전 활동(문화재 보호, 자연보호)
- ___⑦ 지역사회개발 활동(지역홍보활동, 지역사회 가꾸기)

10.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① 찬성(10-1번 문제로 가세요.)
- ___② 잘 모르겠다(11번 문제로 가세요.)
- ___③ 반대(10-2번 문제로 가세요.)

10-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 ___② 청소년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 ___③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 ___④ 기타 : _____

10-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공정한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 ___②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___③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___④ 자원봉사활동을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 ___⑤ 청소년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___⑥ 기타 : _____

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 주길 바랍니다?

- ___① 자원봉사희망자에 대해 기술이나 지식 등의 교육기회를 줌
- ___②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담을 함
- ___③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___④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장소나 기회를 개발 알선함
- ___⑤ 자원봉사 희망자 등록제도 실시
- ___⑥ 자원봉사를 도와 줄 지도자 육성
- ___⑦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책자 개발
- ___⑧ 기타 : _____

12.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 ___① 학기 중의 수업시간을 선택함
- ___② 학기 중의 평일 방과 후 시간
- ___③ 학기 중의 공휴일
- ___④ 방학 중
- ___⑤ 학기중의 적당한 토요일
- ___⑥ 언제든지 가능

1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형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 ___① 개인적으로
- ___② 교내 특별행사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 ___③ 청소년 단체와 함께
- ___④ 자원봉사센터나 기관을 통해
- ___⑤ 학교 전체
- ___⑥ 기타 : _____

1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평가는 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생 자신
- ___ ② 담임선생님
- ___ ③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는 자원봉사센터나 기구
- ___ ④ 별도의 자원봉사 담당 지도자
- ___ ⑤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
- ___ ⑥ 학생+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

15. 향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 ___ ②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경력 인정
- ___ ③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마련
- ___ ④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입시 및 취직시 우대혜택 마련
- ___ ⑤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 설립
- ___ ⑥ 주 5일제 수업 실시
- ___ ⑦ 자원봉사활동 대상 기관의 개방 및 적극적인 요청
- ___ ⑧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16. 당신의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현재 자원 봉사하고 있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17. 당신의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16. 아래의 항목은 실제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자세히 분류한 것입니다. 각 항목들을 잘 읽고서 당신의 기관에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활동을 순서대로 5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1) 관공서 일손돕기(시설물관리, 청소, 안내하기, 우편물 정리, 자료 정리, 심부름하기 등)
- 2) 공공질서 확립캠페인(차레지키기 캠페인,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공정선거 캠페인)
- 3) 교통·안전 캠페인(교통안전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불조심 캠페인)
- 4) 헌혈 및 골수 기증(헌혈, 장기 기증 등)
- 5) 자연보호(오염방지활동, 오염물질 수거활동, 환경오염원 신고 등)
- 6) 문화재 보호(문화유적지 주변 청소하기)
- 7)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시설물 관리, 청소하기, 자료정리 등)
- 8) 기업체 일손돕기(간단한 심부름하기, 제조과정 체험하기 등)
- 9) 장애인 위문(함께 놀기, 장애인돕기, 위문품 전달)
- 10) 병약자 위문(병원이나 보건소의 환자 위문, 무의탁 노인 위로)
- 11) 재해구호활동(재해구호를 위한 노동봉사, 재해구호 모금활동, 기부금 납부)
- 12) 불우이웃돕기(독거노인돕기, 바자회 개최, 어린이 가장 돕기, 말벗 되어드리기 등)
- 13) 국제협력과 난민구호(외국인 안내하기, 전쟁고아돕기, 아프리카 난민구호활동)
- 14) 공공기관 일손돕기(안내하기, 우편물 분류, 자료정리, 심부름하기, 청소 등)
- 15) 하급생 지도(유아원생 돌보기, 유치원생 돌보기, 초등학생 지도, 중학생 지도)
- 16) 사회교육 지도(어린이 축구교실, 어린이 농구교실, 어린이 컴퓨터교실, 에어로빅 교실, 각종 문화 및 레크레이션 지도 등)
- 17) 교통·안전 지도(교통신호지키기, 건널목 교통안전지도, 등·하교길 안전지도)
- 18) 고아원 위문(고아원생과 친선게임, 자매결연, 위문품 전달)
- 19) 양로원 위문(노래, 춤, 연주, 연극을 통한 위로 및 위문품 전달)
- 20) 학교주변 정화활동(유해업소 방문계도, 전단 나누어 주기,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조사 등)
- 21) 환경보전 캠페인(자연보호 캠페인, 동물보호 캠페인, 수질오염 방지 계도, 자연보호 포스터 붙이기)
- 22)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운동장 정리, 나무심기, 환경미화 등)
- 23)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안내하기, 청소하기, 간단한 업무돕기 등)
- 24)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안내하기, 자료정리, 시설물 관리 등)
- 25) 깨끗한 환경만들기(폐휴지 줍기, 잡초제거, 쓰레기 분리수거 등)
- 26) 지역실태조사활동(지역사회 현황파악 활동, 지역사회 복지지도 만들기, 지역문화재 지도만들기)
- 27) 종교·사회단체 일손돕기(안내하기, 청소하기, 간단한 업무돕기 등)
- 28) 자매부대위문(일일병영생활, 위문편지쓰기, 위문품 전달)
- 29) 동급생 지도(교과별 부진학생 지도, 운동지도, 게임지도, 수련활동 지도)
- 30) 지역사회가꾸기(마을 꽃길 만들기, 놀이터 만들기 및 청소, 마을 대청소, 도로정비)
- 31) 지역홍보활동(지역신문만들기, 지역안내지 만들기, 지역사회 여행·관광 안내,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 32) 지역행사지원활동(지역문화행사장 청소, 주차장 안내, 질서 및 안전 계도, 공공행사장 안내)
- 33) 농어촌일손돕기(모내기, 벼베기, 탁아, 농기구 수리 등)

* 다음은 당신이 있는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의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___① 관공서(동사무소, 구청, 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법원 등)
- ___②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법인체, 언론기관 등)
- ___③ 종교·사회단체(교회, 사찰, 성당,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 ___④ 복지기관·시설(병원, 장애인시설,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복지관, 선도시설 등)
- ___⑤ 문화·예술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전시실, 문화원,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등)
- ___⑥ 체육·관광시설(국·공·도립 관광 공원, 실내외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관광안내소 등)
- ___⑦ 청소년수련시설·단체(청소년단체, 청소년회관, 수련원, 수련관, 수련마을, 야영장 등)
- ___⑧ 기업체(50인 이상 기업체-은행, 제조업체 등)

2. 설립년도는 ? ()

3. 당신이 있는 기관의 성격은?

4. 대표자 ()

5. 전체 직원수? 상근 ()명, 비상근 ()명, 자원봉사자 ()명
전체 ()명

* 다음은 당신 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___1) 남 ___2) 여

2. 당신의 연령은 ? (만_____세)

3. 당신의 직위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감사합니다 **

혹시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부록 2. 부록표

〈부록표 I-1〉 사회인구적 배경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학교별					
중학교	144	52.2%	132	47.8%	276
고등학교	136	47.2%	152	52.8%	288
성적별					
잘하는편	47	50.0%	47	50.0%	94
보통	168	48.3%	180	51.7%	348
잘못하는편	62	54.7%	53	45.3%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3	67.3%	16	32.7%	49
보통	222	47.6%	244	52.4%	466
어려운편	25	52.1%	23	47.9%	48
종교별					
기독교	90	44.3%	113	55.7%	203
불교	23	38.3%	37	61.7%	60
기타	51	60.0%	34	40.0%	85
없음	7	50.0%	7	50.0%	14
성격별					
순한편	70	66.7%	35	33.3%	105
달란편	110	39.1%	171	60.9%	281
모호한편	25	53.2%	22	46.8%	47
내성적인편	75	57.7%	55	42.3%	130
자원봉사경험					
있음	36	44.4%	45	55.6%	81
없음	80	48.2%	86	51.8%	166
희망함	119	47.0%	134	53.0%	253
생각없음	45	68.2%	21	31.8%	66
전체	280	49.5%	286	50.5%	566

〈부록표 I-1-1〉 자원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05	37.6%	52	18.6%	122	43.7%	279	$\chi^2=6.02$
여자	83	29.0%	50	17.5%	153	53.5%	286	$p=.04$
학교별								
중학교	87	31.6%	55	20.0%	133	48.4%	275	$\chi^2=1.46$
고등학교	100	34.7%	47	16.3%	141	49.0%	288	$p=.48$
성적별								
잘하는편	34	36.2%	17	18.1%	43	45.7%	94	$\chi^2=2.41$
보통	121	34.9%	58	16.7%	168	48.4%	347	$p=.66$
잘못하는편	33	28.2%	24	20.5%	60	51.3%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0	40.8%	11	22.4%	18	36.7%	49	$\chi^2=7.99$
보통	146	31.3%	85	18.2%	235	50.4%	466	$p=.09$
어려운편	22	46.8%	5	10.6%	20	42.6%	47	
종교별								
기독교	59	29.2%	43	21.3%	100	49.5%	202	$\chi^2=7.92$
불교	23	38.3%	11	18.3%	26	43.3%	60	$p=.44$
기타	29	34.1%	13	15.3%	43	50.6%	85	
없음	8	57.1%	1	7.1%	5	35.7%	14	
성격별								
순한편	36	34.6%	19	18.3%	49	47.1%	104	$\chi^2=3.36$
달란편	90	32.0%	45	16.0%	146	52.0%	281	$p=.76$
모호한편	18	38.3%	8	17.0%	21	44.7%	47	
내성적인편	44	33.8%	28	21.5%	58	44.6%	130	
자원봉사경험								
있음	32	38.1%	19	22.6%	33	39.3%	84	$\chi^2=22.92$
없음	54	32.5%	30	18.1%	82	49.4%	166	$p=.00$
희망함	72	28.2%	38	14.9%	145	56.9%	255	
생각없음	33	49.3%	16	23.9%	18	26.9%	67	
전체	191	33.4%	103	18.0%	278	48.6%	572	

〈부록표 I-1-2〉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해아려 주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65	23.3%	71	25.4%	143	51.3%	279	$\chi^2=4.42$
여자	47	16.5%	73	25.6%	165	57.9%	285	$p=.10$
학교별								
중학교	57	20.7%	68	24.7%	150	54.5%	275	$\chi^2=0.42$
고등학교	54	18.8%	76	26.5%	157	54.7%	287	$p=.80$
성적별								
잘하는편	19	20.2%	23	24.5%	52	55.3%	94	$\chi^2=1.49$
보통임	65	18.8%	90	26.0%	191	55.2%	346	$p=.82$
잘못하는편	28	23.9%	28	23.9%	61	52.1%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4	28.6%	11	22.4%	24	49.0%	49	$\chi^2=2.64$
보통임	88	18.9%	119	25.6%	258	55.5%	465	$p=.61$
어려운편	10	21.3%	12	25.5%	25	52.2%	47	
종교별								
기독교	41	20.3%	51	25.2%	110	54.5%	202	$\chi^2=0.50$
불교	12	20.0%	15	25.0%	33	55.0%	60	$p=.99$
기타	18	21.2%	20	23.5%	47	55.3%	85	
없음	3	21.4%	3	21.4%	8	57.1%	14	
	38	18.9%	53	26.4%	110	54.7%	201	
성격별								
순한편	20	19.2%	25	24.0%	59	56.7%	104	$\chi^2=1.97$
달한편	51	18.2%	71	25.4%	158	56.4%	280	$p=.92$
모성적	11	23.4%	11	23.4%	25	53.2%	47	
내성적	29	22.3%	35	26.9%	66	50.8%	13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6	19.0%	23	27.4%	45	53.6%	84	$\chi^2=.86$
과거활동	31	18.7%	40	24.1%	95	57.2%	166	$p=.99$
희망함	53	20.9%	65	25.6%	136	53.5%	254	
생각없음	13	19.4%	18	26.9%	36	53.7%	67	
전체	113	19.8%	146	25.6%	312	54.6%	571	

〈부록표 I-1-3〉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일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66	23.7%	141	50.5%	72	25.8%	279	$\chi^2=18.51$
여자	116	40.6%	114	39.9%	56	19.6%	286	$p=.000$
학교별								
중학교	71	25.8%	128	46.5%	76	27.6%	275	$\chi^2=12.23$
고등학교	109	37.8%	127	44.1%	52	18.1%	288	$p=.002$
성적별								
잘하는편	36	38.3%	35	37.2%	23	24.5%	94	$\chi^2=4.16$
보통임	105	30.3%	167	48.1%	75	21.6%	347	$p=.38$
잘못하는편	38	32.5%	50	42.7%	29	24.8%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9	38.8%	19	38.8%	11	22.4%	49	$\chi^2=6.59$
보통임	148	31.8%	218	46.8%	100	21.5%	466	$p=.15$
어려운편	13	27.7%	17	36.2%	17	36.2%	47	
종교별								
기독교	70	34.7%	19	46.5%	38	18.8%	202	$\chi^2=4.14$
불교	21	35.0%	23	38.3%	16	26.7%	60	$p=.84$
기타	26	30.6%	37	43.5%	22	25.9%	85	
없음	4	28.6%	6	42.9%	4	28.6%	14	
	61	30.2%	93	46.0%	48	23.8%	202	
성격별								
순한편	32	30.8%	46	44.2%	26	25.0%	104	$\chi^2=5.69$
달한편	85	30.2%	128	45.6%	68	24.2%	281	$p=.45$
모성적	17	36.2%	17	36.2%	13	27.7%	47	
내성적	46	35.4%	63	48.5%	21	16.2%	13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30	35.7%	32	38.1%	22	26.2%	84	$\chi^2=34.81$
과거활동	48	28.9%	80	48.2%	38	22.9%	166	$p=.000$
희망함	100	39.2%	115	45.1%	40	15.7%	255	
생각없음	8	11.9%	29	43.3%	30	44.8%	67	
전체	186	32.5%	256	44.8%	130	22.7%	572	

〈부록표 I-1-4〉 자원봉사는 걸치레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7	6.2%	88	32.1%	169	61.7%	274	$\chi^2=13.57$
여자	20	7.0%	53	18.6%	212	74.4%	285	p=.001
학교별								
중학교	18	6.7%	85	31.5%	167	61.9%	270	$\chi^2=10.83$
고등학교	19	6.6%	56	19.5%	212	73.9%	287	p=.004
성적별								
잘하는편	5	5.3%	25	26.6%	64	68.1%	94	$\chi^2=5.61$
보통	24	7.0%	77	22.4%	242	70.6%	343	p=.22
잘못하는편	8	7.0%	38	33.0%	69	60.0%	11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5	10.2%	15	30.6%	29	59.2%	49	$\chi^2=6.15$
보통	26	5.7%	116	25.2%	318	69.1%	460	p=.18
어려운편	6	12.8%	9	19.1%	32	68.1%	47	
종교별								
기독교	11	5.6%	48	24.4%	138	70.1%	197	$\chi^2=17.30$
불교	3	5.1%	12	20.3%	44	74.6%	59	p=.027
기타	6	7.1%	18	21.2%	61	71.8%	85	
없음	4	28.6%	1	7.1%	9	64.3%	14	
성격별								
순한편	7	6.8%	24	23.3%	72	69.9%	103	$\chi^2=2.35$
활한편	21	7.5%	69	24.6%	190	67.9%	280	p=.88
모호한편	2	4.3%	15	32.6%	29	63.0%	46	
내성적	7	5.5%	32	25.2%	88	69.3%	127	
자원봉사경험								
현재	8	9.6%	25	30.1%	50	60.2%	83	$\chi^2=14.04$
과거	10	6.1%	43	26.4%	110	67.5%	163	p=.029
희망	12	4.7%	53	20.9%	189	74.4%	254	
생각	8	12.1%	22	33.3%	36	54.5%	66	
없음								
전체	38	6.7%	143	25.3%	385	68.0%	566	

〈부록표 I-1-5〉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4	5.0%	118	42.3%	147	52.7%	279	$\chi^2=6.61$
여자	24	8.4%	139	48.8%	122	42.8%	285	p=.036
학교별								
중학교	24	8.7%	133	48.4%	118	42.9%	275	$\chi^2=6.90$
고등학교	14	4.9%	122	42.5%	151	52.6%	287	p=.031
성적별								
잘하는편	3	3.2%	36	38.3%	55	58.5%	94	$\chi^2=7.40$
보통	28	8.1%	159	46.0%	159	46.0%	346	p=.11
잘못하는편	7	6.0%	59	50.4%	51	43.6%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	6.1%	20	40.8%	26	53.1%	49	$\chi^2=0.795$
보통	32	6.9%	212	45.6%	221	47.5%	465	p=.939
어려운편	3	6.4%	23	48.9%	21	44.7%	47	
종교별								
기독교	13	6.5%	97	48.3%	91	45.3%	201	$\chi^2=7.38$
불교	2	3.3%	24	40.0%	34	56.7%	60	p=.495
기타	9	10.6%	34	40.0%	42	49.4%	85	
없음	2	14.3%	7	50.0%	5	35.7%	14	
성격별								
순한편	5	4.8%	44	42.3%	55	52.9%	104	$\chi^2=6.85$
활한편	21	7.5%	125	44.5%	135	48.0%	281	p=.334
모호한편	6	12.8%	24	51.1%	17	36.2%	47	
내성적	6	4.7%	62	48.1%	61	47.3%	129	
자원봉사경험								
현재	8	9.5%	37	44.0%	39	46.4%	84	$\chi^2=16.22$
과거	16	9.6%	71	42.8%	79	47.6%	166	p=.012
희망	11	4.3%	131	51.4%	113	44.3%	255	
생각	3	4.5%	20	30.3%	43	65.2%	66	
없음								
전체	38	6.7%	259	45.4%	274	48.0%	571	

〈부록표 I-1-6〉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33	11.9%	95	34.2%	150	54.0%	278	$\chi^2=0.598$ p=.74
여자	38	13.3%	102	35.8%	145	50.9%	285	
학교별								
중학교	45	16.5%	86	31.5%	142	52.0%	273	$\chi^2=7.81$ p=.020
고등학교	26	9.0%	109	37.8%	153	53.1%	288	
성적별								
잘하는편	10	10.6%	25	26.6%	59	62.8%	94	$\chi^2=5.35$ p=.252
보통임	44	12.7%	125	36.0%	178	51.3%	347	
잘못하는편	17	14.8%	43	37.4%	55	47.8%	11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8	16.3%	12	24.5%	29	59.2%	49	$\chi^2=3.54$ p=.471
보통임	59	12.7%	163	35.1%	242	52.2%	464	
어려운편	4	8.5%	19	40.4%	24	51.1%	47	
종교별								
기독교	26	12.9%	71	35.1%	105	52.0%	202	$\chi^2=2.65$ p=.954
불교	7	11.7%	20	33.3%	33	55.0%	60	
기타	9	10.7%	28	33.3%	47	56.0%	84	
없음	3	21.4%	3	21.4%	8	57.1%	14	
성격별	25	12.4%	74	36.8%	102	50.7%	201	
성온한편	10	9.7%	31	30.1%	62	60.2%	103	$\chi^2=13.21$ p=.039
활달한편	31	11.1%	96	34.3%	153	54.6%	280	
모험적	12	25.5%	15	31.9%	20	42.6%	47	
내성적	18	13.8%	53	40.8%	59	45.4%	13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17	20.5%	23	27.7%	43	51.8%	83	$\chi^2=21.04$ p=.001
과거활동	21	12.7%	61	36.7%	84	50.6%	166	
한번도없음	32	12.5%	101	39.6%	122	47.8%	255	
생각없음	3	4.5%	14	21.2%	49	74.2%	66	
전체	73	12.8%	199	34.9%	298	52.3%	570	

〈부록표 I-1-7〉 자원봉사는 쓸데 없는 참견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2	4.3%	54	19.4%	213	76.3%	279	$\chi^2=1.92$ p=.381
여자	10	3.5%	44	15.4%	232	81.1%	286	
학교별								
중학교	12	4.4%	57	20.7%	206	74.9%	275	$\chi^2=5.17$ p=.075
고등학교	10	3.5%	40	13.9%	238	82.6%	288	
성적별								
잘하는편	3	3.2%	15	16.0%	76	80.9%	94	$\chi^2=1.19$ p=.878
보통임	15	4.3%	63	18.2%	269	77.5%	347	
잘못하는편	3	2.6%	20	17.1%	94	80.3%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	2.0%	8	16.3%	40	81.6%	49	$\chi^2=1.54$ p=.818
보통임	17	3.6%	81	17.4%	368	79.0%	466	
어려운편	3	6.4%	9	19.1%	35	74.5%	47	
종교별								
기독교	10	5.0%	40	19.8%	152	75.2%	202	$\chi^2=10.29$ p=10.29
불교	0	0.0%	8	13.3%	52	86.7%	60	
기타	3	3.5%	16	18.8%	66	77.6%	85	
없음	2	14.3%	2	14.3%	10	71.4%	14	
성격별	6	3.0%	32	15.8%	164	81.2%	202	
성온한편	1	1.0%	19	18.3%	84	80.8%	104	$\chi^2=3.30$ p=.769
활달한편	12	4.3%	46	16.4%	223	79.4%	281	
모험적	2	4.3%	8	17.0%	37	78.7%	47	
내성적	6	4.6%	25	19.2%	99	76.2%	13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3	3.6%	16	19.0%	65	77.4%	84	$\chi^2=9.21$ p=.162
과거활동	5	3.0%	35	21.1%	126	75.9%	166	
한번도없음	10	3.9%	33	12.9%	212	83.1%	255	
생각없음	5	7.5%	15	22.4%	47	70.1%	67	
전체	23	4.0%	99	17.3%	450	78.7%	572	

〈부록표 I-1-8〉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82	29.4%	107	38.4%	90	32.3%	279	$\chi^2=8.71$
여자	117	40.9%	98	34.3%	71	24.8%	286	$p=.012$
학교별								
중학교	104	37.8%	100	36.4%	71	25.8%	275	$\chi^2=2.52$
고등학교	94	32.6%	104	36.1%	90	31.3%	288	$p=.282$
성적별								
잘하는편	35	37.2%	30	31.9%	29	30.9%	94	$\chi^2=1.31$
보통임	121	34.9%	125	36.0%	101	29.1%	347	$p=.859$
잘못하는편	40	34.2%	46	39.3%	31	26.5%	117	
경제수준별								
잘보이는편	25	51.0%	14	28.6%	10	20.4%	49	$\chi^2=5.99$
보통임	158	33.9%	171	36.7%	137	29.4%	466	$p=.199$
어려운편	15	31.9%	18	38.3%	14	29.8%	47	
종교별								
기독교	71	35.1%	73	36.1%	58	28.7%	202	$\chi^2=15.26$
기타종교	26	43.3%	25	41.7%	9	15.0%	60	$p=.054$
불교	29	34.1%	23	27.1%	33	38.8%	85	
기타	4	28.6%	3	21.4%	7	50.0%	14	
없음	68	33.7%	81	40.1%	53	26.2%	202	
성격별								
순한편	35	33.7%	38	36.5%	31	29.8%	104	$\chi^2=1.82$
활한편	103	36.7%	101	35.9%	77	27.4%	281	$p=.935$
모호한편	19	40.4%	15	31.9%	13	27.7%	47	
나성적인편	41	31.5%	50	38.5%	39	30.0%	13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31	36.9%	35	41.7%	18	21.4%	84	$\chi^2=10.10$
과거활동	67	40.4%	50	30.1%	49	29.5%	166	$p=.120$
희망함	87	34.1%	98	38.4%	70	27.5%	255	
생각없음	17	25.4%	24	35.8%	26	38.8%	57	
전체	202	35.3%	207	36.2%	163	28.5%	572	

〈부록표 I-1-9〉 자원봉사는 공부를 하게 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15	41.2%	106	38.0%	58	20.8%	279	$\chi^2=2.45$
여자	136	47.7%	98	34.4%	51	17.9%	285	$p=.29$
학교별								
중학교	110	40.0%	100	36.4%	65	23.6%	275	$\chi^2=7.44$
고등학교	140	48.8%	103	35.9%	44	15.3%	287	$p=.024$
성적별								
잘하는편	42	44.7%	27	28.7%	25	26.6%	94	$\chi^2=4.98$
보통임	152	43.8%	133	38.3%	62	17.9%	347	$p=.288$
잘못하는편	53	45.7%	42	36.2%	21	18.1%	116	
경제수준별								
잘보이는편	24	49.0%	13	26.5%	12	24.5%	49	$\chi^2=3.20$
보통임	202	43.3%	174	37.3%	90	19.3%	466	$p=.52$
어려운편	23	50.0%	16	34.8%	7	15.2%	46	
종교별								
기독교	92	45.5%	67	33.2%	43	21.3%	202	$\chi^2=9.56$
기타종교	30	50.0%	19	31.7%	11	18.3%	60	$p=.297$
불교	32	37.6%	30	35.3%	23	27.1%	85	
기타	7	50.0%	4	28.6%	3	21.4%	14	
없음	89	44.3%	83	41.3%	29	14.4%	201	
성격별								
순한편	45	43.3%	34	32.7%	25	24.0%	104	$\chi^2=10.47$
활한편	132	47.0%	103	36.7%	46	16.4%	281	$p=.105$
모호한편	20	42.6%	12	25.5%	15	31.9%	47	
나성적인편	53	41.1%	54	41.9%	22	17.1%	129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34	40.5%	27	32.1%	23	27.4%	84	$\chi^2=12.79$
과거활동	70	42.2%	62	37.3%	34	20.5%	166	$p=.046$
희망함	127	50.0%	92	36.2%	35	13.8%	254	
생각없음	24	35.8%	25	37.3%	18	26.9%	67	
전체	255	44.7%	206	36.1%	110	19.3%	571	

〈부록표 I-1-10〉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01	36.1%	112	40.0%	67	23.9%	280	$\chi^2=0.764$
여자	101	35.4%	107	37.5%	77	27.0%	285	$p=.682$
학교별								
중학교	110	39.9%	105	38.0%	61	22.1%	276	$\chi^2=5.23$
고등학교	91	31.7%	113	39.4%	83	28.9%	287	$p=.072$
성적별								
잘하는편	37	39.4%	32	34.0%	25	26.6%	94	$\chi^2=4.11$
보통	120	34.6%	132	38.0%	95	27.4%	347	$p=.39$
잘못하는편	42	35.9%	52	44.4%	23	19.7%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3	46.9%	17	34.7%	9	18.4%	49	$\chi^2=9.30$
보통	155	33.3%	190	40.9%	120	25.8%	465	$p=.053$
어려운편	22	45.8%	11	22.9%	15	31.3%	48	
종교별								
기독교	79	39.1%	76	37.6%	47	23.3%	202	$\chi^2=5.16$
기타	22	36.7%	20	33.3%	18	30.0%	60	$p=.740$
불교	30	35.3%	35	41.2%	20	23.5%	85	
기타	3	21.4%	5	35.7%	6	42.9%	14	
없음	68	33.7%	81	40.1%	53	26.2%	202	
성격별								
순한편	34	32.4%	40	38.1%	31	29.5%	105	$\chi^2=5.63$
달한편	111	39.5%	108	38.4%	62	22.1%	281	$p=.46$
모험적인편	14	29.8%	17	36.2%	16	34.0%	47	
내성적인편	43	33.3%	52	40.3%	34	26.4%	129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8	33.3%	35	41.7%	21	25.0%	84	$\chi^2=11.50$
과거활동	69	41.3%	65	38.9%	33	19.8%	167	$p=.07$
희망없음	93	36.6%	92	36.2%	69	27.2%	254	
생각없음	14	20.9%	30	44.8%	23	34.3%	67	
전체	204	35.7%	222	38.8%	146	25.5%	572	

〈부록표 I-1-11〉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44	51.6%	65	23.3%	70	25.1%	279	$\chi^2=3.33$
여자	164	57.5%	67	23.5%	54	18.9%	285	$p=.189$
학교별								
중학교	145	52.7%	72	26.2%	58	21.1%	275	$\chi^2=2.18$
고등학교	161	56.1%	60	20.9%	66	23.0%	287	$p=.334$
성적별								
잘하는편	55	58.5%	17	18.1%	22	23.4%	94	$\chi^2=2.30$
보통	187	54.0%	82	23.7%	77	22.3%	346	$p=.679$
잘못하는편	63	53.8%	31	26.5%	23	19.7%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3	46.9%	14	28.6%	12	24.5%	49	$\chi^2=2.60$
보통	261	56.1%	105	22.6%	99	21.3%	465	$p=.62$
어려운편	23	48.9%	11	23.4%	13	27.7%	47	
종교별								
기독교	117	58.2%	49	24.4%	35	17.4%	201	$\chi^2=15.80$
기타	32	53.3%	13	21.7%	15	25.0%	60	$p=.045$
불교	47	55.3%	15	17.6%	23	27.1%	85	
기타	4	28.6%	2	14.3%	8	57.1%	14	
없음	108	53.5%	52	25.7%	42	20.8%	202	
성격별								
순한편	64	61.5%	19	18.3%	21	20.2%	104	$\chi^2=6.44$
달한편	157	56.1%	68	24.3%	55	19.6%	280	$p=.37$
모험적인편	22	46.8%	13	27.7%	12	25.5%	47	
내성적인편	64	49.2%	31	23.8%	35	26.9%	13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49	58.3%	17	20.2%	18	21.4%	84	$\chi^2=3.00$
과거활동	83	50.0%	44	26.5%	39	23.5%	166	$p=.808$
희망없음	141	55.5%	61	24.0%	52	20.5%	254	
생각없음	39	58.2%	13	19.4%	15	22.4%	67	
전체	312	54.6%	135	23.6%	124	21.7%	571	

〈부록표 I-1-12〉 자원봉사는 무보수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83	65.6%	74	26.5%	22	7.9%	279	$\chi^2=2.27$
여자	202	71.4%	64	22.6%	17	6.0%	283	$p=.320$
학교별								
중학교	164	60.3%	83	30.5%	25	9.2%	272	$\chi^2=16.96$
고등학교	220	76.4%	54	18.8%	14	4.9%	288	$p=.000$
성적별								
잘하는편	76	80.9%	15	16.0%	3	3.2%	94	$\chi^2=27.05$
보통임	241	69.7%	74	21.4%	31	9.0%	346	$p=.000$
잘못하는편	63	54.8%	47	40.9%	5	4.3%	11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5	71.4%	10	20.4%	4	8.2%	49	$\chi^2=0.583$
보통임	316	68.3%	115	24.8%	32	6.9%	463	$p=.964$
어려운편	33	70.2%	11	23.4%	3	6.4%	47	
종교별								
기독교	132	66.3%	53	26.6%	14	7.0%	199	$\chi^2=12.88$
불교	48	80.0%	9	15.0%	3	5.0%	60	$p=.115$
기타	62	72.9%	16	18.8%	7	8.2%	85	
없음	13	92.9%	0	0.0%	1	7.1%	14	
성격별								
순한편	76	74.5%	18	17.6%	8	7.8%	102	$\chi^2=5.33$
활달한편	193	68.9%	71	25.4%	16	5.7%	280	$p=.501$
도회적인편	29	61.7%	13	27.7%	5	10.6%	47	
내성적인편	85	65.4%	35	26.9%	10	7.7%	13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56	68.3%	19	23.2%	7	8.5%	82	$\chi^2=3.96$
과거활동	112	67.9%	42	25.5%	11	6.7%	165	$p=.681$
희망함	182	71.4%	56	22.0%	17	6.7%	255	
없음	41	61.2%	22	32.8%	4	6.0%	67	
전체	391	68.7%	139	24.4%	39	6.9%	569	

〈부록표 I-1-13〉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22	7.9%	40	14.4%	216	77.7%	278	$\chi^2=0.262$
여자	24	8.4%	37	13.0%	224	78.6%	285	$p=.877$
학교별								
중학교	31	11.3%	50	18.2%	193	70.4%	274	$\chi^2=19.25$
고등학교	15	5.2%	26	9.1%	246	85.7%	287	$p=.000$
성적별								
잘하는편	7	7.4%	10	10.6%	77	81.9%	94	$\chi^2=1.08$
보통임	30	8.7%	49	14.2%	267	77.2%	346	$p=.896$
잘못하는편	9	7.8%	16	13.8%	91	78.4%	116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7	14.3%	8	16.3%	34	69.4%	49	$\chi^2=3.53$
보통임	36	7.8%	60	12.9%	368	79.3%	464	$p=.472$
어려운편	3	6.4%	7	14.9%	37	78.7%	47	
종교별								
기독교	21	10.5%	28	14.0%	151	75.5%	200	$\chi^2=7.98$
불교	1	1.7%	5	8.3%	54	90.0%	60	$p=.435$
기타	6	7.1%	13	15.3%	66	77.6%	85	
없음	2	14.3%	2	14.3%	10	71.4%	14	
성격별								
순한편	7	6.7%	12	11.5%	85	81.7%	104	$\chi^2=6.65$
활달한편	19	6.8%	40	14.3%	221	78.9%	280	$p=.35$
도회적인편	8	17.0%	6	12.8%	33	70.2%	47	
내성적인편	12	9.3%	18	14.0%	99	76.7%	129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9	10.7%	16	19.0%	59	70.2%	84	$\chi^2=15.73$
과거활동	15	9.1%	27	16.4%	123	74.5%	165	$p=.015$
희망함	17	6.7%	21	8.3%	216	85.0%	254	
없음	7	10.4%	14	20.9%	46	68.7%	67	
전체	48	8.4%	78	13.7%	444	77.9%	570	

〈부록표 I-1-14〉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217	78.6%	50	18.1%	9	3.3%	276	$\chi^2=0.58$
여자	232	81.1%	45	15.7%	9	3.1%	286	$p=.745$
학교별								
중학교	197	72.2%	62	22.7%	14	5.1%	273	$\chi^2=21.30$
고등학교	251	87.5%	32	11.1%	4	1.4%	287	$p=.000$
성적별								
잘하는편	82	87.2%	10	10.6%	2	2.1%	94	$\chi^2=5.37$
보통인편	274	79.4%	58	16.8%	13	3.8%	345	$p=.25$
잘못하는편	88	75.9%	25	21.6%	3	2.6%	116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6	75.0%	8	16.7%	4	8.3%	48	$\chi^2=4.91$
보통인편	373	80.4%	79	17.0%	12	2.6%	464	$p=.29$
어려운편	38	80.9%	7	14.9%	2	4.3%	47	
종교별								
기독교	154	77.4%	40	20.1%	5	2.5%	199	$\chi^2=11.84$
기타	46	76.7%	12	20.0%	2	3.3%	60	$p=.158$
불교	67	78.8%	15	17.6%	3	3.5%	85	
기타	12	85.7%	0	0.0%	2	14.3%	14	
없음	169	83.7%	27	13.4%	6	3.0%	202	
성격별								
순한편	85	81.7%	16	15.4%	3	2.9%	104	$\chi^2=7.82$
달한편	228	82.0%	40	14.4%	10	3.6%	278	$p=.251$
협적인편	32	68.1%	12	25.5%	3	6.4%	47	
내성적인편	102	78.5%	26	20.0%	2	1.5%	13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59	70.2%	20	23.8%	5	6.0%	84	$\chi^2=15.95$
과거활동	126	76.4%	32	19.4%	7	4.2%	165	$p=.014$
희망함	217	85.8%	34	13.4%	2	.8%	253	
없음	52	77.6%	11	16.4%	4	6.0%	67	
전체	454	79.8%	97	17.0%	18	3.2%	569	

〈부록표 I-1-15〉 자원봉사는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78	63.8%	73	26.2%	28	10.0%	279	$\chi^2=3.69$
여자	198	69.2%	71	24.8%	17	5.9%	286	$p=.157$
학교별								
중학교	166	60.4%	80	29.1%	29	10.5%	275	$\chi^2=9.96$
고등학교	208	72.2%	64	22.2%	16	5.6%	288	$p=.006$
성적별								
잘하는편	70	74.5%	16	17.0%	8	8.5%	94	$\chi^2=4.58$
보통인편	225	64.8%	93	26.8%	29	8.4%	347	$p=.332$
잘못하는편	76	65.0%	33	28.2%	8	6.8%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8	57.1%	12	24.5%	9	18.4%	49	$\chi^2=8.42$
보통인편	316	67.8%	117	25.1%	33	7.1%	466	$p=.077$
어려운편	30	63.8%	14	29.8%	3	6.4%	47	
종교별								
기독교	134	66.3%	51	25.2%	17	8.4%	202	$\chi^2=14.30$
기타	51	85.0%	7	11.7%	2	3.3%	60	$p=.074$
불교	49	57.6%	27	31.8%	9	10.6%	85	
기타	10	71.4%	2	14.3%	2	14.3%	14	
없음	131	64.9%	56	27.7%	15	7.4%	202	
성격별								
순한편	69	66.3%	28	26.9%	7	6.7%	104	$\chi^2=2.86$
달한편	191	68.0%	67	23.8%	23	8.2%	281	$p=.82$
협적인편	30	63.8%	11	23.4%	6	12.8%	47	
내성적인편	84	64.6%	37	28.5%	9	6.9%	13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46	54.8%	28	33.3%	10	11.9%	84	$\chi^2=48.20$
과거활동	107	64.5%	43	25.9%	16	9.6%	166	$p=.000$
희망함	200	78.4%	48	18.8%	7	2.7%	255	
없음	27	40.3%	27	40.3%	13	19.4%	67	
전체	380	66.4%	146	25.5%	46	8.0%	572	

〈부록표 I-2-1〉 당신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활동중	과거활동경험	기회되면 원함	별생각없음	전제	통계지
성별						
남자	36 12.9%	80 28.6%	119 42.5%	45 16.1%	280	$\chi^2=10.77$
여자	45 15.7%	86 30.1%	134 46.9%	21 7.3%	286	p=.013
학교별						
중학교	71 25.7%	124 44.9%	57 20.7%	24 8.7%	276	$\chi^2=167.99$
고등학교	10 3.5%	41 14.2%	195 67.7%	42 14.6%	288	p=.000
성직별						
잘하는편	19 20.2%	25 26.6%	39 41.5%	11 11.7%	94	$\chi^2=13.38$
보통임	51 14.7%	104 29.9%	161 46.3%	32 9.2%	348	p=.037
잘못하는편	11 9.4%	35 29.9%	48 41.0%	23 19.7%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9 18.4%	17 34.7%	13 26.5%	10 20.4%	49	$\chi^2=10.71$
보통임	67 14.4%	130 27.9%	217 46.6%	52 11.2%	466	p=.097
어려운편	5 10.4%	18 37.5%	21 43.8%	4 8.3%	48	
종교별						
기독교	25 12.3%	63 31.0%	92 45.3%	23 11.3%	203	$\chi^2=22.80$
가톨릭	12 20.0%	21 35.0%	25 41.7%	2 3.3%	60	p=.023
불교	15 17.6%	29 34.1%	30 35.3%	11 12.9%	85	
기타	0 0.0%	5 35.7%	4 28.6%	5 35.7%	14	
없음	29 14.4%	48 23.8%	100 49.5%	25 12.4%	202	
성격별						
온순한편	18 17.1%	24 22.9%	44 41.9%	19 18.1%	105	$\chi^2=13.83$
활달한편	42 14.9%	90 32.0%	124 44.1%	25 8.9%	281	p=.128
모험적인편	9 19.1%	15 31.9%	18 38.3%	5 10.6%	47	
내성적인편	12 9.2%	35 26.9%	66 50.8%	17 13.1%	130	
전체	81 14.4%	164 29.1%	252 44.8%	66 11.7%	563	

〈부록표 I-2-2〉 당신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일반교양과 넓히기 위해	전문을 지역사회를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성적/취업반영 을 위해	곤란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8 6.6%	26 9.5%	27 9.9%	8 2.9%	13 4.7%	8 2.9%	108 39.4%	66 24.1%	274	$\chi^2=4.92$
여자	14 5.0%	36 12.9%	30 10.8%	8 2.9%	7 2.5%	12 4.3%	104 37.4%	67 24.1%	278	p=.669
학교별										
중학교	8 3.0%	17 6.3%	19 7.0%	4 1.5%	12 4.4%	4 1.5%	149 55.2%	57 21.1%	270	$\chi^2=76.86$
고등학교	24 8.6%	45 16.1%	37 13.2%	12 4.3%	8 2.9%	16 5.7%	62 22.1%	76 27.1%	280	p=.000
성격별										
잘하는편	6 6.5%	12 12.9%	9 9.7%	4 4.3%	1 1.1%	4 4.3%	42 45.2%	15 16.1%	93	$\chi^2=37.10$
보통임	20 5.9%	41 12.0%	36 10.6%	6 1.8%	10 2.9%	11 3.2%	143 41.9%	74 21.7%	341	p=.000
잘못하는편	5 4.5%	9 8.0%	11 9.8%	6 5.4%	9 8.0%	4 3.6%	25 22.3%	43 38.4%	112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 6.3%	4 8.3%	2 4.2%	0 0.0%	2 4.2%	0 0.0%	24 50.0%	13 27.1%	48	$\chi^2=11.53$
보통임	28 6.2%	52 11.4%	51 11.2%	14 3.1%	15 3.3%	17 3.7%	169 37.1%	109 24.0%	455	p=.643
어려운편	1 2.2%	6 13.0%	3 6.5%	2 4.3%	3 6.5%	2 4.3%	19 41.3%	10 21.7%	46	
종교별										
기독교	9 4.5%	19 9.6%	22 11.1%	4 2.0%	9 4.5%	12 6.1%	72 36.4%	51 25.8%	198	$\chi^2=34.25$
가톨릭	3 5.0%	8 13.3%	1 1.7%	3 5.0%	2 3.3%	4 6.7%	23 38.3%	16 26.7%	60	p=.192
불교	4 4.8%	6 7.2%	9 10.8%	1 1.2%	1 1.2%	1 1.2%	40 48.2%	21 25.3%	83	
기타	0 0.0%	2 14.3%	1 7.1%	1 7.1%	0 0.0%	0 0.0%	9 64.3%	1 7.1%	14	
없음	16 8.2%	26 13.3%	24 12.3%	7 3.6%	8 4.1%	3 1.5%	68 34.9%	43 22.1%	195	
성격별										
온순한편	6 5.9%	11 10.8%	11 10.8%	4 3.9%	4 3.9%	5 4.9%	37 36.3%	24 23.5%	102	$\chi^2=21.98$
활달한편	20 7.3%	34 12.4%	29 10.5%	3 1.1%	9 3.3%	13 4.7%	107 38.9%	60 21.8%	275	p=.400
모험적인편	2 4.3%	7 15.2%	4 8.7%	3 6.5%	1 2.2%	0 0.0%	20 43.5%	9 19.6%	46	
내성적인편	4 3.2%	9 7.1%	13 10.3%	6 4.8%	6 4.8%	2 1.6%	47 37.3%	39 31.0%	12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4 4.8%	5 6.0%	5 6.0%	1 1.2%	3 3.6%	2 2.4%	47 56.6%	16 19.3%	83	$\chi^2=72.31$
과거활동	7 4.3%	11 6.8%	12 7.4%	4 2.5%	8 4.9%	11 6.8%	85 52.5%	24 14.8%	162	p=.000
희망함	19 7.7%	39 15.7%	35 14.1%	9 3.6%	6 2.4%	7 2.8%	57 23.0%	76 30.6%	248	
생각없음	2 3.0%	8 12.1%	6 9.1%	2 3.0%	3 4.5%	0 0.0%	26 39.4%	19 28.8%	66	
전체	32 5.7%	63 11.3%	58 10.4%	16 2.9%	20 3.6%	20 3.6%	215 38.5%	135 24.2%	559	

〈부록표 I-2-3〉 당신은 자원봉사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희생을		자신의 자원을		경제/시간		경험축적으로		전체	
통해 불우이웃을	활용하여 사회에		여유가 있어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돕는 것	기여하는 것		여기를 활용하는 것							
성별	116	41.7%	84	30.2%	22	7.9%	56	20.1%	278	$\chi^2=8.72$
남자	119	41.9%	104	36.6%	8	2.8%	53	18.7%	284	p=.033
여자										
학교별	132	48.2%	87	31.8%	19	6.9%	36	13.1%	274	$\chi^2=18.77$
중학교	102	35.7%	101	35.3%	11	3.8%	72	25.2%	286	p=.000
고등학교										
성적별	35	37.6%	35	37.6%	4	4.3%	19	20.4%	93	$\chi^2=2.39$
잘하는편	143	41.2%	119	34.3%	19	5.5%	66	19.0%	347	p=.879
보통임	53	46.1%	34	29.6%	7	6.1%	21	18.3%	115	
잘못하는편										
경제수준별	19	39.6%	17	35.4%	2	4.2%	10	20.8%	48	$\chi^2=2.649$
잘사는편	197	42.5%	156	33.7%	24	5.2%	86	18.6%	463	p=.851
보통임	17	35.4%	15	31.3%	4	8.3%	12	25.0%	48	
어려운편										
종교별	94	46.8%	65	32.3%	10	5.0%	32	15.9%	201	$\chi^2=14.71$
기독교	24	40.0%	21	35.0%	0	0.0%	15	25.0%	60	p=.257
가톨릭	32	37.6%	31	36.5%	6	7.1%	16	18.8%	85	
불교	7	50.0%	1	7.1%	2	14.3%	4	28.6%	14	
기타	77	38.5%	69	34.5%	12	6.0%	42	21.0%	200	
없음										
성격별	45	43.7%	37	35.9%	5	4.9%	16	15.5%	103	$\chi^2=7.43$
온순한편	118	42.1%	98	35.0%	11	3.9%	53	18.9%	280	p=.591
활달한편	21	44.7%	12	25.5%	3	6.4%	11	23.4%	47	
모험적인편	49	37.7%	41	31.5%	11	8.5%	29	22.3%	130	
내성적인편										
자원봉사경험	39	46.4%	25	29.8%	4	4.8%	16	19.0%	84	$\chi^2=29.03$
현재활동	80	48.8%	53	32.3%	8	4.9%	23	14.0%	164	p=.000
과거활동	95	37.4%	93	36.6%	7	2.8%	59	23.2%	254	
희망함	26	38.8%	18	26.9%	11	16.4%	12	17.9%	67	
생각없음										
전체	240	42.2%	189	33.2%	30	5.3%	110	19.3%	569	

〈부록표 I-2-4〉 당신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233	84.7%	42	15.3%	275	$\chi^2=0.144$
여자	244	86.2%	39	13.8%	283	$p=.704$
학교별						
중학교	224	82.7%	47	17.3%	271	$\chi^2=2.85$
고등학교	251	88.1%	34	11.9%	285	$p=.091$
성적별						
잘하는편	78	83.9%	15	16.1%	93	$\chi^2=6.45$
보통임	287	83.7%	56	16.3%	343	$p=.039$
잘못하는편	107	93.0%	8	7.0%	11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3	68.8%	15	31.3%	48	$\chi^2=12.81$
보통임	403	87.6%	57	12.4%	460	$p=.001$
어려운편	39	83.0%	8	17.0%	47	
종교별						
기독교	170	85.0%	30	15.0%	200	$\chi^2=11.44$
가톨릭	51	86.4%	8	13.6%	59	$p=.022$
불교	72	87.8%	10	12.2%	82	
기타	7	53.8%	6	46.2%	13	
없음	176	87.1%	26	12.9%	202	
성격별						
은순한편	90	87.4%	13	12.6%	103	$\chi^2=0.384$
활달한편	238	85.0%	42	15.0%	280	$p=.943$
모험적인편	39	86.7%	6	13.3%	45	
내성적인편	109	85.8%	18	14.2%	127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69	82.1%	15	17.9%	84	$\chi^2=48.66$
과거활동	141	85.5%	24	14.5%	165	$p=.000$
희망함	235	93.6%	16	6.4%	251	
생각없음	39	60.0%	26	40.0%	65	
전체	484	85.7%	81	14.3%	565	

〈부록표 1-2-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별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새로운 경험과 기술습득을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원만한 대인관계 사회성 함양을 위해		사회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자각을 위해		전체	통계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성별	13	5.5%	73	30.9%	32	13.6%	25	10.6%	53	22.5%	40	16.9%	236	$\chi^2=15.59$
남자	3	1.2%	100	41.0%	38	15.6%	13	5.3%	45	18.4%	45	18.4%	244	p=.008
여자														
학교별	6	2.7%	72	32.0%	47	20.9%	23	10.2%	41	18.2%	36	16.0%	225	$\chi^2=18.20$
중학교	10	4.0%	100	39.0%	23	9.1%	15	5.9%	56	22.1%	49	19.4%	253	p=.992
고등학교														
성적별	1	1.3%	38	48.1%	4	5.1%	4	5.1%	19	24.1%	13	16.5%	79	$\chi^2=16.09$
잘하는편	11	3.8%	103	35.8%	47	16.3%	23	8.0%	57	19.8%	47	16.3%	288	p=.097
보통임	4	3.7%	32	29.6%	19	17.6%	11	10.2%	18	16.7%	24	22.2%	108	
잘못하는편														
경제수준별	4	11.8%	15	44.1%	4	11.8%	0	0.0%	4	11.8%	7	20.6%	34	$\chi^2=15.16$
잘사는편	12	3.0%	145	35.9%	59	14.6%	33	8.2%	85	21.0%	70	17.3%	404	p=.126
보통임	0	0.0%	13	32.5%	7	17.5%	5	12.5%	8	20.0%	7	17.5%	40	
어려운편														
종교별	7	4.1%	68	39.5%	20	11.6%	11	6.4%	37	21.5%	29	16.9%	172	$\chi^2=26.53$
기독교	1	2.0%	22	44.0%	9	18.0%	2	4.0%	9	18.0%	7	14.0%	50	p=.148
가톨릭	1	1.4%	22	29.7%	15	20.3%	5	6.8%	11	14.9%	20	27.0%	74	
불교	0	0.0%	3	37.5%	1	12.5%	0	0.0%	0	0.0%	4	50.0%	8	
기타	7	4.0%	57	32.6%	25	14.3%	20	11.4%	41	23.4%	25	14.3%	175	
없음														
성격별	2	2.2%	30	32.6%	13	14.1%	4	4.3%	20	21.7%	23	25.0%	92	$\chi^2=15.43$
은순한편	9	3.8%	85	36.0%	35	14.8%	20	8.5%	50	21.2%	37	15.7%	236	p=.420
활달한편	2	5.0%	16	40.0%	7	17.5%	1	2.5%	4	10.0%	10	25.0%	40	
도회적인편	3	2.7%	41	37.3%	15	13.6%	13	11.8%	24	21.8%	14	12.7%	110	
내성적인편														
자원봉사경험	1	1.4%	25	35.7%	19	27.1%	5	7.1%	12	17.1%	8	11.4%	70	$\chi^2=31.36$
현재활동	5	3.5%	44	31.0%	23	16.2%	16	11.3%	19	13.4%	35	24.6%	142	p=.007
과거활동	8	3.4%	94	40.2%	27	11.5%	12	5.1%	57	24.4%	36	15.4%	234	
희망함	2	4.9%	14	34.1%	3	7.3%	5	12.2%	10	24.4%	7	17.1%	41	
생각없음														
전체	16	3.3%	177	36.3%	72	14.8%	38	7.8%	98	20.1%	86	17.7%	487	

〈부록표 I-2-6〉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싶습니까?

	학교나 담임선생님	청소년자원봉사 전문기관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	청소년관련 전문소식지	지역신문이나 인터넷	컴퓨터 통신	기타	전체	통계지
성별									
남자	79 40.1%	34 17.3%	31 15.7%	12 6.1%	18 9.1%	13 6.6%	10 5.1%	197 5.1%	$\chi^2=7.81$
여자	100 44.4%	50 22.2%	32 14.2%	15 6.7%	12 5.3%	6 2.7%	10 4.4%	225 5.6%	p=.251
학교별									
중학교	94 45.6%	42 20.4%	28 13.6%	10 4.9%	15 7.3%	9 4.4%	8 3.9%	206 5.6%	$\chi^2=3.56$
고등학교	85 39.7%	41 19.2%	34 15.9%	17 7.9%	15 7.0%	10 4.7%	12 5.6%	214 5.6%	p=.735
성적별									
잘하는편	34 47.9%	13 18.3%	9 12.7%	3 4.2%	6 8.5%	3 4.2%	3 4.2%	71 4.2%	$\chi^2=5.96$
보통임	110 40.9%	58 21.6%	41 15.2%	17 6.3%	16 5.9%	12 4.5%	15 5.6%	269 5.6%	p=.917
잘못하는편	33 42.9%	12 15.6%	12 15.6%	6 7.8%	8 10.4%	4 5.2%	2 2.6%	77 2.6%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6 39.0%	4 9.8%	10 24.4%	1 2.4%	4 9.8%	3 7.3%	3 7.3%	41 7.3%	$\chi^2=15.59$
보통임	142 41.2%	75 21.7%	51 14.8%	24 7.0%	24 7.0%	14 4.1%	15 4.3%	345 4.3%	p=.210
어려운편	20 60.6%	5 15.2%	1 3.0%	1 3.0%	2 6.1%	2 6.1%	2 6.1%	33 6.1%	
종교별									
기독교	67 41.6%	33 20.5%	28 17.4%	8 5.0%	7 4.3%	7 4.3%	11 6.8%	161 6.8%	$\chi^2=33.33$
가톨릭	24 52.2%	6 13.0%	7 15.2%	4 8.7%	1 2.2%	4 8.7%	0 0.0%	46 0.0%	p=.097
불교	20 35.7%	8 14.3%	6 10.7%	4 7.1%	10 17.9%	3 5.4%	5 8.9%	56 8.9%	
기타	8 61.5%	3 23.1%	2 15.4%	0 0.0%	0 0.0%	0 0.0%	0 0.0%	13 0.0%	
없음	59 40.7%	34 23.4%	20 13.8%	11 7.6%	12 8.3%	5 3.4%	4 2.8%	145 2.8%	
성격별									
온순한편	25 32.1%	16 20.5%	16 20.5%	2 2.6%	8 10.3%	5 6.4%	6 7.7%	78 7.7%	$\chi^2=22.21$
활달한편	90 42.3%	44 20.7%	33 15.5%	17 8.0%	13 6.1%	7 3.3%	9 4.2%	213 4.2%	p=.222
모험적인편	20 52.6%	4 10.5%	5 13.2%	0 0.0%	3 7.9%	4 10.5%	2 5.3%	38 5.3%	
내성적인편	42 46.7%	19 21.1%	9 10.0%	8 8.9%	6 6.7%	3 3.3%	3 3.3%	90 3.3%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5 42.4%	9 15.3%	13 22.0%	2 3.4%	2 3.4%	5 8.5%	3 5.1%	59 5.1%	$\chi^2=26.49$
과거활동	61 48.8%	22 17.6%	17 13.6%	10 8.0%	7 5.6%	3 2.4%	5 4.0%	125 4.0%	p=.089
희망함	75 39.3%	50 26.2%	24 12.6%	11 5.8%	15 7.9%	6 3.1%	10 5.2%	191 5.2%	
생각없음	20 37.7%	5 9.4%	9 17.0%	5 9.4%	7 13.2%	5 9.4%	2 3.8%	53 3.8%	
전체	181 42.3%	86 20.1%	63 14.7%	28 6.5%	31 7.2%	19 4.4%	20 4.7%	428 4.7%	

〈부록표 I-2-7〉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공부시간이 바람	정보부족	기술이나 지식부족	활동장소를 모를	매력적인 활동이 없음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두려움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94 33.6%	41 14.6%	48 17.1%	44 15.7%	27 9.6%	26 9.3%	280	$\chi^2=13.27$
여자	103 36.3%	54 19.0%	37 13.0%	60 21.1%	12 4.2%	18 6.3%	284	p=.021
학교별								
중학교	96 35.0%	37 13.5%	37 13.5%	69 25.2%	18 6.6%	17 6.2%	274	$\chi^2=19.12$
고등학교	101 35.1%	58 20.1%	47 16.3%	35 12.2%	20 6.9%	27 9.4%	288	p=.001
성적별								
잘하는편	43 45.7%	18 19.1%	9 9.6%	13 13.8%	5 5.3%	6 6.4%	94	$\chi^2=9.79$
보통임	115 33.2%	55 15.9%	56 16.2%	68 19.7%	26 7.5%	26 7.5%	346	p=.459
잘못하는편	36 30.8%	20 17.1%	18 15.4%	23 19.7%	8 6.8%	12 10.3%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0 40.8%	10 20.4%	7 14.3%	5 10.2%	5 10.2%	2 4.1%	49	$\chi^2=12.26$
보통임	160 34.5%	75 16.2%	72 15.5%	92 19.8%	27 5.8%	38 8.2%	464	p=.267
어려운편	16 33.3%	10 20.8%	4 8.3%	7 14.6%	7 14.6%	4 8.3%	48	
종교별								
기독교	83 41.1%	27 13.4%	28 13.9%	34 16.8%	15 7.4%	15 7.4%	202	$\chi^2=31.16$
가톨릭	22 36.7%	11 18.3%	3 5.0%	12 20.0%	6 10.0%	6 10.0%	60	p=.053
불교	24 28.2%	13 15.3%	14 16.5%	25 29.4%	2 2.4%	7 8.2%	85	
기타	4 28.6%	3 21.4%	1 7.1%	1 7.1%	3 21.4%	2 14.3%	14	
없음	63 31.3%	41 20.4%	38 18.9%	32 15.9%	13 6.5%	14 7.0%	201	
성격별								
온순한편	45 42.9%	13 12.4%	20 19.0%	14 13.3%	7 6.7%	6 5.7%	105	$\chi^2=22.06$
활달한편	96 34.2%	58 20.6%	36 12.8%	54 19.2%	17 6.0%	20 7.1%	281	p=.106
모험적인편	19 40.4%	1 2.1%	6 12.8%	11 23.4%	5 10.6%	5 10.6%	47	
내성적인편	36 28.1%	23 18.0%	22 17.2%	25 19.5%	9 7.0%	13 10.2%	128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4 28.9%	14 16.9%	9 10.8%	30 36.1%	4 4.8%	2 2.4%	83	$\chi^2=60.60$
과거활동	58 34.7%	24 14.4%	22 13.2%	34 20.4%	14 8.4%	15 9.0%	167	p=.000
희망함	88 34.6%	56 22.0%	37 14.6%	39 15.4%	11 4.3%	23 9.1%	254	
생각없음	28 41.8%	1 1.5%	18 26.9%	4 6.0%	11 16.4%	5 7.5%	67	
전체	198 34.7%	95 16.6%	86 15.1%	107 18.7%	40 7.0%	45 7.9%	571	

〈부록표 I-2-8〉 학교외에 자원봉사 소개기관이 있다면 다음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참가하고 싶다	참모르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86	149	45	280	$\chi^2=22.77$
여자	142	119	25	286	$p=.000$
학교별					
중학교	108	135	33	276	$\chi^2=0.54$
고등학교	120	132	36	288	$p=.763$
성적별					
잘하는편	44	31	19	94	$\chi^2=15.99$
보통임	127	181	40	348	$p=.003$
잘못하는편	54	54	9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8	19	12	49	$\chi^2=9.57$
보통임	186	230	50	466	$p=.048$
어려운편	23	19	6	48	
종교별					
기독교	87	94	22	203	$\chi^2=8.92$
가톨릭	32	21	7	60	$p=.348$
불교	33	40	12	85	
기타	4	7	3	14	
없슴	72	105	25	202	
성격별					
온순한편	34	51	20	105	$\chi^2=11.4$
활달한편	119	130	32	281	$p=.076$
모험적인편	23	17	7	47	
내성적인편	52	68	10	13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43	31	10	84	$\chi^2=59.12$
과거활동	65	85	17	167	$p=.000$
희망함	116	120	18	254	
생각없슴	9	33	25	67	
전체	233	269	70	572	

〈부록표 I-2-9〉 학교외에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습니다

	이용하고 싶다	살고보겠나	이용하지 않겠다	신체	통계지
성별					
남자	125	44.6%	115	41.1%	$\chi^2=14.23$ p=.000
여자	171	59.8%	92	32.2%	
학교별					
중학교	160	58.0%	90	32.6%	$\chi^2=7.07$ p=.029
고등학교	135	46.9%	116	40.3%	
성적별					
잘하는편	54	57.4%	27	28.7%	$\chi^2=4.85$ p=.302
보통임	177	50.9%	130	37.4%	
잘못하는편	60	51.3%	48	41.0%	9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2	44.9%	19	38.8%	$\chi^2=5.34$ p=.254
보통임	249	53.4%	171	36.7%	
어려운편	23	47.9%	16	33.3%	49
종교별					
기독교	107	52.7%	78	38.4%	$\chi^2=24.72$ p=.001
가톨릭	43	71.7%	13	21.7%	
불교	47	55.3%	26	30.6%	60
기타	6	42.9%	3	21.4%	85
없음	92	45.5%	87	43.1%	14
성격별					
온순한편	44	41.9%	44	41.9%	$\chi^2=11.71$ p=.068
활달한편	161	57.3%	92	32.7%	
모험적인편	22	46.8%	17	36.2%	47
내성적인편	68	52.3%	52	40.0%	13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56	66.7%	21	25.0%	$\chi^2=89.66$ p=.000
과거활동	95	57.2%	56	33.7%	
희망함	141	55.5%	98	38.6%	84
생각없음	8	11.9%	32	47.8%	166
전체	300	52.5%	207	36.3%	254
					67
					571

〈부록표 I-2-10〉 당신이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일손톱기	활동	위문활동	지도상담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		지역사회	전체	통계치	
							활동	개발				
성별												
남자	80	28.8%	33	11.9%	20	7.2%	54	19.4%	14	5.0%	278	$\chi^2=68.84$
여자	95	33.2%	102	35.7%	25	8.7%	23	8.0%	8	2.8%	286	p=.000
학교별												
중학교	91	33.2%	53	19.3%	21	7.7%	40	14.6%	9	3.3%	274	$\chi^2=8.00$
고등학교	84	29.2%	81	28.1%	24	8.3%	37	12.8%	12	4.2%	288	p=.237
성적별												
잘하는편	35	37.2%	14	14.9%	10	10.6%	6	6.4%	4	4.3%	94	$\chi^2=17.60$
보통임	104	30.0%	83	23.9%	28	8.1%	56	16.1%	13	3.7%	347	p=.128
잘못하는편	34	29.3%	36	31.0%	6	5.2%	14	12.1%	4	3.4%	116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4	29.2%	7	14.6%	5	10.4%	7	14.6%	1	2.1%	48	$\chi^2=9.26$
보통임	146	31.4%	112	24.1%	37	8.0%	66	14.2%	18	3.9%	465	p=.680
어려운편	15	31.3%	15	31.3%	2	4.2%	4	8.3%	2	4.2%	48	
종교별												
기독교	64	31.5%	53	26.1%	18	8.9%	29	14.3%	6	3.0%	203	$\chi^2=28.35$
가톨릭	22	36.7%	17	28.3%	1	1.7%	4	6.7%	3	5.0%	60	p=.245
불교	27	32.1%	11	13.1%	2	2.4%	14	16.7%	6	7.1%	84	
기타	3	21.4%	4	28.6%	2	14.3%	1	7.1%	0	0.0%	14	
없음	59	29.4%	49	24.4%	21	10.4%	29	14.4%	7	3.5%	201	
성격별												
온순한편	31	29.8%	19	18.3%	9	8.7%	15	14.4%	6	5.8%	104	$\chi^2=23.39$
활달한편	88	31.3%	81	28.8%	24	8.5%	41	14.6%	6	2.1%	281	p=.175
모험적인편	10	21.3%	9	19.1%	3	6.4%	9	19.1%	3	6.4%	47	
내성적인편	45	34.9%	26	20.2%	8	6.2%	12	9.3%	7	5.4%	129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6	31.3%	21	25.3%	4	4.8%	10	12.0%	2	2.4%	83	$\chi^2=58.99$
과거활동	50	30.1%	39	23.5%	13	7.8%	29	17.5%	5	3.0%	166	p=.000
희망함	88	34.6%	67	26.4%	12	4.7%	35	13.8%	11	4.3%	254	
생각없음	12	18.2%	9	13.6%	16	24.2%	4	6.1%	4	6.1%	66	
전체	176	30.9%	136	23.9%	45	7.9%	78	13.7%	22	3.9%	569	

〈부록표 I-2-11〉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		잘모르겠다		반대		전체	통계치
성별	109	39.6%	44	16.0%	122	44.4%	275	$\chi^2=2.98$ p=.227
남자	93	32.7%	48	16.9%	143	50.4%	284	
여자								
학교별	120	43.6%	41	14.9%	114	41.5%	275	$\chi^2=12.80$ p=.001
중학교	93	29.1%	51	18.1%	149	52.8%	282	
고등학교								
성격별	24	26.4%	12	13.2%	55	60.4%	91	$\chi^2=8.77$ p=.066
잘하는편	136	39.4%	60	17.4%	149	43.2%	345	
보통임	41	35.3%	19	16.4%	56	48.3%	116	
잘못하는편								
경제수준별	16	34.0%	6	12.8%	25	53.2%	47	$\chi^2=5.33$ p=.254
잘사는편	167	36.2%	83	18.0%	211	45.8%	461	
보통임	19	39.6%	3	6.3%	26	54.2%	48	
어려운편								
종교별	72	36.0%	35	17.5%	93	46.5%	200	$\chi^2=7.79$ p=.453
기독교	19	31.7%	8	13.3%	33	55.0%	60	
가톨릭	31	36.9%	10	11.9%	43	51.2%	84	
불교	5	35.7%	0	0.0%	9	64.3%	14	
기타	75	37.7%	38	19.1%	86	43.2%	199	
없음								
성격별	48	47.1%	8	7.8%	46	45.1%	102	$\chi^2=13.38$ p=.037
온순한편	101	36.1%	52	18.6%	127	45.4%	280	
활달한편	11	23.9%	11	23.9%	24	52.2%	46	
모험적인편	42	32.8%	21	16.4%	65	50.8%	128	
내성적인편								
자원봉사경험	38	45.2%	12	14.3%	34	40.5%	84	$\chi^2=14.42$ p=.025
현재활동	68	41.2%	26	15.8%	71	43.0%	165	
과거활동	84	33.6%	44	17.6%	122	48.8%	250	
희망함	13	20.0%	10	15.4%	42	64.6%	65	
생각없음								
전체	203	36.0%	92	16.3%	269	47.7%	564	

〈부록표 I-2-12〉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업성적위주에서 벗어나 수 있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기타										
전체										
통계치										
성별	39	33.1%	26	22.0%	47	39.8%	6	5.1%	118	$\chi^2=0.88$
	37	38.9%	18	18.9%	35	36.8%	5	5.3%	95	p=.830
학교별	45	36.3%	28	22.6%	45	36.3%	6	4.8%	124	$\chi^2=1.00$
중학교	31	34.8%	16	18.0%	37	41.6%	5	5.6%	89	p=.801
고등학교										
성적별	8	28.6%	3	10.7%	15	53.6%	2	7.1%	28	$\chi^2=7.26$
잘하는편	49	35.5%	28	20.3%	55	39.9%	6	4.3%	138	p=.297
보통임	18	39.1%	13	28.3%	12	26.1%	3	6.5%	46	
잘못하는편										
경제수준별	4	22.2%	2	11.1%	12	66.7%	0	0.0%	18	$\chi^2=7.43$
잘사는편	64	36.4%	39	22.2%	63	35.8%	10	5.7%	176	p=.282
보통임	8	42.1%	3	15.8%	7	36.8%	1	5.3%	19	
어려운편										
종교별	28	36.8%	12	15.8%	31	40.8%	5	6.6%	76	$\chi^2=8.85$
기독교	7	36.8%	5	26.3%	6	31.6%	1	5.3%	19	p=.714
가톨릭	9	25.7%	8	22.9%	17	48.6%	1	2.9%	35	
불교	2	40.0%	0	0.0%	2	40.0%	1	20.0%	5	
기타	30	38.5%	19	24.4%	26	33.3%	3	3.8%	78	
없습										
성격별	19	35.8%	10	18.9%	21	39.6%	3	5.7%	53	$\chi^2=18.65$
온순한편	39	37.9%	23	22.3%	37	35.9%	4	3.9%	103	p=.028
화답한편	1	7.1%	8	57.1%	4	28.6%	1	7.1%	14	
모험적인편	17	39.5%	3	7.0%	20	46.5%	3	7.0%	43	
내성적인편										
자원봉사경험	14	35.0%	9	22.5%	14	35.0%	3	7.5%	40	$\chi^2=4.58$
현재활동	27	37.5%	11	15.3%	29	40.3%	5	6.9%	72	p=.868
과거활동	30	34.9%	19	22.1%	34	39.5%	3	3.5%	86	
희망함	5	31.3%	5	31.3%	6	37.5%	0	0.0%	16	
생각없습										
전체	76	35.5%	44	20.6%	83	38.8%	11	5.1%	214	

〈부록표 I-2-13〉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정한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안심하고 활동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타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33 23.2%	19 13.4%	80 56.3%	3 2.1%	4 2.8%	3 2.1%	142	$\chi^2=8.29$
여자	18 11.5%	19 12.2%	105 67.3%	6 3.8%	4 2.6%	4 2.6%	156	p=.140
학교별								
중학교	27 20.6%	6 4.6%	82 62.6%	6 4.6%	4 3.1%	6 4.6%	131	$\chi^2=20.53$
고등학교	23 13.9%	31 18.8%	103 62.4%	3 1.8%	4 2.4%	1 0.6%	165	p=.001
성적별								
잘하는편	10 16.1%	10 16.1%	36 58.1%	2 3.2%	3 4.8%	1 1.6%	62	$\chi^2=10.56$
보통임	26 15.9%	19 11.6%	110 67.1%	5 3.0%	1 0.6%	3 1.8%	164	p=.392
잘못하는편	13 19.4%	9 13.4%	36 53.7%	2 3.0%	4 6.0%	3 4.5%	6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 20.0%	2 6.7%	19 63.3%	1 3.3%	1 3.3%	1 3.3%	30	$\chi^2=3.48$
보통임	39 16.4%	34 14.3%	146 61.3%	7 2.9%	6 2.5%	6 2.5%	238	p=.967
어려운편	4 14.8%	2 7.4%	19 70.4%	1 3.7%	1 3.7%	0 0.0%	27	
종교별								
기독교	22 20.8%	13 12.3%	66 62.3%	3 2.8%	1 0.9%	1 0.9%	106	$\chi^2=15.29$
가톨릭	6 17.1%	7 20.0%	20 57.1%	1 2.9%	0 0.0%	1 2.9%	35	p=.759
불교	6 12.2%	7 14.3%	31 63.3%	1 2.0%	3 6.1%	1 2.0%	49	
기타	3 33.3%	0 0.0%	6 66.7%	0 0.0%	0 0.0%	0 0.0%	9	
없음	13 13.3%	11 11.2%	62 63.3%	4 4.1%	4 4.1%	4 4.1%	98	
성격별								
온순한편	7 12.3%	6 10.5%	39 68.4%	3 5.3%	1 1.8%	1 1.8%	57	$\chi^2=12.42$
활달한편	22 15.5%	20 14.1%	85 59.9%	6 4.2%	4 2.8%	5 3.5%	142	p=.646
도량적인편	5 18.5%	4 14.8%	17 63.0%	0 0.0%	0 0.0%	1 3.7%	27	
내성적인편	16 23.2%	8 11.6%	42 60.9%	0 0.0%	3 4.3%	0 0.0%	69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6 16.2%	0 0.0%	23 62.2%	5 13.5%	1 2.7%	2 5.4%	37	$\chi^2=37.70$
과거활동	14 17.1%	8 9.8%	54 65.9%	1 1.2%	2 2.4%	3 3.7%	82	p=.001
희망함	19 14.2%	27 20.1%	83 61.9%	2 1.5%	2 1.5%	1 0.7%	134	
생각없음	12 24.5%	3 6.1%	29 59.2%	1 2.0%	3 6.1%	1 2.0%	49	
전체	51 16.9%	38 12.6%	189 62.6%	9 3.0%	8 2.6%	7 2.3%	302	

〈구분표 I-2-14〉 자원봉사정교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주길 바랍니까?

자원봉사																	
희망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기술이나 지식		상답을 함		정부를 제공함		기회를 알선함		장소나		희망자		도와줄 지도자		프로그램		책자	
등의 교육기회를 줄																	
성별	49	22.2%	25	11.3%	63	28.5%	48	21.7%	8	3.6%	15	6.8%	11	5.0%	2	0.9%	$\chi^2=23.43$ p=.001
남자	41	17.0%	15	6.2%	77	32.0%	88	36.5%	9	3.7%	7	2.9%	3	1.2%	1	0.4%	
여자	35	16.1%	17	7.8%	74	34.1%	57	26.3%	10	4.6%	12	5.5%	10	4.6%	2	0.9%	$\chi^2=10.96$ p=.140
초등학교	55	22.6%	23	9.5%	66	27.2%	77	31.7%	7	2.9%	10	4.1%	4	1.6%	1	0.4%	
고등학교	16	19.8%	5	6.2%	20	24.7%	28	34.6%	3	3.7%	6	7.4%	3	3.7%	0	0.0%	$\chi^2=11.51$ p=.645
성직별	50	18.2%	25	9.1%	92	33.5%	79	28.7%	9	3.3%	10	3.6%	9	3.3%	1	0.4%	
잘하는편	22	22.2%	9	9.1%	26	26.3%	27	27.3%	5	5.1%	6	6.1%	2	2.0%	2	2.0%	99
보통임	6	14.6%	4	9.8%	14	34.1%	12	29.3%	0	0.0%	3	7.3%	2	4.9%	0	0.0%	
잘못하는편	74	19.5%	33	8.7%	121	31.9%	107	28.2%	17	4.5%	15	4.0%	10	2.6%	2	0.5%	379
경제수준별	9	23.1%	2	5.1%	5	12.8%	16	41.0%	0	0.0%	4	10.3%	2	5.1%	1	2.6%	
경쟁수준별	35	20.2%	11	6.4%	50	28.9%	62	35.8%	5	2.9%	4	2.3%	5	2.9%	1	0.6%	173
기독교	8	17.0%	7	14.9%	12	25.5%	15	31.9%	2	4.3%	1	2.1%	2	4.3%	0	0.0%	
가톨릭	10	15.2%	5	7.6%	26	39.4%	13	19.7%	4	6.1%	6	9.1%	1	1.5%	1	1.5%	66
불교	1	11.1%	0	0.0%	1	11.1%	2	22.2%	0	0.0%	3	33.3%	1	11.1%	1	1.1%	
기타	36	21.8%	16	9.7%	51	30.9%	43	26.1%	6	3.6%	8	4.8%	5	3.0%	0	0.0%	165
없음	16	19.5%	8	9.8%	18	22.0%	26	31.7%	7	8.5%	3	3.7%	3	3.7%	1	1.2%	
성격별	44	19.0%	19	8.2%	81	34.9%	71	30.6%	5	2.2%	6	2.6%	5	2.2%	1	0.4%	$\chi^2=28.22$ p=.134
은순한편	8	18.6%	5	11.6%	13	30.2%	11	25.6%	2	4.7%	2	4.7%	1	2.3%	1	2.3%	
활달한편	22	21.6%	7	6.9%	27	26.5%	27	26.5%	3	2.9%	11	10.8%	5	4.9%	0	0.0%	102
모험적인편	13	19.7%	5	7.6%	21	31.8%	16	24.2%	4	6.1%	1	1.5%	5	7.6%	1	1.5%	
내성적인편	24	18.5%	13	10.0%	47	36.2%	34	26.2%	3	2.3%	7	5.4%	2	1.5%	0	0.0%	66
자원봉사경험	39	18.3%	14	6.6%	60	28.2%	74	34.7%	9	4.2%	10	4.7%	6	2.8%	1	0.5%	
현재활동	15	26.3%	8	14.0%	12	21.1%	14	24.6%	1	1.8%	5	8.8%	1	1.8%	1	1.8%	57
과거활동	91	19.5%	40	8.6%	140	30.0%	138	29.6%	17	3.6%	23	4.9%	14	3.0%	3	0.6%	
희망함																	466
생각없음																	
전체																	

〈부록표 I -2-15〉 실제 자원봉사를 할 경우 아래 중 가장 참가하고 싶은 곳은 어디니까?

	관공서	공공기관	종교사회단체	복지기관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관광시설	청소년수련 시설/단체	기업체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43 15.4%	14 5.0%	24 8.6%	60 21.5%	45 16.1%	48 17.2%	38 13.6%	7 2.5%	279	$\chi^2=47.06$
여자	38 13.5%	9 3.2%	14 5.0%	99 35.1%	50 17.7%	9 3.2%	60 21.3%	3 1.1%	282	p=.000
학교별										
중학교	58 21.2%	7 2.6%	21 7.7%	70 25.5%	46 16.8%	21 7.7%	48 17.5%	3 1.1%	274	$\chi^2=27.67$
고등학교	22 7.7%	16 5.6%	17 6.0%	88 30.9%	49 17.2%	36 12.6%	50 17.5%	7 2.5%	285	p=.000
성직별										
잘하는편	12 12.9%	7 7.5%	5 5.4%	24 25.8%	21 22.6%	9 9.7%	14 15.1%	1 1.1%	93	$\chi^2=16.92$
보통임	50 14.5%	11 3.2%	26 7.5%	88 25.5%	63 18.3%	38 11.0%	63 18.3%	6 1.7%	345	p=.260
잘못하는편	16 13.8%	5 4.3%	6 5.2%	44 37.9%	11 9.5%	10 8.6%	21 18.1%	3 2.6%	116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7 14.6%	4 8.3%	3 6.3%	9 18.8%	11 22.9%	6 12.5%	8 16.7%	0 0.0%	48	$\chi^2=18.04$
보통임	63 13.6%	19 4.1%	32 6.9%	128 27.7%	76 16.5%	50 10.8%	84 18.2%	10 2.2%	462	p=.204
어려운편	9 18.8%	0 0.0%	3 6.3%	21 43.8%	8 16.7%	1 2.1%	6 12.5%	0 0.0%	48	
종교별										
기독교	25 12.5%	5 2.5%	19 9.5%	62 31.0%	30 15.0%	18 9.0%	38 19.0%	3 1.5%	200	$\chi^2=43.71$
가톨릭	5 8.3%	3 5.0%	4 6.7%	26 43.3%	9 15.0%	2 3.3%	9 15.0%	2 3.3%	60	p=.029
불교	19 22.4%	5 5.9%	5 5.9%	23 27.1%	8 9.4%	13 15.3%	12 14.1%	0 0.0%	85	
기타	4 28.6%	0 0.0%	1 7.1%	3 21.4%	4 28.6%	2 14.3%	0 0.0%	0 0.0%	14	
없음	27 13.5%	10 5.0%	8 4.0%	45 22.5%	44 22.0%	22 11.0%	39 19.5%	5 2.5%	200	
성격별										
온순한편	17 16.3%	7 6.7%	5 4.8%	24 23.1%	17 16.3%	16 15.4%	15 14.4%	3 2.9%	104	$\chi^2=22.20$
활달한편	39 14.0%	10 3.6%	19 6.8%	86 30.9%	48 17.3%	19 6.8%	51 18.3%	6 2.2%	278	p=.387
모험적인편	8 17.0%	2 4.3%	3 6.4%	8 17.0%	6 12.8%	8 17.0%	12 25.5%	0 0.0%	47	
내성적인편	16 12.4%	4 3.1%	11 8.5%	40 31.0%	23 17.8%	14 10.9%	20 15.5%	1 0.8%	129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1 25.0%	1 1.2%	5 6.0%	24 28.6%	16 19.0%	7 8.3%	10 11.9%	0 0.0%	84	$\chi^2=46.76$
과거활동	22 13.3%	4 2.4%	16 9.7%	47 28.5%	23 13.9%	13 7.9%	36 21.8%	4 2.4%	165	p=.001
희망함	30 11.9%	12 4.8%	13 5.2%	82 32.5%	43 17.1%	25 9.9%	43 17.1%	4 1.6%	252	
생각없음	8 12.3%	6 9.2%	4 6.2%	7 10.8%	14 21.5%	15 23.1%	9 13.8%	2 3.1%	65	
전체	81 14.3%	23 4.1%	38 6.7%	160 28.3%	96 17.0%	60 10.6%	98 17.3%	10 1.8%	566	

〈부록표 I-2-16〉 청소년이 자원봉사를 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학기중의 수업시간		평일 방과후		학기 중의 공휴일		방학 중		학기 중의 토요일		언제든지 가능		전체 통계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성별														
남자	52	18.6%	11	3.9%	19	6.8%	144	51.6%	32	11.5%	21	7.5%	279	$\chi^2=2.09$
여자	59	20.8%	8	2.8%	18	6.3%	145	51.1%	38	13.4%	16	5.6%	284	p=.836
학교별														
중학교	38	13.8%	14	5.1%	17	6.2%	160	58.0%	26	9.4%	21	7.6%	276	$\chi^2=24.50$
고등학교	73	25.6%	5	1.8%	20	7.0%	127	44.6%	44	15.4%	16	5.6%	285	p=.000
성적별														
잘하는편	16	17.2%	1	1.1%	5	5.4%	50	53.8%	13	14.0%	8	8.6%	93	$\chi^2=21.98$
보통임	63	18.2%	8	2.3%	25	7.2%	190	54.9%	41	11.8%	19	5.5%	346	p=.015
잘못하는편	31	26.5%	10	8.5%	6	5.1%	47	40.2%	13	11.1%	10	8.5%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3	27.1%	0	0.0%	1	2.1%	32	66.7%	0	0.0%	2	4.2%	48	$\chi^2=21.23$
보통임	83	17.9%	16	3.4%	33	7.1%	238	51.3%	62	13.4%	32	6.9%	464	p=.019
어려운편	15	31.3%	3	6.3%	2	4.2%	18	37.5%	7	14.6%	3	6.3%	48	
종교별														
기독교	49	24.3%	5	2.5%	8	4.0%	111	55.0%	19	9.4%	10	5.0%	202	$\chi^2=28.16$
가톨릭	8	13.3%	4	6.7%	2	3.3%	34	56.7%	7	11.7%	5	8.3%	60	p=.105
불교	9	10.7%	2	2.4%	10	11.9%	46	54.8%	9	10.7%	8	9.5%	84	
기타	3	21.4%	0	0.0%	0	0.0%	7	50.0%	3	21.4%	1	7.1%	14	
없음	42	20.9%	8	4.0%	16	8.0%	90	44.8%	32	15.9%	13	6.5%	201	
성격별														
은순한편	17	16.3%	5	4.8%	6	5.8%	52	50.0%	16	15.4%	8	7.7%	104	$\chi^2=15.37$
활달한편	61	21.7%	8	2.8%	20	7.1%	137	48.8%	35	12.5%	20	7.1%	281	p=.424
모험적인편	14	29.8%	2	4.3%	5	10.6%	22	46.8%	2	4.3%	2	4.3%	47	
내성적인편	19	14.8%	4	3.1%	5	3.9%	76	59.4%	17	13.3%	7	5.5%	128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0	11.9%	4	4.8%	3	3.6%	48	57.1%	8	9.5%	11	13.1%	84	$\chi^2=32.84$
과거활동	30	18.1%	9	5.4%	12	7.2%	98	59.0%	12	7.2%	5	3.0%	166	p=.004
희망함	53	20.9%	4	1.6%	17	6.7%	119	47.0%	43	17.0%	17	6.7%	253	
생각없음	18	27.7%	2	3.1%	5	7.7%	29	44.6%	7	10.8%	4	6.2%	65	
전체	111	19.5%	19	3.3%	37	6.5%	294	51.8%	70	12.3%	37	6.5%	568	

〈부록표 I-2-1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형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까요?

	개인적으로		교내특별행사나 동아리 중심		청소년단체와 함께		자원봉사센터나 기관을 통해		학교 전체	기타	전체	통계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성별	38	46	102	100	60	58	30	33	37	33	278	284
	13.7%	16.2%	36.7%	35.2%	21.6%	20.4%	10.8%	11.6%	13.3%	11.6%	4.0%	4.9%
학교별 중학교 고등학교	46	37	90	112	59	59	35	28	24	45	275	285
	16.7%	13.0%	32.7%	39.3%	21.5%	20.7%	12.7%	9.8%	8.7%	15.8%	7.6%	1.4%
성적별 잘하는편 보통임 잘못하는편	14	55	39	125	21	69	10	44	5	39	93	346
	15.1%	15.9%	41.9%	36.1%	22.6%	19.9%	10.8%	12.7%	5.4%	11.3%	4.3%	4.0%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보통임 어려운편	75	6	165	15	95	10	58	3	51	12	463	48
	16.2%	12.5%	43.8%	31.3%	27.1%	20.8%	12.5%	6.3%	11.0%	25.0%	8.3%	4.1%
종교별 기독교 가톨릭 불교 기타 없음	32	13	63	21	49	9	23	9	27	5	201	60
	15.9%	21.7%	31.3%	35.0%	24.4%	15.0%	11.4%	15.0%	13.4%	8.3%	3.5%	5.0%
성격별 온순한편 활달한편 모험적인편 내성적인편	15	0	29	4	18	5	9	2	10	2	85	14
	17.6%	0.0%	34.1%	28.6%	21.2%	35.7%	10.6%	14.3%	11.8%	14.3%	4.7%	7.1%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과거활동 희망함 생각없음	23	22	84	46	37	21	20	16	26	17	200	129
	11.5%	17.1%	42.0%	35.7%	18.5%	16.3%	10.0%	12.4%	13.0%	5.0%	5.0%	5.4%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과거활동 희망함 생각없음	16	34	32	114	27	59	14	29	12	34	104	279
	15.4%	12.2%	30.8%	40.9%	26.0%	21.1%	13.5%	10.4%	11.5%	12.2%	2.9%	3.2%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과거활동 희망함 생각없음	11	30	10	107	11	46	4	31	6	5	47	251
	23.4%	12.0%	21.3%	42.6%	23.4%	18.3%	8.5%	12.4%	12.8%	10.6%	5.4%	2.8%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과거활동 희망함 생각없음	22	11	46	16	21	16	16	7	17	13	129	66
	17.1%	16.7%	35.7%	24.2%	16.3%	24.2%	12.4%	10.6%	13.2%	19.7%	5.4%	4.5%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과거활동 희망함 생각없음	86	20	202	23	119	22	65	10	70	25	567	84
	15.2%	23.8%	35.6%	27.4%	21.0%	26.2%	11.5%	11.9%	12.3%	4.4%	2.4%	7.8%

〈부록표 I-2-18〉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자신	담당선생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담당		자원봉사자가		학생/센터/활동		전체	통계치	
			나 기구		지도자	활동한 시설이나	처 모두						
			기관										
성별													
남자	85	30.4%	33	11.8%	27	9.6%	31	11.1%	31	11.1%	73	26.1%	$\chi^2=21.47$ p=.000
여자	87	30.6%	11	3.9%	18	6.3%	29	10.2%	58	20.4%	81	28.5%	
학교별													
중학교	88	31.9%	39	14.1%	26	9.4%	23	8.3%	45	16.3%	55	19.9%	$\chi^2=43.56$ p=.000
고등학교	83	29.0%	5	1.7%	18	6.3%	37	12.9%	44	15.4%	99	34.6%	
성적별													
잘하는편	34	36.6%	6	6.5%	10	10.8%	8	8.6%	17	18.3%	18	19.4%	$\chi^2=9.19$ p=.514
보통임	101	29.1%	27	7.8%	26	7.5%	35	10.1%	53	15.3%	105	30.3%	
잘못하는편	34	29.1%	11	9.4%	8	6.8%	17	14.5%	17	14.5%	30	25.6%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6	33.3%	4	8.3%	4	8.3%	1	2.1%	8	16.7%	15	31.3%	$\chi^2=10.78$ p=.374
보통임	139	29.9%	32	6.9%	36	7.7%	55	11.8%	74	15.9%	129	27.7%	
어려운편	15	31.3%	8	16.7%	4	8.3%	4	8.3%	7	14.6%	10	20.8%	
종교별													
기독교	63	31.2%	17	8.4%	20	9.9%	21	10.4%	27	13.4%	54	26.7%	$\chi^2=25.72$ p=.175
가톨릭	19	31.7%	2	3.3%	5	8.3%	3	5.0%	13	21.7%	18	30.0%	
불교	22	25.9%	6	7.1%	6	7.1%	18	21.2%	16	18.8%	17	20.0%	
기타	5	35.7%	2	14.3%	0	0.0%	3	21.4%	1	7.1%	3	21.4%	14
없음	62	30.8%	17	8.5%	14	7.0%	15	7.5%	32	15.9%	61	30.3%	
성격별													
은수한편	28	26.9%	9	8.7%	12	11.5%	9	8.7%	23	22.1%	23	22.1%	$\chi^2=12.61$ p=.63
활달한편	88	31.3%	19	6.8%	20	7.1%	27	9.6%	44	15.7%	83	29.5%	
모험적인편	11	23.4%	5	10.6%	4	8.5%	6	12.8%	6	12.8%	15	31.9%	
내성적인편	42	32.6%	11	8.5%	9	7.0%	18	14.0%	16	12.4%	33	25.6%	129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2	26.2%	14	16.7%	6	7.1%	8	9.5%	15	17.9%	19	22.6%	$\chi^2=26.23$ p=.035
과거활동	57	34.3%	17	10.2%	11	6.6%	17	10.2%	27	16.3%	37	22.3%	
희망함	71	28.1%	11	4.3%	19	7.5%	28	11.1%	40	15.8%	84	33.2%	
생각없음	23	34.8%	3	4.5%	9	13.6%	7	10.6%	9	13.6%	15	22.7%	
전체	173	30.4%	45	7.9%	45	7.9%	60	10.5%	91	16.0%	155	27.2%	569

〈부록표 I-2-19〉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청소년자원 봉사 활동의 경력 인정	나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자원 봉사 활동의 입시 및 취직시 우대혜택 마련	청소년자원 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 설립	주5일제 수업 실시	자원봉사 활동 대상 기관의 개방 및 적극적인 경비 지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진체	통계치
성별										
남자	54 19.4%	13 4.7%	47 16.9%	13 4.7%	18 6.5%	112 40.3%	10 3.6%	11 4.0%	278	$\chi^2=21.84$
여자	51 18.0%	7 2.5%	76 26.8%	8 2.8%	21 7.4%	90 31.7%	26 9.2%	5 1.8%	284	$p=.002$
학교별										
중학교	38 13.8%	9 3.3%	65 23.6%	14 5.1%	11 4.0%	114 41.3%	19 6.9%	6 2.2%	276	$\chi^2=23.27$
고등학교	67 23.6%	11 3.9%	58 20.4%	7 2.5%	28 9.9%	86 30.3%	17 6.0%	10 3.5%	284	$p=.001$
성적별										
잘하는편	16 17.2%	0 0.0%	21 22.6%	2 2.2%	13 14.0%	35 37.6%	4 4.3%	2 2.2%	93	$\chi^2=29.10$
보통임	64 18.6%	11 3.2%	83 24.1%	13 3.8%	24 7.0%	116 33.5%	24 7.0%	10 2.9%	345	$p=.011$
잘못하는편	24 20.5%	9 7.7%	18 15.4%	6 5.1%	1 0.9%	48 41.0%	7 6.0%	4 3.4%	11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 12.5%	3 6.3%	8 16.7%	4 8.3%	7 14.6%	17 35.4%	2 4.2%	1 2.1%	48	$\chi^2=20.57$
보통임	87 18.8%	13 2.8%	108 23.3%	16 3.5%	29 6.3%	169 36.5%	29 6.3%	12 2.6%	463	$p=.113$
어려운편	11 22.9%	4 8.3%	7 14.6%	1 2.1%	2 4.2%	15 31.3%	5 10.4%	3 6.3%	48	
종교별										
기독교	35 17.4%	4 2.0%	51 25.4%	9 4.5%	10 5.0%	80 39.8%	9 4.5%	3 1.5%	201	$\chi^2=36.90$
가톨릭	9 15.0%	2 3.3%	11 18.3%	3 5.0%	6 10.0%	22 36.7%	4 6.7%	3 5.0%	60	$p=.121$
불교	24 28.2%	7 8.2%	12 14.1%	0 0.0%	10 11.8%	23 27.1%	6 7.1%	3 3.5%	85	
기타	3 21.4%	0 0.0%	3 21.4%	1 7.1%	2 14.3%	3 21.4%	2 14.3%	0 0.0%	14	
없음	32 16.0%	7 3.5%	46 23.0%	8 4.0%	11 5.5%	74 37.0%	15 7.5%	7 3.5%	200	
성격별										
온순한편	15 14.6%	8 7.8%	26 25.2%	3 2.9%	6 5.8%	34 33.0%	4 3.9%	7 6.8%	103	$\chi^2=36.99$
화달한편	61 21.7%	5 1.8%	65 23.1%	11 3.9%	16 5.7%	98 34.9%	19 6.8%	6 2.1%	281	$p=.016$
호합적인편	6 12.8%	4 8.5%	11 23.4%	2 4.3%	1 2.1%	17 36.2%	5 10.6%	1 2.1%	47	
내성적인편	22 17.2%	3 2.3%	20 15.6%	5 3.9%	16 12.5%	53 41.4%	7 5.5%	2 1.6%	128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2 14.3%	4 4.8%	22 26.2%	1 1.2%	4 4.8%	32 38.1%	7 8.3%	2 2.4%	84	$\chi^2=27.09$
과거활동	29 17.5%	6 3.6%	30 18.1%	3 1.8%	11 6.6%	72 43.4%	11 6.6%	4 2.4%	166	$p=.16$
희망함	54 21.5%	10 4.0%	61 24.3%	11 4.4%	22 8.8%	71 28.3%	14 5.6%	8 3.2%	251	
생각없음	10 15.2%	1 1.5%	12 18.2%	6 9.1%	2 3.0%	28 42.4%	5 7.6%	2 3.0%	66	
진체	105 18.5%	21 3.7%	125 22.0%	21 3.7%	39 6.9%	203 35.8%	37 6.5%	16 2.8%	567	

〈부록표 I-3-1〉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관공서일손돕기	90	32.3%	90	31.7%	180	32.0%
공공질서확립캠페인	28	10.0%	19	6.7%	47	8.3%
교통안전캠페인	50	17.9%	15	5.3%	65	11.5%
헌혈 및 골수 기증	50	17.9%	46	16.2%	96	17.1%
자연보호	73	26.2%	32	11.3%	105	18.7%
문화재보호	56	20.1%	33	11.6%	89	15.8%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44	15.8%	47	16.5%	91	16.2%
기업체일손돕기	62	22.2%	68	23.9%	130	23.1%
장애인위문	41	14.7%	66	23.2%	107	19.0%
병약자위문	23	8.2%	42	14.8%	65	11.5%
재해구호활동	19	6.8%	4	1.4%	23	4.1%
불우이웃돕기	32	11.5%	61	21.5%	93	16.5%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29	10.4%	60	21.1%	89	15.8%
공공기관 일손돕기	54	19.4%	72	25.4%	126	22.4%
하급생 지도	71	25.4%	146	51.4%	217	38.5%
사회교육지도	80	28.7%	45	15.8%	125	22.2%
교통안전지도	34	12.2%	11	3.9%	45	8.0%
교아원 위문	44	15.8%	80	28.2%	124	22.2%
양로원 위문	20	7.2%	31	10.9%	51	9.1%
학교주변정화활동	29	10.4%	17	6.0%	46	8.2%
환경보전캠페인	62	22.2%	32	11.3%	94	16.7%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46	16.5%	19	6.7%	65	11.5%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37	13.3%	39	13.7%	76	13.5%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37	13.3%	64	22.5%	101	17.9%
깨끗한 환경만들기	45	16.1%	41	14.4%	86	15.3%
지역실태조사활동	10	3.6%	12	4.2%	22	3.9%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32	11.5%	28	9.9%	60	10.7%
자매부대 위문	21	7.5%	48	16.9%	69	12.3%
동급생 지도	35	12.5%	35	12.3%	70	12.4%
지역사회 가꾸기	18	6.5%	21	7.4%	39	6.9%
지역홍보활동	21	7.5%	37	13.0%	58	10.3%
지역행사지원활동	23	8.2%	8	2.8%	31	5.5%
농어촌 일손돕기	72	25.8%	47	16.5%	119	21.1%
전체	279	100.0%	284	100.0%	563	100.0%

〈부록표 I-3-2〉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학교별)

	학교별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관공서일손돕기	106	38.7%	73	25.4%	179	31.9%
공공질서확립캠페인	19	6.9%	28	9.8%	47	8.4%
교통안전캠페인	35	12.8%	30	10.5%	65	11.6%
헌혈 및 골수 기증	31	11.3%	65	22.6%	96	17.1%
자연보호	55	20.1%	50	17.4%	105	18.7%
문화재보호	51	18.6%	37	12.9%	88	15.7%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54	19.7%	37	12.9%	91	16.2%
기업체일손돕기	64	23.4%	66	23.0%	130	23.2%
장애인위문	38	13.9%	68	23.7%	106	18.9%
병약자위문	31	11.3%	33	11.5%	64	11.4%
재해구호활동	7	2.6%	16	5.6%	23	4.1%
불우이웃돕기	44	16.1%	49	17.1%	93	16.6%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34	12.4%	55	19.2%	89	15.9%
공공기관 일손돕기	71	25.9%	55	19.2%	126	22.5%
하급생 지도	98	35.8%	118	41.1%	216	38.5%
사회교육지도	53	19.3%	72	25.1%	125	22.3%
교통안전지도	25	9.1%	20	7.0%	45	8.0%
교아원 위문	42	15.3%	81	28.2%	123	21.9%
양로원 위문	17	6.2%	34	11.8%	51	9.1%
학교주변정화활동	25	9.1%	20	7.0%	45	8.0%
환경보전캠페인	50	18.2%	44	15.3%	94	16.8%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35	12.8%	30	10.5%	65	11.6%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42	15.3%	33	11.5%	75	13.4%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45	16.4%	55	19.2%	100	17.8%
깨끗한 환경만들기	56	20.4%	30	10.5%	86	15.3%
지역실태조사활동	7	2.6%	15	5.2%	22	3.9%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32	11.7%	28	9.8%	60	10.7%
자매부대 위문	32	11.7%	37	12.9%	69	12.3%
동급생 지도	38	13.9%	32	11.1%	70	12.5%
지역사회 가꾸기	31	11.3%	8	2.8%	39	7.0%
지역홍보활동	22	8.0%	36	12.5%	58	10.3%
지역행사지원활동	13	4.7%	18	6.3%	31	5.5%
농어촌 일손돕기	61	22.3%	57	19.9%	118	21.0%
전체	274	100.0%	287	100.0%	561	100.0%

〈부록표 I-3-3〉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성적별)

	성적별						전체	
	잘하는편		보통임		잘못하는편			
관공서일손돕기	29	31.2%	114	32.9%	34	29.3%	177	31.8%
공공질서확립캠페인	6	6.5%	30	8.6%	11	9.5%	47	8.5%
교통안전캠페인	9	9.7%	42	12.1%	14	12.1%	65	11.7%
헌혈 및 골수 기증	16	17.2%	56	16.1%	22	19.0%	94	16.9%
자연보호	20	21.5%	65	18.7%	19	16.4%	104	18.7%
문화재보호	13	14.0%	62	17.9%	13	11.2%	88	15.8%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11	11.8%	64	18.4%	16	13.8%	91	16.4%
기업체일손돕기	23	24.7%	80	23.1%	27	23.3%	130	23.4%
장애인위문	20	21.5%	64	18.4%	22	19.0%	106	19.1%
병약자위문	12	12.9%	38	11.0%	15	12.9%	65	11.7%
재해구호활동	5	5.4%	11	3.2%	6	5.2%	22	4.0%
불우이웃돕기	11	11.8%	63	18.2%	18	15.5%	92	16.5%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24	25.8%	53	15.3%	11	9.5%	88	15.8%
공공기관 일손돕기	21	22.6%	78	22.5%	25	21.6%	124	22.3%
하급생 지도	37	39.8%	131	37.8%	45	38.8%	213	38.3%
사회교육지도	23	24.7%	71	20.5%	28	24.1%	122	21.9%
교통안전지도	8	8.6%	31	8.9%	6	5.2%	45	8.1%
고아원 위문	11	11.8%	67	19.3%	44	37.9%	122	21.9%
양로원 위문	3	3.2%	32	9.2%	16	13.8%	51	9.2%
학교주변정화활동	9	9.7%	29	8.4%	7	6.0%	45	8.1%
환경보전캠페인	17	18.3%	60	17.3%	16	13.8%	93	16.7%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11	11.8%	43	12.4%	11	9.5%	65	11.7%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13	14.0%	50	14.4%	9	7.8%	72	12.9%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22	23.7%	59	17.0%	18	15.5%	99	17.8%
깨끗한 환경만들기	12	12.9%	51	14.7%	21	18.1%	84	15.1%
지역실태조사활동	2	2.2%	16	4.6%	4	3.4%	22	4.0%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11	11.8%	36	10.4%	11	9.5%	58	10.4%
자매부대 위문	14	15.1%	39	11.2%	15	12.9%	68	12.2%
동급생 지도	16	17.2%	44	12.7%	10	8.6%	70	12.6%
지역사회 가꾸기	5	5.4%	30	8.6%	4	3.4%	39	7.0%
지역홍보활동	10	10.8%	40	11.5%	8	6.9%	58	10.4%
지역행사지원활동	4	4.3%	15	4.3%	12	10.3%	31	5.6%
농어촌 일손돕기	14	15.1%	68	19.6%	37	31.9%	119	21.4%
전체	93	100.0%	347	100.0%	116	100.0%	556	100.0%

〈부록표 I-3-4〉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경제수준별)

	경제수준별						전체	
	잘사는편		보통임		어려운편			
관공서일손돕기	18	37.5%	146	31.5%	14	29.2%	178	31.8%
공공질서확립캠페인	4	8.3%	41	8.8%	2	4.2%	47	8.4%
교통안전캠페인	7	14.6%	56	12.1%	2	4.2%	65	11.6%
헌혈 및 골수 기증	6	12.5%	70	15.1%	19	39.6%	95	17.0%
자연보호	13	27.1%	79	17.0%	13	27.1%	105	18.8%
문화재보호	8	16.7%	73	15.7%	7	14.6%	88	15.7%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9	18.8%	74	15.9%	8	16.7%	91	16.3%
기업체일손돕기	11	22.9%	113	24.4%	6	12.5%	130	23.2%
장애인위문	8	16.7%	82	17.7%	16	33.3%	106	18.9%
병약자위문	3	6.3%	55	11.9%	7	14.6%	65	11.6%
재해구조활동	3	6.3%	18	3.9%	1	2.1%	22	3.9%
불우이웃돕기	11	22.9%	71	15.3%	11	22.9%	93	16.6%
국제협력과 난민구조	8	16.7%	75	16.2%	6	12.5%	89	15.9%
공공기관 일손돕기	8	16.7%	111	23.9%	6	12.5%	125	22.3%
하급생 지도	18	37.5%	177	38.1%	21	43.8%	216	38.6%
사회교육지도	11	22.9%	101	21.8%	11	22.9%	123	22.0%
교통안전지도	4	8.3%	38	8.2%	3	6.3%	45	8.0%
고아원 위문	5	10.4%	105	22.6%	13	27.1%	123	22.0%
양로원 위문	3	6.3%	43	9.3%	5	10.4%	51	9.1%
학교주변정화활동	7	14.6%	37	8.0%	1	2.1%	45	8.0%
환경보전캠페인	8	16.7%	81	17.5%	5	10.4%	94	16.8%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7	14.6%	56	12.1%	2	4.2%	65	11.6%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4	8.3%	62	13.4%	9	18.8%	75	13.4%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9	18.8%	81	17.5%	10	20.8%	100	17.9%
깨끗한 환경만들기	5	10.4%	75	16.2%	6	12.5%	86	15.4%
지역실태조사활동	1	2.1%	18	3.9%	3	6.3%	22	3.9%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1	2.1%	56	12.1%	3	6.3%	60	10.7%
지매부대 위문	8	16.7%	58	12.5%	2	4.2%	68	12.1%
동급생 지도	7	14.6%	57	12.3%	6	12.5%	70	12.5%
지역사회 가꾸기	3	6.3%	33	7.1%	3	6.3%	39	7.0%
지역홍보활동	6	12.5%	47	10.1%	5	10.4%	58	10.4%
지역행사지원활동	1	2.1%	30	6.5%	0	0.0%	31	5.5%
농어촌 일손돕기	12	25.0%	94	20.3%	13	27.1%	119	21.3%
전체	48	100.0%	464	100.0%	48	100.0%	560	100.0%

〈부록표 I-3-5〉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종교별)

	종교별										전체	
	기독교		가톨릭		불교		기타		없음			
관공서일손돕기	57	28.1%	23	38.3%	32	38.1%	5	35.7%	62	31.0%	179	31.9%
공공질서확립캠페인	20	9.9%	4	6.7%	7	8.3%	0	0.0%	16	8.0%	47	8.4%
교통안전캠페인	24	11.8%	3	5.0%	13	15.5%	2	14.3%	23	11.5%	65	11.6%
헌혈 및 골수 기증	31	15.3%	12	20.0%	13	15.5%	1	7.1%	39	19.5%	96	17.1%
자연보호	37	18.2%	11	18.3%	15	17.9%	1	7.1%	41	20.5%	105	18.7%
문화재보호	26	12.8%	6	10.0%	21	25.0%	4	28.6%	32	16.0%	89	15.9%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34	16.7%	12	20.0%	10	11.9%	4	28.6%	31	15.5%	91	16.2%
기업체일손돕기	52	25.6%	14	23.3%	19	22.6%	2	14.3%	43	21.5%	130	23.2%
장애인위문	34	16.7%	13	21.7%	19	22.6%	3	21.4%	37	18.5%	106	18.9%
병약자위문	23	11.3%	10	16.7%	11	13.1%	1	7.1%	20	10.0%	65	11.6%
재해구호활동	8	3.9%	2	3.3%	3	3.6%	1	7.1%	8	4.0%	22	3.9%
불우이웃돕기	45	22.2%	9	15.0%	13	15.5%	2	14.3%	23	11.5%	92	16.4%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32	15.8%	15	25.0%	12	14.3%	1	7.1%	29	14.5%	89	15.9%
공공기관 일손돕기	44	21.7%	9	15.0%	14	16.7%	3	21.4%	55	27.5%	125	22.3%
하급생 지도	83	40.9%	28	46.7%	31	36.9%	4	28.6%	70	35.0%	216	38.5%
사회교육지도	45	22.2%	8	13.3%	26	31.0%	2	14.3%	43	21.5%	124	22.1%
교통안전지도	16	7.9%	1	1.7%	7	8.3%	0	0.0%	21	10.5%	45	8.0%
고아원 위문	43	21.2%	18	30.0%	17	20.2%	1	7.1%	45	22.5%	124	22.1%
양로원 위문	22	10.8%	5	8.3%	7	8.3%	1	7.1%	15	7.5%	50	8.9%
학교주변정화활동	13	6.4%	6	10.0%	8	9.5%	0	0.0%	19	9.5%	46	8.2%
환경보전캠페인	24	11.8%	12	20.0%	14	16.7%	2	14.3%	42	21.0%	94	16.8%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22	10.8%	4	6.7%	7	8.3%	1	7.1%	31	15.5%	65	11.6%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28	13.8%	13	21.7%	11	13.1%	3	21.4%	21	10.5%	76	13.5%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26	12.8%	12	20.0%	16	19.0%	7	50.0%	40	20.0%	101	18.0%
깨끗한 환경만들기	32	15.8%	8	13.3%	14	16.7%	2	14.3%	30	15.0%	86	15.3%
지역실태조사활동	8	3.9%	0	0.0%	3	3.6%	2	14.3%	9	4.5%	22	3.9%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33	16.3%	6	10.0%	6	7.1%	0	0.0%	15	7.5%	60	10.7%
자매부대 위문	25	12.3%	8	13.3%	15	17.9%	0	0.0%	21	10.5%	69	12.3%
동급생 지도	29	14.3%	8	13.3%	8	9.5%	3	21.4%	21	10.5%	69	12.3%
지역사회 가꾸기	16	7.9%	2	3.3%	6	7.1%	2	14.3%	13	6.5%	39	7.0%
지역홍보활동	21	10.3%	6	10.0%	9	10.7%	2	14.3%	20	10.0%	58	10.3%
지역행사지원활동	11	5.4%	1	1.7%	4	4.8%	1	7.1%	14	7.0%	31	5.5%
농어촌 일손돕기	44	21.7%	10	16.7%	9	10.7%	6	42.9%	49	24.5%	118	21.0%
전체	203	100.0%	60	100.0%	84	100.0%	14	100.0%	200	100.0%	561	100.0%

〈부록표 I-3-6〉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성격별)

	성격별								전체	
	온순한편		활달한편		모험적인편		내성적인편			
관공서일손돕기	32	31.1%	97	34.6%	10	21.3%	40	30.8%	179	32.0%
공공질서확립캠페인	13	12.6%	20	7.1%	4	8.5%	10	7.7%	47	8.4%
교통안전캠페인	14	13.6%	29	10.4%	8	17.0%	14	10.8%	65	11.6%
헌혈 및 골수 기증	18	17.5%	51	18.2%	9	19.1%	17	13.1%	95	17.0%
자연보호	30	29.1%	37	13.2%	7	14.9%	31	23.8%	105	18.8%
문화재보호	23	22.3%	41	14.6%	9	19.1%	16	12.3%	89	15.9%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13	12.6%	42	15.0%	8	17.0%	28	21.5%	91	16.3%
기업체일손돕기	22	21.4%	62	22.1%	15	31.9%	30	23.1%	129	23.0%
장애인위문	17	16.5%	56	20.0%	7	14.9%	26	20.0%	106	18.9%
병약자위문	8	7.8%	37	13.2%	5	10.6%	15	11.5%	65	11.6%
재해구호활동	4	3.9%	8	2.9%	4	8.5%	6	4.6%	22	3.9%
불우이웃돕기	19	18.4%	45	16.1%	7	14.9%	21	16.2%	92	16.4%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13	12.6%	52	18.6%	10	21.3%	12	9.2%	87	15.5%
공공기관 일손돕기	23	22.3%	69	24.6%	3	6.4%	30	23.1%	125	22.3%
하급생 지도	35	34.0%	123	43.9%	16	34.0%	43	33.1%	217	38.8%
사회교육지도	18	17.5%	64	22.9%	8	38.3%	24	18.5%	124	22.1%
교통안전지도	9	8.7%	26	9.3%	4	8.5%	6	4.6%	45	8.0%
고아원 위문	19	18.4%	61	21.8%	8	17.0%	34	26.2%	122	21.8%
양로원 위문	5	4.9%	32	11.4%	3	6.4%	11	8.5%	51	9.1%
학교주변정화활동	8	7.8%	24	8.6%	5	10.6%	9	6.9%	46	8.2%
환경보전캠페인	24	23.3%	39	13.9%	6	12.8%	24	18.5%	93	16.6%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16	15.5%	26	9.3%	5	10.6%	18	13.8%	65	11.6%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15	14.6%	34	12.1%	2	4.3%	25	19.2%	76	13.6%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13	12.6%	50	17.9%	9	19.1%	29	22.3%	101	18.0%
깨끗한 환경만들기	19	18.4%	40	14.3%	8	17.0%	19	14.6%	86	15.4%
지역실태조사활동	2	1.9%	10	3.6%	1	2.1%	9	6.9%	22	3.9%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7	6.8%	32	11.4%	4	8.5%	16	12.3%	59	10.5%
자매부대 위문	12	11.7%	41	14.6%	5	10.6%	11	8.5%	69	12.3%
동급생 지도	12	11.7%	32	11.4%	8	17.0%	18	13.8%	70	12.5%
지역사회 가꾸기	7	6.8%	22	7.9%	2	4.3%	8	6.2%	39	7.0%
지역홍보활동	13	12.6%	29	10.4%	3	6.4%	13	10.0%	58	10.4%
지역행사지원활동	7	6.8%	11	3.9%	4	8.5%	9	6.9%	31	5.5%
농어촌 일손돕기	24	23.3%	55	19.6%	15	31.9%	24	18.5%	118	21.1%
전체	103	100.0%	280	100.0%	47	100.0%	130	100.0%	560	100.0%

〈부록표 I-3-7〉 가장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경험)

	자원봉사경험										전체
	현재활동		과거활동		희망함		생각없음				
관공서일손돕기	39	47.0%	48	29.1%	78	30.7%	17	26.5%	182	32.2%	
공공질서확립캠페인	5	6.0%	11	6.7%	27	10.6%	6	9.4%	49	8.7%	
교통안전캠페인	14	16.9%	19	11.5%	20	7.9%	12	18.8%	65	11.5%	
헌혈 및 골수 기증	10	12.0%	27	16.4%	51	20.1%	8	12.5%	96	17.0%	
자연보호	16	19.3%	36	21.8%	45	17.7%	9	14.1%	106	18.7%	
문화재보호	17	20.5%	21	12.7%	40	15.7%	11	17.2%	89	15.7%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17	20.5%	24	14.5%	38	15.0%	12	18.8%	91	16.1%	
기업체일손돕기	20	24.1%	37	22.4%	58	22.8%	16	25.0%	131	23.1%	
장애인위문	14	16.9%	23	13.9%	67	26.4%	4	6.3%	108	19.1%	
병약자위문	4	4.8%	25	15.2%	31	12.2%	5	7.8%	65	11.5%	
재해구호활동	1	1.2%	7	4.2%	12	4.7%	3	4.7%	23	4.1%	
불우이웃돕기	15	18.1%	23	13.9%	52	20.5%	3	4.7%	93	16.4%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6	7.2%	27	16.4%	48	18.9%	8	12.5%	89	15.7%	
공공기관 일손돕기	19	22.9%	42	25.5%	45	17.7%	20	31.3%	126	22.3%	
하급생 지도	37	44.6%	64	38.8%	96	37.8%	20	31.3%	217	38.3%	
사회교육지도	14	16.9%	38	23.0%	62	24.4%	12	18.8%	126	22.3%	
교통안전지도	8	9.6%	18	10.9%	11	4.3%	9	14.1%	46	8.1%	
고아원 위문	11	13.3%	35	21.2%	73	28.7%	6	9.4%	125	22.1%	
양로원 위문	8	9.6%	10	6.1%	30	11.8%	4	6.3%	52	9.2%	
학교주변정화활동	12	14.5%	12	7.3%	14	5.5%	8	12.5%	46	8.1%	
환경보전캠페인	16	19.3%	25	15.2%	39	15.4%	15	23.4%	95	16.8%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7	8.4%	18	10.9%	29	11.4%	12	18.8%	66	11.7%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9	10.8%	27	16.4%	30	11.8%	10	15.6%	76	13.4%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10	12.0%	26	15.8%	48	18.9%	17	26.6%	101	17.8%	
깨끗한 환경만들기	23	27.7%	27	16.4%	26	10.2%	11	17.2%	87	15.4%	
지역실태조사활동	0	0.0%	9	5.5%	11	4.3%	2	3.1%	22	3.9%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8	9.6%	20	12.1%	22	8.7%	10	15.6%	60	10.6%	
자매부대 위문	10	12.0%	26	15.8%	27	10.6%	6	9.4%	69	12.2%	
동급생 지도	7	8.4%	32	19.4%	26	10.2%	5	7.8%	70	12.4%	
지역사회 가꾸기	10	12.0%	14	8.5%	11	4.3%	4	6.3%	39	6.9%	
지역홍보활동	7	8.4%	13	7.9%	29	11.4%	9	14.1%	58	10.2%	
지역행사지원활동	2	2.4%	7	4.2%	16	6.3%	6	9.4%	31	5.5%	
농어촌 일손돕기	18	21.7%	34	20.6%	54	21.3%	14	21.9%	120	21.2%	
전체	83	100.0%	165	100.0%	254	100.0%	64	100.0%	566	100.0%	

〈부록표 II-1〉 사회인구적 배경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학력별					
중졸이하	16	14.2%	97	85.8%	113
고졸	84	30.4%	192	69.6%	276
대졸이상	51	35.4%	93	64.6%	144
연령별					
30대	12	8.6%	128	91.4%	140
40대	122	34.5%	232	65.5%	354
50대 이상	16	45.7%	19	54.3%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8	25.0%	24	75.0%	32
보통임	109	26.3%	305	73.7%	414
어려운편	33	37.9%	54	62.1%	87
종교별					
기독교	36	22.5%	124	77.5%	160
가톨릭	17	30.4%	39	69.6%	56
불교	36	23.5%	117	76.5%	153
기타	4	26.7%	11	73.3%	15
없습	58	38.4%	93	61.6%	151
진보-보수					
보수	75	26.9%	204	73.1%	279
진보	63	29.4%	151	70.6%	214
모름	10	27.0%	27	73.0%	37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9	24.3%	28	75.7%	37
과거활동	57	39.0%	89	61.0%	146
희망함	75	25.2%	223	74.8%	298
생각없습	10	18.9%	43	81.1%	53
전체	151	28.3%	383	71.7%	534

〈부록표 II-1-1〉 자원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39	26.2%	6	4.0%	104	69.8%	149	$\chi^2=6.77$ p=.033
여자	119	31.6%	35	9.3%	223	59.2%	377	
학력별								
중졸이하	35	31.8%	15	13.6%	60	54.5%	110	$\chi^2=11.18$ p=.024
고졸	89	32.8%	17	6.3%	165	60.9%	271	
대졸이상	34	23.8%	9	6.3%	100	69.9%	143	
연령별								
30대	45	32.6%	9	6.5%	84	60.9%	138	$\chi^2=4.87$ p=.300
40대	101	29.1%	27	7.8%	219	63.1%	347	
50대 이상	10	28.6%	6	17.1%	19	54.3%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	18.8%	3	9.4%	23	71.9%	32	$\chi^2=5.39$ p=.248
보통임	123	29.9%	36	8.8%	252	61.3%	411	
어려운편	30	36.6%	3	3.7%	49	59.8%	82	
종교별								
기독교	45	28.8%	11	7.1%	100	64.1%	156	$\chi^2=10.14$ p=.254
가톨릭	12	21.4%	4	7.1%	40	71.4%	56	
불교	51	33.6%	8	5.3%	93	61.2%	152	
기타	7	46.7%	2	13.3%	6	40.0%	15	
없습	44	29.5%	17	11.4%	88	59.1%	149	
진보-보수								
보수	80	29.3%	20	7.3%	173	63.4%	273	$\chi^2=3.21$ p=.523
진보	65	30.5%	16	7.5%	132	62.0%	213	
모름	13	36.1%	5	13.9%	18	50.0%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0	27.0%	2	5.4%	25	67.6%	37	$\chi^2=14.831$ p=.021
과거활동	42	28.8%	6	4.1%	98	67.1%	146	
희망함	85	28.8%	27	9.2%	183	62.0%	295	
생각없습	22	43.1%	8	15.7%	21	41.2%	51	
전체	159	30.1%	43	8.1%	327	61.8%	529	

〈부록표 Ⅱ-1-2〉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해아려 주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41	27.5%	13	8.7%	95	63.8%	149	$\chi^2=2.98$
여자	91	24.2%	53	14.1%	232	61.7%	376	p=.224
학력별								
중졸이하	33	30.6%	23	21.3%	52	48.1%	108	$\chi^2=17.54$
고졸	64	23.7%	33	12.2%	173	64.1%	270	p=.001
대졸이상	35	24.3%	9	6.3%	100	69.4%	144	
연령별								
30대	36	26.1%	12	8.7%	90	65.2%	138	$\chi^2=5.33$
40대	86	24.9%	44	12.8%	215	62.3%	345	p=.254
50대 이상	8	22.9%	8	22.9%	19	54.3%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9	28.1%	5	15.6%	18	56.3%	32	$\chi^2=3.44$
보통임	107	26.1%	47	11.5%	256	62.4%	410	p=.486
어려운편	16	19.8%	14	17.3%	51	63.0%	81	
종교별								
기독교	37	23.7%	15	9.6%	104	66.7%	156	$\chi^2=9.00$
불교	13	23.6%	3	5.5%	39	70.9%	55	p=.342
기타	38	25.2%	24	15.9%	89	58.9%	151	
없슴	6	40.0%	2	13.3%	7	46.7%	15	
진보-보수	39	26.2%	22	14.8%	88	59.1%	149	
보수	69	25.4%	36	13.2%	167	61.4%	272	$\chi^2=2.03$
진보	52	24.4%	27	12.7%	134	62.9%	213	p=.729
모름	11	30.6%	2	5.6%	23	63.9%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0	27.8%	4	11.1%	22	61.1%	36	$\chi^2=7.21$
과거활동	34	23.4%	17	11.7%	94	64.8%	145	p=.301
희망함	75	25.4%	34	11.5%	186	63.1%	295	
생각없슴	14	27.5%	12	23.5%	25	49.0%	51	
전체	133	25.2%	67	12.7%	327	62.0%	527	

〈부록표 Ⅱ-1-3〉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일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61	41.2%	34	23.0%	53	35.8%	148	$\chi^2=3.78$
여자	156	41.5%	113	30.1%	107	28.5%	376	p=.151
학력별								
중졸이하	33	30.6%	35	32.4%	40	37.0%	108	$\chi^2=12.25$
고졸	107	39.8%	75	27.9%	87	32.3%	269	p=.015
대졸이상	74	51.4%	37	25.7%	33	22.9%	144	
연령별								
30대	62	45.3%	44	32.1%	31	22.6%	137	$\chi^2=5.60$
40대	137	39.6%	93	26.9%	116	33.5%	346	p=.230
50대 이상	14	41.2%	9	26.5%	11	32.4%	3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8	56.3%	7	21.9%	7	21.9%	32	$\chi^2=7.58$
보통임	171	41.7%	119	29.0%	120	29.3%	410	p=.108
어려운편	28	35.0%	19	23.8%	33	41.3%	80	
종교별								
기독교	59	38.1%	51	32.9%	45	29.0%	155	$\chi^2=8.42$
불교	30	53.6%	9	16.1%	17	30.4%	56	p=.392
기타	63	42.0%	44	29.3%	43	28.7%	150	
없슴	7	46.7%	3	20.0%	5	33.3%	15	
진보-보수	58	38.9%	40	26.8%	51	34.2%	149	
보수	120	44.1%	74	27.2%	78	28.7%	272	$\chi^2=4.86$
진보	82	38.7%	64	30.2%	66	31.1%	212	p=.301
모름	12	33.3%	8	22.2%	16	44.4%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3	63.9%	7	19.4%	6	16.7%	36	$\chi^2=30.955$
과거활동	57	39.6%	41	28.5%	46	31.9%	144	p=.000
희망함	130	44.1%	86	29.2%	79	26.8%	295	
생각없슴	7	13.7%	15	29.4%	29	56.9%	51	
전체	217	41.3%	149	28.3%	160	30.4%	526	

〈부록표 II-1-4〉 자원봉사는 겹치레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7	4.7%	20	13.5%	121	81.8%	148	$\chi^2=1.61$
여자	20	5.3%	67	17.9%	288	76.8%	375	$p=.445$
학력별								
중졸이하	11	10.5%	25	23.8%	69	65.7%	105	$\chi^2=15.30$
고졸	11	4.1%	45	16.6%	215	79.3%	271	$p=.004$
대졸이상	5	3.5%	17	11.8%	122	84.7%	144	
연령별								
30대	7	5.1%	21	15.3%	109	79.6%	137	$\chi^2=.699$
40대	18	5.2%	60	17.4%	266	77.3%	344	$p=.951$
50대 이상	1	2.9%	6	17.1%	28	80.0%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	9.4%	5	15.6%	24	75.0%	32	$\chi^2=9.39$
보통임	15	3.7%	67	16.4%	326	79.9%	408	$p=.052$
어려운편	9	11.1%	15	18.5%	57	70.4%	81	
종교별								
기독교	8	5.2%	29	18.7%	118	76.1%	155	$\chi^2=6.39$
불교	2	3.6%	5	8.9%	49	87.5%	56	$p=.603$
기타	9	6.0%	26	17.3%	115	76.7%	150	
없습	2	13.3%	3	20.0%	10	66.7%	15	
진보-보수	6	4.1%	24	16.2%	118	79.7%	148	
보수	9	3.3%	49	18.1%	213	78.6%	271	$\chi^2=5.28$
진보	15	7.1%	32	15.1%	165	77.8%	212	$p=.259$
모름	3	8.3%	4	11.1%	29	80.6%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0	0.0%	6	16.7%	30	83.3%	36	$\chi^2=16.871$
과거활동	7	4.9%	16	11.2%	120	83.9%	143	$p=.009$
희망함	17	5.8%	49	16.6%	229	77.6%	295	
생각없습	4	7.8%	17	33.3%	30	58.8%	51	
전체	28	5.3%	88	16.8%	409	77.9%	525	

〈부록표 II-1-5〉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21	14.2%	50	33.8%	77	52.0%	148	$\chi^2=5.95$
여자	59	15.8%	163	43.7%	151	40.5%	373	$p=.051$
학력별								
중졸이하	27	25.2%	39	36.4%	41	38.3%	107	$\chi^2=14.62$
고졸	42	15.7%	107	40.1%	118	44.2%	267	$p=.005$
대졸이상	11	7.6%	64	44.4%	69	47.9%	144	
연령별								
30대	29	21.0%	55	39.9%	54	39.1%	138	$\chi^2=17.18$
40대	49	14.4%	136	39.9%	156	45.7%	341	$p=.126$
50대 이상	2	5.7%	18	51.4%	15	42.9%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	12.5%	13	40.6%	15	46.9%	32	$\chi^2=6.63$
보통임	57	14.0%	175	43.1%	174	42.9%	406	$p=.156$
어려운편	18	22.2%	24	29.6%	39	48.1%	81	
종교별								
기독교	26	27.2%	64	42.4%	61	40.4%	151	$\chi^2=9.28$
불교	7	12.5%	19	33.9%	30	53.6%	56	$p=.318$
기타	18	11.9%	57	37.7%	76	50.3%	151	
없습	3	20.0%	8	53.3%	4	26.7%	15	
진보-보수	26	17.4%	65	43.6%	58	38.9%	149	
보수	40	14.8%	116	42.8%	115	42.4%	271	$\chi^2=4.48$
진보	36	17.1%	74	35.2%	100	47.6%	210	$p=.344$
모름	4	11.1%	18	50.0%	14	38.9%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5	13.9%	15	41.7%	16	44.4%	36	$\chi^2=4.81$
과거활동	17	12.0%	54	38.0%	71	50.0%	142	$p=.567$
희망함	52	17.7%	122	41.5%	120	40.8%	294	
생각없습	6	11.8%	22	43.1%	23	45.1%	51	
전체	80	15.3%	213	40.7%	230	44.0%	523	

〈부록표 Ⅱ-1-6〉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55	37.4%	27	18.4%	65	44.2%	147	$\chi^2=3.51$
여자	125	33.3%	98	26.1%	152	40.5%	375	p=.172
학력별								
중졸이하	38	35.2%	34	31.5%	36	33.3%	108	$\chi^2=6.82$
고졸	97	36.1%	56	20.8%	116	43.1%	269	p=.145
대졸이상	45	31.7%	32	22.5%	65	45.8%	142	
연령별								
30대	54	39.4%	30	21.9%	53	38.7%	137	$\chi^2=5.59$
40대	118	34.3%	78	22.7%	148	43.0%	344	p=.231
50대 이상	7	20.6%	12	35.3%	15	44.1%	3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1	34.4%	6	18.8%	15	46.9%	32	$\chi^2=4.49$
보통임	142	34.9%	103	25.3%	162	39.8%	407	p=.343
어려운편	28	34.6%	13	16.0%	40	49.4%	81	
종교별								
기독교	53	34.6%	32	20.9%	68	44.4%	153	$\chi^2=7.99$
불교	15	26.8%	10	17.9%	31	55.4%	56	p=.434
기타	57	38.0%	37	24.7%	56	37.3%	150	
없습	6	40.0%	4	26.7%	5	33.3%	15	
진보-보수	50	33.6%	41	27.5%	58	38.9%	149	
보수	106	39.3%	57	21.1%	107	39.6%	270	$\chi^2=6.92$
진보	63	29.7%	52	24.5%	97	45.8%	212	p=.140
모름	11	30.6%	12	33.3%	13	36.1%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5	42.9%	4	11.4%	16	45.7%	35	$\chi^2=10.06$
과거활동	47	32.6%	32	22.2%	65	45.1%	144	p=.122
희망함	108	36.6%	72	24.4%	115	39.0%	295	
생각없습	11	22.0%	18	36.0%	21	42.0%	50	
전체	181	34.5%	126	24.0%	217	41.4%	524	

〈부록표 Ⅱ-1-7〉 자원봉사는 쓸데 없는 참견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7	4.7%	11	7.4%	130	87.8%	148	$\chi^2=4.46$
여자	9	2.4%	47	12.5%	319	85.1%	375	p=.107
학력별								
중졸이하	3	2.8%	18	16.8%	86	80.4%	107	$\chi^2=4.98$
고졸	8	3.0%	24	8.9%	238	88.1%	270	p=.288
대졸이상	5	3.5%	16	11.2%	122	85.3%	143	
연령별								
30대	2	1.4%	11	8.0%	125	90.6%	138	$\chi^2=7.72$
40대	14	4.1%	45	13.1%	284	82.8%	343	p=.102
50대 이상	0	0.0%	2	5.7%	33	94.3%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	6.3%	3	9.4%	27	84.4%	32	$\chi^2=4.04$
보통임	11	2.7%	41	10.0%	356	87.3%	408	p=.400
어려운편	3	3.7%	13	16.0%	65	80.2%	81	
종교별								
기독교	5	3.2%	15	9.7%	135	87.1%	155	$\chi^2=13.21$
불교	4	7.1%	1	1.8%	51	91.1%	56	p=.104
기타	2	1.3%	17	11.3%	131	87.3%	150	
없습	1	6.7%	2	13.3%	12	80.0%	15	
진보-보수	4	2.7%	23	15.5%	121	81.8%	148	
보수	6	2.2%	27	10.0%	238	87.8%	271	$\chi^2=1.73$
진보	8	3.8%	26	12.2%	179	84.0%	213	p=.784
모름	1	2.9%	4	11.4%	30	85.7%	35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	2.8%	3	8.3%	32	88.9%	36	$\chi^2=19.222$
과거활동	8	5.5%	12	8.3%	125	86.2%	145	p=.003
희망함	7	2.4%	31	10.6%	255	87.0%	293	
생각없습	0	0.0%	14	27.5%	37	72.5%	51	
전체	16	3.0%	60	11.4%	449	85.5%	525	

〈부록표 II-1-8〉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44	29.7%	33	22.3%	71	48.0%	148	$\chi^2=7.63$ p=.021
여자	129	34.4%	114	30.4%	132	35.2%	375	
학력별								
중졸이하	43	39.8%	35	32.4%	30	27.8%	108	$\chi^2=8.44$ p=.076
고졸	79	29.5%	76	28.4%	113	42.2%	268	
대졸이상	50	34.7%	35	24.3%	59	41.0%	144	
연령별								
30대	45	32.6%	35	25.4%	58	42.0%	138	$\chi^2=1.26$ p=.866
40대	114	33.2%	100	29.2%	129	37.6%	343	
50대 이상	13	37.1%	9	25.7%	13	37.1%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1	34.4%	9	28.1%	12	37.5%	32	$\chi^2=.252$ p=.992
보통인편	135	33.1%	112	27.5%	161	39.5%	408	
어려운편	27	33.3%	24	29.6%	30	37.0%	81	
종교별								
기독교	49	31.4%	46	39.5%	61	39.1%	156	$\chi^2=2.68$ p=.952
불교	22	39.3%	12	21.4%	22	39.3%	56	
기타	50	33.1%	40	26.5%	61	40.4%	151	
없음	6	40.0%	4	26.7%	5	33.3%	15	
진보-보수								
보수	84	30.9%	77	28.3%	111	40.8%	272	$\chi^2=2.68$ p=.612
진보	76	36.0%	56	26.5%	79	37.4%	211	
모름	11	30.6%	13	36.1%	12	33.3%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3	36.1%	5	13.9%	18	50.0%	36	$\chi^2=11.40$ p=.076
과거활동	45	30.8%	35	24.0%	66	45.2%	146	
희망없음	101	34.4%	87	29.6%	106	36.1%	294	
생각없음	14	28.6%	20	40.8%	15	30.6%	49	
전체	173	33.0%	147	28.0%	205	39.0%	525	

〈부록표 II-1-9〉 자원봉사는 공부를 하게 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04	69.8%	27	18.1%	18	12.1%	149	$\chi^2=1.38$ p=.499
여자	243	64.8%	74	19.7%	58	15.5%	375	
학력별								
중졸이하	70	64.2%	21	19.3%	18	16.5%	109	$\chi^2=2.01$ p=.733
고졸	176	65.7%	50	18.7%	42	15.7%	268	
대졸이상	99	68.8%	29	20.1%	16	11.1%	144	
연령별								
30대	89	64.0%	29	20.9%	21	15.1%	139	$\chi^2=.470$ p=.976
40대	231	67.2%	64	18.6%	49	14.2%	344	
50대 이상	23	65.7%	7	20.0%	5	14.3%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9	59.4%	9	28.1%	4	12.5%	32	$\chi^2=4.17$ p=.382
보통인편	268	65.7%	76	18.6%	64	15.7%	408	
어려운편	60	73.2%	14	17.1%	8	9.8%	82	
종교별								
기독교	99	63.5%	34	21.8%	23	14.7%	156	$\chi^2=6.62$ p=.577
불교	38	66.7%	9	15.8%	10	17.5%	57	
기타	93	62.4%	32	21.5%	24	16.1%	149	
없음	11	84.6%	1	7.7%	1	7.7%	13	
진보-보수								
보수	188	69.1%	49	18.0%	35	12.9%	272	$\chi^2=7.100$ p=.130
진보	143	67.5%	38	17.9%	31	14.6%	212	
모름	17	47.2%	11	30.6%	8	22.2%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6	70.3%	7	18.9%	4	10.8%	37	$\chi^2=13.680$ p=.033
과거활동	96	66.7%	20	13.9%	28	19.4%	144	
희망없음	201	68.4%	58	19.7%	35	11.9%	294	
생각없음	25	49.0%	16	31.4%	10	19.6%	51	
전체	348	66.2%	101	19.2%	77	14.6%	526	

〈부록표 II-1-10〉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61	40.9%	29	19.5%	59	39.6%	149	$\chi^2=5.29$
여자	161	43.3%	99	26.6%	112	30.1%	372	$p=.071$
학력별								
중졸이하	40	37.7%	34	32.1%	32	30.2%	106	$\chi^2=13.39$
고졸이상	107	39.8%	58	21.6%	104	38.7%	269	$p=.009$
대졸이상	74	51.7%	34	23.8%	35	24.5%	143	
연령별								
30대	59	43.7%	27	20.0%	49	36.3%	135	$\chi^2=2.78$
40대	149	43.3%	86	25.0%	109	31.7%	344	$p=.593$
50대 이상	13	37.1%	11	31.4%	11	31.4%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8	56.3%	7	21.9%	7	21.9%	32	$\chi^2=7.09$
보통임	171	42.1%	106	26.1%	129	31.8%	406	$p=.130$
어려운편	33	40.7%	14	17.3%	34	42.0%	81	
종교별								
기독교	78	50.6%	30	19.5%	46	29.9%	154	$\chi^2=9.06$
가톨릭	20	36.4%	17	30.9%	18	32.7%	55	$p=.337$
불교	63	42.0%	35	23.3%	52	34.7%	150	
기타	8	53.3%	4	26.7%	3	20.0%	15	
없슴	55	37.2%	41	27.7%	52	35.1%	148	
진보-보수								
보수	122	44.9%	70	25.7%	80	29.4%	272	$\chi^2=3.80$
진보	83	39.7%	48	23.0%	78	37.3%	209	$p=.433$
모름	17	47.2%	9	25.0%	10	27.8%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26	72.2%	2	5.6%	8	22.2%	36	$\chi^2=23.91$
과거활동중	61	42.4%	29	20.1%	54	37.5%	144	$p=.000$
희망함	125	42.8%	80	27.4%	87	29.8%	292	
생각없슴	13	25.5%	16	31.4%	22	43.1%	51	
전체	225	43.0%	127	24.3%	171	32.7%	523	

〈부록표 II-1-11〉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83	55.7%	9	6.0%	57	38.3%	149	$\chi^2=7.81$
여자	221	58.3%	49	12.9%	109	28.8%	379	$p=.021$
학력별								
중졸이하	62	56.9%	14	12.8%	33	30.3%	109	$\chi^2=1.52$
고졸이상	152	55.9%	30	11.0%	90	33.1%	272	$p=.822$
대졸이상	88	61.1%	14	9.7%	42	29.2%	144	
연령별								
30대	75	54.3%	20	14.5%	43	31.2%	138	$\chi^2=3.37$
40대	206	59.2%	36	10.3%	106	30.5%	348	$p=.496$
50대 이상	20	57.1%	2	5.7%	13	37.1%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1	65.6%	5	15.6%	6	18.8%	32	$\chi^2=4.91$
보통임	242	58.7%	42	10.2%	128	31.1%	412	$p=.295$
어려운편	41	50.0%	11	13.4%	30	36.6%	82	
종교별								
기독교	91	58.0%	24	15.3%	42	26.8%	157	$\chi^2=10.07$
가톨릭	35	61.4%	4	7.0%	18	31.6%	57	$p=.259$
불교	91	60.3%	10	6.6%	50	33.1%	151	
기타	6	40.0%	2	13.3%	7	46.7%	15	
없슴	82	55.0%	18	12.1%	49	32.9%	149	
진보-보수								
보수	158	57.7%	35	12.8%	81	29.6%	274	$\chi^2=3.43$
진보	126	58.9%	18	8.4%	70	32.7%	214	$p=.488$
모름	18	50.0%	5	13.9%	13	36.1%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중	27	73.0%	1	2.7%	9	24.3%	37	$\chi^2=7.86$
과거활동중	83	57.2%	12	8.3%	50	34.5%	145	$p=.248$
희망함	166	56.1%	38	12.8%	92	31.1%	296	
생각없슴	29	55.8%	8	15.4%	15	28.8%	52	
전체	305	57.5%	59	11.1%	166	31.3%	530	

〈부록표 II-1-12〉 자원봉사는 무보수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27	85.2%	13	8.7%	9	6.0%	149	$\chi^2=3.95$
여자	291	77.6%	46	12.3%	38	10.1%	375	p=.138
학력별								
중졸이하	78	72.2%	19	17.6%	11	10.2%	108	$\chi^2=8.61$
고졸	216	80.3%	31	11.5%	22	8.2%	269	p=.007
대졸이상	122	84.7%	9	6.3%	13	9.0%	144	
연령별								
30대	106	76.8%	15	10.9%	17	12.3%	138	$\chi^2=4.85$
40대	280	81.4%	40	11.6%	24	7.0%	344	p=.303
50대 이상	29	82.9%	2	5.7%	4	11.4%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5	78.1%	4	12.5%	3	9.4%	32	$\chi^2=.223$
보통인편	327	80.0%	46	11.2%	36	8.8%	409	p=.994
어려운편	66	81.5%	8	9.9%	7	8.6%	81	
종교별								
기독교	118	76.6%	19	12.3%	17	11.0%	154	$\chi^2=8.24$
가톨릭	51	89.5%	5	8.8%	1	1.8%	57	p=.410
불교	118	78.7%	16	10.7%	16	10.7%	150	
기타	14	93.3%	1	6.7%	0	0%	15	
없음	119	79.9%	18	12.1%	12	8.1%	149	
진보-보수								
보수	219	80.5%	31	11.4%	22	8.1%	272	$\chi^2=2.80$
진보	171	80.7%	22	10.4%	19	9.0%	212	p=.590
모름	25	69.4%	6	16.7%	5	13.9%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9	78.4%	2	5.4%	6	16.2%	37	$\chi^2=5.07$
과거활동	118	81.9%	15	10.4%	11	7.6%	144	p=.534
희망함	235	79.7%	35	11.9%	25	8.5%	295	
생각없음	38	76.0%	8	16.0%	4	8.0%	50	
전체	420	79.8%	60	11.4%	46	8.7%	526	

〈부록표 II-1-13〉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0	6.7%	9	6.0%	130	87.2%	149	$\chi^2=1.26$
여자	21	5.6%	33	8.8%	322	85.6%	376	p=.532
학력별								
중졸이하	8	7.4%	14	13.0%	86	79.6%	108	$\chi^2=5.66$
고졸	15	5.6%	20	7.4%	235	87.0%	270	p=.225
대졸이상	8	5.6%	8	5.6%	128	88.9%	144	
연령별								
30대	11	8.0%	12	8.7%	115	83.3%	138	$\chi^2=3.46$
40대	20	5.8%	26	7.5%	299	86.7%	345	p=.483
50대 이상	0	0%	3	8.6%	32	91.4%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	12.5%	3	9.4%	25	78.1%	32	$\chi^2=6.14$
보통인편	19	4.6%	33	8.0%	358	87.3%	410	p=.188
어려운편	8	9.9%	6	7.4%	67	82.7%	81	
종교별								
기독교	12	7.7%	12	7.7%	131	84.5%	155	$\chi^2=6.20$
가톨릭	4	7.1%	4	7.1%	48	85.7%	56	p=.624
불교	9	6.0%	10	6.6%	132	87.4%	151	
기타	0	0%	3	20.0%	12	80.0%	15	
없음	6	4.0%	13	8.7%	130	87.2%	149	
진보-보수								
보수	16	5.9%	21	7.7%	235	86.4%	272	$\chi^2=4.55$
진보	12	5.6%	15	7.0%	186	87.3%	213	p=.335
모름	3	8.3%	6	16.7%	27	75.0%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	2.8%	4	11.1%	31	86.1%	36	$\chi^2=12.77$
과거활동	11	7.6%	12	8.3%	122	84.1%	145	p=.046
희망함	12	4.1%	20	6.8%	263	89.2%	295	
생각없음	7	13.7%	7	13.7%	37	72.5%	51	
전체	31	5.9%	43	8.2%	453	86.0%	527	

〈부록표 Ⅱ-1-14〉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36	91.9%	6	4.1%	6	4.1%	148	$\chi^2=4.46$
여자	326	86.9%	36	9.6%	13	3.5%	375	$p=.107$
학력별								
중졸이하	85	81.0%	19	18.1%	1	1.0%	105	$\chi^2=24.58$
고졸	240	88.6%	16	5.9%	15	5.5%	271	$p=.000$
대졸이상	135	93.8%	6	4.2%	3	2.1%	144	
연령별								
30대	122	87.8%	12	8.6%	5	3.6%	139	$\chi^2=2.46$
40대	305	88.9%	24	7.0%	14	4.1%	343	$p=.651$
50대 이상	31	88.6%	4	11.4%	0	0.0%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9	90.6%	2	6.3%	1	3.1%	32	$\chi^2=.199$
보통인편	360	88.2%	33	8.1%	15	3.7%	408	$p=.995$
어려운편	72	88.9%	6	7.4%	3	3.7%	81	
종교별								
기독교	132	85.2%	12	7.7%	11	7.1%	155	$\chi^2=12.50$
가톨릭	52	92.9%	3	5.4%	1	1.8%	56	$p=.130$
불교	135	90.0%	10	6.7%	5	3.3%	150	
기타	15	100.0%	0	0.0%	0	0.0%	15	
없슴	130	87.8%	16	10.8%	2	1.4%	148	
진보-보수								
보수	245	90.1%	21	7.7%	6	2.2%	272	$\chi^2=6.07$
진보	183	86.3%	19	9.0%	10	4.7%	212	$p=.193$
모름	32	88.9%	1	2.8%	3	8.3%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32	88.9%	2	5.6%	2	5.6%	36	$\chi^2=29.89$
과거활동	131	90.3%	5	3.4%	9	6.2%	145	$p=.000$
희망함	264	90.1%	22	7.5%	7	2.4%	293	
생각없슴	37	72.5%	13	25.5%	1	2.0%	51	
전체	464	88.4%	42	8.0%	19	3.6%	525	

〈부록표 Ⅱ-1-15〉 자원봉사는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29	86.6%	14	9.4%	6	4.0%	149	$\chi^2=2.98$
여자	306	80.3%	49	12.9%	26	6.8%	381	$p=.225$
학력별								
중졸이하	89	80.2%	14	12.6%	8	7.2%	111	$\chi^2=4.93$
고졸	218	80.1%	34	12.5%	20	7.4%	272	$p=.294$
대졸이상	126	87.5%	14	9.7%	4	2.8%	144	
연령별								
30대	113	80.7%	18	12.9%	9	6.4%	140	$\chi^2=1.09$
40대	288	82.8%	39	11.2%	21	6.0%	348	$p=.895$
50대 이상	29	82.9%	5	14.3%	1	2.9%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8	87.5%	3	9.4%	1	3.1%	32	$\chi^2=2.46$
보통인편	337	81.8%	51	12.4%	24	5.8%	412	$p=.650$
어려운편	70	83.3%	7	8.3%	7	8.3%	84	
종교별								
기독교	132	83.5%	16	10.1%	10	6.3%	158	$\chi^2=8.74$
가톨릭	51	89.5%	5	8.8%	1	1.8%	57	$p=.364$
불교	115	76.2%	22	14.6%	14	9.3%	151	
기타	13	86.7%	1	6.7%	1	6.7%	15	
없슴	126	84.0%	18	12.0%	6	4.0%	150	
진보-보수								
보수	233	84.1%	32	11.6%	12	4.3%	277	$\chi^2=3.40$
진보	171	80.3%	25	11.7%	17	8.0%	213	$p=.491$
모름	28	77.8%	5	13.9%	3	8.3%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35	92.1%	1	2.6%	2	5.3%	38	$\chi^2=17.958$
과거활동	121	82.9%	16	11.0%	9	6.2%	146	$p=.006$
희망함	249	83.8%	32	10.8%	16	5.4%	297	
생각없슴	32	62.7%	14	27.5%	5	9.8%	51	
전체	437	82.1%	63	11.8%	32	6.0%	532	

〈부록표 II-2-1〉 당신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 활동중	과거 활동경험	기회되면 원함	별생각없음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9 6.0%	57 37.7%	75 49.7%	10 6.5%	151	$\chi^2=12.36$
여자	28 7.3%	89 23.2%	223 58.2%	43 11.2%	383	p=.006
학력별						
중졸이하	7 6.1%	26 22.8%	62 54.4%	19 16.7%	114	$\chi^2=12.82$
고졸	18 6.5%	73 26.4%	157 56.9%	28 10.1%	276	p=.046
대졸이상	12 8.4%	46 32.2%	79 55.2%	6 4.2%	143	
연령별						
30대	9 6.4%	36 25.7%	86 61.4%	9 6.4%	140	$\chi^2=12.68$
40대	22 6.2%	94 26.6%	197 55.6%	41 11.6%	354	p=.048
50대이상	6 17.1%	13 37.1%	13 37.1%	33 8.6%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 12.5%	7 21.9%	19 59.4%	2 6.3%	32	$\chi^2=4.96$
보통임	29 7.0%	112 27.0%	235 56.6%	39 9.4%	415	p=.548
어려운편	5 5.7%	27 31.0%	43 49.4%	12 13.8%	87	
종교별						
기독교	14 8.6%	47 29.0%	85 52.5%	16 9.9%	162	$\chi^2=38.43$
가톨릭	6 10.7%	29 51.8%	20 35.7%	1 1.8%	56	p=.000
불교	8 5.2%	44 28.8%	82 53.6%	19 12.4%	153	
기타	1 6.7%	5 33.3%	8 53.3%	1 6.7%	15	
없음	9 6.0%	22 14.6%	104 68.9%	16 10.6%	151	
진보-보수						
보수	23 8.2%	77 27.6%	154 55.2%	25 9.0%	279	$\chi^2=2.67$
진보	14 6.5%	59 27.4%	118 54.9%	24 11.2%	215	p=.848
모름	1 2.7%	9 24.3%	23 62.2%	4 10.8%	37	
전체	38 7.2%	145 27.3%	295 55.6%	53 10.0%	531	

〈부록표 II-2-2〉 당신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일반교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성적/취업반영을 위해		근린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전체		통계치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6	10.9%	60	40.8%	16	10.9%	1	0.7%	5	3.4%	12	8.2%	3	2.0%	34	23.1%	147	14.7%	$\chi^2=15.95$
여자		13	3.4%	140	36.9%	43	11.3%	4	1.1%	14	3.7%	57	15.0%	13	3.4%	95	25.1%	379	37.9%	p=.025
학력별																				
중졸이하		5	4.4%	32	28.3%	4	3.5%	3	2.7%	8	7.1%	16	14.2%	6	5.3%	39	34.5%	113	11.3%	$\chi^2=39.17$
고졸		17	6.3%	116	43.0%	30	11.1%	1	0.4%	7	2.6%	28	10.4%	8	3.0%	63	23.3%	270	27.0%	p=.000
대졸이상		7	4.9%	51	35.9%	25	17.6%	1	0.7%	4	2.8%	25	17.6%	2	1.4%	27	19.0%	142	14.2%	
연령별																				
30대		5	3.6%	49	35.5%	17	12.3%	0	0.0%	7	5.1%	19	13.8%	3	2.2%	38	27.5%	138	13.8%	$\chi^2=15.29$
40대		23	6.6%	130	37.2%	40	11.5%	5	1.4%	10	2.9%	46	13.2%	12	3.4%	83	23.8%	349	34.9%	p=.358
50대이상		1	2.9%	21	60.0%	2	5.7%	0	0.0%	2	5.7%	3	8.6%	1	2.9%	5	14.3%	35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0	0.0%	6	18.8%	6	18.8%	0	0.0%	1	3.1%	10	31.3%	0	0.0%	9	28.1%	32	3.2%	$\chi^2=25.50$
보통임		21	5.1%	161	39.3%	49	12.0%	3	0.7%	15	3.7%	51	12.4%	14	3.4%	96	23.4%	410	41.0%	p=.029
어려운편		7	8.3%	35	41.7%	4	4.8%	2	2.4%	2	2.4%	8	9.5%	2	2.4%	24	28.6%	84	8.4%	
종교별																				
기독교		6	3.7%	55	34.2%	13	8.1%	1	0.6%	8	5.0%	39	24.2%	7	4.3%	32	19.9%	161	16.1%	$\chi^2=77.98$
가톨릭		0	0.0%	14	24.6%	10	17.5%	1	1.8%	1	1.8%	18	31.6%	0	0.0%	13	22.8%	57	5.7%	p=.000
불교		11	7.3%	61	40.4%	17	11.3%	3	2.0%	7	4.6%	6	4.0%	5	3.3%	41	27.2%	151	15.1%	
기타		1	6.7%	7	46.7%	3	20.0%	0	0.0%	0	0.0%	1	6.7%	0	0.0%	3	20.0%	15	1.5%	
없음		11	7.6%	65	44.8%	16	11.0%	1	0.7%	3	2.1%	5	3.4%	4	2.8%	40	27.8%	145	14.5%	
정보-보수																				
보수		20	7.3%	108	39.4%	33	12.0%	1	0.4%	10	3.6%	37	13.5%	6	2.2%	59	21.5%	274	27.4%	$\chi^2=27.20$
진보		7	3.3%	84	39.4%	19	8.9%	5	2.3%	9	4.2%	28	13.1%	8	3.8%	53	24.9%	213	21.3%	p=.018
모름		2	5.6%	6	16.7%	6	16.7%	0	0.0%	0	0.0%	3	8.3%	2	5.6%	17	47.2%	36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	2.6%	16	42.1%	2	5.3%	0	0.0%	0	0.0%	12	31.6%	1	2.6%	6	15.8%	38	3.8%	$\chi^2=48.73$
과거활동		8	5.5%	56	38.4%	13	8.9%	2	1.4%	7	4.8%	30	20.5%	2	1.4%	28	19.2%	146	14.6%	p=.000
희망함		19	6.5%	113	38.6%	38	13.0%	3	1.0%	7	2.4%	23	7.8%	9	3.1%	81	27.6%	293	29.3%	
생각없음		1	1.9%	18	34.0%	6	11.3%	1	1.9%	5	9.4%	3	5.7%	4	7.5%	15	28.3%	53	5.3%	
전체		29	5.5%	203	38.3%	59	11.1%	6	1.1%	19	3.6%	68	12.8%	16	3.0%	130	24.5%	530	53.0%	

〈부록표 II-2-3〉 당신은 자원봉사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희생을		자신이 자원을		경제/시간		경험적으로		전체	통계치
	통해 불우이웃을		활용하여 사회에		여유가 있어		자신의 성장			
	돕는 것	기여하는 것	여가 활용하는 것	도모	도모					
성별	49	32.7%	79	52.7%	5	3.3%	17	11.3%	150	$\chi^2=1.87$ p=.598
	147	38.5%	179	46.9%	15	3.9%	41	10.7%	382	
	42	37.8%	43	38.7%	9	8.1%	17	15.3%	111	$\chi^2=13.50$ p=.035
	106	38.4%	134	48.6%	9	3.3%	27	9.8%	276	
향력별	47	32.6%	80	55.6%	3	2.1%	14	9.7%	144	
연령별	56	40.3%	60	43.2%	6	4.3%	17	12.2%	139	$\chi^2=2.89$ p=.822
	129	36.5%	173	49.0%	14	4.0%	37	10.5%	353	
	10	28.6%	20	57.1%	1	2.9%	4	11.4%	35	
	경제수준별	13	40.6%	16	50.0%	1	3.1%	2	6.3%	32
잘사는편	146	35.2%	204	49.2%	18	4.3%	47	11.3%	415	
보통임	36	42.4%	37	43.5%	3	3.5%	9	10.6%	85	
종교별	69	42.9%	70	43.5%	7	4.3%	15	9.3%	161	$\chi^2=11.66$ p=.473
	26	45.6%	25	43.9%	3	5.3%	3	5.3%	57	
	52	34.0%	78	51.0%	5	3.3%	18	11.8%	153	
	기타	4	26.7%	9	60.0%	0	0.0%	2	13.3%	15
없음	45	30.2%	77	51.7%	7	4.7%	20	13.4%	149	
정보-보수	95	34.2%	141	50.7%	8	2.9%	34	12.2%	278	$\chi^2=13.07$ p=.041
	82	38.3%	106	49.5%	10	4.7%	16	7.5%	214	
	진보	15	40.5%	11	29.7%	3	8.1%	8	21.6%	37
자원봉사경험	15	39.5%	16	42.1%	2	5.3%	5	13.2%	38	$\chi^2=7.14$ p=.622
	55	37.7%	72	49.3%	3	2.1%	16	11.0%	146	
	103	34.2%	153	50.8%	13	4.3%	32	10.6%	301	
	생각없음	23	44.2%	19	36.5%	4	7.7%	6	11.5%	52
전체	196	36.5%	260	48.4%	22	4.1%	59	11.0%	537	

〈부록표 Ⅱ-2-4〉 당신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32	94.3%	8	5.7%	140	$\chi^2=$.849
여자	326	91.3%	31	8.7%	357	p=.356
학력별						
중졸이하	82	86.3%	13	13.7%	95	$\chi^2=$ 5.548
고졸	242	93.8%	16	6.2%	258	p=.062
대졸이상	132	93.0%	10	7.0%	142	
연령별						
30대	118	92.2%	10	7.8%	128	$\chi^2=$.134
40대	306	92.2%	26	7.8%	332	p=.934
50대 이상	31	93.9%	2	6.1%	33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8	87.5%	4	12.5%	32	$\chi^2=$ 1.209
보통임	356	92.7%	28	7.3%	384	p=.546
어려운편	73	91.3%	7	8.8%	80	
종교별						
기독교	137	90.1%	15	9.9%	152	$\chi^2=$ 3.89
가톨릭	48	90.6%	5	9.4%	53	p=.420
불교	131	92.3%	11	7.7%	142	
기타	13	86.7%	2	13.3%	15	
없음	130	95.6%	6	4.4%	136	
진보-보수						
보수	241	93.1%	18	6.9%	259	$\chi^2=$ 4.46
진보	184	92.5%	15	7.5%	199	p=.107
모름	29	82.9%	6	17.1%	35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32	91.4%	3	8.6%	35	$\chi^2=$ 2.70
과거활동	126	91.3%	12	8.7%	138	p=.440
희망함	263	93.6%	18	6.4%	281	
생각없음	40	87.0%	6	13.0%	46	
전체	461	92.2%	39	7.8%	500	

〈부록표 II-2-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새로운 경험과 기술습득을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		사회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자각		전체	통계치		
성별		3	2.1%	72	50.7%	7	4.9%	9	6.3%	17	12.0%	34	23.9%	142	$\chi^2=8.91$
남자		21	5.9%	176	49.3%	14	3.9%	21	5.9%	66	18.5%	59	16.5%	357	p=.112
여자															
학력별		8	7.5%	40	37.7%	6	5.7%	10	9.4%	21	19.8%	21	19.8%	106	$\chi^2=24.80$
중졸이하		13	5.1%	126	49.0%	15	5.8%	18	7.0%	43	16.7%	42	16.3%	257	p=.006
고졸		3	2.2%	80	59.3%	1	.7%	2	1.5%	19	14.1%	30	22.2%	135	
대졸이상															
연령별		9	6.9%	63	48.1%	5	3.8%	10	7.6%	25	19.1%	19	14.5%	131	$\chi^2=6.86$
30대		12	3.6%	168	50.6%	16	4.8%	16	4.8%	52	15.7%	68	20.5%	332	p=.738
40대		2	6.1%	17	51.5%	1	3.0%	2	6.1%	6	18.2%	5	15.2%	33	
50대이상															
경제수준별		1	3.4%	19	65.5%	1	3.4%	1	3.4%	3	10.3%	4	13.8%	29	$\chi^2=11.34$
잘사는편		20	5.1%	193	49.5%	20	5.1%	22	5.6%	68	17.4%	67	17.2%	390	p=.331
보통임		4	5.0%	35	43.8%	1	1.3%	7	8.8%	11	13.8%	22	27.5%	80	
어려운편															
종교별		10	6.7%	80	53.7%	5	3.4%	6	4.0%	25	16.8%	23	15.4%	149	$\chi^2=26.38$
기독교		1	1.9%	32	60.4%	0	0.0%	2	3.8%	5	9.4%	13	24.5%	53	p=.153
가톨릭		8	5.7%	57	40.4%	9	6.4%	10	7.1%	24	17.0%	33	23.4%	141	
불교		1	7.7%	10	76.9%	1	7.7%	0	0.0%	1	7.7%	0	0.0%	13	
기타		5	3.4%	70	47.9%	7	4.8%	12	8.2%	28	19.2%	24	16.4%	146	
없음															
진보-보수		10	3.8%	137	52.3%	11	4.2%	16	6.1%	43	16.4%	45	17.2%	262	$\chi^2=3.81$
보수		13	6.4%	93	46.0%	9	4.5%	11	5.4%	34	16.8%	42	20.8%	202	p=.955
진보		2	6.3%	16	50.0%	1	3.1%	2	6.3%	6	18.8%	5	15.6%	32	
모름															
자원봉사경험		2	5.6%	18	50.0%	0	0.0%	1	2.8%	9	25.0%	6	16.7%	36	$\chi^2=22.81$
현재활동		4	3.0%	68	50.7%	10	7.5%	7	5.2%	15	11.2%	30	22.4%	134	p=.088
과거활동		14	4.9%	148	51.4%	11	3.8%	20	6.9%	48	16.7%	47	16.3%	288	
희망함		6	13.0%	16	34.8%	1	2.2%	3	6.5%	11	23.9%	9	19.6%	46	
생각없음															
전체		26	5.2%	250	49.6%	22	4.4%	31	6.2%	83	16.5%	92	18.3%	504	

〈부록표 II-2-6〉 당신의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까?

	학교나 담임선생님	청소년자원봉사 전문기관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청소년관련 전문소식지	지역신문이나 알림란	컴퓨터 통신	기타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85 56.7%	29 19.3%	20 13.3%	6 4.0%	4 2.7%	0 0.0%	6 4.0%	150	$\chi^2=2.83$
여자	192 50.7%	84 22.2%	60 15.8%	14 3.7%	14 3.7%	2 .5%	13 3.4%	379	p=.829
학력별									
중졸이하	59 51.8%	16 14.0%	18 15.8%	4 3.5%	4 3.5%	3 2.6%	10 8.8%	114	$\chi^2=33.49$
고졸	147 54.0%	55 20.2%	39 14.3%	14 5.1%	11 4.0%	0 0.0%	6 2.2%	272	p=.000
대졸이상	71 50.0%	41 28.9%	22 15.5%	2 1.4%	3 2.1%	0 0.0%	3 2.1%	142	
연령별									
30대	75 54.3%	28 20.3%	16 11.6%	5 3.6%	4 2.9%	1 0.7%	9 6.5%	138	$\chi^2=7.47$
40대	181 51.6%	76 21.7%	58 16.5%	13 3.7%	12 3.4%	2 0.6%	9 2.6%	351	p=.824
50대 이상	18 51.4%	7 20.0%	5 14.3%	2 5.7%	2 5.7%	0 0.0%	1 2.9%	35	
경제수준별									
월사근편	14 43.8%	7 21.9%	7 21.9%	0 0.0%	2 6.3%	0 0.0%	2 6.3%	32	$\chi^2=9.25$
보통임	219 53.4%	91 22.2%	57 13.9%	15 3.7%	14 3.4%	2 0.5%	12 2.9%	410	p=.681
어려운편	44 50.6%	15 17.2%	15 17.2%	5 5.7%	2 2.3%	1 1.1%	5 5.7%	87	
종교별									
기독교	78 48.4%	42 26.1%	26 16.1%	6 3.7%	4 2.5%	2 1.2%	3 1.9%	161	$\chi^2=26.29$
가톨릭	29 52.7%	12 21.8%	7 12.7%	3 5.5%	1 1.8%	0 0.0%	3 5.5%	55	p=.338
불교	81 53.6%	26 17.2%	25 16.6%	6 4.0%	7 4.6%	1 0.7%	5 3.3%	151	
기타	4 26.7%	3 20.0%	3 20.0%	1 6.7%	1 6.7%	0 0.0%	3 20.0%	15	
없음	86 57.3%	30 20.0%	20 13.3%	4 2.7%	5 3.3%	0 0.0%	5 3.3%	150	
진보-보수									
보수	150 54.7%	51 18.6%	50 18.2%	10 3.6%	6 2.2%	1 0.4%	6 2.2%	274	$\chi^2=30.30$
진보	106 49.3%	56 26.0%	25 11.6%	9 4.2%	11 5.1%	1 0.5%	7 3.3%	215	p=.002
모름	20 54.1%	5 13.5%	4 10.8%	1 2.7%	1 2.7%	0 0.0%	6 16.2%	37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3 36.1%	14 38.9%	4 11.1%	0 0.0%	0 0.0%	0 0.0%	5 13.9%	36	$\chi^2=32.75$
과거활동	77 53.1%	28 19.3%	21 14.5%	7 4.8%	8 5.5%	1 0.7%	3 2.1%	145	p=.017
희망함	162 54.2%	61 20.4%	47 15.7%	10 3.3%	6 2.0%	2 0.7%	11 3.7%	299	
생각없음	26 50.0%	10 19.2%	9 17.3%	3 5.8%	4 7.7%	0 0.0%	0 0.0%	52	
전체	278 52.3%	113 21.2%	81 15.2%	20 3.8%	18 3.4%	3 0.6%	19 3.6%	532	

〈부록표 II-2-7〉 당신의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공부시간이 바람		정보부족		기술이나 지식부족		활동장소를 모를		매력적인 활동이 없음		질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두려움		전체	통계치
성별	63	42.0%	26	17.3%	34	22.7%	15	10.0%	5	3.3%	7	4.7%	150	$\chi^2=7.44$
남자	164	43.2%	57	15.0%	61	16.1%	64	16.8%	9	2.4%	25	6.6%	380	p=.189
여성														
학력별	52	46.4%	11	9.8%	19	17.0%	16	14.3%	1	0.9%	13	11.6%	112	$\chi^2=16.97$
중졸이하	109	39.8%	45	16.4%	52	19.0%	42	15.3%	10	3.6%	16	5.8%	274	p=.074
고졸	65	45.5%	27	18.9%	24	16.8%	21	14.7%	3	2.1%	3	2.1%	143	
대졸이상														
연령별	56	40.6%	22	15.9%	17	12.3%	24	17.4%	6	4.3%	13	9.4%	138	$\chi^2=11.91$
30대	151	42.8%	55	15.6%	70	19.8%	51	14.4%	7	2.0%	19	5.4%	353	p=.290
40대	18	51.4%	6	17.1%	6	17.1%	4	11.4%	1	2.9%	0	0.0%	35	
50대 이상														
경제수준별	12	37.5%	7	21.9%	6	18.8%	4	12.5%	1	3.1%	2	6.3%	32	$\chi^2=5.16$
잘사는편	181	43.9%	64	15.5%	73	17.7%	63	15.3%	9	2.2%	22	5.3%	412	p=.880
보통임	35	40.7%	13	15.1%	15	17.4%	11	12.8%	4	4.7%	8	9.3%	86	
어려운편														
종교별	70	43.5%	26	16.1%	29	18.0%	24	14.9%	6	3.7%	6	3.7%	161	$\chi^2=11.70$
기독교	23	41.1%	7	12.5%	10	17.9%	10	17.9%	0	0.0%	6	10.7%	56	p=.925
가톨릭	64	42.4%	23	15.2%	27	17.9%	21	13.9%	6	4.0%	10	6.6%	151	
불교	5	33.3%	3	20.0%	4	26.7%	3	20.0%	0	0.0%	0	0.0%	15	
기타	66	44.0%	25	16.7%	26	17.3%	21	14.0%	2	1.3%	10	6.7%	150	
없음														
진보-보수	124	44.8%	44	15.9%	47	17.0%	37	13.4%	7	2.5%	18	6.5%	277	$\chi^2=4.39$
보수	87	40.7%	33	15.4%	40	18.7%	36	16.8%	7	3.3%	11	5.1%	214	p=.927
진보	14	37.8%	7	18.9%	8	21.6%	5	13.5%	0	0.0%	3	8.1%	37	
모름														
자원봉사경험	17	45.9%	5	13.5%	7	18.9%	4	10.8%	2	5.4%	2	5.4%	37	$\chi^2=10.73$
현재활동	65	44.5%	25	17.1%	26	17.8%	20	13.7%	5	3.4%	5	3.4%	146	p=.770
과거활동	128	43.1%	48	16.2%	52	17.5%	42	14.1%	7	2.4%	20	6.7%	297	
희망함	19	35.8%	6	11.3%	11	20.8%	12	22.6%	0	0.0%	5	9.4%	53	
생각없음	229	43.0%	84	15.8%	96	18.0%	78	14.6%	14	2.6%	32	6.0%	533	
전체														

〈부록표 II-2-8〉 학교와 자원봉사 소개기관의 활동에 당신 자녀를 참가시키고 싶습니다

	참가시키고 싶다	잘모르겠다	참가시키지 않겠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09	30	12	151	$\chi^2=11.53$
여자	226	134	24	384	$p=.003$
학력별					
중졸이하	56	47	11	114	$\chi^2=11.56$
고졸	184	77	15	276	$p=.021$
대졸이상	94	40	10	144	
연령별					
30대	92	41	7	140	$\chi^2=1.54$
40대	217	111	27	355	$p=.819$
50대 이상	22	11	2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0	10	2	32	$\chi^2=9.82$
보통임	270	123	23	416	$p=.043$
어려운편	43	33	11	87	
종교별					
기독교	113	42	7	162	$\chi^2=13.23$
가톨릭	34	17	6	57	$p=.104$
불교	93	48	12	153	
기타	6	6	3	15	
없음	89	54	8	151	
진보-보수					
보수	185	81	13	279	$\chi^2=10.29$
진보	132	69	15	216	$p=.035$
모름	17	14	6	37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31	5	2	38	$\chi^2=35.64$
과거활동	104	28	15	147	$p=.000$
희망함	181	106	13	300	
생각없음	20	27	6	53	
전체	336	166	36	538	

〈부록표 II-2-9〉 학교외 자원봉사 정보제공기관이 있다면 자녀가 이용하길 원하십니까?

	이용하기를 원한다		살보르겠나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체	통계치
	응답 수	백분율	응답 수	백분율	응답 수	백분율		
성별								
남자	98	65.3%	34	22.7%	18	12.0%	150	$\chi^2=9.48$
여자	215	56.6%	136	35.8%	29	7.6%	380	p=.008
학력별								
중졸이하	49	43.4%	53	46.9%	11	9.7%	113	$\chi^2=16.10$
고졸	168	61.5%	81	29.7%	24	8.8%	273	p=.003
대졸이상	94	65.7%	37	25.9%	12	8.4%	143	
연령별								
30대	85	61.2%	47	33.8%	7	5.0%	139	$\chi^2=4.49$
40대	204	58.1%	113	32.2%	34	9.7%	351	p=.343
50대 이상	21	60.0%	9	25.7%	5	14.3%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3	71.9%	7	21.9%	2	6.3%	32	$\chi^2=11.60$
보통임	242	58.7%	140	34.0%	30	7.3%	412	p=.021
어려운편	46	53.5%	25	29.1%	15	17.4%	86	
종교별								
기독교	103	64.8%	46	28.9%	10	6.3%	159	$\chi^2=9.90$
가톨릭	37	64.9%	12	21.1%	8	14.0%	57	p=.271
불교	87	56.9%	52	34.0%	14	9.2%	153	
기타	8	53.3%	6	40.0%	1	6.7%	15	
없음	79	53.0%	56	37.6%	14	9.4%	149	
진보-보수								
보수	168	60.6%	84	30.3%	25	9.0%	277	$\chi^2=9.19$
진보	130	60.5%	69	32.1%	16	7.4%	215	p=.056
모름	13	36.1%	17	47.2%	6	16.7%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9	76.3%	7	18.4%	2	5.3%	38	$\chi^2=25.83$
과거활동	94	64.4%	38	26.0%	14	9.6%	146	p=.000
희망함	175	58.9%	102	34.4%	20	6.7%	297	
생각없음	17	32.7%	25	48.1%	10	19.2%	52	
전체	315	59.1%	172	32.3%	46	8.6%	533	

〈부록표 II-2-10〉 당신 자녀가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기를 가장 원합니까?

	일손돕기	활동	위문활동	지도상담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	지역사회	전체	통계치						
							보전	개발								
							활동	활동								
성별	34	22.8%	19	12.8%	15	10.1%	25	16.8%	4	2.7%	33	22.1%	19	12.8%	149	$\chi^2=14.66$
	94	24.7%	73	19.2%	41	10.8%	60	15.7%	30	7.9%	55	14.4%	28	7.3%	381	p=.023
학력별	26	22.8%	22	19.3%	20	17.5%	14	12.3%	9	7.9%	16	14.0%	7	6.1%	114	$\chi^2=14.83$
	68	24.7%	48	17.5%	29	10.5%	47	17.1%	15	5.5%	45	16.4%	23	8.4%	275	p=.250
	32	22.9%	22	15.7%	8	5.7%	24	17.1%	10	7.1%	27	19.3%	17	12.1%	140	
연령별	37	26.4%	28	20.0%	16	11.4%	18	12.9%	10	7.1%	22	15.7%	9	6.4%	140	$\chi^2=8.44$
	80	22.8%	60	17.1%	36	10.3%	60	17.1%	22	6.3%	57	16.2%	36	10.3%	351	p=.749
	9	26.5%	3	8.8%	5	14.7%	7	20.6%	2	5.9%	7	20.6%	1	2.9%	34	
경제수준별	8	26.7%	7	23.3%	3	10.0%	5	16.7%	1	3.3%	5	16.7%	1	3.3%	30	$\chi^2=8.47$
	103	24.8%	68	16.4%	42	10.1%	71	17.1%	26	6.3%	69	16.6%	36	8.7%	415	p=.746
	16	18.8%	16	18.8%	12	14.1%	9	10.6%	8	9.4%	14	16.5%	10	11.8%	85	
종교별	36	22.5%	36	22.5%	13	8.1%	21	13.1%	18	11.3%	24	15.0%	12	7.5%	160	$\chi^2=36.23$
	21	37.5%	9	16.1%	4	7.1%	7	12.5%	4	7.1%	9	16.1%	2	3.6%	56	p=.052
	35	23.0%	22	14.5%	17	11.2%	28	18.4%	4	2.6%	27	17.8%	19	12.5%	152	
진보-보수	5	33.3%	0	0.0%	4	26.7%	1	6.7%	2	13.3%	2	13.3%	1	6.7%	15	
	32	21.3%	25	16.7%	19	12.7%	28	18.7%	7	4.7%	26	17.3%	13	8.7%	150	
자원봉사경험	70	25.3%	46	16.6%	27	9.7%	50	18.1%	19	6.9%	40	14.4%	25	9.0%	277	$\chi^2=10.14$
	53	24.7%	41	19.1%	24	11.2%	28	13.0%	13	6.0%	40	18.6%	16	7.4%	215	p=.603
	5	13.9%	4	11.1%	4	11.1%	7	19.4%	3	8.3%	7	19.4%	6	16.7%	36	
현재활동	10	27.0%	8	21.6%	3	8.1%	4	10.8%	5	13.5%	6	16.2%	1	2.7%	37	$\chi^2=15.27$
	32	22.2%	25	17.4%	17	11.8%	22	15.3%	8	5.6%	26	18.1%	14	9.7%	144	p=.643
	70	23.5%	53	17.8%	34	11.4%	46	15.4%	20	6.7%	49	16.4%	26	8.7%	298	
생각없음	17	32.1%	5	9.4%	3	5.7%	13	24.5%	2	3.8%	7	13.2%	6	11.3%	53	
	129	24.2%	91	17.1%	57	10.7%	85	16.0%	35	6.6%	88	16.5%	47	8.8%	532	

〈부록 표 II-2-11〉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잘모르겠다		반대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56	39.2%	22	15.4%	65	45.5%	143	$\chi^2=3.79$
여자	118	33.2%	81	22.8%	156	43.9%	355	$p=.149$
학력별								
중졸이하	27	29.7%	28	30.8%	36	39.6%	91	$\chi^2=11.78$
고졸	104	39.7%	49	18.7%	109	41.6%	262	$p=.019$
대졸이상	43	29.9%	26	18.1%	75	52.1%	144	
연령별								
30대	47	36.4%	22	17.1%	60	46.5%	129	$\chi^2=1.85$
40대	114	34.4%	74	22.4%	143	43.2%	331	$p=.762$
50대 이상	13	38.2%	6	17.6%	15	44.1%	34	
경제수준별								
참사는편	11	34.4%	9	28.1%	12	37.5%	32	$\chi^2=2.81$
보통임	139	35.9%	79	20.4%	169	43.7%	387	$p=.589$
어려운편	23	29.1%	16	20.3%	40	50.6%	79	
종교별								
기독교	53	35.6%	26	17.4%	70	47.0%	149	$\chi^2=2.54$
가톨릭	18	33.3%	11	20.4%	25	46.3%	54	$p=.959$
불교	47	32.9%	31	21.7%	65	45.5%	143	
기타	6	40.0%	3	20.0%	6	40.0%	15	
없음	50	35.7%	33	23.6%	57	40.7%	140	
정보-보수								
보수	103	39.9%	59	22.9%	96	37.2%	258	$\chi^2=13.32$
진보	62	30.4%	36	17.6%	106	52.0%	204	$p=.009$
모름	7	20.6%	8	23.5%	19	55.9%	34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9	27.3%	4	12.1%	20	60.6%	33	$\chi^2=7.21$
과거활동	51	36.7%	24	17.3%	64	46.0%	139	$p=.301$
희망함	94	33.6%	66	23.6%	120	42.9%	280	
생각없음	20	41.7%	10	20.8%	18	37.5%	48	
전체	174	34.8%	104	20.8%	222	44.4%	500	

〈부록표 II-2-12〉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업성적위주에서 벗어나 수 있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청소년자원봉사자의 보상이 주어져야 활성화를 위해 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통계치
	27	36.5%	9	12.2%	33	44.6%	5	6.8%	74	$\chi^2=3.10$	74	$\chi^2=3.10$	
성별	47	27.6%	25	14.7%	91	53.5%	7	4.1%	170	p=.375	170	p=.375	
남자													
여자													
학력별	13	22.4%	12	20.7%	29	50.0%	4	6.9%	58	$\chi^2=7.92$	58	$\chi^2=7.92$	
중졸이하	42	31.3%	15	11.2%	73	54.5%	4	3.0%	134	p=.243	134	p=.243	
고졸	19	36.5%	7	13.5%	22	42.3%	4	7.7%	52		52		
대졸이상													
연령별	17	25.8%	8	12.1%	39	59.1%	2	3.0%	66	$\chi^2=6.40$	66	$\chi^2=6.40$	
30대	50	30.9%	25	15.4%	78	48.1%	9	5.6%	162	p=.378	162	p=.378	
40대	7	43.8%	1	6.3%	6	37.5%	2	12.5%	16		16		
50대 이상													
경제수준별	5	33.3%	2	13.3%	8	53.3%	0	0.0%	15	$\chi^2=1.70$	15	$\chi^2=1.70$	
잘사는편	59	31.1%	26	13.7%	95	50.0%	10	5.3%	190	p=.944	190	p=.944	
보통임	10	25.6%	5	12.8%	21	53.8%	3	7.7%	39		39		
어려운편													
종교별	22	29.7%	6	8.1%	39	52.7%	7	9.5%	74	$\chi^2=16.59$	74	$\chi^2=16.59$	
기독교	10	45.5%	3	13.6%	9	40.9%	0	0.0%	22	p=.165	22	p=.165	
기독교	19	27.1%	8	11.4%	39	55.7%	4	5.7%	70		70		
불교	1	12.5%	1	12.5%	5	62.5%	1	12.5%	8		8		
기타	23	31.9%	16	22.2%	32	44.4%	1	1.4%	72		72		
없음													
진보-보수	51	35.9%	18	12.7%	68	47.9%	5	3.5%	142	$\chi^2=6.71$	142	$\chi^2=6.71$	
보수	20	22.5%	13	14.6%	51	57.3%	5	5.6%	89	p=.348	89	p=.348	
진보	3	25.0%	3	25.0%	5	41.7%	1	8.3%	12		12		
모름													
자원봉사경험	4	30.8%	1	7.7%	8	61.5%	0	0.0%	13	$\chi^2=13.13$	13	$\chi^2=13.13$	
현재활동	19	28.8%	5	7.6%	34	51.5%	8	12.1%	66	p=.156	66	p=.156	
과거활동	44	31.2%	22	15.6%	71	50.4%	4	2.8%	141		141		
희망함	8	30.8%	6	23.1%	11	42.3%	1	3.8%	26		26		
생각없음													
전체	75	30.5%	34	13.8%	124	50.4%	13	5.3%	246		246		

〈부록표 Ⅱ-2-13〉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정한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정진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인심하고 할 일을 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통계치
	12	12.6%	25	26.3%	46	48.4%	1	1.1%	10	10.5%	1	1.1%	
성별	38	16.5%	28	12.1%	120	51.9%	10	4.3%	34	14.7%	1	0.4%	$\chi^2=12.59$ p=.027
나이													
여성													
학력별													
중졸이하	9	12.9%	9	12.9%	34	48.6%	3	4.3%	14	20.0%	1	1.4%	$\chi^2=17.26$ p=.068
고졸	21	13.0%	22	13.7%	88	54.7%	4	2.5%	25	15.5%	1	0.6%	
대졸이상	20	21.1%	22	23.2%	44	46.3%	4	42%	5	5.3%	0	0.0%	
연령별													
30대	17	19.3%	7	8.0%	45	51.1%	5	5.7%	14	15.9%	0	0.0%	$\chi^2=20.55$ p=.024
40대	29	13.5%	40	18.6%	114	53.0%	5	2.3%	26	12.1%	1	0.5%	
50대이상	5	25.0%	5	25.0%	5	25.0%	1	5.0%	3	15.0%	1	5.0%	
경제수준별													
상사는편	6	30.0%	2	10.0%	10	50.0%	2	10.0%	0	0.0%	0	0.0%	$\chi^2=10.59$ p=.389
보통임	37	15.0%	42	17.0%	124	50.2%	8	3.2%	34	13.8%	2	0.8%	
어려운편	8	13.3%	9	15.0%	32	53.3%	1	1.7%	10	16.7%	0	0.0%	
종교별													
기독교	18	17.0%	13	12.3%	58	54.7%	4	3.8%	13	12.3%	0	0.0%	$\chi^2=31.97$ p=.043
가톨릭	5	13.9%	7	19.4%	19	52.8%	1	2.8%	4	11.1%	0	0.0%	
불교	13	14.0%	12	12.9%	45	48.4%	3	3.2%	19	20.4%	1	1.1%	
기타	1	12.5%	1	12.5%	4	50.0%	0	0.0%	1	12.5%	1	12.5%	
없음	15	17.4%	20	23.3%	41	47.7%	3	3.5%	7	8.1%	0	0.0%	
진보-보수													
보수	20	19.1%	29	18.5%	68	43.3%	4	2.5%	25	15.9%	1	0.6%	$\chi^2=19.11$ p=.038
진보	16	11.2%	22	15.4%	85	59.4%	7	4.9%	13	9.1%	0	0.0%	
모름	4	16.0%	2	8.0%	14	56.0%	0	0.0%	4	16.0%	1	4.0%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5	20.0%	4	16.0%	13	52.0%	0	0.0%	3	12.0%	0	0.0%	$\chi^2=15.25$ p=433
과거활동	12	13.6%	20	22.7%	43	48.9%	3	3.4%	9	10.2%	1	1.1%	
희망함	28	15.2%	28	15.2%	94	51.1%	6	3.3%	28	15.2%	0	0.0%	
생각없음	7	22.6%	1	3.2%	16	51.6%	2	6.5%	4	12.9%	1	3.2%	
전체	52	15.9%	53	16.2%	166	50.6%	11	3.4%	44	13.4%	2	0.6%	

〈부록표 II-2-15〉 당신 자녀가 자원봉사할 경우 가장 참가시키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관공서	공공기관	종교사회단체	복지기관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관광시설	청소년수련 시설/단체	기업체	진체	통계치
성별										
남자	29 19.5%	8 5.4%	20 13.4%	49 32.9%	20 13.4%	9 6.0%	6 4.0%	8 5.4%	149	$\chi^2=11.09$
여자	71 18.8%	28 7.4%	43 11.4%	128 34.0%	70 18.6%	8 2.1%	20 5.3%	9 2.4%	377	p=.134
학력별										
중졸이하	30 27.3%	7 6.4%	12 10.9%	39 35.5%	14 12.7%	3 2.7%	2 1.8%	3 2.7%	110	$\chi^2=26.35$
고졸	51 18.6%	24 8.8%	33 12.0%	84 30.7%	41 15.0%	12 4.4%	19 6.9%	10 3.6%	274	p=.023
대졸이상	19 13.5%	5 3.5%	18 12.8%	53 37.6%	35 24.8%	2 1.4%	5 3.5%	4 2.8%	141	
연령별										
30대	25 18.1%	10 7.2%	21 15.2%	47 34.1%	22 15.9%	2 1.4%	7 5.1%	4 2.9%	138	$\chi^2=14.55$
40대	71 20.4%	22 6.3%	40 11.5%	115 33.0%	61 17.5%	12 3.4%	18 5.2%	9 2.6%	348	p=.409
50대이상	3 8.6%	2 5.7%	2 5.7%	15 42.9%	6 17.1%	3 8.6%	1 2.9%	3 8.6%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 3.2%	3 9.7%	6 19.4%	12 38.7%	5 16.1%	1 3.2%	2 6.5%	1 3.2%	31	$\chi^2=13.78$
보통임	84 20.4%	27 6.6%	44 10.7%	134 32.6%	76 18.5%	12 2.9%	22 5.4%	12 2.9%	411	p=.495
어려운편	15 17.9%	6 7.1%	13 15.5%	31 36.9%	9 10.7%	4 4.8%	2 2.4%	4 4.8%	84	
종교별										
기독교	23 14.3%	8 5.0%	35 21.7%	57 35.4%	25 15.5%	4 2.5%	5 3.1%	4 2.5%	161	$\chi^2=64.09$
가톨릭	2 3.6%	3 5.5%	14 25.5%	19 34.5%	10 18.2%	2 3.6%	3 5.5%	2 3.6%	55	p=.000
불교	35 23.3%	13 8.7%	8 5.3%	51 34.0%	30 20.0%	6 4.0%	5 3.3%	2 1.3%	150	
기타	3 21.4%	0 0.0%	1 7.1%	6 42.9%	3 21.4%	0 0.0%	0 0.0%	1 7.1%	14	
없음	37 24.8%	12 8.1%	7 4.7%	45 30.2%	22 14.8%	5 3.4%	13 8.7%	8 5.4%	149	
진보-보수										
보수	52 18.8%	20 7.2%	31 11.2%	90 32.6%	51 18.5%	8 2.9%	14 5.1%	10 3.6%	276	$\chi^2=11.46$
진보	41 19.2%	14 6.5%	30 14.0%	78 36.4%	28 13.1%	8 3.7%	9 4.2%	6 2.8%	214	p=.649
모름	7 20.6%	2 5.9%	2 5.9%	8 23.5%	11 32.4%	1 2.9%	2 5.9%	1 2.9%	34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6 16.2%	2 5.4%	9 24.3%	9 24.3%	5 13.5%	1 2.7%	5 13.5%	0 0.0%	37	$\chi^2=40.29$
과거활동	26 18.1%	7 4.9%	21 14.6%	51 35.4%	28 19.4%	4 2.8%	2 1.4%	5 3.5%	144	p=.006
희망함	54 18.2%	27 9.1%	32 10.8%	105 35.5%	46 15.5%	7 2.4%	16 5.4%	9 3.0%	296	
생각없음	14 27.5%	0 0.0%	3 5.9%	12 23.5%	11 21.6%	5 9.8%	3 5.9%	3 5.9%	51	
전체	100 18.9%	36 6.8%	65 12.3%	177 33.5%	90 17.0%	17 3.2%	26 4.9%	17 3.2%	528	

〈부록표 II-2-16〉 당신 자녀가 자원봉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학기중의 수업시간		평일 방과후	학기 중의 공휴일		방학 중	학기 중의 토요일		언제든지 가능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6	4.0%	5	3.4%	21	14.1%	96	64.4%	17	11.4%	4	2.7%	149	$\chi^2=$.817
여자	17	4.4%	11	2.9%	50	13.1%	240	62.7%	53	13.8%	12	3.1%	383	p=.975
학력별														
중졸이하	2	1.8%	2	1.8%	16	14.3%	73	65.2%	14	12.5%	5	4.5%	112	$\chi^2=$ 10.29
고졸	12	4.3%	12	4.3%	39	14.1%	166	60.1%	41	14.9%	6	2.2%	276	p=.414
대졸이상	8	5.6%	2	1.4%	16	11.2%	97	67.8%	15	10.5%	5	3.5%	143	
연령별														
30대	7	5.0%	4	2.9%	18	12.9%	82	58.6%	26	18.6%	3	2.1%	140	$\chi^2=$ 8.97
40대	14	4.0%	11	3.1%	44	12.5%	231	65.6%	40	11.4%	12	3.4%	352	p=.534
50대이상	1	2.9%	1	2.9%	8	22.9%	21	60.0%	3	8.6%	1	2.9%	3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	9.4%	2	6.3%	6	18.8%	16	50.0%	4	12.5%	1	3.1%	32	$\chi^2=$ 7.85
보통임	17	4.1%	12	2.9%	57	13.8%	264	63.8%	52	12.6%	12	2.9%	414	p=.643
어려운편	3	3.5%	2	2.3%	7	8.1%	58	67.4%	14	16.3%	2	2.3%	86	
종교별														
기독교	8	4.9%	7	4.3%	20	12.3%	101	62.3%	19	11.7%	7	4.3%	162	$\chi^2=$ 12.66
가톨릭	3	5.4%	3	5.4%	6	10.7%	34	60.7%	9	16.1%	1	1.8%	56	p=.891
불교	8	5.2%	2	1.3%	25	16.3%	91	59.5%	23	15.0%	4	2.6%	153	
기타	1	7.1%	0	0.0%	3	21.4%	9	64.3%	1	7.1%	0	0.0%	14	
없음	4	2.7%	4	2.7%	17	11.3%	103	68.7%	18	12.0%	4	2.7%	150	
진보-보수														
보수	11	4.0%	8	2.9%	33	11.9%	173	62.2%	41	14.7%	12	4.3%	278	$\chi^2=$ 8.48
진보	11	5.1%	7	3.2%	32	14.8%	138	63.9%	26	12.0%	2	0.9%	216	p=.581
모름	2	5.6%	1	2.8%	6	16.7%	22	61.1%	3	8.3%	2	5.6%	36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	5.4%	2	5.4%	8	21.6%	17	45.9%	6	16.2%	2	5.4%	37	$\chi^2=$ 9.80
과거활동	7	4.8%	5	3.4%	20	13.8%	87	60.0%	21	14.5%	5	3.4%	145	p=.831
희망함	11	3.7%	8	2.7%	37	12.4%	200	66.9%	36	12.0%	7	2.3%	299	
생각없음	4	7.5%	1	1.9%	6	11.3%	33	62.3%	7	13.2%	2	3.8%	53	
전체	24	4.5%	16	3.0%	71	13.3%	337	63.1%	70	13.1%	16	3.0%	534	

〈부속표 II-2-1〉 남신 자녀의 자원봉사 참여형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니까?

	개인적으로		교내특별행사나 동아리 중심		청소년단체와 함께		자원봉사센터나 기관을 통해		학교 전체	기타	전체	통계치
	9	13	56	128	20	83	34	66				
성별	6.0%	3.4%	37.1%	33.4%	13.2%	21.7%	22.5%	17.2%	18.5%	2.6%	151	$\chi^2=11.83$ p=.037
남자											383	
여자												
학력별	5.3%	4.3%	25.7%	33.7%	25.7%	19.9%	16.8%	15.9%	24.8%	1.8%	113	$\chi^2=25.35$ p=.004
중졸이하											276	
고졸											144	
대졸이상												
연령별	4.3%	3.9%	35.3%	34.6%	15.8%	18.9%	12.9%	21.4%	30.2%	1.4%	139	$\chi^2=20.83$ p=.022
30대											355	
40대											35	
50대이상												
경제수준별	6.3%	3.6%	43.8%	36.9%	9.4%	19.5%	25.0%	17.1%	15.6%	0.0%	32	$\chi^2=14.99$ p=.132
잘사는편											415	
보통임											87	
어려운편												
종교별	1.9%	1.8%	29.8%	49.1%	21.1%	12.3%	23.0%	17.5%	23.0%	1.2%	161	$\chi^2=32.97$ p=.034
기독교											57	
가톨릭											153	
불교											15	
기타											151	
없음												
진보-보수	4.3%	3.7%	37.1%	31.9%	18.7%	21.8%	18.7%	19.9%	20.9%	0.4%	278	$\chi^2=15.49$ p=.114
보수											216	
진보											37	
모름												
자원봉사경험	0.0%	2.7%	27.0%	37.4%	27.0%	17.0%	24.3%	23.1%	18.9%	2.7%	37	$\chi^2=13.93$ p=.550
현재활동											147	
과거활동											299	
희망함											53	
생각없음												
전체	4.1%	3.7%	34.7%	35.1%	19.4%	18.9%	18.7%	18.7%	21.8%	1.3%	536	

〈부록표 II-2-18〉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자신	담임선생님	자원봉사센터 / 기구	자원봉사담당 지도자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 이나 기관		학생/자원봉사 센터/활동처 모두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26 17.3%	14 9.3%	21 14.0%	13 8.7%	29 19.3%	47 31.3%	150	$\chi^2=3.55$	
여자	72 18.8%	38 9.9%	37 9.6%	27 7.0%	68 17.7%	142 37.0%	384	$p=.61$	
학력별									
중졸이하	31 27.2%	19 16.7%	6 5.3%	12 10.5%	17 14.9%	29 25.4%	114	$\chi^2=25.96$	
고졸	44 15.9%	25 9.1%	34 12.3%	17 6.2%	50 18.1%	106 38.4%	276	$p=.003$	
대졸이상	23 16.1%	8 5.6%	18 12.6%	11 7.7%	30 21.0%	53 37.1%	143		
연령별									
30대	27 19.3%	14 10.0%	9 6.4%	10 7.1%	23 16.4%	57 40.7%	140	$\chi^2=10.51$	
40대	61 17.2%	34 9.6%	47 13.3%	28 7.9%	65 18.4%	119 33.6%	354	$p=.397$	
50대 이상	8 22.9%	4 11.4%	1 2.9%	2 5.7%	9 25.7%	11 31.4%	35		
경제수준별									
월사근편	9 28.1%	0 0.0%	4 12.5%	4 12.5%	3 9.4%	12 37.5%	32	$\chi^2=11.55$	
보통임	71 17.1%	41 9.9%	48 11.6%	31 7.5%	78 18.8%	146 35.2%	415	$p=.315$	
어려운편	19 21.8%	12 13.8%	6 6.9%	5 5.7%	15 17.2%	30 34.5%	87		
종교별									
기독교	31 19.3%	15 9.3%	19 11.8%	8 5.0%	32 19.9%	56 34.8%	161	$\chi^2=16.00$	
가톨릭	7 12.3%	5 8.8%	6 10.5%	4 7.0%	12 21.1%	23 40.4%	57	$p=.716$	
불교	34 22.2%	17 11.1%	17 11.1%	12 7.8%	27 17.6%	46 30.1%	153		
기타	3 20.0%	0 0.0%	3 20.0%	0 0.0%	1 6.7%	8 53.3%	15		
없음	24 15.9%	16 10.6%	14 9.3%	16 10.6%	25 16.6%	56 37.1%	151		
진보-보수									
보수	45 16.2%	33 11.9%	32 11.5%	22 7.9%	54 19.4%	92 33.1%	278	$\chi^2=14.94$	
진보	39 18.1%	18 8.3%	23 10.6%	14 6.5%	40 18.5%	82 38.0%	216	$p=.134$	
모름	13 35.1%	1 2.7%	4 10.8%	3 8.1%	2 5.4%	14 37.8%	37		
자원봉사경험									
현재 활동	9 24.3%	3 8.1%	2 5.4%	0 0.0%	8 21.6%	15 40.5%	37	$\chi^2=18.13$	
과거 활동	25 17.0%	13 8.8%	15 10.2%	12 8.2%	30 20.4%	52 35.4%	147	$p=.255$	
희망함	59 19.7%	26 8.7%	33 11.0%	23 7.7%	52 17.4%	106 35.5%	299		
생각없음	6 11.3%	11 20.8%	9 17.0%	5 9.4%	7 13.2%	15 28.3%	53		
전체	99 18.5%	53 9.9%	59 11.0%	40 7.5%	97 18.1%	188 35.1%	536		

〈부록표 II-2-19〉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 확립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청소년자원 봉사활동 경력 인정	다양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 마련	청소년자원 봉사 활동의 일시 및 취직시 우대혜택 마련	청소년자원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 설립	주5일제 수업 실시	자원봉사 활동 대상 기관의 개방 및 적극적인 요청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44 29.3%	4 2.7%	33 22.0%	14 9.3%	24 16.0%	12 8.0%	13 8.7%	6 4.0%	150 $\chi^2=14.33$
여자	107 28.3%	17 4.5%	131 34.7%	16 4.2%	42 11.1%	23 6.1%	30 7.9%	12 3.2%	378 p=.045
화력별									
중출이하	25 22.3%	8 7.1%	32 28.6%	9 8.0%	15 13.4%	8 7.1%	5 4.5%	10 8.9%	112 $\chi^2=29.64$
고출	86 31.5%	9 3.3%	80 29.3%	18 6.6%	33 12.1%	20 7.3%	23 8.4%	4 1.5%	273 p=.008
대출이상	39 27.5%	4 2.8%	52 36.6%	3 2.1%	18 12.7%	7 4.9%	15 10.6%	4 2.8%	142
연령별									
30대	40 29.0%	4 2.9%	51 37.0%	9 6.5%	11 8.0%	11 8.0%	6 4.3%	6 4.3%	138 $\chi^2=17.59$
40대	97 27.6%	14 4.0%	104 29.6%	19 5.4%	49 14.0%	20 5.7%	36 10.3%	12 3.4%	351 p=.225
50대 이상	12 34.3%	3 8.6%	9 25.7%	1 2.9%	5 14.3%	4 11.4%	1 2.9%	0 0.0%	35
경제수준별									
월사근편	9 29.0%	3 9.7%	10 32.3%	0 0.0%	5 16.1%	3 9.7%	0 0.0%	1 3.2%	31 $\chi^2=21.40$
보통임	118 28.6%	16 3.9%	130 31.6%	22 5.3%	49 11.9%	27 6.6%	40 9.7%	10 2.4%	412 p=.091
어려운편	24 28.2%	2 2.4%	24 28.2%	8 9.4%	12 14.1%	5 5.9%	3 3.5%	7 8.2%	85
종교별									
기독교	35 21.7%	5 3.1%	60 37.3%	8 5.0%	17 10.6%	14 8.7%	17 10.6%	5 3.1%	161 $\chi^2=24.37$
가톨릭	15 27.3%	3 5.5%	20 36.4%	2 3.6%	9 16.4%	3 5.5%	2 3.6%	1 1.8%	55 p=.568
불교	42 27.8%	8 5.3%	46 30.5%	12 7.9%	17 11.3%	8 5.3%	12 7.9%	6 4.0%	151
기타	4 26.7%	0 .0%	6 40.0%	1 6.7%	3 20.0%	1 6.7%	0 0.0%	0 0.0%	15
없음	56 37.6%	5 3.4%	34 22.8%	7 4.7%	20 13.4%	9 6.0%	12 8.1%	6 4.0%	149
진보-보수									
보수	85 30.9%	10 3.6%	90 32.7%	15 5.5%	29 10.5%	11 4.0%	28 10.2%	7 2.5%	275 $\chi^2=24.37$
진보	54 25.0%	9 4.2%	62 28.7%	15 6.9%	32 14.8%	23 10.6%	13 6.0%	8 3.7%	216 p=.041
모름	12 35.3%	2 5.9%	11 32.4%	0 0.0%	4 11.8%	0 0.0%	2 5.9%	3 8.8%	34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10 26.3%	1 2.6%	12 31.6%	1 2.6%	2 5.3%	6 15.8%	4 10.5%	2 5.3%	38 $\chi^2=33.47$
과거활동	32 22.2%	5 3.5%	51 35.4%	12 8.3%	19 13.2%	10 6.9%	12 8.3%	3 2.1%	144 p=.041
희망함	98 33.1%	15 5.1%	90 30.4%	13 4.4%	35 11.8%	12 4.1%	24 8.1%	9 3.0%	296
생각없음	12 23.1%	0 0.0%	12 23.1%	4 7.7%	10 19.2%	7 13.5%	3 5.8%	4 7.7%	52
전체	152 28.7%	21 4.0%	165 31.1%	30 5.7%	66 12.5%	35 6.6%	43 8.1%	18 3.4%	530

〈부록표 II-2-20〉 당신의 자녀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를 원합니까?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전체	통계치
성별						
남자	113	89.0%	14	11.0%	127	$\chi^2=1.57$
여자	268	83.8%	52	16.3%	320	p=.208
학력별						
중졸이하	82	82.8%	17	17.2%	99	$\chi^2=0.59$
고졸	198	86.1%	32	13.9%	230	p=.743
대졸이상	99	84.6%	18	15.4%	117	
연령별						
30대	107	87.7%	15	12.3%	122	$\chi^2=1.58$
40대	244	83.8%	47	16.2%	291	p=.453
50대이상	27	90.0%	3	10.0%	30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3	82.1%	5	17.9%	28	$\chi^2=5.47$
보통임	303	86.8%	46	13.2%	349	p=.064
어려운편	54	76.1%	17	23.9%	71	
종교별						
기독교	119	83.2%	24	16.8%	143	$\chi^2=1.21$
가톨릭	36	83.7%	7	16.3%	43	p=.875
불교	110	86.6%	17	13.4%	127	
기타	12	92.3%	1	7.7%	13	
없음	105	84.7%	19	15.3%	124	
진보-보수						
보수	201	86.3%	32	13.7%	233	$\chi^2=3.20$
진보	155	85.6%	26	14.4%	181	p=.200
모름	23	74.2%	8	25.8%	31	
자원봉사경험						
현재활동	26	86.7%	4	13.3%	30	$\chi^2=2.26$
과거활동	110	86.6%	17	13.4%	127	p=.518
희망함	216	84.7%	39	15.3%	255	
생각없음	30	76.9%	9	23.1%	39	
전체	382	84.7%	69	15.3%	451	

〈부록표 II-3-1〉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관공서일손돕기	43	29.5%	152	41.3%	195	37.9%
공공질서확립캠페인	32	21.9%	69	18.8%	101	19.6%
교통안전캠페인	30	20.5%	56	15.2%	86	16.7%
헌혈 및 골수 기증	11	7.5%	25	6.8%	36	7.0%
자연보호	69	47.3%	104	28.3%	173	33.7%
문화재보호	37	25.3%	55	14.9%	92	17.9%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10	6.8%	57	15.5%	67	13.0%
기업체일손돕기	27	18.5%	52	14.1%	79	15.4%
장애인위문	36	24.7%	105	28.5%	141	27.4%
병약자위문	11	7.5%	45	12.2%	56	10.9%
재해구호활동	8	5.5%	11	3.0%	19	3.7%
불우이웃돕기	43	29.5%	101	27.4%	144	28.0%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14	9.6%	37	10.1%	51	9.9%
공공기관 일손돕기	29	19.9%	78	21.2%	107	20.8%
하급생 지도	16	11.0%	70	19.0%	86	16.7%
사회교육지도	14	9.6%	51	13.9%	65	12.6%
교통안전지도	26	17.8%	50	13.6%	76	14.8%
고아원 위문	26	17.8%	81	22.0%	107	20.8%
양로원 위문	18	12.3%	66	17.9%	84	16.3%
학교주변정화활동	15	10.3%	37	10.1%	52	10.1%
환경보전캠페인	35	24.0%	57	15.5%	92	17.9%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10	6.8%	32	8.7%	42	8.2%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18	12.3%	42	11.4%	60	11.7%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16	11.0%	44	12.0%	60	11.7%
깨끗한 환경만들기	35	24.0%	98	26.6%	133	25.9%
지역실태조사활동	5	3.4%	17	4.6%	22	4.3%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15	10.3%	58	15.8%	73	14.2%
자매부대 위문	9	6.2%	23	6.3%	32	6.2%
동급생 지도	5	3.4%	16	4.3%	21	4.1%
지역사회 가꾸기	17	11.6%	28	7.6%	45	8.8%
지역홍보활동	11	7.5%	50	13.6%	61	11.9%
지역행사지원활동	8	5.5%	10	2.7%	18	3.5%
농어촌 일손돕기	30	20.5%	55	14.9%	85	16.5%
전체	146	100.0%	368	100.0%	514	100.0%

〈부록표 Ⅱ-3-2〉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학력별)

	학력별						전체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관공서일손돕기	47	44.8%	100	37.5%	48	33.8%	195	37.9%
공공질서확립캠페인	19	18.1%	58	21.7%	24	16.9%	101	19.6%
교통안전캠페인	17	16.2%	49	18.4%	20	14.1%	86	16.7%
헌혈 및 골수 기증	7	6.7%	20	7.5%	9	6.3%	36	7.0%
자연보호	31	29.5%	94	35.2%	48	33.8%	173	33.7%
문화재보호	16	15.2%	44	16.5%	32	22.5%	92	17.9%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15	14.3%	37	13.9%	15	10.6%	67	13.0%
기업체일손돕기	16	15.2%	45	16.9%	17	12.0%	78	15.2%
장애인위문	28	26.7%	62	23.2%	51	35.9%	141	27.4%
병약자위문	11	10.5%	26	9.7%	19	13.4%	56	10.9%
재해구호활동	6	5.7%	7	2.6%	6	4.2%	19	3.7%
불우이웃돕기	22	21.0%	74	27.7%	48	33.8%	144	28.0%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11	10.5%	24	9.0%	15	10.6%	50	9.7%
공공기관 일손돕기	25	23.8%	54	20.2%	29	20.4%	108	21.0%
하급생 지도	16	15.2%	48	18.0%	22	15.5%	86	16.7%
사회교육지도	15	14.3%	33	12.4%	16	11.3%	64	12.5%
교통안전지도	18	17.1%	36	13.5%	22	15.5%	76	14.8%
고아원 위문	22	21.0%	55	20.6%	30	21.1%	107	20.8%
양로원 위문	18	17.1%	44	16.5%	22	15.5%	84	16.3%
학교주변정화활동	8	7.6%	30	11.2%	14	9.9%	52	10.1%
환경보전캠페인	25	23.8%	43	16.1%	25	17.6%	93	18.1%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9	8.6%	26	9.7%	7	4.9%	42	8.2%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9	8.6%	32	12.0%	20	14.1%	61	11.9%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10	9.5%	28	10.5%	22	15.5%	60	11.7%
깨끗한 환경만들기	28	26.7%	64	24.0%	42	29.6%	134	26.1%
지역실태조사활동	4	3.8%	11	4.1%	7	4.9%	22	4.3%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12	11.4%	43	16.1%	18	12.7%	73	14.2%
자매부대 위문	8	7.6%	18	6.7%	5	3.5%	31	6.0%
동급생 지도	4	3.8%	12	4.5%	5	3.5%	21	4.1%
지역사회 가꾸기	6	5.7%	26	9.7%	13	9.2%	45	8.8%
지역홍보활동	13	12.4%	30	11.2%	18	12.7%	61	11.9%
지역행사지원활동	5	4.8%	10	3.7%	3	2.1%	18	3.5%
농어촌 일손돕기	17	16.2%	51	19.1%	17	12.0%	85	16.5%
전체	105	100.0%	267	100.0%	142	100.0%	514	100.0%

〈부록표 II-3-3〉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연령별)

	연령별						전체	
	30대		40대		50대이상			
관공서일손돕기	58	42.6%	128	37.6%	6	17.6%	192	37.6%
공공질서확립캠페인	23	16.9%	68	20.0%	9	26.5%	100	19.6%
교통안전캠페인	23	16.9%	52	15.3%	10	29.4%	85	16.7%
헌혈 및 골수 기증	10	7.4%	23	6.8%	3	8.8%	36	7.1%
자연보호	45	33.1%	114	33.5%	13	38.2%	172	33.7%
문화재보호	17	12.5%	66	19.4%	8	23.5%	91	17.8%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24	17.6%	40	11.8%	1	2.9%	65	12.7%
기업체일손돕기	19	14.0%	53	15.6%	6	17.6%	78	15.3%
장애인위문	42	30.9%	90	26.5%	9	26.5%	141	27.6%
병약자위문	15	11.0%	38	11.2%	3	8.8%	56	11.0%
재해구호활동	1	0.7%	16	4.7%	2	5.9%	19	3.7%
블루이웃돕기	39	28.7%	94	27.6%	10	29.4%	143	28.0%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4	2.9%	39	11.5%	6	17.6%	49	9.6%
공공기관 일손돕기	30	22.1%	70	20.6%	6	17.6%	106	20.8%
하급생 지도	27	19.9%	53	15.6%	5	14.7%	85	16.7%
사회교육지도	20	14.7%	38	11.2%	7	20.6%	65	12.7%
교통안전지도	22	16.2%	52	15.3%	2	5.9%	76	14.9%
고아원 위문	31	22.8%	71	20.9%	5	14.7%	107	21.0%
양로원 위문	22	16.2%	58	17.1%	4	11.8%	84	16.5%
학교주변정화활동	14	10.3%	37	10.9%	1	2.9%	52	10.2%
환경보전캠페인	15	11.0%	70	20.6%	8	23.5%	93	18.2%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11	8.1%	28	8.2%	2	5.9%	41	8.0%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12	8.8%	45	13.2%	4	11.8%	61	12.0%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12	8.8%	43	12.6%	3	8.8%	58	11.4%
깨끗한 환경만들기	37	27.2%	90	26.5%	7	20.6%	134	26.3%
지역실태조사활동	6	4.4%	12	3.5%	4	11.8%	22	4.3%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21	15.4%	48	14.1%	3	8.8%	72	14.1%
자매부대 위문	11	8.1%	17	5.0%	3	8.8%	31	6.1%
동급생 지도	6	4.4%	11	3.2%	2	5.9%	19	3.7%
지역사회 가꾸기	13	9.6%	28	8.2%	4	11.8%	45	8.8%
지역홍보활동	18	13.2%	37	10.9%	6	17.6%	61	12.0%
지역행사지원활동	2	1.5%	13	3.8%	3	8.8%	18	3.5%
농어촌 일손돕기	26	19.1%	54	15.9%	5	14.7%	85	16.7%
전체	136	100.0%	340	100.0%	34	100.0%	510	100.0%

〈부록표 Ⅱ-3-4〉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경제수준별)

	경제수준별						전체	
	잘사는편		보통임		어려운편			
관공서일손돕기	5	15.6%	157	39.3%	32	38.6%	194	37.7%
공공질서확립캠페인	5	15.6%	82	20.5%	14	16.9%	101	19.6%
교통안전캠페인	7	21.9%	61	15.3%	18	21.7%	86	16.7%
헌혈 및 골수 기증	1	3.1%	29	7.3%	6	7.2%	36	7.0%
자연보호	10	31.3%	128	32.0%	36	43.4%	174	33.8%
문화재보호	3	9.4%	77	19.3%	12	14.5%	92	17.9%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0	0.0%	60	15.0%	7	8.4%	67	13.0%
기업체일손돕기	4	12.5%	63	15.8%	12	14.5%	79	15.3%
장애인위문	11	34.4%	102	25.5%	27	32.5%	140	27.2%
병약자위문	5	15.6%	39	9.8%	11	13.3%	55	10.7%
재해구호활동	2	6.3%	13	3.3%	4	4.8%	19	3.7%
불우이웃돕기	8	25.0%	112	28.0%	24	28.9%	144	28.0%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3	9.4%	41	10.3%	6	7.2%	50	9.7%
공공기관 일손돕기	5	15.6%	91	22.8%	12	14.5%	108	21.0%
하급생 지도	8	25.0%	68	17.0%	10	12.0%	86	16.7%
사회교육지도	5	15.6%	50	12.5%	10	12.0%	65	12.6%
교통안전지도	5	15.6%	54	13.5%	18	21.7%	77	15.0%
고아원 위문	12	37.5%	83	20.8%	13	15.7%	108	21.0%
양로원 위문	6	18.8%	65	16.3%	13	15.7%	84	16.3%
학교주변정화활동	6	18.8%	39	9.8%	7	8.4%	52	10.1%
환경보전캠페인	4	12.5%	75	18.8%	14	16.9%	93	18.1%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1	3.1%	33	8.3%	8	9.6%	42	8.2%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2	6.3%	49	12.3%	10	12.0%	61	11.8%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3	9.4%	51	12.8%	6	7.2%	60	11.7%
깨끗한 환경만들기	8	25.0%	110	27.5%	17	20.5%	135	26.2%
지역실태조사활동	0	0.0%	18	4.5%	4	4.8%	22	4.3%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5	15.6%	55	13.8%	13	15.7%	73	14.2%
자매부대 위문	3	9.4%	29	7.3%	1	1.2%	33	6.4%
동급생 지도	3	9.4%	14	3.5%	4	4.8%	21	4.1%
지역사회 가꾸기	5	15.6%	34	8.5%	6	7.2%	45	8.7%
지역홍보활동	4	12.5%	43	10.8%	14	16.9%	61	11.8%
지역행사지원활동	2	6.3%	11	2.8%	5	6.0%	18	3.5%
농어촌 일손돕기	8	25.0%	61	15.3%	16	19.3%	85	16.5%
전체	32	100.0%	400	100.0%	83	100.0%	515	100.0%

〈부록표 II-3-5〉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종교별)

	종교별										전체	
	기독교		가톨릭		불교		기타		없음			
관공서일손돕기	59	38.1%	15	27.8%	56	37.8%	6	42.9%	59	40.4%	195	37.7%
공공질서확립캠페인	25	16.1%	9	16.7%	24	16.2%	4	28.6%	39	26.7%	101	19.5%
교통안전캠페인	26	16.8%	10	18.5%	21	14.2%	6	42.9%	24	16.4%	87	16.8%
헌혈 및 골수 기증	9	5.8%	6	11.1%	10	6.8%	0	0.0%	11	7.5%	36	7.0%
자연보호	41	26.5%	24	44.4%	52	35.1%	6	42.9%	52	35.6%	175	33.8%
문화재보호	18	11.6%	11	20.4%	33	22.3%	2	14.3%	28	19.2%	92	17.8%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21	13.5%	3	5.6%	22	14.9%	0	0.0%	21	14.4%	67	13.0%
기업체일손돕기	26	16.8%	9	16.7%	18	12.2%	2	14.3%	24	16.4%	79	15.3%
장애인위문	51	32.9%	14	25.9%	37	25.0%	3	21.4%	36	24.7%	141	27.3%
병약자위문	17	11.0%	6	11.1%	13	8.8%	1	7.1%	19	13.0%	56	10.8%
재해구호활동	5	3.2%	1	1.9%	7	4.7%	1	7.1%	5	3.4%	19	3.7%
불우이웃돕기	45	29.0%	15	27.8%	46	31.1%	3	21.4%	36	24.7%	145	28.0%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14	9.0%	4	7.4%	18	12.2%	0	0.0%	15	10.3%	51	9.9%
공공기관 일손돕기	35	22.6%	10	18.5%	29	19.6%	5	35.7%	29	19.9%	108	20.9%
하급생 지도	28	18.1%	11	20.4%	26	17.6%	2	14.3%	19	13.0%	86	16.6%
사회교육지도	16	10.3%	6	11.1%	22	14.9%	2	14.3%	19	13.0%	65	12.6%
교통안전지도	24	15.5%	7	13.0%	23	15.5%	2	14.3%	22	15.1%	78	15.1%
고아원 위문	42	27.1%	9	16.7%	27	18.2%	2	14.3%	28	19.2%	108	20.9%
양로원 위문	28	18.1%	6	11.1%	25	16.9%	3	21.4%	22	15.1%	84	16.2%
학교주변정화활동	11	7.1%	14	25.9%	16	10.8%	1	7.1%	10	6.8%	52	10.1%
환경보전캠페인	19	12.3%	13	24.1%	34	23.0%	2	14.3%	26	17.8%	94	18.2%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14	9.0%	2	3.7%	13	8.8%	2	14.3%	11	7.5%	42	8.1%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20	12.9%	3	5.6%	14	9.5%	2	14.3%	22	15.1%	61	11.8%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19	12.3%	3	5.6%	19	12.8%	0	0.0%	19	13.0%	60	11.6%
깨끗한 환경만들기	36	23.2%	17	31.5%	44	29.7%	3	21.4%	35	24.0%	135	26.1%
지역실태조사활동	5	3.2%	2	3.7%	11	7.4%	0	0.0%	4	2.7%	22	4.3%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40	25.8%	11	20.4%	8	5.4%	2	14.3%	12	8.2%	73	14.1%
자매부대 위문	10	6.5%	4	7.4%	8	5.4%	2	14.3%	9	6.2%	33	6.4%
동급생 지도	4	2.6%	5	9.3%	7	4.7%	0	0.0%	5	3.4%	21	4.1%
지역사회 가꾸기	13	8.4%	3	5.6%	15	10.1%	2	14.3%	12	8.2%	45	8.7%
지역홍보활동	19	12.3%	8	14.8%	18	12.2%	0	0.0%	16	11.0%	61	11.8%
지역행사지원활동	4	2.6%	3	5.6%	3	2.0%	0	0.0%	8	5.5%	18	3.5%
농어촌 일손돕기	25	16.1%	6	11.1%	20	13.5%	4	28.6%	31	21.2%	86	16.6%
전체	155	100.0%	54	100.0%	148	100.0%	14	100.0%	146	100.0%	517	100.0%

〈부록표 II-3-6〉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사회인식별)

	진보-보수						전체	
	보수		진보		모름			
관공서일손돕기	98	36.6%	83	39.3%	13	40.6%	194	38.0%
공공질서확립캠페인	41	15.3%	51	24.2%	8	25.0%	100	19.6%
교통안전캠페인	44	16.4%	32	15.2%	10	31.3%	86	16.8%
헌현 및 골수 기증	18	6.7%	17	8.1%	1	3.1%	36	7.0%
자연보호	88	32.8%	74	35.1%	11	34.4%	173	33.9%
문화재 보호	53	19.8%	32	15.2%	5	15.6%	90	17.6%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37	13.8%	25	11.8%	5	15.6%	67	13.1%
기업체일손돕기	41	15.3%	31	14.7%	6	18.8%	78	15.3%
장애인위문	66	24.6%	64	30.3%	8	25.0%	138	27.0%
병약자위문	28	10.4%	26	12.3%	2	6.3%	56	11.0%
재해구호활동	9	3.4%	10	4.7%	0	0.0%	19	3.7%
불우이웃돕기	88	32.8%	49	23.2%	7	21.9%	144	28.2%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29	10.8%	20	9.5%	1	3.1%	50	9.8%
공공기관 일손돕기	58	21.6%	39	18.5%	10	31.3%	107	20.9%
하급생 지도	40	14.9%	40	19.0%	6	18.8%	86	16.8%
사회교육지도	44	16.4%	16	7.6%	5	15.6%	65	12.7%
교통안전지도	38	14.2%	35	16.6%	2	6.3%	75	14.7%
고아원 위문	54	20.1%	47	22.3%	5	15.6%	106	20.7%
양로원 위문	46	17.2%	31	14.7%	6	18.8%	83	16.2%
학교주변정화활동	28	10.4%	21	10.0%	2	6.3%	51	10.0%
환경보전캠페인	50	18.7%	37	17.5%	5	15.6%	92	18.0%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19	7.1%	18	8.5%	4	12.5%	41	8.0%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26	9.7%	29	13.7%	4	12.5%	59	11.5%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35	13.1%	21	10.0%	3	9.4%	59	11.5%
깨끗한 환경만들기	72	26.9%	55	26.1%	7	21.9%	134	26.2%
지역실태조사활동	12	4.5%	8	3.8%	2	6.3%	22	4.3%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41	15.3%	29	13.7%	3	9.4%	73	14.3%
자매부대 위문	13	4.9%	12	5.7%	8	25.0%	33	6.5%
등급생 지도	11	4.1%	8	3.8%	2	6.3%	21	4.1%
지역사회 가꾸기	22	8.2%	18	8.5%	4	12.5%	44	8.6%
지역홍보활동	37	13.8%	22	10.4%	2	6.3%	61	11.9%
지역행사지원활동	8	3.0%	10	4.7%	0	0.0%	18	3.5%
농어촌 일손돕기	38	14.2%	44	20.9%	3	9.4%	85	16.6%
전체	268	100.0%	211	100.0%	32	100.0%	511	100.0%

〈부록표 II -3-7〉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경험)

	자원봉사경험								전체	
	현재활동		과거활동		희망함		생각없음			
관공서일손돕기	10	27.0%	55	37.9%	107	37.5%	23	46.9%	195	37.8%
공공질서확립캠페인	5	13.5%	25	17.2%	58	20.4%	12	24.5%	100	19.4%
교통안전캠페인	4	10.8%	25	17.2%	49	17.2%	8	16.3%	86	16.7%
헌혈 및 골수 기증	5	13.5%	13	9.0%	15	5.3%	3	6.1%	36	7.0%
자연보호	14	37.8%	61	42.1%	91	31.9%	8	16.3%	174	33.7%
문화재보호	7	18.9%	30	20.7%	44	15.4%	11	22.4%	92	17.8%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6	16.2%	17	11.7%	39	13.7%	5	10.2%	67	13.0%
기업체일손돕기	1	2.7%	22	15.2%	44	15.4%	12	24.5%	79	15.3%
장애인취문	14	37.8%	41	28.3%	78	27.4%	8	16.3%	141	27.3%
병약자취문	4	10.8%	15	10.3%	32	11.2%	5	10.2%	56	10.9%
재해구호활동	1	2.7%	8	5.5%	8	2.8%	2	4.1%	19	3.7%
불우이웃돕기	13	35.1%	44	30.3%	81	28.4%	6	12.2%	144	27.9%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5	13.5%	9	6.2%	31	10.9%	6	12.2%	51	9.9%
공공기관 일손돕기	6	16.2%	30	20.7%	61	21.4%	11	22.4%	108	20.9%
하급생 지도	4	10.8%	19	13.1%	50	17.5%	13	26.5%	86	16.7%
사회교육지도	8	21.6%	14	9.7%	36	12.6%	7	14.3%	65	12.6%
교통안전지도	4	10.8%	21	14.5%	45	15.8%	8	16.3%	78	15.1%
고아원 위문	9	24.3%	32	22.1%	61	21.4%	6	12.2%	108	20.9%
양로원 위문	7	18.9%	24	16.6%	46	16.1%	7	14.3%	84	16.3%
학교주변정화활동	6	16.2%	20	13.8%	18	6.3%	7	14.3%	51	9.9%
환경보전캠페인	6	16.2%	26	17.9%	50	17.5%	12	24.5%	94	18.2%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1	2.7%	10	6.9%	26	9.1%	5	10.2%	42	8.1%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2	5.4%	14	9.7%	39	13.7%	6	12.2%	61	11.8%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3	8.1%	11	7.6%	37	13.0%	9	18.4%	60	11.6%
깨끗한 환경만들기	9	24.3%	33	22.8%	78	27.4%	15	30.6%	135	26.2%
지역실태조사활동	3	8.1%	5	3.4%	14	4.9%	0	0.0%	22	4.3%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10	27.0%	21	14.5%	33	11.6%	9	18.4%	73	14.1%
자매부대 위문	3	8.1%	8	5.5%	20	7.0%	2	4.1%	33	6.4%
동급생 지도	1	2.7%	7	4.8%	12	4.2%	1	2.0%	21	4.1%
지역사회 가꾸기	2	5.4%	15	10.3%	26	9.1%	2	4.1%	45	8.7%
지역홍보활동	5	13.5%	15	10.3%	38	13.3%	3	6.1%	61	11.8%
지역행사지원활동	1	2.7%	6	4.1%	10	3.5%	1	2.0%	18	3.5%
농어촌 일손돕기	6	16.2%	28	19.3%	42	14.7%	10	20.4%	86	16.7%
전체	37	100.0%	145	100.0%	285	100.0%	49	100.0%	516	100.0%

〈부록표 Ⅲ-1-1〉 자원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91	33.5%	103	18.0%	277	48.5%	571	$\chi^2=30.51$
학부모	160	30.1%	43	8.1%	329	61.8%	532	p=.000
전체	351	31.8%	146	13.2%	606	54.9%	1,103	

〈부록표 Ⅲ-1-2〉 자원봉사는 남을 동정하여 해야려 주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13	19.8%	146	25.6%	311	54.6%	570	$\chi^2=29.15$
학부모	133	25.1%	68	12.8%	329	62.1%	530	p=.000
전체	246	22.4%	214	19.5%	640	58.2%	1,100	

〈부록표 Ⅲ-1-3〉 자원봉사는 매력적인 일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86	32.6%	255	44.7%	130	22.8%	571	$\chi^2=32.29$
학부모	218	41.2%	149	28.2%	162	30.6%	529	p=.000
전체	404	36.7%	404	36.7%	292	26.5%	1,100	

〈부록표 Ⅲ-1-4〉 자원봉사는 겉치레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38	6.7%	142	25.1%	385	68.1%	565	$\chi^2=13.87$
학부모	28	5.3%	88	16.7%	412	78.0%	528	p=.001
전체	66	6.0%	230	21.0%	797	72.9%	1,093	

〈부록표 Ⅲ-1-5〉 자원봉사는 인기가 있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38	6.7%	258	45.3%	274	48.1%	570	$\chi^2=20.78$
학부모	80	15.2%	215	40.9%	231	43.9%	526	p=.000
전체	118	10.8%	473	43.2%	505	46.1%	1,096	

〈부록표 Ⅲ-1-6〉 자원봉사는 노는 것보다 재미있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73	12.8%	199	35.0%	297	52.2%	569	$\chi^2=72.11$
학부모	181	34.3%	127	24.1%	219	41.6%	527	p=.000
전체	254	23.2%	326	29.7%	516	47.1%	1,096	

〈부록표 Ⅲ-1-7〉 자원봉사는 쓸데 없는 참견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3	4.0%	99	17.3%	449	78.6%	571	$\chi^2=9.16$
학부모	16	3.0%	60	11.4%	452	85.6%	528	$p=.010$
전체	39	3.5%	159	14.5%	901	82.0%	1,099	

〈부록표 Ⅲ-1-8〉 자원봉사는 모험적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01	35.2%	207	36.3%	163	28.5%	571	$\chi^2=15.47$
학부모	173	32.8%	148	28.0%	207	39.2%	528	$p=.000$
전체	374	34.0%	355	32.3%	370	33.7%	1,099	

〈부록표 Ⅲ-1-9〉 자원봉사는 공부를 하게 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55	44.7%	205	36.0%	110	19.3%	570	$\chi^2=13.17$
학부모	349	66.0%	102	19.3%	78	14.7%	529	$p=.000$
전체	604	55.0%	307	27.9%	188	17.1%	1,099	

〈부록표 Ⅲ-1-10〉 자원봉사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04	35.7%	222	38.9%	145	25.4%	571	$\chi^2=26.10$
학부모	226	43.0%	129	24.5%	171	32.5%	528	$p=.000$
전체	430	39.2%	351	32.0%	316	28.8%	1,097	

〈부록표 Ⅲ-1-11〉 자원봉사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312	54.7%	134	23.5%	124	21.8%	570	$\chi^2=33.43$
학부모	306	57.4%	60	11.3%	167	31.3%	533	$p=.000$
전체	618	56.0%	194	17.6%	291	26.4%	1,103	

〈부록표 Ⅲ-1-12〉 자원봉사는 무보수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390	68.7%	139	24.5%	39	6.9%	568	$\chi^2=11.52$
학부모	421	79.6%	60	11.3%	48	9.1%	529	$p=.003$
전체	811	73.9%	199	18.1%	87	7.9%	1,097	

〈부록표 Ⅲ-1-13〉 자원봉사는 강제적인 것이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47	8.3%	78	13.7%	444	78.0%	569	$\chi^2=11.52$
학부모	31	5.8%	44	8.3%	455	85.8%	530	p=.003
전체	78	7.1%	122	11.1%	899	81.8%	1,099	

〈부록표 Ⅲ-1-14〉 자원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453	79. 8%	97	17. 1%	18	3. 2%	568	$\chi^2=19. 60$
학부모	466	88. 3%	43	8. 1%	19	3. 6%	528	p=. 003
전체	919	83. 9%	140	12. 8%	37	3. 4%	1, 096	

〈부록표 Ⅲ-1-15〉 자원봉사는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잘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380	66.5%	145	25.4%	46	8.1%	571	$\chi^2=37.02$
학부모	439	82.1%	64	12.0%	32	6.0%	535	p=.000
전체	819	74.1%	209	18.9%	78	7.1%	1,106	

〈부록표 Ⅲ-2-1〉 당신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활동	과거활동	희망함	생각없음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84 14.7%	167 29.2%	254 44.4%	67 11.7%	572	$\chi^2=23.49$
학부모	38 7.0%	147 27.2%	302 55.9%	53 9.8%	540	$p=.000$
전체	122 11.0%	314 28.2%	556 50.0%	120 10.8%	1,112	

〈부록표 Ⅲ-2-2〉 당신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일반교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성직/취업반영을 위해	근란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32 5.7%	63 11.3%	58 10.4%	16 2.9%	20 3.6%	20 3.6%	214 38.4%	135 24.2%	568	$\chi^2=275.43$
학부모	29 5.5%	203 38.2%	59 11.1%	6 1.1%	19 3.6%	69 13.0%	16 3.0%	130 24.5%	531	$p=.000$
전체	61 5.6%	266 24.4%	117 10.7%	22 2.0%	39 3.6%	89 8.2%	230 21.1%	265 24.3%	1,089	

〈부록표 Ⅲ-2-3〉 당신은 자원봉사활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희생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 것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	경제/시간 여유가 있어 여가를 활용하는 것	경험축적으로 자신의 성장 도모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40 42.3%	189 33.3%	30 5.3%	109 19.2%	568	$\chi^2=30.77$
학부모	197 36.6%	260 48.3%	22 4.1%	59 11.0%	538	$p=.000$
전체	437 39.5%	449 40.6%	52 4.7%	168 15.2%	1,106	

〈부록표 Ⅲ-2-4〉 당신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483	85.6%	81	14.4%	564 $\chi^2=10.83$
학부모	462	92.2%	39	7.8%	501 $p=.001$
전체	945	88.7%	120	11.3%	1,065

〈부록표 Ⅲ-2-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부모-청소년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새로운 경험과 기술습득을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원만한 대인관계 사회성 함양을 위해		사회성으로서의 책임감을 자각 하게 되므로		전체	통계치
16	3.3%	77	36.4%	71	14.6%	38	7.8%	98	20.2%	86	17.7%	486	$\chi^2=42.55$
26	5.1%	250	49.5%	22	4.4%	31	6.1%	83	16.4%	93	18.4%	505	p=.000
42	4.2%	427	43.1%	93	9.4%	69	7.0%	181	18.3%	179	18.1%	991	

〈부록표 Ⅲ-2-6〉 당신이 (의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기를 바랍니까?

학교나 담당선생님		청소년자원봉사 전문기관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		청소년관련 전문소식지		지역신문이나 알림란		컴퓨터 통신	기타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80	42.2%	86	20.1%	63	14.8%	28	6.6%	31	7.3%	19	4.4%	427	$\chi^2=32.40$
학부모	279	52.3%	113	21.2%	81	15.2%	20	3.8%	18	3.4%	3	0.6%	533	p=.000
전체	459	47.8%	199	20.7%	144	15.0%	48	5.0%	49	5.1%	22	2.3%	960	

〈부록표 Ⅲ-2-7〉 당신이(의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공부시간이 비뺌	정보부족	기술이나 지식부족	활동정소를		매력적인 활동이 없음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두려움	전체	통계치
				모름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98 34.7%	95 16.7%	86 15.1%	106 18.6%	40 7.0%	45 7.9%	570	$\chi^2=20.97$	
학부모	229 42.9%	84 15.7%	96 18.0%	79 14.8%	14 2.6%	32 6.0%	534	p=.000	
전체	427 38.7%	179 16.2%	182 16.5%	185 16.8%	54 4.9%	77 7.0%	1,104		

〈부록표 Ⅲ-2-8〉 당신이(의 자녀가)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하기를 원하십니까?

	일손돕기 활동	위문활동	지도상담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 활동	지역사회 개발 활동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75 30.8%	136 23.9%	45 7.9%	78 13.7%	21 3.7%	91 16.0%	22 3.9%	568	$\chi^2=28.68$
학부모	129 24.2%	92 17.3%	57 10.7%	85 15.9%	35 6.6%	88 16.5%	47 8.8%	533	p=.000
전체	304 27.6%	228 20.7%	102 9.3%	163 14.8%	56 5.1%	179 16.3%	69 6.3%	1,101	

〈부록표 Ⅲ-2-9〉 당신이(의 자녀가) 자원봉사를 할 경우 아래 중 가장 참가하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관공서	공공기관	종교사회단체	복지기관시설	문화예술시설	체육관광시설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전체	통계치
							청소년단체	기업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81 14.3%	23 4.1%	37 6.5%	160 28.3%	96 17.0%	60 10.6%	98 17.3%	10 1.8%	565	$\chi^2=80.23$
학부모	100 18.9%	36 6.8%	65 12.3%	178 33.6%	90 17.0%	17 3.2%	26 4.9%	17 3.2%	529	p=.000
전체	181 16.5%	59 5.4%	102 9.3%	338 30.9%	186 17.0%	77 7.0%	124 11.3%	27 2.5%	1,094	

〈부록표 Ⅲ-2-10〉 청소년이 자원봉사를 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학기중의 수업시간	평일 방과후	학기 중의 공휴일		방학 중	학기 중의 토요일	언제든지 가능	전체	통계치
		학기 중의 공휴일	방학 중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11 19.6%	19 3.4%	37 6.5%	293 51.7%	70 12.3%	37 6.5%	567	$\chi^2=77.69$
학부모	24 4.5%	16 3.0%	71 13.3%	338 63.2%	70 13.1%	16 3.0%	535	p=.000
전체	135 12.3%	35 3.2%	108 9.8%	631 57.3%	140 12.7%	53 4.8%	1,102	

〈부록표 Ⅲ-2-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형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니까?

개인적으로	교내특별행사나 동아리 중심	청소년단체와 함께		자원봉사센터나 기관을 통해	학교 전체	기타	전체	통계치
		청소년단체와 함께	자원봉사센터나 기관을 통해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86 15.2%	202 35.7%	118 20.8%	65 11.5%	70 12.4%	25 4.4%	566	$\chi^2=68.55$
학부모	22 4.1%	186 34.6%	104 19.4%	100 18.6%	118 22.0%	7 1.3%	537	p=.000
전체	108 9.8%	388 35.2%	222 20.1%	165 15.0%	188 17.0%	32 2.9%	1,103	

〈부록표 Ⅲ-2-1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청소년	찬성		반대		전체	통계치
	찬성	잘모르겠다	반대	잘모르겠다		
청소년	203 36.1%	92 16.3%	268 47.6%	563		$\chi^2=3.48$
학부모	174 34.7%	104 20.8%	223 44.5%	501		p=.174
전체	377 35.4%	196 18.4%	491 46.1%	1,064		

〈부록표 Ⅲ-2-13〉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업성적위주에서 노력에 대한 청소년자원봉사의 벗어날 수 있기 보상이 주어져야 활성화를 위해 때문에 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학부모	전체	χ ² =7.38	p=.060		
	76	35.5%	44	20.6%	83	38.8%	11	5.1%
	75	30.5%	34	13.8%	124	50.4%	13	5.3%
전체	151	32.8%	78	17.0%	207	45.0%	24	5.2%
					460			

〈부록표 Ⅲ-2-14〉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정한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고 활동을 할 사회적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학부모	전체	χ ² =30.44	p=.000												
	51	16.9%	38	12.6%	188	62.5%	9	3.0%	8	2.7%	7	2.3%	301					
	52	15.8%	53	16.1%	167	50.8%	11	3.3%	44	13.4%	2	0.6%	329					
전체	103	16.3%	91	14.4%	355	56.3%	20	3.2%	52	8.3%	9	1.4%	630					

〈부록표 Ⅲ-2-1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자신			담임선생님			자원봉사센터 나 기구			자원봉사담당 지도자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시설이나 기관			학생/센터/활동처 모두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학부모	전체	χ ² =29.55	p=.000														
	173	30.5%	44	7.7%	45	7.9%	60	10.6%	91	16.0%	155	27.3%	568							
	99	18.4%	53	9.9%	59	11.0%	40	7.4%	97	18.1%	189	35.2%	537							
전체	272	24.6%	97	8.8%	104	9.4%	100	9.0%	188	17.0%	344	31.1%	1,105							

〈부록표 Ⅲ-2-16〉 향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 확립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청소년자원 봉사 활동의 경력 인정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입시 및 취직시 청소년자원 봉사활동의 우대혜택 마련	청소년자원 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기구 설립	주5일제 수업 실시	자원봉사 활동 대상 기관의 개방 및 적극적인 경비 지원 요청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105 18.6%	21 3.7%	125 22.1%	21 3.7%	39 6.9%	202 35.7%	37 6.5%	16 2.8%	566 $\chi^2=140.17$
학부모	152 28.6%	21 4.0%	166 31.3%	30 5.6%	66 12.4%	35 6.6%	43 8.1%	18 3.4%	531 p=.000
전체	257 23.4%	42 3.8%	291 26.5%	51 4.6%	105 9.6%	237 21.6%	80 7.3%	34 3.1%	1,097

〈부록표 Ⅲ-2-17〉 학교외에 자원봉사 소개기관이 있다면 당신은 (자녀를) 활동에 참가하(시키)고 싶습니까?

	참가하고 싶다	잘모르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32 40.6%	269 47.1%	70 12.3%	571	$\chi^2=52.93$
학부모	336 62.3%	167 31.0%	36 6.7%	539	p=.000
전체	568 51.2%	436 39.3%	106 9.5%	1,110	

〈부록표 Ⅲ-2-18〉학교외에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당신은 (자녀를) 이용하(시키)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싶다	잘모르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전체	통계치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299 52.5%	207 36.3%	64 11.2%	570	$\chi^2=5.08$
학부모	315 59.0%	172 32.2%	47 8.8%	534	p=.078
전체	614 55.6%	379 34.3%	111 10.1%	1,104	

〈부록표 Ⅲ-2-19〉 청소년 자원봉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 주길 바랍니까?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자원봉사관련		기타		전체		통계치	
	희망자에 대해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는 장소나	희망자	도와줄	지도자	프로그램	육성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기술이나 지식 등의	상담을 함	정보를 제공함	기회를 알선함	등록제도 실시															
	교육기회를 줌																			
학부모-청소년																				
청소년	91	19.6%	40	8.6%	140	30.1%	137	29.5%	17	3.7%	23	4.9%	14	3.0%	3	0.6%	465	$\chi^2=31.36$		
학부모	137	28.8%	59	12.4%	97	20.4%	107	22.5%	12	2.5%	33	6.9%	21	4.4%	9	1.9%	475	p=.000		
전체	228	24.3%	99	10.5%	237	25.2%	244	26.0%	29	3.1%	56	6.0%	35	3.7%	12	1.3%	940			

〈부록표 Ⅲ-3-1〉 가장 시키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학부모-청소년				전체	
	청소년		학부모			
관공서일손돕기	181	32.0%	195	37.7%	376	34.8%
공공질서확립캠페인	49	8.7%	101	19.5%	150	13.9%
교통안전캠페인	65	11.5%	87	16.8%	152	14.0%
헌혈 및 골수 기증	96	17.0%	36	7.0%	132	12.2%
자연보호	106	18.8%	175	33.8%	281	26.0%
문화재보호	89	15.8%	92	17.8%	181	16.7%
청소년수련시설/단체						
일손돕기	90	15.9%	67	13.0%	157	14.5%
기업제일손돕기	130	23.0%	79	15.3%	209	19.3%
장애인위문	108	19.1%	141	27.3%	249	23.0%
병약자위문	65	11.5%	56	10.8%	121	11.2%
재해구호활동	23	4.1%	19	3.7%	42	3.9%
불우이웃돕기	93	16.5%	145	28.0%	238	22.0%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89	15.8%	51	9.9%	140	12.9%
공공기관 일손돕기	126	22.3%	108	20.9%	234	21.6%
하급생 지도	216	38.2%	86	16.6%	302	27.9%
사회교육지도	126	22.3%	65	12.6%	191	17.7%
교통안전지도	46	8.1%	78	15.1%	124	11.5%
고아원 위문	125	22.1%	108	20.9%	233	21.5%
양로원 위문	52	9.2%	84	16.2%	136	12.6%
학교주변정화활동	46	8.1%	52	10.1%	98	9.1%
환경보전캠페인	95	16.8%	94	18.2%	189	17.5%
체육관광시설 일손돕기	66	11.7%	42	8.1%	108	10.0%
복지기관시설 일손돕기	76	13.5%	61	11.8%	137	12.7%
문화예술시설 일손돕기	101	17.9%	60	11.6%	161	14.9%
깨끗한 환경만들기	87	15.4%	135	26.1%	222	20.5%
지역실태조사활동	22	3.9%	22	4.3%	44	4.1%
종교사회단체일손돕기	59	10.4%	73	14.1%	132	12.2%
자매부대 위문	69	12.2%	33	6.4%	102	9.4%
동급생 지도	70	12.4%	21	4.1%	91	8.4%
지역사회 가꾸기	39	6.9%	45	8.7%	84	7.8%
지역홍보활동	58	10.3%	61	11.8%	119	11.0%
지역행사지원활동	31	5.5%	18	3.5%	49	4.5%
농어촌 일손돕기	120	21.2%	86	16.6%	206	19.0%
전체	565	100.0%	517	100.0%	1,082	100.0%